

스토리
텔링

나무로 부터 듣는 창녕이야기



창녕문화원

008 발간사 창녕문화원장_ 이수영

010 축사 창녕군수_ 한정우 / 창녕군의회회의장_ 이철봉

창녕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나무들

014 역사를 품은 노거수(보호수)들

나무로부터 듣는 숨은 이야기들

01

자연과
역사를 품은 나무들
간직한

도심/습지



072 옛 창녕현, 동헌의 주인 팽나무_ 김동주

075 만옥정 공원의 터줏대감 벚나무_ 김동주

078 “창녕의 물” 이야기를 전하는 만옥정 나무들_ 한삼윤

082 송현리의 수호신 당산나무_ 김동주

085 오케이(OK) 부자 할매집 소나무_ 김동주

087 초막골의 비극을 목도한 회화나무_ 김동주

089 내야역참(內野驛站)의 회화나무와 은행나무_ 김동주

092 창녕읍 도야리 보호수 회화나무_ 김동주

094 창녕석빙고 수문장 소나무_ 한삼윤

097 퇴천리 뚝방길 물푸레나무_ 최수길

099 탐하리 정자걸 느티나무_ 최수길

101 골옹마을 회화나무_ 최수길

103 초막골의 상흔을 안고 사는 소나무와 의리나무_ 최수길



- 105 이남리 성황당 회화나무_ 최수길
- 107 외부리 느티나무_ 최수길
- 109 어도리 수장 회화나무_ 최수길
- 110 회산의 느티나무, 은행나무 군락_ 최수길
- 112 옥천리 당산 소나무_ 최수길
- 114 노단이마을 수호목 느티나무_ 최수길
- 116 노단이 연리지_ 최수길
- 118 담안마을 느티나무_ 최수길
- 120 옥천리 관문 느티나무_ 최수길
- 121 신촌리 이팝나무_ 최수길
- 123 환곡 중담 팽나무_ 최수길
- 125 삼우재 느티나무와 은행나무_ 최수길
- 126 소야리 팽나무_ 노용호
- 128 평지리의 할배, 할매나무_ 노용호
- 130 우포늪 관봉산 대통령의 밤나무 _ 노용호
- 132 태고의 이야기를 품은 우포늪 팽나무와 왕버들 군락_ 노용호
- 136 유어 가항 수향 덧목마을 소나무와 느티나무_ 김동주
- 139 유어 팔락정(八樂亭) 성황당목_ 한삼윤
- 142 6.25격전지 대초 왕버들 군락_ 성두철
- 146 김천 만취정 이팝(쌀밥)나무 등_ 성두철
- 151 대지면 구미 관찰사길 회화나무_ 성두철



- 154 대지면 원동 한양 길 이정표 느티나무_ 성두철
- 157 대학총장 형제를 배출한 미락 해송 사라지다_ 성두철
- 160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왕미 상수리나무_ 성두철
- 164 성씨 고가를 지키는 석동 느티나무_ 성두철
- 170 사말포 제방을 지킨 학성 노송(老松)_ 성두철
- 175 용소리 적덕(積德) 회화나무_ 성두철
- 179 잉어산 맥산재의 보호수 느티나무_ 성두철
- 183 귀동 효자마을의 팽나무_ 성두철

02

전통과 고풍을 있는 나무들

산간/오지



-
- 190 한강 정구선생의 얼이서린 은행나무_ 성낙은
 - 194 군목(郡木)이 된 고암 계팔(야동) 은행나무_ 유영숙
 - 196 창밀로의 명품 무궁화길_ 유영숙
 - 198 고암 신기마을의 정자목 팽나무_ 유영숙
 - 200 육세팔효(六世八孝)의 비각을 품은 송림_ 장후돈
 - 205 대유학자를 배출한 원촌의 은행나무_ 장후돈
 - 208 도암재(道岩齋)와 일원각(一源閣) 보호수_ 조병암
 - 216 냉천, 이천마을을 지켜온 보호수들_ 김화영
 - 220 광천마을 동신 소나무와 미역바위 전설_ 김화영
 - 222 운봉마을 당산목 느티나무_ 김화영
 - 224 연당리 한정지 느티나무와 연화각시 설화_ 김화영



- 227 대산리 당산목 연리지와 안심동 관기봉의 신이한 나무 설화_ 김화영
- 233 의병장 박극을 지키는 느티나무_ 김화영
- 235 가북마을의 당산 정자나무_ 김화영
- 238 길곡면 오호리 느티나무와 덧나무_ 김부열
- 241 금곡마을 어르신 정자나무_ 이선조
- 242 내동마을의 상징 서낭나무_ 이선조
- 244 동점마을의 수호신 정자나무_ 이선조
- 246 북마마을의 지킴이 느티나무_ 이선조
- 248 상길마을의 보호수 정자나무_ 이선조
- 251 하내마을의 보호수 회화나무_ 이선조
- 253 홀로 남은 사등마을의 수장 포구나무_ 이선조
- 254 길곡면 경덕서당 배롱나무_ 김부열
- 257 길곡면 창녕보를 지켜보는 소나무_ 김부열

03

애환과
역경을
이겨낸
나무들

강변/야토

-
- 262 낙동강 남지읍 피수대와 남포동 느티나무_ 김부열
 - 266 남지제방 축조를 지켜본 은행나무_ 한삼윤
 - 270 남지읍 남지경로당 느티나무_ 김부열
 - 273 남지읍 동포동 적산가옥과 줄가시나무_ 김부열
 - 276 남지읍 동포초등학교 호랑가시나무_ 김부열



- 279 남지읍 박정희 대통령과 사랑의 마을 느티나무_ 김부열
- 282 남지철교와 500년 된 은행나무_ 김부열
- 288 교육공동체가 살린 남지초등학교 플라타너스 나무_ 김부열
- 292 부자동네 명암을 지켜본 명지마을 느티나무_ 김부열
- 294 상대포 영남수리조합 느티나무_ 김부열
- 298 성사고개 아지마을 느티나무_ 김부열
- 302 남지읍 반포초등학교 플라타너스 나무_ 김부열
- 306 남지읍 반포마을 느티나무 세 그루_ 김부열
- 309 6.25전쟁을 들려준 대곡마을 느티나무_ 김부열
- 314 용산리 간송(澗松) 조임도(趙壬道)선생과 자미화(紫微花)_ 박태명
- 319 남지읍 월상 박진전쟁기념관 앞 팽나무_ 김부열
- 325 장마면 대봉전투와 미군 살린 느티나무_ 김부열
- 329 장마면 대봉늪과 왕버들_ 김부열
- 333 월영마을 옛 신사터, 당산나무_ 김부열
- 336 무정치(無情峙)설화를 품은 예리 팽나무와 느티나무_ 한삼윤
- 341 도천면 호국충정 무궁화 백리길_ 김부열
- 344 도천면 도천수문과 팽나무_ 김부열
- 348 도천면 망우정의 팽나무_ 김부열
- 354 망우당의 냇을 기리는 여현정의 느티나무_ 한삼윤
- 357 효자 박성민이야기를 전하는 덕곡리 팽나무_ 한삼윤
- 359 국도5호선이 보이는 낙동강 버들숲_ 김부열



- 363 도천면 옛날 도천향현사 은행나무_ 김부열
- 367 계성 사리 배롱나무군_ 한삼윤
- 369 불빛을 뿜었다는 계성리 당산목 느티나무_ 배종만
- 371 영산면 연지못, 수양벚나무_ 김부열
- 375 영산면 성내리 600년 팽나무와 만년교 수양벚꽃_ 김부열
- 380 600여년을 지켜 온 영산읍성 수호목 팽나무_ 한삼윤
- 386 정선공주와 연을 맺은 부곡면 구산리 당산목 느티나무_ 남중희
- 389 장마면 고인돌을 지키는 소나무_ 김부열
- 393 동정리의 수호신 느티나무_ 우오도
- 397 장마 초곡 당산목 회화나무 군락_ 한삼윤
- 398 도천면 송진 쇠나루 느티나무(1)_ 김부열
- 401 도천면 송진 쇠나루 느티나무(2)_ 한삼윤
- 403 임진란과 6.25 낙동강 전투를 지켜본 남지읍 개비리 소나무_ 김부열
- 409 남지 개비리길 팽나무 연리목_ 유영숙
- 410 장마 봉화마을 마구고개 팽나무_ 박영국
- 411 장마 봉화마을 당산목 느티나무_ 박영국
- 412 장마 하강마을 당산목 느티나무_ 박영국
- 413 장마 하동마을 당산나무_ 박영국

414 편집후기

● 발 간 사 ●



이수영
창녕문화원장

이번에 우리 창녕문화원에서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란 제목으로 소중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창녕문화가족을 비롯한 모든 군민, 출향인사 여러분과 더불어 다함께 자축합니다.

먼저 이 책자가 완성되기 까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뒷받침해 주신 한정우 군수님과 이철봉 군의회의장님,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을 누비며 자료수집과 스토리 채록, 사진 촬영 등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향토사연구소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회원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나무는 지혜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특히 마을 보호수는 예로부터 신목(神木)으로 섬길 만큼 예경의 대상이 돼 왔으며 마을주민들의 갖은 애환과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전통적으로 나무를 통해 상생을 추구하면서 지혜를 배우고 섬김과 나눔, 화합과 안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무는 우리의 지난 역사를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은 자연, 온천, 문화의 3대 자원을 간직한 천혜의 고도입니다. 임진왜란 시 망우당 광재우 장군의 전승지이며 3.1독립운동의 성지일 뿐 아니라 6.25한국전쟁 낙동강전투의 최후 보루로서 호국충절의 얼이 서린 고장입니다. 마을마다 골짜기 마다 지난 역사를 머금고 있는 나무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모르는 숨은 얘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에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지난 역사와 전설, 설화, 민담과 조상님들의 슬기로운 이야기들이 나무와 함께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록들은 앞으로 창녕의 향토사로 길이 보전되고 전승될 것입니다.

흔히들 ‘문화’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를 지키고 가꾸는 일은 고유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또 다른 우리들의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기록이 됨으로 인해 기억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나무를 통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는데 이 책자가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책자가 나오기 까지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필에 애써 주신 향토사연구위원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에도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향토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창녕문화원장 이수영

• 축 사 •



한 정 우
창녕군수

건전한 향토문화 창달과 군민의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창녕문화원의 향토지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 발간을 군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 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군민들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수영 창녕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송(白松)으로 손꼽히는 헌법재판소의 600여년이 넘는 백송(白松)은 갑신정변 주역인 홍영식의 집 터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 한성고등여학교,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차례로 맞은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이처럼 노거수(老巨樹)는 유구한 역사와 변화를 오랜 세월 묵묵히 지켜보아온 존재로 지역의 당산목(堂山木), 풍치목(風致木), 정자목(亭子木) 등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당제목(堂祭木), 신목(神木)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창녕의 마을·마을마다 우리들의 삶과 함께한 노거수(老巨樹)들은 수많은 인물과 설화, 민담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나무가 품고 있는 사연과 함께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고유한 지역문화와 향토애를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책자 발간이 향토문화발전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 운동의 확산에 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창녕군수 **한정우**

• 축 사 •



이철봉
창녕군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군의회 의장 이철봉입니다.

우리 창녕의 지난날의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로운 이야기들을 나무와 함께 담아낸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섭리는 변치 않고, 벌써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이 저물고 임인년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 발간으로 나무와 관련된 창녕의 인물·역사·전설 등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묻혀져 있던 오래된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군민들에게 훌륭한 읽을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큰 공부가 될 것이며, 자부심을 키워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 수집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며 책자 완성을 위해 애써주신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님과 집필 위원님, 항상 창녕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영 창녕문화원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거수’ 나무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함께하며 마을마다 나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양한 특색의 스토리를 간직한 채 지금까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의 발간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녕문화를 담은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녕군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창녕군의회 의장 이철봉



스토리텔링 ●○○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

창녕의 역사가 나무를 깃든 소중한

| 창녕의 역사를 품은 노거수(보호수)

| 나무로부터 듣는 숨은 이야기들

1. 자연과 역사를 간직한 나무들
2. 전통과 고풍을 잇는 나무들
3. 애환과 역경을 이겨낸 나무들

창녕의 역사를 품은 노거수(보호수)

‘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를 일러 사람들은 ‘노거수(老巨樹)’라 부르며 보호해 왔다.
지금까지 전국에 걸쳐 약 1만 5천여 그루의 노거수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창녕지역의 마을 노거수는 오랜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심고 가꾸온 마을의 신목(神木)이다. 지역마다 마을 사람들과 긴밀하고 친숙한 교감을 통해 삶의 애환을 함께해 왔다. 일찍부터 개인과 가족의 화평과 소원성취, 마을의 안녕과 번영, 나아가 지역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구가해 준다는 강한 믿음으로 영험 있는 신목(神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주민들의 화합과 친교, 심신의 휴식, 나눔과 배려를 통해 사람과 자연간의 상생과 소통의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무를 보호해 왔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나무가 사람을 보호해 주는 마을의 보호수, 지킴이 역할이 증대 되었다. 나무에는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다. 나무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역사와 인물, 전설, 설화, 민담, 얘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콘텐츠다. 나무속에는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응축되어 있다. 말없이 우뚝 서 있는 노거수는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자연 문화유산이다. 나무는 하늘의 기운인 ‘천기(天氣)’와 땅의 기운인 ‘지기(地氣)’를 먹고 자란다. ‘인걸지령(人傑地靈)’이란 말이 있다. 인걸은 영검이 있는 땅에서 난다. 천지(天地)의 기운(氣運)을 머금고 자란 살아있는 나무는 사람을 온전하게 품고 산다. 사람과 나무, 나무와 사람은 불가분의 상생관계다. 자고로 오래되어 굵고 큰 나무를 ‘거목(巨木)’이라 불렀다. 거목은 ‘위대한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나무가 전해주는 ‘무정설법(無情說法)’의 이치를 모두다 글로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크다. 해설이 없는 어려운 부분은 사진으로나마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얘기를 남긴다.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 이야기’는 곧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2021년 말 현재 창녕군에서 마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총 7개 수종으로, 48개 지역, 60여 본에 이른다. 14개 읍면 중 12개 읍면에 보호수가 자리하고 있다.(유어면, 장마면 미 지정)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으며(27), 팽나무(7), 은행나무(5), 회화나무(4), 이팝나무(3), 소나무(1), 왕버들(1) 순이다.

이들 보호수들은 저마다 상징적인 독특한 꽃말을 지니고 있다. 보호수로서 가장 많은 느티나무의 꽃말은 ‘운명’이다. 또한 느티나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팽나무는 봄에 가장 늦게 싹이 나오는 수종으로 ‘고귀함’을 꽃말로 한다. 창녕군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의 꽃말은 ‘장수’와 ‘장엄’, ‘정숙’을 자랑한다. 회화나무는 ‘망향’이며, 이팝나무는 ‘영원한 사랑’이다. 한국인의 기상이 서려 있는 소나무는 ‘불로장수’를 상징한다. 세계적인 명소 우포 늪 등 저습지등에 자생하는 왕 버들은 ‘자유’와 ‘솔직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약 40여 년 전인 1982년도에 최초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31개소이며 가장 최근에 지정된 연도는 2018년이다. 앞으로 보호수로 추가 지정돼야 할 나무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

보호수 유형은 정자목(21)과 당산목(19)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풍치목(6)과 명목(1), 보목(1) 등이다. 최고 수령의 나무는 영산면 성내리 팽나무와 대지면 모산리 느티나무로서 두 곳 공히 수령 674년을 자랑한다. 지정 보호수 중 가장 나이가 적은 나무는 이방면 안리 왕버들과 영산면 월령리 느티나무로서 공히 198년이다.

마을의 당산나무는 곧 그 마을의 ‘신단수(神壇樹)’와 다름없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당산나무를 천상과 지상세계를 이어주는 기둥으로 여겨 경건과 거룩함의 상징으로 치부해 왔다. 지금도 농촌 지역 적지 않은 마을에선 해마다 지정된 날짜, 시간에 목욕재계 후 마을 보호수 등에 대해 제를 올린다. 신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하나같이 하늘같은 참 마음이다.

‘신단수’를 삼국유사에서는 ‘신단수(神壇樹)’로, 평평한 ‘단(壇)’자로 썼다. 그러나 제왕운기에는 박달나무 ‘단(檀)’자를 써서 신단수(神壇樹)로 표기해 온 것이 이색적이다. 우리 조상들은 ‘당산(堂山)’의 의미를 하늘과 땅을 잇는 소통의 매체로 여겨왔다. ‘당산’을 ‘우주’로, ‘당산 목’을 ‘우주 목’이라고도 불러 온 사실도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I 창녕군 보호수 지정현황

2021년 12월 현재

번호	읍면	리	수종	수령(년)
1	창녕	외부	느티나무	574
2	창녕	도야	회화나무	274
3	창녕	신촌	이팝나무	224
4	영산	죽사	느티나무	374
5	도천	우강	느티나무	374
6	도천	도천	은행나무	474
7	길곡	길곡	느티나무	474
8	길곡	오호	느티나무	274
9	길곡	마천	느티나무	224
10	부곡	수다	느티나무	334
11	남지	아지	느티나무	524
12	남지	반포	느티나무	324
13	고암	원촌	은행나무	574
14	고암	계상	은행나무	424
15	고암	중대	회화나무	374
16	대지	모산	느티나무	674
17	성산	냉천	느티나무	324
18	대합	등지	느티나무	274
19	대합	소야	팽나무	324
20	대합	평지	팽나무	224
21	대합	평지	느티나무	224
22	성산	운봉	느티나무	474
23	이방	안	느티나무	374
24	이방	성산	느티나무	224

번호	읍면	리	수종	수령(년)
25	이방	현창	느티나무	524
26	대지	구미	회화나무	324
27	대지	석	느티나무	274
28	대지	용소	회화나무	204
29	영산	성내	팽나무	674
30	계성	계성	느티나무	374
31	이방	동산	은행나무	574
32	영산	월령	느티나무	198
33	성산	연당	느티나무	461
34	성산	냉천	느티나무	298
35	대합	평지	이팝나무	348
36	이방	안	왕버들	198
37	대지	석	이팝나무	348
38	대지	효정	팽나무	348
39	고암	계상	느티나무	390
40	고암	감	느티나무	340
41	영산	죽사	소나무	324
42	도천	어만	느티나무	424
43	부곡	부곡	팽나무	322
44	성산	냉천	은행나무	320
45	계성	광계	느티나무	312
46	고암	계상	팽나무	312
47	성산	방리	느티나무	303
48	고암	계상	팽나무	203

01

[느티나무] 창녕읍 외부리 1035-3



수령 57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02

[회화나무] 창녕읍 도야리 653



수령 2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03

[이팝나무] 창녕읍 신촌리 산100



수령 22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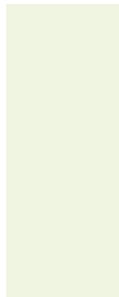
[느티나무] 영산면 죽사리 864



수령 37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05

[느티나무] 도천면 우강리 산77



수령 3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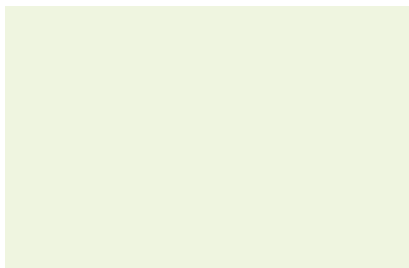
[은행나무] 도천면 도천리 263



수령 47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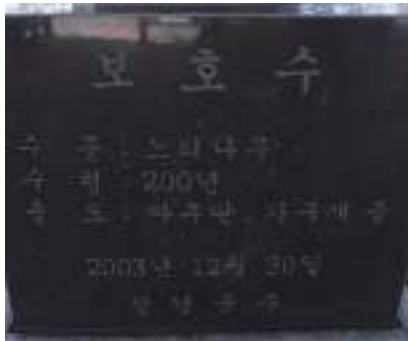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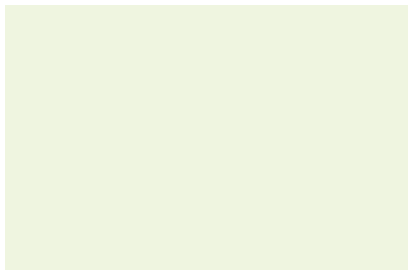
[느티나무] 길곡면 길곡리 407-2



수령 47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08

[느티나무] 길곡면 오호리 365



수령 27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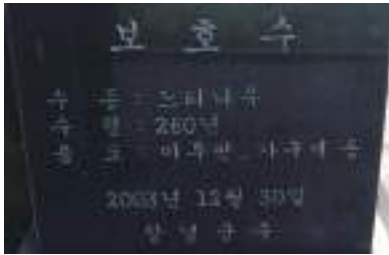
[느티나무] 길곡면 마천리 1404



수령 22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0

[느티나무] 부곡면 수다리 643



수령 334년, 풍치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1

[느티나무] 남지읍 아지리 907



수령 52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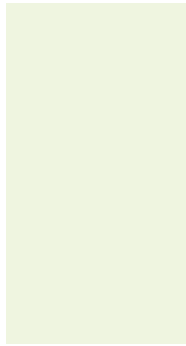
[느티나무] 남지읍 반포리 142-1



수령 32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3

[은행나무] 고암면 원촌리 197



수령 5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4

[은행나무] 고암면 계상리 824



수령 42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5

[회화나무] 고암면 중대리 284



수령 3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6

[느티나무] 대지면 모산리 504



수령 6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7

[느티나무] 성산면 냉천리 358-7



수령 298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8

[느티나무] 대합면 등지리 952-3



수령 27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19

[팽나무] 대합면 소야리 산40



수령 32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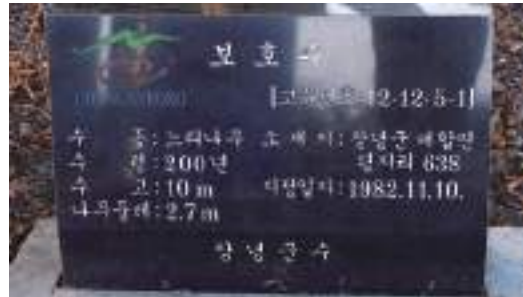
[팽나무] 대합면 평지리 631



수령 22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1

[느티나무] 대합면 평지리 631



수령 22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2

[느티나무] 성산면 운봉리 924



수령 4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3

[느티나무] 이방면 안리 859-1



수령 3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4

[느티나무] 이방면 성산리 170-2



수령 22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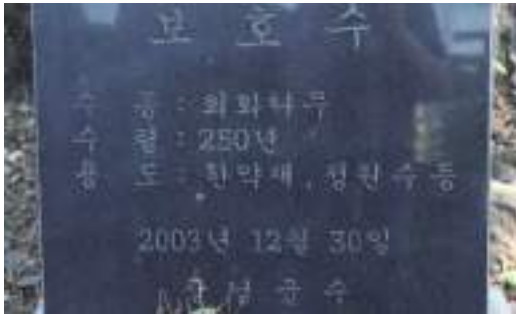
[느티나무] 이방면 현창리 390-1



수령 52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6

[회화나무] 대지면 구미리 111



수령 32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7

[느티나무] 대지면 석리 332-1



수령 2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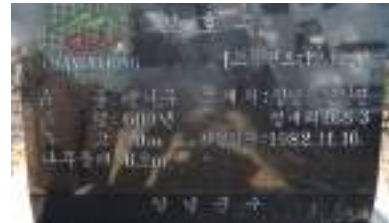
[회화나무] 대지면 용소리 672-2



수령 20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29

[팽나무] 영산면 성내리 468-3



수령 674년, 정자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30

[느티나무] 계성면 계성리 1316



수령 374년, 당산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31

[은행나무] 이방면 동산리 957-1



수령 574년, 명목 / 1982. 11. 10 보호수 지정

32

[느티나무] 영산면 월령리 1160



수령 198년, 정자목 / 1995. 8. 25 보호수 지정

33

[느티나무] 성산면 연당리 228



수령 461년, 정자목 / 1995. 8. 25 보호수 지정

34

[느티나무] 성산면 냉천리2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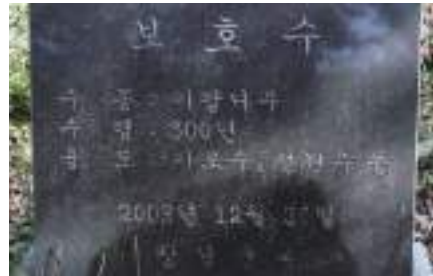
보호수
【고유번호:12-12-42-1】
LIJANONTERONG
종:느티나무 소재지:창녕군, 성산면
수령:250년 수령회:2014
수고:20m 지정일자:1995.08.26
나무둘레:3.5m
냉천리245-4



수령 298년, 정자목 / 1995. 8. 25 보호수 지정

35

[이팝나무] 대합면 평지리 702임



수령 348년, 풍치목 / 1995. 8. 25 보호수 지정

36

[왕버들] 이방면 안리 1247-1



수령 198년, 정자목 / 1995. 8. 25 보호수 지정

37

[이팝나무] 대지면 석리 253



수령 348년, 풍치목 / 1995. 8. 25 보호수 지정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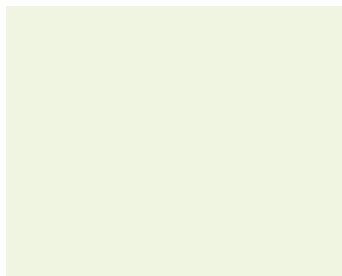
[팽나무] 대지면 효정리 산57



수령 348년, 당산목 / 1995. 8. 25 보호수 지정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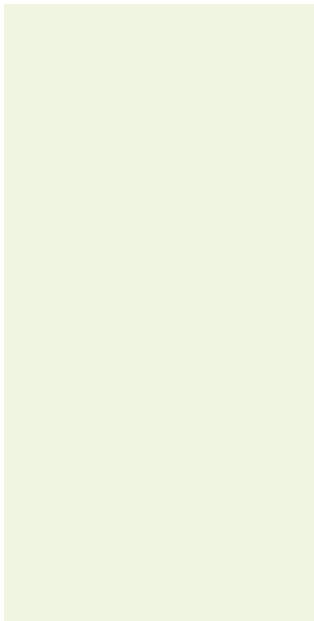
[느티나무] 고암면 계상리 산6



수령 390년, 당산목 / 1999. 6. 24 보호수 지정

40

[느티나무] 고암면 감리 488



수령 340년, 풍치목 / 1999. 6. 24 보호수 지정

41

[소나무] 영산면 죽사리 산69



수령 324년, 풍치목 / 2007. 1. 24 보호수 지정

42

[느티나무] 도천면 어만리 745



수령 424년, 정자목 / 2007. 3. 22 보호수 지정

43

[팽나무] 부곡면 부곡리 380



수령 322년, 당산목 / 2008. 10. 23. 보호수 지정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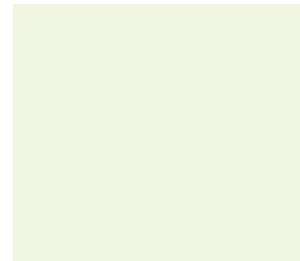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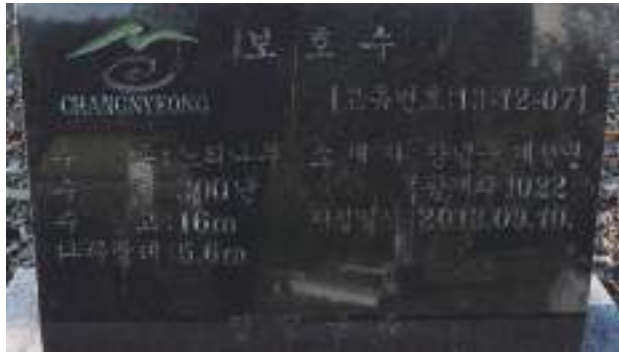
[은행나무] 성산면 냉천리 222



수령 320년, 당산목 / 2009. 8. 13 보호수 지정

45

[느티나무] 계성면 광계리 1022



수령 312년, 당산목 / 2013. 9. 10 보호수 지정

46

[팽나무] 고암면 계상리 산42-2



수령 312년, 보목 / 2013. 9. 10 보호수 지정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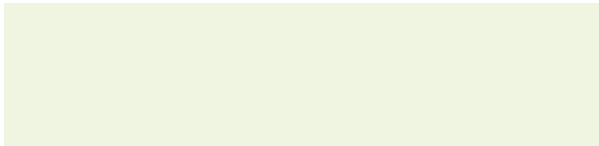
[느티나무] 성산면 방리 227



수령 303년, 당산목 / 2018. 1. 5 보호수 지정

48

[팽나무] 고암면 계상리 536



수령 203년, 품치목 / 2018. 1. 5 보호수 지정

I 비지정 보호수(장마면)



남유(유리 2126)



대봉(대봉리639)



대야(대봉리833)



동장개(동장가산30-16)



동정(동정리141-2)



봉화(유리2142)



산지(산지리714-1)



상유(유리630-1)



서장가(장가리921-7)



신구(신구리423-1)



초곡(초곡423-1)



하강(강리870)



하유 (2)



하유(유리1266 재실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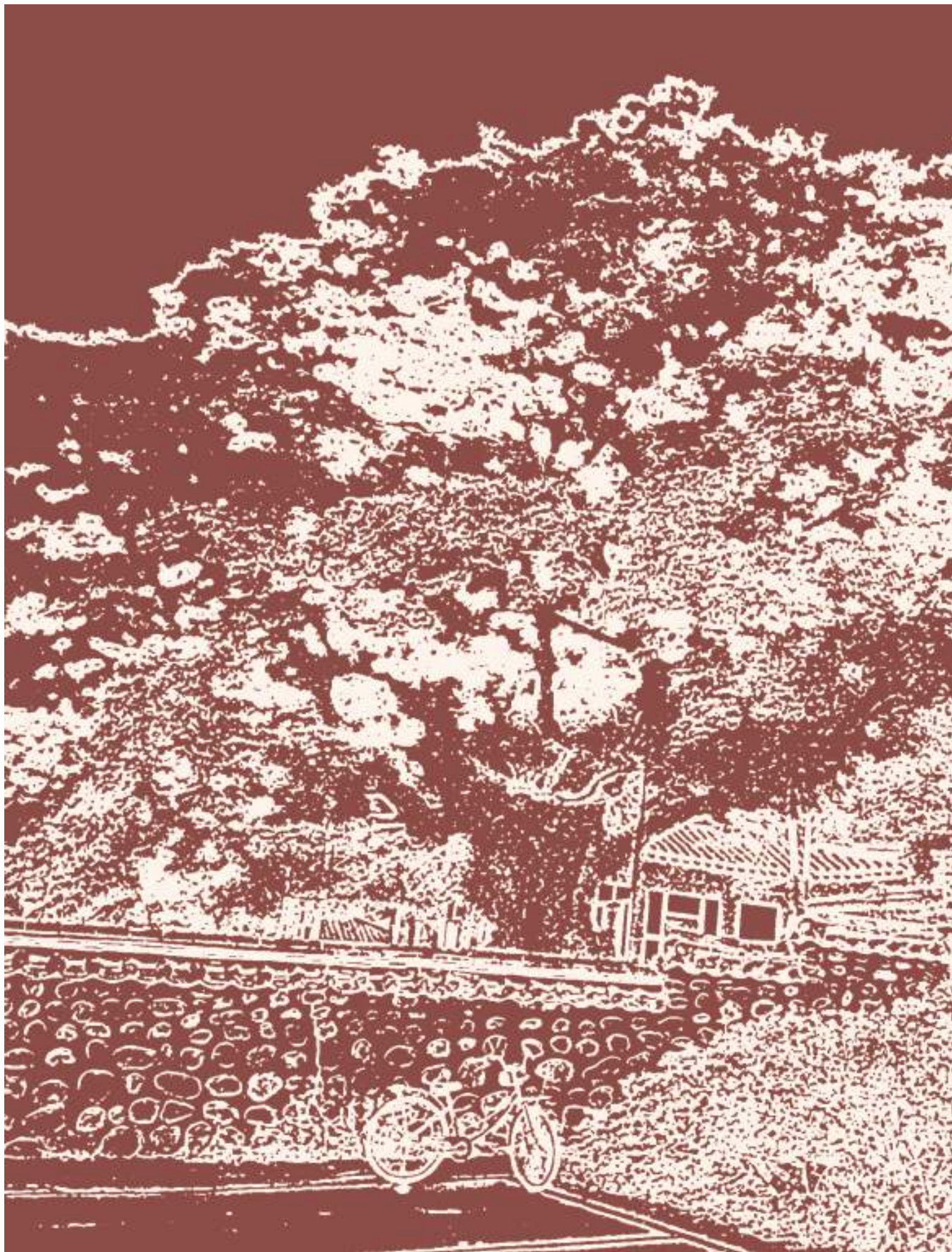


하이곡(동정리767)





나무로부터
듣는
숨은 이야기들



01

자연과 역사를 나무를 간직한 나무들

도심/습지

01

옛 창녕현, 동헌의 주인 팽나무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현 창녕읍사무소 내)



창녕읍사무소 내 팽나무

옛날 창녕현의 동헌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의 창녕읍사무소이다. 현의 범위가 대단히 넓었기에 지금의 교상동과 송현동의 두 지역에 여러 시설이 있었고,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제의 통치하에서 현청의 대부분 건물이 철거되어 없어지거나 일부는 각 면의 청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창녕읍사무소 동편에 팽나무 한그루가 있다. 이 나무가 창녕군보호수 지정에 빠져있어 추가로 포함 시켜야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헌의 청사 자리가 옛 군청(지금 창녕읍사무소)이고, 위쪽이 만옥정 공원이 있는 경사지에 석축옹벽을 약 1.5M 쌓아올려 남북으로 군청회의실, 뒤쪽을 둘로 나누어 아래는 창고, 위에는 군수 관사가 있었다.

관사 대문 옆에 이 팽나무가 서 있었다. 1980년대 군청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관사 서쪽의 창고등 허드레 시설을 철거하고 2층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져 1층은 회의실로, 2층은 실과일부가 사용 했다. 군청이 교리로 이사한 후 본청은 읍사무소로 신축되고 이 2층 건물 중 1층이 구내식당으로 쓰고 있다. 과거 군수 관사는 말끔히 없어지고 지금은 읍내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위생에 관한 비품창고로 쓰이며, 이 팽나무 주변도 깨끗이 정리되어 종사자들의 휴식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 나무의 모양이며 전체규모를 자세히 보려고 현장에 갔다가 뜻밖에도 읍사무소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는 평소 잘 아는 아주머니(70대 중반)를 만나 이 나무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분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쯤으로 기억을 하시고 당시 백부님은 교하동 마을이장을 하고 계셨고 부친은 반장이셨다. 해마다 정월 보름날이 다가오면 이 팽나무 밑에 제물을 차리고 마을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제사를 모셨다. 당시 모두 어려울 때라 제사를 모시고 나서 떡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는데 떡 얻어 먹으려 아이들 여럿이 따라와서 제사 끝나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하고, 또 벼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면 물이 다 말라버린 명덕지에서 시장을 열었다. 그래도 비가 안 오면 무지(기우제)를 지냈다. 미리 벼집으로 우장을 10여개 만들어 마을의 대표급 되는 분들이 기우제 당일 우장과 샷갓을 쓰고 이 팽나무에 모이면 군청의 관리들도 같이 제사를 올린다. 그 다음 각각 보리짚 묶음을 메고 화왕산, 관주산 등지로 무지 지내려 올라간다. 두세 시간 지나면 화왕산 등지에서 큰 불덩어리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을 구경하곤 했다고 한다. 또 산에 오를 때 팽이와 삼을 가져가는 사람도 여럿이었는데 말인즉 화왕산 정상 모퉁이에 어디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암매장을 하게 되면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혹시 암매장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옛날 어른들의 해오던 이 나무와의 인연의 연속처럼 현재 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운영한 지가 15년이나 되며 처음 시작 때부터 팽나무에 대한 인연으로 매월 초하루 날에는 어김없이 몸을 정갈히 하고 탁주를 가져와서 뿌리고 예를 표하며 나무가 탈 없이 잘 자라기를 빌며 늘 하루의 일과를 나무와 같이 시작한다.

지금의 노년층이 알듯 말듯한 무제(祈雨祭文) 축문이 있어 적어본다.

기우제문

용담기우문(龍潭祈雨文)

福以火旺之上有此龍潭四靈爲一千尺者三元氣之會造化之
복이 화왕지상유차용담사영위일천척자삼원기지회조화지

參厥施斯普其象包涵顧余愚盧來守茲土俗美洛閩政愧召杜
참궤시사보기상포함고여우노내수자토속미락민정괴소두

民食難辛獄訟方午下招人怨上于神怒天迺不藏彌
민식난신옥송방오하초인원상우신노천내부장미

月恒暘箕伯作戲畢精답 光我麥旣枯我稼卒痒我民何辜我心卽傷于以行雩于彼貫珠
월항양기백작희필정 광아백기고아가졸양아민하고아심즉상우이행우우괴관주

情恨則苦誠意未孚始賜霏微終靳洽濡惜乾望望仰天烏烏,
정한칙고성의미부시사비칠종근흙유석건망망앙천오오

爰卜良辰吉日維寅載陳潔牲式薦明禋再三致誠庶畿格神函降一雨早活萬民
원복양진길일유인재진결생식천명인재삼치성서기격신함강일우조활만민

기우제의 역사는 농업을 기본으로 살아온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때 부터 국왕이하 대신들이 건신하고 천 지, 산천, 종묘, 부처, 용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기우제가 잦았다고 한다.

한 예로 태종 재위 18년의 기우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403년 한해만 기록이 없고 기타 17년동안 2~3회씩이고 16년 한 해 동안은 무려9회의 기록이 있고, 또 반대로 18년 동안 6회의 기청제(祈晴祭) 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이야기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창녕사람 모두가 피난 중 우리 국군과 UN군의 반격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피난살이 약 1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고 집과 농지가 초토화된 현실을 차차 다듬어 정상을 회복하는 오랜 과정을 겪었다. 언젠가 군청마당에 미군부대 컨테이너 2동이 들어서고 군용차 등 미군부대 가 주둔 하였다. 이 부대는 전쟁 중에 전사한 장병 유해발굴을 수행하는 것이 부대의 임무이라고 했다.

이 미군부대가 임무를 마치고 대구 쪽으로 이동한 후에 창녕문화원의 초대원장이신 윤운용 원장께서 한 미문화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문화사업을 하면서 창녕문화원이 발족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짐작컨대 이 나무는 창녕현이 탄생하면서 어느 현감시기에 심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무의 규모로 봐서 보호수로 지정된 고암 계상 산42-2의 팽나무, 대합소야 산40의 팽나무, 대지 효정 산57의 팽나무와 비교 해 보면 앞 기록의 나무보다는 훨씬 나이가 더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고문 김동주〉

02

만옥정 공원의 터줏대감 벚나무

창녕읍 신당길 5-4(창녕읍 말흘리 95)



만옥정 벚나무

진흥왕척경비에서 서북방향에 서있는 나무로서 만옥정공원 내에 대밭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공원이 만옥정 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이 지역이 당초는 야트막한 동산지 였으며 어느 시기에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옥정(萬玉亭)이라는 정자가 있었기에 연유된 이름이다. 육각형으로 지어졌고 육모정 또는 죽림정이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감 정봉시(鄭鳳時, 1897~1899)재임 시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죽림정이라고 한 것은 정자 주변에 대밭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며 지금도 대밭 일부가 남아있다.

국보 제33호인 진흥왕척경비가 1914년에 화왕산 기슭에서 발견되어 1924년에 지금의 장소에 옮겨진 것이 100여년 전의 일이니 이 벚꽃나무의 나이도 그 시기로 짐작 할 만 하다.

10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만옥정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무와 함께 만옥정의 중앙부분의 광장, 천도교당, 일제의 신사 장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벚꽃나무로 공원이 조성 돼 있었다. 천도교당도 일제시대 일본인 자녀들의 초등학교인 일본인 소학교로 세워졌다가 얼마 후에 지금의 명덕초등학교 자리에 일본인 소학교가 옮겨가고 당시 천도교에서 매입하여 교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1945년 8월15일 광복을 맞이하여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의 일본인 선생이며 거리의 일본인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내 나이 열아홉 살 때 일이니 해방이 무엇이고 광복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라 어른들로부터 들은 말이 이제 우리 한국사람 선생님이 우리글을 가르친다는 것부터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만옥정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굉음이 요란하게 들려 구경하고 싶어 달려가니 일본인 신사 함석 지붕이 부서지는 소리이고 여러 개의 횃불 아래 의기양양 어른들의 환한 미소의 소리였다. 일제 잔재청산의 한 부분이라고 할까?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신사가 섰던 자리에 6.25한국전쟁의 UN 전승비가 세워졌으니!

이 전승비는 1958년 육군 1206 건설공병단에 의해 세워진 창녕지구의 전투 전승을 기념하는 시설물로서, 만옥정에 세워졌고, 영산과 남지의 박진 등 2개소 전적비가 영산 앞산공원에 박진역시 지역민의 휴식 공간인 장소에 세웠으니 만인이 보고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는 뜻이리라.

그 당시의 만옥정 공원은 볼품없이 초라했다. 남쪽은 높은 언덕아래 민가들로 애워 쌓여져 있고 서쪽(지금의 경찰서 뒷쪽)은 주변 마을 사람들의 채소밭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 동편과 북편은 아무데서나 공원에 드나들 정도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해마다 봄에 벚꽃놀이 축제의 콩쿨대회가 열려 삶에 지치고 고단한 군민들의 큰 위안이 되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에 전쟁의 참화를 벗어나고 차차 다소의 안정을 찾으면서 국비예산의 지원을 받아 만옥정 공원정비의 일환책으로 공원의 동편과 북편에 자연석 석축을 쌓고 공원 내의 고사목을 교체하며 국보33호인 진흥왕척경비각을 중수하여 국보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1969년 10월 창녕읍 퇴천리 398번지(당시 김래현씨 집 안마당)에 있었던 퇴천리 석탑의 일부가 허물어져 방치되

어 있던 것을 만옥정 지금의 장소로 옮겨 세웠다. 1972년 에는 UN전승기념비 앞에 박물관을 겸한 창녕군립도서관이 세워짐으로써 만옥정 공원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해마다 봄이면 즐겨 찾던 벚꽃도 필요에 따라 잘리거나 고사하여 옛 나무들은 거의 다 없어졌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이 한 포기 벚꽃나무가 전체 나무들을 대신하여 만옥정을 지키면서 옛날의 정취를 재연하고 있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국보 제33호)

지금의 만옥정 전체의 핵심은 국보 33호인 진흥왕척경비 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만옥정 중앙에 말숙하게 서있는 옛 창녕현청의 일부인 객사 건물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헐렸다가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 원래 이 건물은 창녕현의 부속건물로서 본래는 지금의 만옥정 주차장 북쪽 철재상(경창공업)의 북쪽 일대에 이 건물과 비슷한 건물이 3동이 있었는데 고을원의 숙사와 손님이 거거했던 객사 등의 용도로 쓰였던 건물들이었다고 하는데, 일제 때 그 중 한 동은 헐려져 지금의 교하리 경남여객 회사 건물로 쓰였다. 지금 만옥정에 있는 객사는 1924년 술정리에

창녕시장이 개설될 때 시장터로 옮겨져서 보부상들이 쓰면서 시장의 곡물 전으로 쓰여 오다가 1988년 지금의 장소로 옮겨지면서 부분적으로 노후된 목재를 교체하며 중수를 포함한 이설이었다.

만옥정 공원 가꾸기가 연속으로 진행 되면서 이웃주민들의 텃밭으로 방치되어있던 장소에 1970년대 초반에 블럭과 스텐트로 세워졌던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1990년도 중반에 철거되고 연이어 천도교당 앞에 세워져 있던 유치원도 헐리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에는 왜정시대를 전후하여 한때는 창녕을 좌지우지 하시던 어른 분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 시대는 창녕 천도교 교세가 타종교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막대한 때도 있었던 교회였다. 이 천도교도 대의에는 양보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의 남산 공원 쪽으로 이전되고 근대식 화장실이며 소규모의 공연장 까지 갖추어 완전한 공원으로써 군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으니, 당대에 같이 심어졌던 동갑내기 나무들은 다 사라지고 홀로 만옥정을 지키고 있던 이 벚꽃나무 한 그루가 100여 년 간의 변화를 모두 지켜보고 국보33호인 진흥왕척경비와 나란히 영원히 만옥정을 지킬 것이다.

〈고문 김동주〉

03

“창녕의 물” 이야기를 전하는 만옥정 나무들



만옥정(객사)



만옥정 나무들



만옥정 빛나무



만옥정(공원입구)



만옥정(비군)



만옥정 소나무



창녕읍사무소 보호수



창녕경찰서 향나무

만옥정은 옛 창녕현의 동헌이 있던 곳으로 오랜 기간 행정의 중심 센터가 되어 왔다. 지금은 국보 33호인 신라진흥왕척경비와 창녕객사, 퇴천3층 석탑, 현감비군, UN전승기념비 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는 창녕읍민의 소규모 공원이다. 1984년 상반기까지 공원입구에 군청사가 있었으며, 지금 그 자리엔 창녕읍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 공원 내에는 소나무와 빛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 갖가지 나무들이 창녕의 오랜 애환과 희로애락의 역사를 말해주며 우뚝 서 있다.

물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생명수다. 물 없이는 모든 존재들이 단 한 순간도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다. 창녕은 2000년도 이전 까지만 해도 고질적인 식수난으로 해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잦은 가뭄에다 식수는 제한 급수가 일상이었고 심지어 빨래할 물조차 없어 가구마다 시내버스를 타고 휴먼지를 마시며 산골짜기를 찾아 해매는 것이 일수였다. 적어도 이 시절, 창녕읍내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창녕은 지리적으로 동쪽은 산이 높고 개울의 길이가 짧아서 비가 오면 곧장 흘러 내려가 버려 개울이나 소하천의 물이 쉽게 말라버린다. 그런데 반대로 남서쪽에 자리한 7개 읍면(남지읍, 부곡면, 길곡면, 도천면, 유어면, 대합면, 이방면 등)은

낙동강을 안고 흐르는 저습지 평야이기 때문에 비가 100mm정도만 와도 며칠 동안 물바다가 되었다. ‘사흘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고, 사흘 햇볕이 나면 거북등이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던 시절이 있었다.

토지는 상당히 비옥하고 농작물은 잘 자랐지만,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농사 짓기가 어려웠다. 그것이 군민들이 겪는 큰 애환이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먹는 물도 심각한 문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은 풍부한데 사람이 일상 먹을 물은 없었다. 이전에는 낙동강 물을 그대로 길러다 썼지만 대구 경북지역 등 상류지역의 공업화로 오염되면서 음용수로 쓸 수 없는 형편이었다. 지하수는 거의 안 나오고 간혹 물이

많이 나는 샘을 발견해도 철분이 많아 식수로 부적합하였다. 1990년까지도 1일 두 시간 제한 급수를 하였기 때문에, 주부들이 물을 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수도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설도 불가능하였다.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고 행정을 원망하는 민원이 많았다. 물 없는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 때 당시 우리 군에서는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큰 집수 댐이 없었다. 낙동강 물을 인수, 정화해서 쓰고자 역대 행정 책임자들이 창녕, 남지에 상수도 취수시설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농업용으로 축조한 상월, 노단이, 구계 저수지 물을 농사 비수기에 2~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마침 1995년 밀양댐을 축조해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하여 양산, 밀양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부곡은천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므로 이 지역에도 밀양댐

상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 하였던 바, 급기야 일일 5천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당시 행정의 총책이셨던 기산(箕山) 김진백(金鎭伯) 전 군수께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왕 부곡에 밀양댐 상수도 물을 공급한다면 군 소재지인 창녕읍과 부곡에서 창녕읍까지 가는 경유지인 영산면 소재지도 급수구역으로 하여 일일 2만 3천톤의 물을 공급하여 달라고 백방으로 때를 써서 노력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급수계획이 확정되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당시 밀양(댐 상수도 배수지)에서 창녕까지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 상수도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전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규정이었다.

1997년 1월 16일부터 밀양댐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을 세웠다. 당시 밀양쪽 시설을 모두 하는데 드는 부담금은 111억원, 우리 군 자체 배관시설과 배수지를 만드는데 131억원, 총 240억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벽찬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녕의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는 모두 기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당시 수도법상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의 배수시설 설치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중소도시는 물을 인수하는 관로, 배수지 등 모든 시설을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수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국 11개 중소도시 시장군수들이 국회를 방문해 수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창녕읍 전경



가뭄(하천물길작업) / 사진 : 하동철



밀양댐 광역상수도 통수에 따른 주민 설명회 / 사진 : 하동철

처음에 시작 할 때는 기채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치고 나서는 수도법이 바뀌어서 시설자체 전부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됐다. 우리 창녕군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런 엄청난 대형 사업을 해결한 셈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했는데 2000년 5월 23일 드디어 통수를 하게 되었다. 이날 창녕군민들은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만대에 걸쳐 먹을 깨끗한 샘물을 확보했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와 병행하여, 185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대구권지방상수도과 노단이상수도, 대합권지방상수도를 각각 개발하고, 간이상수도 수원(水源) 이전과 상수도 노후관도 정비하는 등으로 창녕의 만성적인 물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다들 ‘사람도 먹을 수 없었던 수돗물을 이전

소도 먹고 있다’고 자랑했다.

상기 사실은 2019년 발행된 기산만보(箕山漫步/김진백 군수 자서전)에 상세히 기록돼 있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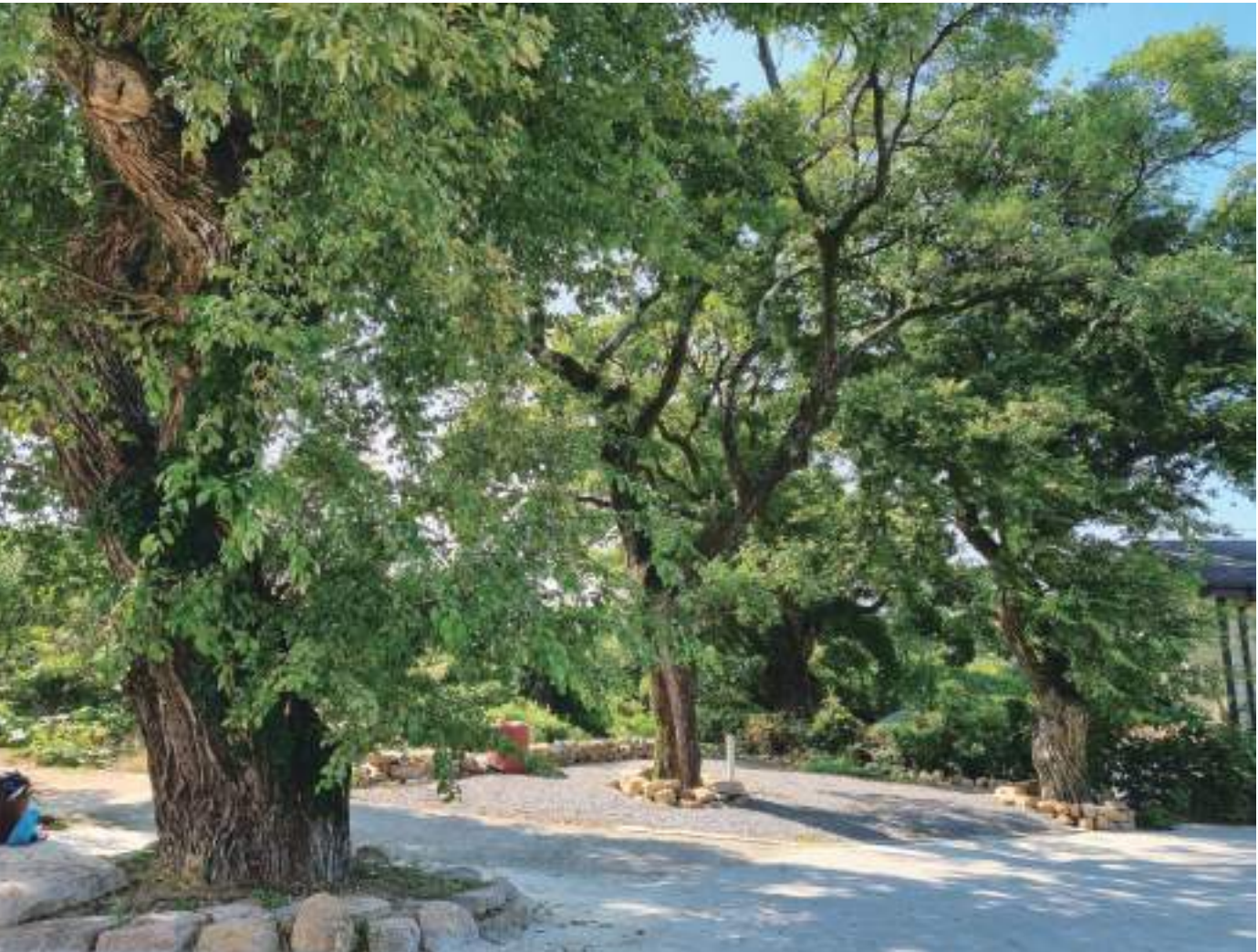
오늘 날 살기 좋은 창녕으로 발 돋음 한 이면에는 깨어있는 지도자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했던 여러 공직자와 군민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숨은 애환과 비화를 품고 있는 나무들이 군내 곳곳에 우뚝 서 있다. 현재 창녕읍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1984년 이전에는 창녕군청이 자리했고 더 오랜 이전에는 창녕현의 동헌이 있던 곳이다. 이 곳에 창녕읍민의 쉼터인 만옥정이 자리한다. 이 곳에서 있는 나무들은 오늘도 말없는 가운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전한다.

〈한삼운〉

04

송현리의 수호신 당산나무

〈회화나무와 떡버들이 함께 지켜보는 우물〉(창녕읍 송현리 120)



송현리 회화나무와 떡버들

송현리 윗담 마을 앞 공터에 아름답리 회화나무 한그루가 떡 버들 2그루 사이에 서 있다. 마을의 식수원인 우물을 수백 년 동안 지켰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우물은 덮여서 볼 수 없지만 나무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지켜봐 왔고 앞으로도 수호신으로 영원하기를 기대한다.

이 나무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우물이 특별히 유명세를 탔다. 현대식 상수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

절 마을마다 공동우물이 있었고, 다소 형편이 꺾은 가정에는 집안 적당한 곳에 우물이 있었다. 솔터(송현동)마을은 호수가 창녕읍에서 중간정도의 규모이지만 당시 집안에 우물을 갖춘 가정은 네댓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 공동우물을 사용했다. 새벽부터 아침밥 먹을 시간까지, 또 저녁밥 지을 시간이 가까워 오면 마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을 길러 몰려들었다. 아낙은 물통을 머리에 이고 남정네는 물 지개를 지고 좁은 길에 바쁘게 오가다가 자주 부딪치기도 했다. 냇물에 빨래하는 사람도 있어 항상 우물 주변은 분주했다.

긴장한 사람이면 바가지로 팔을 뻗어서 물을 뜰 수 있는 얇은 우물이면서 또한 수량이 풍부하여 아무리 퍼 쓰도 수위가 줄지 않았으며 여름이면 시원하여 인근 마을에서도 이 물을 길러 오는 이가 많았다. 우물 주변은 회화나무와 떡 버들 사이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계천이 우물을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아서 흐르고 그 반원 구역 안은 평형을 유지하면서 촘촘히 빨래 돌이 깔려 있었다. 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속이 시리도록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또 아낙들의 빨래 방망이 소리등 마치 이 자리가 요즈음으로 치면 마을회관 구실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창녕문화원에서 발간코자 하는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 이야기 편집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곳을 찾았는데, 그 유명한 우물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곳 자리 표시로 쇠과이프 하나가 나무 옆에서 있으면서 옛날의 흔적을 알리고 있었다. 우물을 쓰지 않더라도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이 우물 이야기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옛날 창녕의용소방대가 지금의 경찰서 정문 앞(현 무기고 일대)에 있었고 연중 한 두 차례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소방기구로는 수레에 실려 있는 수동 펌프였다. 대원이 펌프 양쪽에 4명 혹은 6명씩 상하로 움직여서 압축된 물을 호스를 통하여 불을 끄는 방식이다. 훈련에 많은 물이 필요하니 소방대 훈련 때는 이 우물에 흡입관을 담가서 물을 사용하였다. 떡 버들과 회화나무에는 소방대원들이 사닥다리 설치, 철거 등의 훈련과 높은 곳에서 물대포를 쏘는 연습 등 잡다한 훈련을 나무를 중심으로 빈터에서 하였다.

6.25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 쓰러온다. 인민군 남침으로 순식간에 전 국토가 유린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 소개(疏開)명령을 받은 우리 창녕사람들도 밀양, 수산, 부산등지로 피난길에서 고생하다가 1개월여 만에 아군의 반격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가 호전되면서 그토록 그리던 고향집으로 돌아 왔다.

쑥대밭이 된 집을 치우고 또는 불타버린 집터에 움막을 지어 농사를 거두고 겨울 준비를 해가던 즈음, 어느 날 마을리장이 내일 저녁 국민 방위군 수십명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니 숙식을 제공해야 되며, 방이 두 개이상 있는 집은 방 하나를 비워서 5명, 사랑채가 있는 집은 7명~10명에게 숙식을 제공 할 것을 통보해 왔다. 이 일은 3~4일 계속될 것이라 했다. 그 당시 전시체제라 싫든 좋든 거부할 수 없었다. 폐허로 변한 주위환경 때문에 잔뜩 움츠린 마음이었으나 군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했다. 이튿날 보니 초

라한 복장에 이따끔씩 개나리 붓짐을 맨 사람도 드문드문 있고, 천차만별이었다. 12월 추위에 거지중의 상 거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이 어찌 군인인가, 정말 실망스러웠다. 그 일이 몇 일간 계속 되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며칠째 그 일이 있는 후 더 이상 장정들의 행군은 없어졌고, 수일 후 명덕초등학교 입구에 부대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고, 4~5백명 정도로 짐작이 되는 큰 무리의 집단이 주둔해 있었다. 이 부대가 주둔 하면서 역시 많은 식수가 필요하니 솔터 우물이 그들의 식수원이 되어 물을 길어가기 시작하였다. 물통은 드럼통 반을 잘라 윗부분에 구멍을 내어 철사로 끈을 달아서 나무막대기 두 개를 열십자로 끼웠다. 4인 일조 3팀으로 조직되어 어깨에 메고 갔다. 팀은 항상 같이 움직였다. 워낙 많은 물을 계속해서 퍼내다보니 평소 동민이 아무리 쓰도 줄지 않던 물이 그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서 물을 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했다. 물을 담는 동안 떡 버들 나무아래나 우물부근에서 하염없이 앉았거나 누워있는 그들의 행색과 표정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움직이는 마치 푸줏간에 끌려가는 소와 비견할 만하다고 할까?

이런 참담한 모습을 이 나무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수개월간 이 대 부대를 유지 하면서도 끝끝내 그들에게 군복은 지급되지 않았고 천차만별 그 복장 그대로였으며, 3~4월경 해체되어 군에 입대 하거나 귀가조치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국민방위군 사건

1950년 6월 25일 이북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과죽지세로 밀리다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최후 방어선으로 치열한 전쟁이 계속 되다가 아군의 총공세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압록강 인접까지 수복해 전쟁이 종료 될 듯 했으나 뜻밖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다시 후퇴하는 위기를 맞았다. 이때 제2국민병 소집령을 발동하여(17세부터~40세) 약 50만 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전국 51개 교육연대로 분산 수용 되었다. 훈련, 수송, 급식등 모든 면에서 국가 조치가 형편없었다. 간부급도 대한청년단 단원 중 뽑아서 현역에서 복무하던 계급으로 임관하였다. 모든 면에서 미흡한 가운데 1951년 1.4후퇴시 서울과 각 지역 방위군을 15일간에 걸쳐 도보로 부산 까지 후퇴시켰다. 급식은 1일 주먹밥 1개며 가마니 거적으로 이 불을 삼는 참상 속에서 아사, 동사, 병사자가 속출 하였다. 이동 중에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는 대사건이 터졌다,

1951년 1월15일 부산의 피난국회가 열려 이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 이때 국회차원의 조사와 군의 헌병대 조사내용이 비슷하였다고 한다, 방위군 간부들은 약3개월에 걸쳐 24억원 상당의 금품 착복과 5만2천섬의 양곡을 부정처분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개탄 속에 부통령이 사임하고, 국방장관도 사임하였다. 방위군 사령관 준장 등 간부급 5명이 고등군법회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졌던 사건이다.

〈고문 김동주〉

05

오케이(OK) 부자 할매집 소나무

(창녕읍 송현리 135-2)



오케이 할매 소나무

이 소나무는 당시 부자 집 뜰 안에 서있으면서 북쪽으로 10여 미터 인접에 큰 팽나무와 마주하고 있었다. 어릴 때 기억으로 이집 규모는 정남향의 몸채 4칸에 행랑 4칸과 서쪽의 큰 창고 그리고 동편의 축사와 머슴방과 대문채를 넉넉히 띄워서 배치돼 있고, 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심겨 있는 꽤나 넓은 집 이었다. 할머니는 이 집 전체를 장악(掌握)하는 주인으로서 마을에서도 연륜이 깊고 발언권이 세어 위세가 대단했다. 6.25전쟁으로 미군이 들어온 이후부터 “오케이 헬로”가 아이들 입에서 오르내릴 때 아이들이 이 할머

니를 만나 인사를 드리면 긴 담뱃대를 흔들며 오케이, 오케이를 연발 하였다. 이때부터 오케이 할머니(어른들 호칭은 봉치네 할매)로 명성이 자자했다.

솔터마을 한골목이 남에서 북으로 마을중간을 관통 하다가 이집 대문 앞에서 울타리를 따라 서쪽으로 꺾여 20여 미터, 다시 직각으로 꺾어 북쪽으로 30여 미터가 이 집의 서쪽담장과 남쪽담장이다. 뜰이 넓어 동네 아이들이 이 집 안마당이나 뜰에서 뭉쳐 놀이터처럼 뛰어 놀았다. 이 소나무에 그네가 있어 딸아이들은 그네에 매달려 놀기를 좋아 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되고 불과 한달여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 UN군과 한국군은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전선이 되면서 강을 중심으로 10Km이내의 모든 민간인은 강 동편으로 이동하라는 소개 명령이 내렸다. 이로 인해 창녕읍, 고암면, 영산면등은 피난민으로 혼란스러웠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8월 3일 구마선(국도5호선) 동편으로 이동하라는 포고령이 또다시 내렸다. 이방면일부, 유어면, 구창락 주민 대부분이 창녕읍에 몰려 한동안 읍민들과 피난민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8월 하순경 적의 대포탄이 창녕읍을 중심으로 외곽에 띄엄띄엄 떨어지기를 2일간 계속 되었다. 이장을 통해서 모두 자가 방공호에 숨어 있을 것과 피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전갈이 수시로 전달되곤 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창녕읍에 몰려있으니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날씨가 더워서 마을 골목담장 또는 나무그늘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틀째 적탄이 떨어진 날 아침(아침식사 후 그늘에 모여 놀 때쯤으로 짐작) 포탄 한발이 솔터 마을 위쪽의 이 소나무 부근에 떨어져 많은 사상자가 났다.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피난민 6명과 마을의 유모(당시16세) 아이 1명 등 모두 7인이고 다수의 중상자도 발생 하였다. 그리고 이 소나무도 피해를 입었다. 골목길 쪽으로 뺀 큰 가지 하나가 부러졌다. 옆에 있던 팽나무가 그 참혹한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 안길을 넓혔다. 이 과정에서 팽나무는 없어졌다. 소나무는 화왕산로가 개설 되면서 솔터 사거리와 연결될 때도 살아 남았다. 도로가 관통되어 솔터가 옛 마을의 모습은 사라졌으나 다행히 그 소나무 서있던 집터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서 그 집의 경관과 운치를 돌우고 있다. 골목길도 그대로 있어 옛날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이 크게 변하고 전쟁의 상처를 체험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대다수가 세상을 떠나고 또는 외지로 가고 없어, 그 때의 참상을 기억하는 것은 오직 이 소나무 뿐 인가 싶다.

〈고문 김동주〉

06

초막골의 비극을 목도한 회화나무



여초리 회화나무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회화나무

초막골은 창녕읍 퇴천리 안의 한 자연마을이며 옛날 마을 아래 원들의 농사를 위한 초막(농막)이 있었다 하여 초막골이라 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괴뢰 정권이 남한 침략 전쟁을 일으켜 무방비 상태인 국토를 노도처럼 밀고 내려와 불과 1개월여 만에 영남 일부를 남긴 채 왜관이하 낙동강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군작전상 강 인접지 10Km 이내의 모든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 창녕읍 일대가 피난민으로 복새통을 이루었다. 거기다가 8월 3일 포고령으로 마구선(국도5호선) 동쪽으로 전 주민 소개령이 또 내려 구창락 일대와 유어면의 여러 마을이 창녕읍 중심으로 마구선 동편이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때 초막골에는 도로 아래쪽의 창녕읍민들과 유어면 진창 등지의 피난민으로 집집마다 사람으로 메워졌고 이 회화나무 밑의 공지도 피난민들의 가장 좋은 쉼터가 되었다. 초막골 아래 구마선을 끼고 넓은 들(원들)에는 미군 포병부대가 주둔하여 매일 수시로 낙동강 방향으로 대포를 쏘아댔다.

날마다 창녕주변에 떨어지는 적군의 대포 소리며 낙동강 부근에 미군 폭격기가 편대를 이루어 수시로 폭격하는 장면을 먼발치에서 보며 피아간에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쟁탈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8월 25일 새벽 2시경 수 미상의 인민군이 초막골 뒷산에서 미군부대 쪽으로 여러 발의 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를 지난 후 미군이 초막골 뒷산에 인민군이 출몰한 것을 알아차리고 많은 화력을 총동원하여 마을 상공에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대낮같이 밝은 상태에서 마을뒷산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다. 피난민들은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차라 피난붓집을 안고 돌발사황이 다소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을의 남쪽부분 일부 피난민은 누구의 지시인지도 모르게 미군부대 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미군들의 오인 사격으로 많은 피난민이 사살되었다. 마을의 북쪽부분 사람들은 북쪽 개울 밑으로 피신하여 무사했다. 이 회화나무 밑에 있던 피난민들 모두가 개울 쪽으로 내려가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통역관이 나서서 피난민 이라고 하여 사격을 중지하는 등 아수라장 속에서 불행히도 이 통역관은 포탄에 끊어진 고압선에 감전되어 즉사하는 사고도 생겼다. 날이 밝아 올 즈음 마을 일대는 그야말로 표현이 어려울정도로 처참했다.



도로와 마을과의 사이, 콩밭 또는 논바닥에 사체가 즐비했고, 마을윗부분 산기슭 여러 곳에 피난민들이 몰고 온 소들이 여러 마리 죽어 있었으며, 마을 입구 쪽 농가 여러 채가 불타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공포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가족 잃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울고불고 난리였다. 이 와중에 어서 피난 떠나라고 야단치니 가족이나 이웃의 생사도 모른 채 자리를 뜨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진정범씨(당시 초막골 거주)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는 피난을 마치고 얼마를 지난 후 이 회화나무 밑에서 난리를 당하고 살아남은 피난민 몇 분이 그날을 상기하여 살아남은 고마움으로 몇 해 동안 제를 올렸다고 한다.

초막골이 창녕성씨의 세거지라고 하니 이 나무가 그들과 같이 뿌리를 내려 지금까지 마을을 지키고 굽어보면서 일어났던 온갖 일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이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마을의 삼거리 길이 형성돼 있어 사방이 확 트여 나무의 성장여건이 매우 좋아 수형이 매우 안정적으로 발달하여 몹시 아름답다.

〈고문 김동주〉

07

내야역참(內野驛站)의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창녕읍 하리 940)



하리 회화나무

내야역(內野驛) 터 하리 서편의 내야역 터를 일명 도개마당이라 하는데 여기에 술도가(양조장)가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도개마당과는 짓은 술도가(양조장)의 사투리다.

이 나무의 수령을 추정하건데 역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조선경국대전에 전국의 역참조직을 41역도와 524개의 속역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경국대전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1485년(조선 성종 16)에 편했다고 하니 만약 그 당시에 내야역(內野驛)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수령이 5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나무수령이 500년이 넘는 나무가 현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당시의 나무라고 추정하기보다는 내야역참이 폐지된 시기가 고종 32년(1895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25년이 전에 내야역참(內野驛站)에 자리했던 나무라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내야역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에는 왜적들의 만행을 지켜 보았을 것이고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역참(驛站)의 긴박한 조선의 관리들의 통태를 보았을 것이고 내야역은 경상좌도(慶商左道)의 성현도(省峴道)에 속역에 위치하고 있어 1862년(철종 13년)에 삼남 71개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된 진주민란을 조사하러 한양에서 내려 온 암행어사가 묵고간 역사도 간직하고 있으리라 보여진다.

말발굽소리로 요란하던 역은 없어지고, 어느 날 술도가가 생겨 간간히 술 찌꺼기 얻어먹으며 취객들의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에 즐거웠던 한 때를 거치고, 술도가가 사라지고 여름마다 피약별에서 일하던 농부들의 더할 수 없는 쉼터의 큰 역할을 해왔으리라. 또 잠시나마 6.25의 참화 속에서 밀려드는 피난민의 안식처로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 보여진다.



하리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오늘날의 역이란 기차나 지하철의 정거장을 역이라 한다. 역참이라 함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정보 및 공공물자의 운송을 위해 설치된 교통통신기관으로 고려 때의 전국 역 규모는 22도에 525곳이 있었고, 조선시대는 40도 540역으로 증가 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창녕현의 역원(驛院)편 기록을 보면 현(縣)의 북쪽 7리에 내야역(內野驛)이 있고, 동쪽으로는 대구(大丘)유산역(楡山驛)과 통하는데 40리이고, 서쪽은 초계(草溪) 팔진역(八鎭驛)과 통하는데 50리이고, 남쪽은 영산(靈山) 일문역(一門驛)과 통하는데 25리이고, 북쪽은 현풍(玄風) 쌍산역(雙山驛)과 통하는데 50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역의 규모는 리(吏)가 20명, 노(奴)가 45명, 비(婢)가 56명이며 대마(大馬) 2필, 중마(中馬) 2필, 복마(卜馬) 10필이니 넓은 마당이 필요 했으리라 짐작된다.

역 운영상의 필요 경비 조달을 위해 관둔전(官屯田), 마전(馬田)등의 토지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역마 또는 역간에 두었던 원(院)이 7개소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단 한 곳도 흔적이 없고, 문헌상으로도 존재 할뿐이다.

1. 서원(西院) 현의 서쪽 3리
2. 다견원(茶見院) 현북쪽 29리
3. 적견원(赤見院) 북쪽 25리
4. 경산원(京山院) 북쪽 9리
5. 구곡원(仇谷院) 서쪽 25리
6. 방문원(防文院) 남쪽 15리

7. 감물창원(甘勿倉院) 서쪽40리 진(津)의 동쪽.

여기서 원(院)이라 함은 조선시대 역과역 사이에 두었던 출장 관원을 위한 여관을 말함이다. 후일에는 일반 나그네도 이용하였다.

이 나무와 같이 했던 내야역은 내야(內野) 즉 들의 안쪽이라는 뜻이고 이들은 위쪽 도야리 마을앞에서 시작되어 하리앞, 대지면 호정과 석리를 지나 창산리 앞에서 유어면 대대들과 만나면서 우포늪에 다달아 있는 아주 큰 평야지로서 도야 하리 구간을 '황세만리' 라 하고, 그 아래쪽을 어멀리들이라 부르며 그 아래쪽이 대대들이다.

〈고문 김동주〉



하리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08

도야리 보호수 회화나무



도야마을 보호수

이 나무가 서있는 장소는 도야리의 북쪽 마을인 곱터 마을에서 고암면 우천리로 넘어가는 얇은 고개 정상에 서있다.(창밀로)

곱터 라는 마을 이름은 뒷산이 곱처럼 생겼다고 붙였다 한다. 그러나 지명 학자들의 견해는 곱터의 지명은 이곳에 신(神)이 있었으며, 제사 드리는 곳인 곱터(神鄉)이라고 하고, 옛날 이 회화나무 옆에 당집이 있

었다고 한다.

평소 가끔씩 이 길을 지나치면서 옛날 어렸을 때 봤던 그 나무가 왜 저렇게 작아 보이나 싶은 궁금증이 늘 있었던 터였다. 막상 곁에 가서 보니 나무가 반쪽밖에 없어 불현 듯 옛날(1950년대) 기억이 떠오른다. 나무 모양이 뿌리부터 두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현재 서있는 부분과 동편(도로쪽)으로 V자형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란 한 부분이 있었으며, 도로 쪽 나무의 가지들이 드리워져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닿을 정도로 무성하게 숲이 우거져 있었던 생각이 난다.

아마 그 윗가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쪽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역력 하다. 그 표면이 처참하여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자연훼손이 심하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가관(可觀)이다. 또 약 4M정도 윗부분에서 둘로 갈라져 있는데, 아래쪽이 허약하여 부러질 위험을 예견하고 그 보완책으로 나무 가지 양쪽에 철재 볼-트를 2개씩 심어 서로 당기고 있게끔 해 놓았다.

다소 잔인해 보인다. 어디를 다녀 봐도 살아있는 나무에 철재를 박아 위험에 대비한 시설은 본 적이 없다.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의 보호방법은 0점이라고 경고하고 싶다. 그리고 1980년에 조사 작성한 보호수 기록에 수령을 235년으로 기록 한 것은 노화 상태와 크기 등을 봐서 과소평가 된 듯 싶다.

이 나무가 서있는 곳을 곱터고개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인다. 옛날 창녕에서 서울 갈려면 창녕읍 교리의 생애골을 넘어 황사만리 들을 지나 곱터고개를 거쳐 청도로 해서 서울가는 길목이다.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보러 갈라치면 과거에 등용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생골만당의 성황당에 정성을 드리고 서낭나무 밑에 침세번 뺨고 돌 세개를 얹어 놓고 간다고 한다.

황사만리를 지나 곱터고개의 당집을 만나면 또 신에게 빌었을 것이고 한양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신당을 만나고 예를 표했을까?

옛날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걸어 다닐 때 이 곱터고개는 오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쉼터로 이용 되었다. 창녕읍에서 고암면간의 대략 중간지점쯤 되니 여기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휴식처로 많이 이용 되었고, 연탄이 대중화되기 이전은 창녕읍의 땀감이 고암간상 쪽에서 많이 운반되면서 땀감을 소달구지에 싣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곱터고개 이 나무 밑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면서 농민들의 온갖 정보를 주고받는 토론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6.25 전쟁통에 피난을 나가면서 우리 가족도 곱터고개를 지나면서 소달구지를 세워두고 소를 잠시 쉬게 하는 사이 부모님께서 피난출발 직전의 위급사항을 생각하시고, 만일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가족이 분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족 각각에게 돈 얼마와 미숫가루 얼마간씩을 꾸려 피난 짐을 따로 마련하였다.(다행이 피난중 가족이 분산되는 일은 없었다.)

곱터고개가 있는 도야리와 하리는 본래 고암면에 속해 있었으며, 하리는 역촌으로 도야는 ‘디이불’로 불렀는데, 하리는 내야역이 있었던 곳으로 역촌으로, 도야의 디이불은 뒤에 있는 들(野 혹은 也)이라는 뜻으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암면의 도야동은 도야리 고암면의 역촌은 하리로 명명 되면서 창녕읍에 편입 되었다.

〈고문 김동주〉

09

창녕석빙고 수문장 소나무



창녕 석빙고 수문장 노송(老松)/창녕읍 송현리 288

창녕 석빙고(石氷庫)는 보물 제310호로 지정된 창녕군의 주요 문화재중 하나다.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에 위치해 있다. 얼음을 저장해 두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창고로서 입구에서 있는 비석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영조 18년(1742년) 당시 현감이었던 신서(申曙)에 의해 세워졌다. 빙실은 길이 11m, 폭 3.6m, 높이 3.7m 규모이다. 한국에 있는 석빙고는 북한에 1개소를 포함 총 7개소로서 이 중 창녕군에 2개소(창녕읍 1, 영산면 1)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채롭다.(청도 1, 현풍 1, 안동 1, 경주1, 창녕 1, 영산 1, 해주 1)

갓은 애환을 안고 묵묵히 석빙고 앞을 지키며 수문장 역을 자임하고 있는 이 노송(老松)은 비록 연륜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당시의 희로애락을 안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간 선조들의 넋과 혼이 되살아나 새롭게 탄생된 신목(神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 창녕문화원장 김동주 향토사 고문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소나무가 수십 년 전부터 이곳 송현리 가옥부근 좁은 곳에 자리를 잡아 성장해 오는 동안 그 간 힘을 제재로 펴지 못하다가 석빙고 주변권역 정비 시 가옥이 철거된 이후 지금까지 홀로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약 8년 동안 이곳 석빙고 인근에 거주했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 마을 주민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 당시엔 문화재 관리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이지 못해 다소 관리가 소홀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하루 종일 이곳 석빙고에 오르내리며 놀다 보니 석빙고 위 잔디가 죽어 여러 갈래 길이 날



정도였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매월 군청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나와 석빙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어른들이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다량으로 발견되곤 했다. 알고 보니 석빙고 천정에 뚫려있는 환풍 장치를 통해 아동들이 놀다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갔지만 한 참 후에 들은 예기로는 석빙고를 지키는 수문장 소나무에게 경건하게 예를 표하지 않고 함부로 출입했던 아동들의 부모에게 준 일종의 경책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런 사실을 알고 아동들을 통제할 이후 더 이상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더니 1년이 지나자 다신 손목시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석빙고 인근인 석정 돌솥밥 식당 자리에 살았으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신윤기씨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아이를 키울 땐 재주보다 덕을 소중히 하도록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름 하여 ‘재승박덕(才勝薄德)’의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 재주가 뛰어나면 덕이 부족해질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공자도 ‘천재불용(天才不用)’을 가르쳤다. 머리가 좋은 천재는 사회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천재를 부러워하지만 천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머리는 결코 가슴에 미치지 못한다. 덕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석빙고를 지키는 이곳 소나무가 암암리에 전해 준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나무의 공작’이라 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엔 금강송으로 거북선과 판옥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쳤다고 전할 만큼 한국의 고귀한 기상이 담긴 수종으로 알려져 왔다.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수종이란 생각이다.

앞으로 70여년 후에는 소나무 등 침엽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석빙고를 지키는 의로운 이 소나무만은 낙락장송의 맥을 이어받아 창녕의 오래된 미래가 되기를 염원해 본다.

〈한삼운〉

10

퇴천리 뚝방길 물푸레나무



퇴천리 뚝방길 물푸레나무

- 주소 : 경남 창원군 창녕읍 퇴천리 622-10번지<퇴천리 뚝방길>
- 수종 : 물푸레나무
- 수령 : 150년

〈마을의 유래〉

퇴천리는 본래 창락면의 소재지가 있었던 곳이다. 1955년 7월 1일 읍승격을 하면서 창녕면과 합하여졌다. 이곳 퇴천리는 호구 총수에는 본 창락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19년 행정구역 개편때 퇴천리로 지칭되었으며, 앞에 흐르는 내의 이름이 퇴끼내 이므로 이를 토끼(兎)내(川)으로 기사(記寫)하여 퇴천이 되었으나, 이곳 사람들이 토끼를 「이」첨가음으로 퇴끼라 발음하고 한자 토(兎)를 퇴로 발음하는 것이 굳어져 한자로는 「토천리」라 쓰면 서도 발음은 퇴천리로 하고있다. 일종의 속음이 공식화 되었다.

퇴천리는 창락면 소재지가 있는 면소재지로 지금의 창락교회가 있는 터이다. 6.25때 면사무소 건물도 소실되자 퇴천리 210번지 후락당(서흥김씨재실)으로 임시로 옮겨 업무를 보다가 그 후 창녕면과 창락면이 합해지므로 사라졌다.

마을은 여러담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퇴천 퇴끼내 창락동 석탑터 창네기 우진기 거우내로 각각 흩어져 있다. 여기에 소개코져 하는 담은 석탑터와 우진기 사이에 있는 나무를 다루고자 한다.

〈석탑터〉

창락 끝자락에 있는 부락으로 민가의 마당에 3층 석탑이 파괴된 채 흩어진 것을 1969년 10월 창녕읍 만옥정으로 이전 복원하였다. 이 터가 지금은 인가로 변했으나 예전에는 석탑이 세워진 큰 사찰부지였다. 절은 남쪽 산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 탑의 높이가 3.5m로 신라 일반형의 우수한 석탑이다.

그 아래는 거우내(鏡川)이다.

〈나무에 대한 역사〉

이 나무는 방수림으로 심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천천 유역 면적이 광활하다. 화왕산에서 관주

산 봉우리 남쪽, 자련골과 비들재 물이 합수하여 큰 냇물을 이룬다. 비가 많이 오면 퇴천 부근에는 제방이 무너져 애써 이루어 놓은 농토가 일시에 폐허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제방뚝을 쌓아 방수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세월이 흘러 다 유실되고 위치가 높은 제방 옆에 3그루가 있다.

이 고목은 환곡 학산 경천 마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오솔길 옆에 서있다. 제방 길을 걷다보면 논두렁길도 있고, 시궁창 길도 있고, 비가 많이 내려 제방이 무너져 칼등 같은 길도 있다.

이 길은 험소하고 다니기 힘든 오솔길이지만 창락면사무소나 주재소에 불려갈 때나 비들재에 땀감하러 가는 주 통로이다. 비록 험하여도 친숙한 길이다. 좋은 일로 가던, 좋지 않은 일로 가던, 이 나무 밑에 쉬면서 마음을 다잡고 가는 길손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이 나무도 옛날에는 나무에 휘장을 하고 새끼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들이 근접을 못하도록 하였다. 6.25사변때 이 나무도 피해를 겪었다.

나무 중허리에 실탄 맞은 흔적이 있으며, 환곡 양산골에서 넘어오는 인민군과 미군 및 경찰대와 교전 중 피해를 입었다. 6.25직전 혼란기 주재소에서 마을마다 교대로 야경근무를 서게 하였는데 근무중 자리를 비우다 걸리면 이 나무 밑에서 몽둥이로 맞은 곳 이라고 한다. 세월이 흘러 이 나무도 온갖 수모와 사연을 간직한 채 개울가에 말없이 서 있네.

〈최수길 부원장〉

11

탐하리 정자걸 느티나무



탐하 느티나무

- 주소 : 경남 창원군 창녕읍 탐하로 116-6
- 수종 : 느티나무
- 수령 : 80년

〈마을의 변천〉

원래 창락면 지역인데 창녕읍을 관통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쪽 마을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읍내의 창녕서울병원까지 탐하 구역이며, 냇물이 마을 앞에서 땅속까지 스며들어 흐르므로 동명을 탐하라 하였다. 여러담이 있다. 상탐(바래미) 중탐 옥정골 정자결 양지막으로 나눈다. 바래미는 반월산의 뜻이니 지대가 반달처럼 생겼다 한데서 불리어졌다. 반달 남쪽이 퇴천인데 토끼를 놀리는 형국이라 그 토끼가 달의 반쪽을 삼켰다고 구전되어 오기도 한다. 토끼가 달의 반쪽을 먹고 반쪽만 남아 반달뿔 바래미라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탄원촌이라 기록되어 있다.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정자결인데 탐하 중에서 제일 가운데 마을이다. 정자나무가 있어 정자나무결 또는 정자 목동이라 불리며 중간 마을이므로 중탐이라 한다. 진양 정씨가 많이 세거하였으나 지금은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나무 이야기〉

이 나무는 이름 그대로 정자나무로 심어졌다. 수령은 80여년이다. 원래 이 자리에 수령 200여년의 팽나무가 있었는데 노쇠하여 1941년경 나무 옆에 살던 정종옥 조부 정대구씨께서 작은 느티나무를 심었다. 그 후 팽나무는 20여년 근근이 생존하다가 말라죽어 제거하고 새로 심은 나무가 정대구공의 기를 받아 우람하게 잘 자라 마을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축복과 영광을 내리지 아니 하였나 본다.

지금 이름 그대로 마을의 쉼터 정자나무다. 매일 낮이나 밤이나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동민들이 이 곳에서 사이 좋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일이나 세상일의 정보도 교환한다. 행정기관에서 장수마을로 지정 받아 서로의 건강도 챙긴다. 이웃 사람들이 마음이 선하여 탐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나무를 심으신 어른의 열이 숨쉬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 해보기도 한다

지금은 길이 좋아 쉬어 갈 필요도 없이 팽하니 지나가지만 필자의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길목이었다. 아침에 등교할 때는 키가 크신 어른이 밖에 나와 인자하고 다정하게 대하셨다. 하교 길에는 배가 고프고 힘도 없어 나무그늘에 책가방을 뺀 채 방울방울 땀을 닦으며 쉬었다. 등교할 때 그 어른께서 보시고 웃으면서 우물에 가서 물 떠먹고 더위를 식히라고 종용도 하였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직장생활 하다 보니 그 길로 통행할 일이 없었다. 자연히 그 어른도 잊어버렸다. 후에 친구들과 옛날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른의 안부를 물었다. 고인이 된지 오래였다. 나는 옛날 정이 생각나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였다. 뒤에 알고 보니 초등학교 동창 정춘자 아버지 였다.

지금도 나는 이 나무 밑에 쉬어가며 옛날 추억을 더듬고 있다. 시원한 샘물과 그늘이 생각난다.

〈최수길 부원장〉

12

골용마을 회화나무



골용(어도) 회화나무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여초천
- 수종 : 회화나무
- 수령 : 150년

〈마을의 변천〉

어도마을 분동으로 제일 위쪽 골 안 즉 음달에 위치해 있으며, 앞은 여초천이 흘러가고 산이 용의 형상이라 하여 용담이라 한 것이 용석리가 되었다.

용석은 골용과 양용석 두 마을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마을 앞이 여초천과 퇴천천이 합수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거대한 물이 용석천으로 흘러 유어면 신문에서 창녕천과 합류하여 진창 터널을 통과하여 낙동강에 도달 한다.

옛날에는 치수가 잘못되어 제방이 낮고 다리도 징검다리만 있었다. 비가 오면 제방이 무너지고 징검다리도 떠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이 제방을 막고 다리를 다시 놓아 길손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부역에 동원된 주민들이 생고생을 하였다. 이 나무는 막아놓은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인데 일종의 치수림 이라고 할 수 있다

3공 시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차와 길손들이 신발을 벗지 않고 마음 놓고 건널 수 있게 되었다.

〈나무의 이야기〉

옛날에는 창녕 장날이나 창락면 사무소에 용진이 있으면 용석천, 퇴천천 자갈바닥으로 걸어 가다가 많은 길손들이 이 나무 밑에서 쉬었다 가는 습티였다. 선조들은 비가 오거나 햇볕이 쨍쨍 쬐이는 여름이면 빛과 비를 피하는 샷갓 등의 용구를 이 나무 옆모서리에 두고 사람 살아가는 정담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가는 곳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공원으로 다듬어 놓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쉬었다 가는 길손들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

〈부원장 최수길〉

13

초막골의 상흔을 안고 사는 소나무와 의리나무



초막동 소나무

- 주소 : 경남 창원군 창녕읍 여초막 2길 30-4
- 수종 : 소나무
- 수령 : 120년

〈마을의 변천〉

초막동은 여초의 본동이다. 여초리는 창락면 남동촌으로 기록되어 있다. 풀이 많아서 여초라고 하나 그 보다는 남통을 여통이라 하였으니 여통의 여와 초막골의 초를 합한 동명이라 한다. 동쪽은 쌍교암이 높이 솟아 있고 남쪽은 여통산이 있어 가야유민들이 여통산 및 왕거름이 밑에서 은거하여 살았다는 설이 있고, 쌍교암 남쪽 기슭에 지이골이라는 긴 꼴짜기가 옥천과 맞닿고 있어 지경골 농업용 저수지가 있으며 그 밑에 구마 고속도로 개설로 이주하여 새 마을이 형성되므로 여초 본동이 분할하여 담이 되었다



특히 초막골은 6.25때 큰 피해를 본 곳 이었다.

앞 야산에 중무장 미 기갑여단이 주둔하고 있어 밤낮으로 발진하여 목표지점에 발사하고 있는 부대였다. 전세가 점점 악화되어 마구산 동쪽으로 민간인의 소개 명령이 떨어졌다. 유어 진창 창락 외부 이남 화전 등지의 피난민이 몰려 들었다. 피난민들은 매일 고향을 바라보았다. 정든 고향을 바라보고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함이었다. 특히 진창 사람들은 기갑부대 정면 소나무밑 근처에 이불 포장과 수초를 덮어 수십 집이 집단적으로 피난생활을 하면서 발둑 옆에 소를 메어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고 있었다. 이때 인민군 정찰병이 유엔군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즉각 발사한 곳을 향하여 미군이 응사하였다. 이 교전으로 나무 밑에 있는 피란민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몸을 숨길 곳이 없어 그대로 총알받이가 되었다. 유어쪽 피란민이 70~80명 사망하였고 이 와중에 고압선이 총에 맞아 두 동강이 났다. 떨어진 고압선에 감전되어 많이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나무는 총에 맞아 가지와 잎이 다 떨어졌다. 나무 등치에는 실탄이 관통하고 나무속에는 실탄이 무수히 박혔다. 목재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무 밑에는 소와 사람이 무수히 죽었다. 마을 앞 정자나무(느티나무)도 많은 총탄을 맞았다. 이 나무 밑에 있던 피난민은 총소리에 놀라 마을 뒤 개울로 피하여 간신히 살았다고 한다. 이 두 나무가 6.25을 맞아 큰 곤욕을 치른 나무라고 볼 수 있다

세월의 무상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과거를 잊고 늘 푸르고 기상 있게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

〈부원장 최수길〉

14

이남리 성황당 회화나무



이남 성황당나무(회화나무)

- 주소 : 경남 창원군 창녕읍 이남길 40-28(하씨종토)
- 수종 : 회화나무
- 수령 : 150년

〈마을의 변천〉

법정리는 용석이며 행정마을은 이남으로 불린다. 언제 집단취락지가 되었는지 불분명 하다. 신라, 고려 때 인근에 신문 부곡이 있어 이와 연관 지어볼 때 신라 병합에 반대한 가야인들이 이 일대에 유배되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뒷동산에 지석묘 두기가 있어 마을의 형성이 고려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주변의 경관이나 유물 등을 조사해보면 건너 용석천 주변에 섬 비슷하게 나무가 울창하고 샘들이 솟아나는 솟골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이 어섬이 아닌가 한다. 지금 세거하는 성씨로 창녕성씨 판서공파와 진양하씨 현감공파가 많이 세거 하고 있다.

〈회화나무 이야기〉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다. 정월 보름에는 마을 전체가 정성을 들여 제관을 선출하였다.

선정된 제관은 본인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녕과 행운을 위하여 막중한 의무감을 갖고 3일간 정성을 드려 제사를 모신다. 1년간 길 흉사를 보지 못하고 근신 한다. 만일 제관이 부정한 짓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근 대고 멸시를 하여 부정한 짓을 못하도록 간접 훈계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밤중에 촛불 켜고 백일기도를 하여 얻는다고 한다.

한원식(88세)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방골댁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지성으로 기도를 하였다. 앞이 할머니, 뒤가 할아버지 나무인데 언제나 할머니 나무에 매달리듯 기도 드려서 아들을 얻었다. 그만큼 동민들이 서낭신을 의지하고 믿었다.

그 당시는 인간 자체가 만물의 영장인 줄 모르고 무지 우매한 우리 선조들이 신에게 기대어온 토속문화가 아닌 가 싶다.

〔특징〕

서낭나무가 늙어 속이 비었다. 언제 솟아났는지 모르나 대나무가 그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3공시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새마을 기를 걸어놓고 대나무를 베었다고 한다.(김진기 중) 옛날에는 함부로 당산 나무를 베거나 제거하지 못하였다. 왜? 본인과 마을에 큰 재앙이 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뒷산에는 수령이 150년 넘는 노송나무가 있다. 용석리 800번지 창녕성씨 판서공파 산소 뒤 언덕이 없어 보호림으로 군데군데 식수한 것이 크게 자랐다고 한다.

이 나무는 6.25사변에 포탄에 맞아 가지가 부러졌다. 여름에는 나무주변에 동민이 모여 모깃불을 놓고 부채질을 하며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에는 아이들을 못 재웠다. 늑대란 놈이 불시에 나타나 아이를 물어가 조리봉 골짜기에서 먹어치웠다고 한다

그리고 팔월 민속놀이인 그네는 필수적으로 큰 새끼줄을 땅아 가지에 메어 치마바람이 휘날리며 시원하게 날아올라 선창들을 만끽하며 세월을 낚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한다

〈부원장 최수길〉

15

외부리 느티나무



외부리 느티나무

- 주소 : 경남 창원군 창녕읍 외부리 1035-3
- 수종 : 느티나무
- 수령 : 570년

〈마을의 변천〉

외부리는 본래 어촌면에 속했다 1914년 일제 행정 개편으로 어촌면은 유장면과 합하여 유어면으로 편입되고 이때 가매실은 유어면으로 편입되지 않고 창락면 소속으로 되었다. 가매실로 불려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위가 빙둘러 싸인 분지형 즉 가마솔과 같이 생긴 지형이기 때문이다.

또 이곳 가매실 서편은 성지산 남동은 등산 등의 산줄기가 사방으로 둘러 있어 마치 가마처럼 생겼다. 1914년 이전에는 내부곡촌과 외부곡촌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창락면에 합해질 때 동명을 내부곡으로 할지 외부곡으로 할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동민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리로 결정하였다. 1955년 창락면이 창녕면과 합하여졌고, 지금은 창녕읍 구역이다.

남쪽 산 토옥골 산등성이에 말 무덤이 있는데 이 고분에 대한 수원 백씨의 전설이 있다.

고려시대 이전 창녕의 명문 토착성씨는 조, 장, 황, 백씨였는데 이곳이 백씨 집성촌이었다. 전설로는 어느 백씨 대가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3일만에 벽에 붙었다가 천장에도 달라 붙는등 괴이한 행동을 하여 산모가 겁이 나서 이웃 삼촌에게 알렸다. 삼촌이 보고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고 야단이었다. 왕이 될 만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은 구족을 멸한다. 삼촌이 급히 화석 돌을 들어 아이를 눌러 죽였다. 아이를 죽인 후 토옥골에서 백마가 나타나 3일을 울부짖으며 죽었다고 한다. 장차 아이가 큰사람이 되면 탈 용마인데 말의 주인이 죽었으니 입자 잃은 용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죽었다고 한다. 말의 무덤을 만들고 아이도 같이 묻었다고 한다. 수원 백씨가 그렇게 흥하게 살았으나 일시에 폭삭 망했다. 모두 떠나고 백씨 한집만 명맥을 이어 살아오다가 1970년대에 그마저 고향을 등졌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백씨 집안이 사라지고 현재는 창녕성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필자가 농협지에 향토 전설을 기고하기 위하여 말 무덤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그 때 벌써 도굴꾼이 무덤을 파헤친 흔적이 있었다. 그 후 부산대 사학과 교수팀이 학생들을 데리고 발굴 조사 하였다. 유물로는 말안장과 말 꾸미게가 발굴 되었다. 그리고 분터가 있는데 옛날 신문부곡(신문마을)에 속하여 농사를 짓고 생활하면서 토기를 만드는 가마터가 있었다. 이곳 분터에 가마터를 만들어 토기를 생산한 곳이다. 넘어 땀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

〈느티나무 이야기〉

이 나무는 앞 길이 진주 관찰사 도로라 하였다. 진주에서 ↔ 의령↔ 설매(입산)—진실제—광산—신문—풍조—학산—환곡—달고늪 주막으로 가는 큰길이 있었는데 일반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 나무에 큰 나팔을 걸어놓고 통제를 하고 말에서 내려가도록 하는 검문소 역할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당산 나무로 숭상하고 보호한다. 당산나무의 당산제 과정은 어느 곳이나 똑 같이 진행하는 제례문화이다.

〈6.25 이야기〉

외부리 산 전체가 포화를 맞아 곰보산 이라고 할 만큼 산 전체에 전투가 치열했다. 인민군 9월 공세 때 박진을 도강하여 진실제, 광산, 어울, 토옥골산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후포 쪽 포대와 외부 앞 개울의 포대가 합세하여 산 전체를 포격하였다. 환곡 남서쪽에서 바라본 외부산 전체가 곰보산이었다. 그때 이 느티나무도 포격에 맞아 중간 부분에 관통하여 속이 더욱 비었다. 이를 수난 당한 피난 나무라고도 한다.

〈부원장 최수길〉



16

어도리 수장 회화나무

어도리 수장나무(회화나무)

- 주소 : 경남 창원군 창녕읍 어도 1길 23번지
- 수종 : 회화나무
- 수령 : 120년

〈마을의 변천〉

용석리 본동으로 어섬 양용석 골용석 새마 마을의 행정 명칭이다. 어섬은 옛날 용석천이 흘러 이곳에 모래등이 쌓여 들의 한가운데가 마치 섬처럼 보여서 섬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 어도라 기사화 한 것은 천지개벽 때 땅이 고기머리처럼 남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이곳이 궁벽한 곳이었다. 죄수들을 유배하였던 섬이다. 외부와 단절된 지대였다고 전해온다. 인근 서편에 신라 고려때 신문 부곡이 있어 이와 연관 지어 볼 때 신라 병합에 반대한 비사벌 인들이 부근일대에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어섬은 신문 부곡의 구

역이라 하겠다.

〈나무 이야기〉

이 나무는 개인집 사리문 귀퉁이에 심어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잡귀 등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하여 회나무를 심어 둔 것이 그대로 자라고 있다.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집 사라문에 회나무를 재배하여 잡귀를 쫓고 가정을 보호하는 나무로 숭상 받고 있다.

〈부원장 최수길〉

17

회산의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군락



회산리 보호수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신촌리 183번지
- 수종 :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 수령 : 200년, 100년



〈마을의 변천〉

환곡의 북쪽에 있으며 환곡과 같이 법정리동은 신촌리라 한다. 이 마을은 400년 전에 넘어골 북쪽 골짜기 하동에서 들 북관에 이주하였다. 이곳에 김녕김씨가 세거하고 있으며 마산재가 있다.

지금도 넘어골 북쪽 골안 밭에는 우물 섬돌 등의 흔적이 지금도 있다. 삼정자라는 지명은 회산 마을 서쪽에 세 그루의 정자나무가 있어 이 일대를 지칭한다. 그 옆의 강태정(一井) 우물은 따뜻하여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또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질병 치료에도 쓰였다.

회산 마을이 배의 형상이라 하여 구멍을 많이 뚫으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다른 우물을 팔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우물을 귀하게 여겼다. 경지 정리로 없어졌다.

회산이란 동명은 옛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으나 기록이 없다. 그래서 필자가 유추해 보았다. 탐하천이 들 한복판으로 구렁이가 구불구불하게 기어오는 형상으로 마을 앞을 휩 돌아 정자나무 앞을 회전하고, 다시 흘러 창녕천에 합수하였다, 지금은 경지정리 하여 하천을 곧게 만들고 정자나무 반대쪽에 독을 쌓아 보존하고 있다. 1965년경 대 홍수로 강삼봉 씨 집 아래에 방축이 무너져 마을 북관으로 범람하여 동민들이 휩쓸려 부상자가 생겨났다.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여 도지사가 현지를 둘러보며 위문하였다. 회산 마을을 하지 말고 직산 마을로 하라는 말도 있었다. 아마 지형으로 보아 개울에 의하여 지어진 동명이 아닌가 유추해 본다.

〈나무의 역사〉

강삼봉 이장(82세)이 나무의 역사를 증언 하였다. 전 문화원장 김영철씨가 이 마을 출신이다. 이 분이 마을 흔적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동에서 마을 전체가 이주하였다. 그 당시 비가 오면 개천 제방이 유실되어 방수림으로 심은 것이다. 대부분 유실 되거나 고사 되었으나 삼정자 부근에 섬 모양으로 흙이 많이 있어 이곳의 나무가 살아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그 옆 은행나무는 강성상 어른께서 귀한 묘목을 타지에서 2그루를 구입하여 심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정월 대보름이면 다른 마을과 같이 동신제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액운이 없도록 기원하면서 동민이 정신을 하는 동안 모두 근신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옷을 입히고 분장을 하고 새끼줄을 치고 문종이를 매달아 놓고 일부 아낙네들은 개별적으로 소원을 비는 기도도 하며, 아이가 없는 사람은 득남해 달라고 밤중에 정화수를 받쳐 놓고 지극 정성을 올리면 좋은 경사가 있었다고 한다. 아마 옛 우리 조상들의 민속 토속 신앙 향기가 아닌가 한다.

〈부원장 최수길〉

18

옥천리 당산 소나무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323번지
- 수종 : 소나무 7그루
- 수령 : 150여년



옥천리 당산나무(소나무)



〈마을의 변천〉

창녕읍의 가장 넓은 법정리이며 산이 수려하여 절이 많으며 특히 천년고찰 관룡사와 극락암이 있으며, 노단이, 시미골, 넓은골, 원통길, 방치목, 새말, 담안, 고도방지, 하동, 모랭이, 앞들등 무려11개의 자연마을이 골짜기마다 형성되어 있다.

옛날에는 옥천 골짜기에는 팔사 구암자가 있어 불교의 성지라고도 한다. 그리고 산 계곡에 옥수가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옥천리이다.

본래 창락면의 지역으로 「호구총수」에도 산 옥천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오래된 지명이다.

흔히 이곳은 산옥정이라 하여 산으로 사방이 둘러 싸여 밖으로의 교통이 불편한 천옥과도 같은 뜻으로 불리어진 것이 옥천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나무 이야기〉

이 나무는 옥천리 주 당산 나무로 정월 보름날에 당산제를 올리고 다음에 각 자연부락별로 청룡제를 올린다고 한다.

옥천 서낭나무는 창녕 읍내에 최고로 무섭고 힘이 세고 효험이 나 있는 당산제라고 한다. 제물을 준비 할 때는 해마다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옛날에는 소를 잡을 때는 관청에 신고 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도살하는데 당산제 제물은 관청에 신고도 없이 도살 하였다. 관에서도 인정하였다고 한다. 당산제를 올리고 나면 마을이 평온하고 사고가 없어야 제관들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옥천 당신과 환곡리 당신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창녕에서 줄 당기거나 큰 행사가 있으면 풍물과 같이 비둘재를 넘어오며 환곡에서도 서낭을 모시고 우진기 고개에서 서로 마주보며 신나게 풍물을 치고 퇴천에서 합세하여 창녕 행사에 나란히 의좋게 참여 하였다고 한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퇴천에 와서 한바탕 어울림 행사를 하고 각각 헤어졌다. (이 자료는 창녕군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음)

〈부원장 최수길〉

19

노단이 마을 수호목 느티나무



옥천리 느티나무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129
- 수종 : 느티나무
- 수령 : 250년



노단이 느티나무(사진 : 곽정기)



노단이 느티나무(사진 : 최수길)

〈마을의 변천〉

노파이로 불리기도 한다 가장 깊은 골짜기 안의 마을로 토질이 붉어서 초목까지도 붉었다 한다. 이에 따라 붉은 단을 써 노단이라 하였다. 단(丹)은 담뱃의 음차이다. 이곳은 높은 곳의 마을이고 골짜기이니 높다랗다 등의 말이 높다 낮따이 등으로 변하였다고 보고 있다. 전에는 15호 살았으나 많이 줄었고 다시 외지인들이 산수 좋고 공기가 맑아 주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집이 5집이 있다. 칠명이재 아래 골짜기에 창녕여고 연수원을 건립하여 운영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운영을 중단하였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안용학씨(80세)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나무 이야기〉

마을에 처음 취락할 때 나무를 심어 마을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했다. 차츰 커가자 당산제를 올렸다고 한다. 옥천의 주 당산제를 올리고 다음 노단이 동민들이 제일 높고 거리가 먼 골짜기에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행사를 치렀다. 특징은 골짜기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도 나무 밑에 아이들이 여름에 잠을 자고 있어도 해치지 아니하고 또 모기가 없다고 한다

「옛날 같으면 각처에 늑대 같은 동물이 아이를 물어가서 잡아먹기도 하였다」 군에서 보호림이라 하여 가끔 직원들이 와서 영양제 주사를 놓고 간다고 안용학씨가 전한다.

〈부원장 최수길〉

20

노단이 연리지



옥천리 연리지 소나무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129번지(마을앞 간이주차장 옆)
- 수종 : 소나무(2그루)
- 수령 : 200년



노단이 소나무(사진 : 곽정기)

이 나무는 주차장 옆 마을 입구에 자연적으로 자라서 연리지로 형성되었다.

옛날에는 이 나무가 노단이 관문 이었다. 지금은 도로가 확포장 되었으나 옛날에는 징검다리를 건너고 산비탈 오솔길을 따라 옥천을 거쳐 비들재를 넘어 창녕장에 갔다.

산채, 산약 가공품을 조제하여 힘겹게 머리에 이고, 등짐을 지고 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다시 집에 오면 밤중에 이 관문에 도착하면 동민들이 이 연리지를 안고 한 서린 노래를 울리고 갔다. 애달픈 남녀간의 사연을 담은 나무이기도 하다.



노단이 소나무(사진 : 최수길)

지금은 사연 많고 한 많은 노단이 관문을 군에서 연리지로 명하고 가끔 영양제 주사를 놓고 간다. 그 옛날 서쪽 가지에 마을 여인네들이 그네를 만들어 민속놀이도 하였는데 흔적이 아직 가지에 남아 있다.

〈부원장 최수길〉

21

담안마을 느티나무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518-6
- 수종 : 느티나무
- 수령 : 300년(4.5아름)



옥천 학교옆 느티나무

이 마을은 옥천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옥천초등학교가 있는 곳이다. 담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는데 한자로 담원(垣)자를 써 원촌(垣村)이라 한다. 지금은 41호 사는데 1500년대부터 김녕 김씨가 많이 세거하였다. 산천재 김녕 김씨 봉선소가 있다.

〈나무 이야기〉

기록에 의하면 김녕 김씨가 입향 하여 취락을 형성하고 세거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묘목을 심었다. 세월이 흘러 나무가 크게 자라 주변으로 돌 축대를 높이 쌓아 보호를 하며 마을 정자 목으로 만들지 않았나 유추한다. 옛날에는 이곳에 여름이면 동민들이 모여 시원한 물소리 새소리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쉬면서 낮잠도 자는 쉼터라고 한다. 마을 긴급회의가 있으면 여기에서 모여 의논도 하고 남녀노소 친목의 장소다. 일제 강점기에는 심심하면 순경이 와서 폭행을 하고 물건 양식을 수탈하였다. 6.25전쟁 직전에는 좌우익 싸움에 휘말려 많은 동민들이 수난과 고초를 당하였고, 6.25사변 때에는 인민군 전초병이 밤에 나타나 동민을 강제동원 하여 사상교육도 시켰으나 한사람도 응하지 않고 도망쳤다고 한다. 전쟁 후에는 잔류 인민들이 ‘십미골 늦단이’에서 밤에 나타나고, 낮에는 경찰이 인민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는등 낮과 밤의 지배자가 바뀌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고초를 겪은 한많은 나무라고 한다. 이 나무 밑에 입석에 金基煥 植樹 記念碑 이라 되어 있으나 뒷면에 글자가 마모되어 해독 하기가 어려워 사진만 촬영하고 내려왔다

〈부원장 최수길〉



옥천리 입구 느티나무(로타리나무)

22

옥천리 관문 느티나무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440번지(구 옥천 정미소 앞)
- 수종 : 느티나무
- 수령 : 150년

〈나무의 역사〉

옥천의 1관문이다. 옥천에는 2개의 관문이 있는데 노단이 연리지가 2관문이다. 의례 옥천에 들어가면 길 북관에 우뚝 솟은 둥근 공원에 정자를 짓고 차는 좌우로 휩 돌아가도록 길을 잘 조성하였다. 이 위치는 비들재에 있는 꼬깔산과 굴등산이 합쳐 옥천쪽으로 준령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곳이 용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용머리를 일제 강점기에 길을 넓히기 위하여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렵 쓰고 절단하였는데 피가 흐르는 흔적이 있다고 한다. 그 후 옥천 마을 아이는 홍진 등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큰 환난을 당하고 또 큰 사람이 나지 않는다고 마을 정자에 쉬고 있던 많은 할머니(85세)가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김녕 김씨 한분이 증언을 하는데 김진백 군수님이 옥천길을 확장 포장공사를 계성에서 옥천까지 관광산업과 주민들의 편의를 명목으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옛날과 같이 마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부근에는 공사를 못하고 다른 구간을 마치고 마지막에 주민들과 의논 끝에 합의를 보았다. 나무를 보호하고 원통형으로 높게 쌓아 공원형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완공하였다.

이런 옥천 관문의 나무가 전설을 안고 늘 푸르게 오고가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환송하는 유명한 관문으로 탈바꿈 하였다.

〈부원장 최수길〉

23

신촌리 이팝나무



환곡(신촌) 이팝나무

- 주소 : 창녕군 창녕읍 신촌리 산 100번지
- 수종 : 이팝나무
- 수령 : 224년

〈마을의 변천〉

넘어골은 고리실의 뜰 마을로, 고리실이 깊은 골에 처음으로 세거하여 차츰 영청골 배나무골에 이어져 이거하였다. 그러나 넘어골은 별도로 사람들이 취락 하였다. 이 마을에는 여양 진씨들이 많이 거주하였으며, 등넘어에는 하동이라는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살다가 들관 한 복판에 이거하였다. 이 마을이 지금의 회산이다

〈나무의 역사〉

언제인가는 확실치 않으나 환곡의 주 당산나무에 큰 제사를 올리고 다음 청룡제를 아랫담 팽이나무(3그루)와 건너담 소나무를 담별로 모시는데 이 이팝나무도 청룡제로 넘어골 마을에서 모시고 있었으며, 지금은 문화의 변천에 따라 당산제를 마을에서 중단하였다. 그러나 약 30여년전에 뒤쪽에 일월정사가 생겨나드니 그 후 절에서 나무를 지극히 모시고 불교의 기일에 따라 서낭을 나무 전 둘레를 휘장을 하고 나무 밑에서 지극 정성으로 염불과 굿판을 벌여 기를 받았다고 한다.

〈삼절각〉

동산 서록 자락 길췌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삼절각은 안동김씨(구 안동) 선대의 충각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손자를 데리고 진주성에 달려가 김천일 의병장 휘하에서 용전분투하여 싸웠다. 비

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맞으며 공격하다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아들 대수도 아버지의 시신을 바위 밑에 숨겨놓고 싸우다가 자식도 전사 하였다. 그 손자 역시 정암진 전투에서 하늘 아래 이 원수들과 같이 살 수 없다 하여 용감히 싸워 3대가 함께 나라를 위해 싸웠으나 전란 후 전공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 유림들이 나서서 20여 차례에 걸쳐 나라에 다 공적을 상신하였으나 애석하게도 녹번을 받지 못하고, 지방 유림들이 공로가 잊혀져갈까 심히 우려되어 순충비를 세우고 삼절각이라 편액 하였다. 당시에는 대로가 아닌 오솔길에 세웠으나 지금은 군도가 개설되어 길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오가는 길손들이 얼마나 이 역사적 사실을 알 것인지 이 정각을 지날 때 마다 숙연한 생각이 들 뿐이다.

〈나무 이야기〉

신이 들려있는 나무라 하여 평상시에는 누구나 감히 함부로 범접을 못하였다. 나무 밑에 가면 으스스 하여 위축되기 일췌였다. 그러나 추석 명절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나무 옆가지에 옛 민속놀이인 그네를 매어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휘날아가는 그네 줄에 아낙네의 치마 바람이 말렸다 펄렁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되새긴다.

〈6.25 한국전쟁〉

창녕은 6.25 한국전쟁 시 최대의 격전지였으며 최후 보루였다. 인명 피해 물적 피해는 말 할 것도 없고 애국은 나무까지도 총탄을 맞아 지금도 당시의 상흔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특히 넘어골 골짜기의 깊고 으스스한 곳에 인민군 본부가 들어섰다. 이곳은 골짜기라 협소하여 비행기 폭격이 어려웠다. 전쟁 후에 돌아오니 인민군 시신이 집집마다 즐비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 시신들은 모두 개별 가구 주들이 산에 묻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부원장 최수길〉



환곡 삼절각

24

환곡 중담 팽나무



환곡 중담 팽나무(청룡제)

- 주소 : 창녕군 창녕읍 환곡어도로 156-11(최해영 댁 뒤)
- 수종 : 팽 나무
- 수령 : 150여년 (3그루)

〈마을의 변천〉

고리실 중담은 약 420년 전에 경주최씨 판서공파 입향조 최봉윤공께서 대구 도동에서 영청골에 성취공 집 부근 78번지에 이사를 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창녕 전투에 참여하여 그 공으로 통덕랑(정5품)이란 관직을 제수받고 웅천에 근무하다 귀향하였으며, 그 이후 후손들이 차례로 중담에 터를 잡아 세거하였다. 아랫담은 그 후 동래 정씨 입향조 모동공이 입향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담에는 경주 최씨 판서공파와 이후 진양 하씨 입향조 계흥계담공께서 내동에서 150년 전에 입향하여 등담에 같이 세거하였다. 아랫담에는 동래 정씨 후에 150년 경에 경주 최씨 화엄공 동직과 후손이 의령 낙서 밤실에서 환곡으로 이거 정주 하였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생활터전이 바뀌어 객지로 나가 출세하여 고향을 돕는 일이 많아졌으나 세대 수가 많이 줄었다.

〈나무 이야기〉

이 팽이나무는 중담과 아랫담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아랫담에서 이 당산나무에 주 당산제(왕산 봉 당집과 노나무)를 마치면 곧바로 청룡제를 올렸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밤중에 제를 올리는데 그 전에 현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3일 동안 목욕재계하며 몸가짐을 정갈하게 했다. 특히 1년 동안 길흉사 방문을 일체 삼가고 제물 구입도 옛날에는 샷갓을 쓰고 본인이 직접 장만하였다. 여자들은 제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당일 현관은 냉수에 목욕을 하였고 제를 지낸 후 이튿날 마단(총회)를 열어 결산 보고를 하며 제물은 봉지에 싸서 가구별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다.

이 나무는 일명 팽구나나무로서 꽃 열매가 열리면 어린이들이 열매를 따서 대나무 토막에다 알을 넣어 공기를 압축시켜 심을 만들어 밀면 공기 압축으로 팽 터지는 일종의 총기구 같아 전쟁놀이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아랫담에서는 지금도 청룡제를 지내고 있다. 청룡제는 마을에 여행이나 행사가 있을 시 밤중에 목욕을 하고 음식을 장만한 뒤 행사의 주

최자로서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다. 특히 정월 대보름 날에는 정기적으로 청룡제를 올린다. 주 서낭제는 약 40여 년 전에 폐지하였으나 청룡제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 청룡제의 제주는 최찬교(영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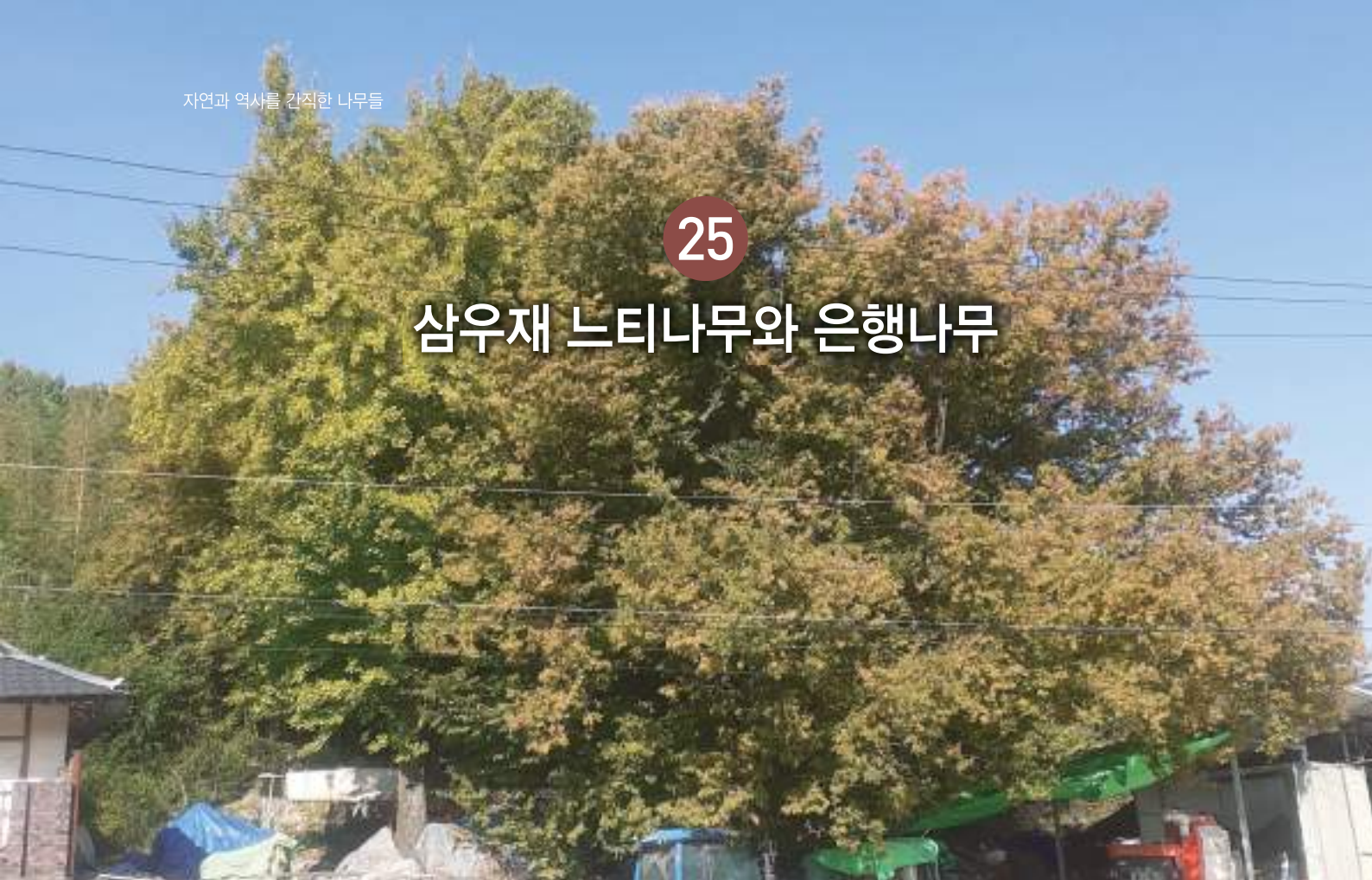
〈중원 노송〉

수령 150년된 큰 노송이다. 2012년 4월 20일에 부슬비를 맞으며 일시에 나무자세가 흔적조차 없이 먼지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당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윤옹주씨와 본인(최수길)이 바로 맞은 편에서 직접 이 광경을 목격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허탈한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나무는 웃담과 아랫담 중원 진양 하씨 현감공파 산소 위 산비탈 청석 속 척박한 땅에 위치해 있다. 여름이면 마을 쉼터로서 더위를 식히는 곳이며 농사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했다. 겨울에는 풍물놀이 서낭대 놀이의 중심 무대였고 동네 아이들의 자치기 공차기 놀이터였다. 또한 동네 아낙들이 나무 밑에 촛불을 켜놓고 정안수를 차려서 지극정성을 들이며 기도하는 기도처이기도 했다.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마을총회의 장소이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을 지켜 본 나무다. 일제 강점기시엔 공출을 내지 않는다고 느닷없이 동민들을 나무 밑에 두 줄로 마주보고 세워서 서로 뺨을 때리는 벌을 내렸다. 맞은 편에 형과 아우가 있었고, 때로는 숙질간에도 서로 뺨을 때리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순경이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보아 살살 때리기라도 하면 사정없이 몽둥이 뜸질을 가했다. 심지어 경찰이 시범을 보이며 세계 때리기를 다그쳐 서로 약이 올라 심하게 때리기를 반복하다 보니 당시 소나무마저 이 광경을 보고 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애환이 담긴 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다. 본 사진은 1981년 봄에 촬영해 둔 사진이다.

〈부원장 최수길〉

25

삼우재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삼우재 옆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 주소 : 창녕군 창녕읍 환곡 1길
- 수종 : 느티나무(1그루), 은행나무(1그루) / 정자나무
- 수령 : 100여년



삼우재

〈나무의 내력〉

본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기념식수로 1927년 삼우재 건립시 심은

나무다.

최기술, 최상술, 최국술 종형제가 함께 선조인 판서공파 봉선소가 없어 고심하다가 거액을 출연하여 왕산봉 기슭 양지 바른 곳에 터를 잡아 재실을 짓고 현관을 삼우재라 편액하였다.

종형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했다. 삼우재 대청에는 ‘구용현’이라 계시하였다. 군자가 심신을 수행하는 아홉가지 태도와 몸가짐을 말한다.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도하기 위함이다. 율곡 이이가 지은 격몽요결 구용구사를 참조했다 한다. 현재는 그 주손과 방계 후손들이 나누어 소중으로 구성 많은 재산을 증식하여 운영하고 있다. 푸르고 푸른 나무와 같이 성장 발전하는 후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

〈부원장 최수길〉



26

소야리 팽나무

소야리 팽나무

300여 년 된 소야리 팽나무는 창녕군 대합면 소야리 산 40번지에 있는 멋진 나무다. 이 팽나무는 우리 창녕에서 팔구나나무 라고도 부르는 나무로, 소야리 마을 뒤 낮은 야산에 있다. 마을 앞의 들과 화

왕산이 보이는 멋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합면의 마을에 관한 기록서인 대합면 약사(1989)년에는 소야리 마을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이 책에 따르면 소야리의 마을 유래는 다음과 같다. ‘소야리는 구 대곡면 지역으로 대합면의 남부이다. 「호구총수」에 소야촌으로 기록되어있어 소야촌으로 불린 지명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야라 불리게 된 것은 400여년 전 이 마을에 효자가 많이 나서 효야촌(孝也村)이라 불리던 것이 효자를 소자라 발음하였기 때문에 소야라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마을 앞이 풀밭이었으므로 바(밭:田) 소(所) 들야(野)로 기록된 것이라 한다. 야는 다시 이끼 也로 변하였던 것이다.’

소야리 팽나무는 마을의 당산나무 역할을 해왔다. 팔월 보름에 나무에 줄을 치고 당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은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다. 나이 드신 마을 주민처럼 조용히 소야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나무처럼 보인다.

소야리 이장인 김재안씨는 6.25 전쟁 때 피난 간 마을 주민들이 이 나무를 보고 마을을 찾아왔다고도 한다. “그 나무는 우리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준 고맙고 재미있는 나무다. 어릴 때 옆의 대나무를 자르고 사용하여 딱총을 만들었다. 팔구나무 열매 씨 두 알을 사용해 앞의 한발은 나가고 뒤의 한발은 압축용이었다. 수 백년 된 잘생긴 나무로 더운 여름엔 휴식처 역할을 해준 고마운 나무이기도 했다”.

이장 김재안씨는 “이 나무가 고사 직전에 갔는데 손 보고나서 다시 살아났다” 고한다. 이 나무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소야 마을과 우리 고향 창녕도 발전이 되어 멋진 곳으로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이창복의 『대한식물도감』(향문사, 1982), [네이버 지식백과] 팽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의 자료에는 팽나무에 대한 글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폭나무·포구나무 등으로 불리며 한자어로는 팽목·박수(朴樹)·가수(椶樹) 등으로 불린다. 10월에 등황색으로 성숙하면 단맛이 있어 아이들이 잘 먹는다.

어린잎이 자줏빛인 것은 자주팽나무, 잎이 둥근 것은 둥근팽나무, 잎이 보다 길고 큰 것은 섬팽나무라고 한다. 이 밖에 팽나무종류 중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왕팽나무·풍계나무·검팽나무 등이 있다. 모두 큰 나무로 자라며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우리 나라 어느 곳에서나 자라고 땅이 깊고 비옥한 낮은 곳에서 왕성하게 자란다.

남쪽지방에 더 많은데 대단히 큰 나무로 자라며 큼직한 수관을 이루어 좋은 그늘을 만든다. 옛적부터 풍수지리설에 따른 비보림(裨補林 : 부족한 곳을 채우는 나무)·방풍림 또는 녹음을 위해서 심어지고 보호되어 왔다. 팽나무의 목재는 비교적 단단하고 변재(邊材)와 심재는 황갈색으로 나타난다.

갈라지는 일이 없어서 가구재·운동기구재로 많이 쓰이며, 특히 조금만 풀기가 있어도 검푸른 곱광이가 끼고 곧 썩기 시작하는 재질의 특성 때문에 청결을 제일로 하는 도마의 재료로 가장 좋다고 한다.

소야리의 팽나무는 어른들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주민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공동체 정신의 당산나무이자,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어준 고마운 나무이다. 마을 뒷산의 수호신처럼 지키고 있는 팽나무를 보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옆에 나 있는 대나무를 자르고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용호〉

27

평지리의 할배, 할매나무



평지리 할매 나무



평지리 할배 나무

평지리의 할배, 할매 나무

평지리에는 할아버지 나무와 할머니 나무가 있다. 마을 뒷산의 평지리 638번지 나무는 할아버지 나무이고, 마을 앞의 631번지 나무는 할머니 나무라고 불린다.

평생을 평지리에서 살아온 석보균씨는 “평지리 마을 뒤의 평지리 638번지에 위치한 약 400여 년 된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다”라고 말한다.

마을을 나간지 오래되어 고향을 떠났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 사업을 하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다고 한다. 아들인 자신들의 사업이나 가게를 시작하여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할아버지 나무에게 인사하고 가는 영험있는 나무이다.

마을 뒷산에 가면 인사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음식을 앞에 두고 제를 지나기도 하고, 돈봉투를 전달하기도 한다. 나무에게 인사하고 가면 일이 잘 풀리니 고마운 나무이다.

동네 앞뜰에 있는 할머니 나무는 평지리 63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합면 약사>는 평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평지리는 본래 합산면으로 대합면의 중앙부라 할 만큼 면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평지리는 합산면 시절 면소재지였다고 한다. 1914년 대곡면, 개복면, 합산면이 합하여져 대합면이 되고 난 후에도 면사무소가 있다가 수년 후에 십이리로 나갔다고 하므로 이곳은 옛 대합의 중심부라 하겠다. 평지리는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이므로 들마을, 들말, 평지(坪旨)로 불리었다.”

마을 앞에 작은 숲을 이룬 곳에 회나무, 물푸레나

무, 그리고 왕버들나무도 있다. 이 나무들 옆에 이전에는 웅덩이가 있어 정월 2월 초하루에 용왕 먹인다고 머리씻고 인사하고 보리밥을 바쳤다. 6.25 전쟁 당시에 마을에 불이 났는데 들어오는 입구 쪽의 몇 집만 타고 다 남았다. 마을 전체가 다 타버릴 수도 있었는데 할머니 나무가 그 화재를 막아주었다는 전설이 있다.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 숲이 우거져 시원하다. 선풍기가 없을 때는 모깃불 놓고 홀이불을 덮고 누워 자기도 한 곳이다.

평지리 마을에서 제를 지낼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석보균씨가 전한다. “동네 입구와 출구에 향불을 켜놓고 가정집에서는 행불을 음력 열나흘 날 놓는다.

출구와 입구에는 금줄을 치면서 향불을 열하루 날부터 3일 동안 정신해서 제를 지냈다.

동네 입구마다 금줄을 친다. 문종이를 중간중간에 끼워 놓으며 동네 사람들이 함께 정성을 들인다. 열나흘 날에는 비린내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음력 1월 14일 자정에 제를 올린다. 15일에는 마을 대동제를 한다. 마을 대동제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는다. 돼지의 머리는 산신을 모시고 다리는 앞 뒤 수호신에 용왕 먹이는데 올린다. 꿩과리도 치고 시절도 물어보고 했다. 요즘은 꿩과리 안친다. 음식 나눠먹고 행사를 한다. 결산 보고를 이장이 정월 보름에 한다.”

평지리 할배, 할매나무는 정다운 이름을 가진 나무다.

<노용호>



할매 나무



할배 나무

28

우포늪 관봉산 대통령의 밤나무



대통령 나무

문재인 대통령이 심은 나무는 주매리 532-2의 관봉산에 있는 밤나무다. 노용호 박사의 소개로 2012년 4월 1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우포늪에 와서 심은 나무이다.

주매리 산의 주인인 노용호 박사는 문대통령의 처남과 미국의 뉴욕대학교(NYU) 대학원 동기로, 대통령 부부를 우포늪에 초대하였고 밤나무를 심게 되었다.

우리 고향 창녕군과 우포늪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박사는 우포늪을 보지 못한 지인들에게 우포늪 자랑을 많이 하고 방문하라고 한다. 생태축 해설을 하며 T.V에 나오는 곳과 연예인 장동건, 수애, 수지 등이 온 곳으로 모시면서 우포늪 해설을 하고 같이 둘러본다.

2012년 4월 12일 문재인 대통령부부가 우포늪을 방문했다. 양산시에서 창녕읍까지 자가용을 운전하여 왔고, 창녕읍에서부터 김정열군이 자신의 차로 운전을 하면서 두 분을 모셨다.

일행은 먼저 우포늪생태관에 들렀다. 우포늪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박사는 우포늪생태관에 근무하고 있었고 우포늪생태관은 우포늪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물과 패널들이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층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자 성인 방문객 1명이 알아보고 사진 찍기를 요청하였고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문대통령 이야기를 생태관 해설사에게 하니 백외숙 해설사가 자기는 바로 알아봤다고 한다.

생태관을 나와 점심은 주매리의 우포횃집에서 봉어조림을 먹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두분을 알아보고 “바쁘신 분이 찾아주셨네요” 하면서 인사를 했다.

식사 도중에 문대통령이 뭐라고 했는데 김정열군이 “그냥 먹어세요”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드셨다. 나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일로 인해 나는 두고 두고 김정열군을 만나면 이야기한다. “야 니 대단하더라 대통령이 되실 분에게 한마디로 눌러버리데~ 하하”

식사 후 산에 와서 산부추가 있는지 물어봐서 나

는 주매리 산의 입구에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정구치인 부추를 캐서 드리고 본인께서도 직접 부추를 캐다. 지금도 마을로 들어가는 방향의 도랑이 인접한 곳에 부추군락이 있다. 70년대 까지 사람이 살아 부추를 심은 곳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다음엔 두릅을 나와 함께 땀다. 한참 두릅을 따다가 위를 쳐다보니 김정열군은 내려오지 않고 김여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대통령은 두릅을 따면서 아는 사람이 엄나무를 많이 심었다 하시면서 엄나무도 좋으니 심으라고 권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엄나무가 약도 안치고 잘자라는 것을 알고 엄나무를 사다 심었다. 옥천군의 대림묘목에서 주문하여 심었다. 주매리 532-2 산에 엄나무가 많은 이유이다.

그날 마침 밤나무 묘목이 있어서 밤나무 식목을 요청했고 심으셨다. 밤나무 심은 곳 주위에는 하이얀 색의 봄꽃이 많이 피어있었다. 김여사는 하이얀 색의 작고 귀여운 야생화를 보더니 “용호야 이 꽃 가져가도 되나?”고 물어보셔서 “네에 그럼요”하고 답하니 부근에 있던 호미로 봄꽃을 파서 가져가셨다.

나무를 심은 후 주매리의 주매제방에서 우포늪으로 갔다. 계절이 좋아 버드나무들이 멋지게 봄맞이를 하면서 연한 색깔들을 빛내고 있었다. 물가 옆에는 연한 녹색의 풀들이 이쁘게 올라와 있었다. 나는 김여사가 가져온 사진기를 잠시 빌려 문대통령의 뒷모습을 찍었다. 지금 그 사진이 없어 아쉽지만 멋진 하늘과 버드나무가 있던 배경에 문대통령이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찍었다.

마침 남지유채축제가 열리던 날이라 유채축제를 보고 가실런지 물어보니 약속이 있어 안된다고 하였다. 창녕읍에 세워 둔 자가용을 타고 양산 집으로 돌아가셨다.

매년 가을이면 밤 열매가 열려 나무심고 두릅따던 그때가 생각난다.

<노용호>

29

태고의 이야기를 품은 우포늪 팽나무와 왕버들 군락

우포늪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나무들이 있다. 그 중에서 사지마을의 팽나무, 우포늪 징검다리 부근의 왕버들군락, 장재마을의 왕버들군락과 누운 왕버들 나무가 인상적이다.



우포늪 징검다리



사지마을 팽나무

사지마을 팽나무

사지마을의 팽나무는 우포늪이 시원하게 보이는 곳에 위치한 나무이다.

약 200만명이 보았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에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인공 ‘잎싹’은 양계장을 두려움 속에 빠져나와 이 나무앞에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펼쳐진 겨울 철새들의 군무(群舞)를 보고 자유를 느꼈다고 한다.

사계절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이 팽나무는 거의 200여 년되었다.

나무도 오래되니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가 된다. 이 나무를 유심히 보면 말이나 소같은 모양을 보여 준다. 또 위에 난 줄기 중의 하나를 관찰하면 마치 양이나 머릿결이 색다른 다른 나라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나무에게서 관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이 나무 앞에서 우포늪을 보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도망쳐 나와 자유를 느낀 잎싹 처럼 온갖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날려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두손과 팔을 올리고 나의 두 팔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크게 뛰어 오르며 점프(Jump) 해보자. 크게 외쳐보자. 이 나무처럼 멋진 자유인이 될 것이다.

예~ 자유~ 프리덤(freedom) 프리덤(freedom)
오 예~



징검다리 왕버들

징검다리 부근의 왕버들군락과 수지나무

이곳을 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우포늪 옆 사초군락의 끝부분으로 가서 징검다리 인근에 있는 왕버들군락을 보는 곳이요 또 하나는 목포제방에서 남쪽 방향으로 300미터 정도 가면 징검다리를 볼 수 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아름답리 왕버들 군락이 물가를 따라 이어져 있다.

왕버들 주위의 사초군락에서는 자운영, 물억새와 창포, 부들 등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왕버들을 본 많은 우포늪의 방문객들은 “야아~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너~무 멋지다.” 하고 감탄을 연발한다.

이 왕버들 친구들을 보지 않고서는 우포늪에 왔다고, 가보았다고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포늪을 대표하는 가장 멋진 풍경 중의 하나이다.

가수이자 배우인 수지가 2016년 가을에 우포늪에 영상을 찍기 위해 왔다. 인기 연예인 수지가 우포에서 영상물을 찍는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니 가을인데 겨울 부츠를 신은 젊은 여자 한 명이 내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수지였다. 수지가 영상물을 촬영한 나무는 수지나무라고도 불린다.

장재마을의 왕버들군락

장재마을의 왕버들군락은 장재마을이 있는 목포의 오른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멋진 왕버들군락은 사계절 내내 이쁘다. 봄에는 봄대로 금빛 색깔의 잎들을 보여주고 겨울에는 있는 그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몸매를 보여준다.

목포에 왕버들이 우거진 이유를 물으니 창녕군 공무원인 친구가 이야기해준다. 오래전에 우만 마을 사람이 장작용으로 나무를 심었다. 나무가 크는 몇 년 사이에 장작불을 아궁이에 때던 시대에서 연탄을 사용하던 시대로 넘어가 버렸다. 장작용 나무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장작용으로 심은 나무들이 수 십년동안 멋지게 자라서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나무를 베지도 사용하지도 않으니 나무는 더욱 무성하게 크고 커서 멋진 군락을 이루었다. 많은 왕버들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니 바람부는 날이면 마치 무용수들이 자신들만의 모습으로 춤을 추는 형태를 보는 것 같다.

봄이 되면 연하디 연한 연녹색의 아름다운 숲을 이룬다. 솟아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는 감동을 받는 곳이다.

장재리 왕버들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멋진 장면을 선물해 주니 사진을 찍고 또 찍는다. 자연과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고마운 나무이다.

누운 왕버들 나무

이 나무를 보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나무에 관심이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유심히 보는 사람이다.

우포늪에 많은 왕버들 중의 하나라고 지나치는 사람에게 이 나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 쓰러져 다시 왕성하게 자라는 왕버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쓰러진 나무에 놀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감탄하게 된다.

처음 이 나무를 보면 어? 나무가 왜 이래?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태풍으로 넘어진 나무는 가지가 땅에 닿아서 새로운 큰 가지들을 만들었다. 이는 생명을 향한 버드나무의 열정을 보여주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무의 생명에 대한 열정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칭찬한다.

나무에게 받은 감동을 자신에게 투명하여 열심히 산다면 그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고 위안을 얻고 감사하며 지나갈 수 있는 나무이다.

누운 왕버들





비밀의 정원 왕버들

비밀의 정원 왕버들 군락

이 나무를 보려면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유어면 세진리 우포늪생태관을 지나 양수장으로 사용하던 시멘트 시설을 지나면 우포늪 사초군락이 시작된다. 사초군락에서 100여 미터 정도 가다가 왼쪽을 보면 작은 연못을 만날 수 있고 그 연못 주위에 아름드리 왕버들이 둘러싸고 있다.

다른 한 방법은 징검다리과 사초군락을 지나 부영이 텃 가기 전의 우측 방향에 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작은 연못에 왕버들군락들이 둘러싸고 있다. 왕버들은 주위에 있는 맑은 웅달샘 물속을 지키고 있는데, 그 곳에 우포늪의 요정들이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고요하고 멋진 곳이다.

이 아름다운 곳을 사람들은 비밀의 정원이라 부른다. 비밀의 정원은 그냥 스쳐 지나 갈 수 없는 곳이다. 안 보면 후회할 멋진 곳이다.

〈노용호〉

30

유어 가항 수향 덧목마을 소나무와 느티나무



가항 느티나무



가향 소나무

유어 가향리에는 자연마을이 많다. 그 중 가향리가 중심마을로서 덧목이다. 창녕~합천간 도로의 유어면 등대 마을을 통과하는중 도로 우측의 가향리 표시석을 따라 등대들을 지나면 가향 늪을 만나 늪가를 따라 마을앞에 다달으면 마을길을 포함하여 넓게 펼쳐진 마을 공동시설인 마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북쪽 가장자리에 그 자태가 아주 아름답게 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고 광장 남쪽가장자리에 느티나무 한 그루 또 광장 서편에도 옛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이 세 그루의 나무가 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소나무 곁에는 수향(水郷)덧목, 이라는 마을을 찬양하는 시비가 아담하게 세워져 소나무와 대화를 나누듯 다정다감해 보인다.

추석앞날 현장을 찾아갔더니 마침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손녀 인듯한 어린애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오시길래 정중하게 소나무의 수령을 물었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른들 이야기가 당시 100년도 넘는다고 하셨다니 그분 말에 의하면 150여년은 되

리라 짐작된다.

덧목(加項)이라는 마을 이름은 정구현감이 창녕현감으로 재임중 이곳에 왔다가 동리 뒤에 있는 고개가 낮은 것을 아쉬워하며, “조금만 고개를 돋우면 큰 인물이 날 곳이다”하였다.

목(項)이란 산 또는 길, 고개 등으로 그 곳이 아니면 지날 수 없을 때 다니는 길목을 목 이라 한다. 옛적에는 이곳 사람들이 이방면으로 또는 창녕읍으로 갈려면 마을 뒤의 이 고개를 지나야 되는 목이다. 이 고개를 좀 더 높혀야 부자마을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으로 고개를 더한다는 말로 더목이 덧목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마을앞 시비의 주인공이신 황우 이준범(?~2004. 1. 24.)선생은 덧목 태생으로 건국대학 국문학과 출신으로 시인이며 아동문학가로 평생 동안 문단에서 활동하신 문학계의 거목이시다.

1961년 시집 황우(黃牛)의 출판을 시작으로 여러 편의 시집과 아동문학을 발표하시면서 문단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한국 아동문학가협회 상임 이사 등 여러 문학단체와 출판업계도 관여하는 등 분주히 사시면서 덧목의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자주 들려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으며 창녕문화원과 창녕문인협회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말년에는 어렵게 사시면서도 창녕문화원에 금 오천만원과 창녕문인협회에 금 삼천만원등 거금을 쾌척하셔서 고향 발전에 크게 기여 하셨다.

우리 문화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황우문화상을 설립하여 매년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원발전에 공이 있는 분께 시상하면서 황우선생의 뜻을 기리고 있다.

황우선생이 평소 고향 덧목을 아끼고 사랑하며 남긴 시비의 내용을 여기 기록한다.

수향(水鄉)덧목

黃牛 李俊凡

역수십리(逆水十里)가
낙안소(落雁沼) 안고 도는
아득한 수향
가향 덧목,

엄(嚴)하지도 야(野)하지도 않게
중용(中庸)에 정좌(正坐)하여
시원하게 앞이 트인 등대들 전망,

당산(堂山)의 가호와
안산(案山)의 자애가 은혜하여.

세세손손이
낙동강 물이 가져다준 비옥에
철 따라 심고 거두어
안분요토(安分樂土)의 향속(鄉俗)이
스스로히 순박 하여라

조금만 마을고개를 돈우면
큰 인물 날거라고
덧못(加項)으로 불려온
다정히 감싸 안긴 생활의 터전
수향, 가향덧목.

1995년 9월 24일



수향덧목 시비

*역수십리(逆水十里) : 낙동강의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방향인데 반대로 동쪽의 누구늪에서 서쪽의 가향늪으로 거슬러 올라 흐르므로 역수라 하고 그 길이 십여리나 되므로 역수십리라 한다.

*안분요토(安分樂土) : 마음편하고 분수를 지키며 살기 좋은 곳,

〈고문 김동주〉

31

유어 팔락정(八樂亭) 성황당목

- 미구 성황당과 돌무덤 -



팔락정 성황당목

유어 팔락정(八樂亭)은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491-2번지에 소재하는 정자로서 조선시대 창녕현감을 지낸 한강(寒岡) 정구(鄭逑)선생이 세운 8개소 정자 중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미구 성황당과 돌무덤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한강은 1543년 星州郡 大家面 七峯洞 柳村에서 판서공 思中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한강정구는 퇴계 선생과 남명 선생의 제자로서 양문에 출입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팔락정 현판

1580년 창녕현감에 처음으로 부임하여 흥학교민의 기치를 내걸고 많은 교화사업을 펼쳤으며 특히 창녕 관내 여덟 군데의 학교를 설립하여 팔재(八齋)라 불렀다. 팔재(八齋)는 팔락정을 위시하여 옥천정, 술정, 관산정, 백암정, 물계정, 부용정, 만진정 등 이다. ‘팔락정(八樂亭)’이란 이름은 ‘정자에 앉으면 여덟 가지의 즐거움이 온다’는 데서 유래 하였으며 그 즐거움은 다음과 같다.

- | | |
|--|--|
| 1. 猛虎渡江(맹호도강)
정자앞의 낙동강건너 지형이 범이 건너 오는 듯한 형세를보는 즐거움. | 5. 逆水十里(역수십리)
정자앞 개울의 물이 강의 흐름과 반대로 십리를 흐르는것을 보는 즐거움. |
| 2. 遠浦歸帆(원포귀범)
강멀리서 범선이 포구로 들어오는것을 보는 즐거움. | 6. 前庭槐樹(전정괴수)
앞뜰의 회화나무를 보는 즐거움. |
| 3. 平沙落雁(평사낙안)
넓은 강모래사장에 기러기가 앉는것을 보는 즐거움. | 7. 後園烏竹(후원오죽)
정자의 후원에 있는 오죽을 보는 즐거움. |
| 4. 北池紅蓮(북지홍련)
정자북쪽의 팔락호수에 피어있는 홍련을 보는 즐거움. | 8. 西郊黃麥(서교황맥)
정자앞 서쪽뜰에 보리가 누렇게 익은풍경을 보는 즐거움. |



팔락정

팔락정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미구리 이운찬씨가 전한다.

옛날 이 미구리에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총각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는데 길을 떠난지 오랜 시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소식조차 없는 총각을 기다리던 처녀는 그만 지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다.

한편 총각은 과거에 실패한 후 다시 수년의 각고 끝에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곧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 고향으로 왔다. 그러나 자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리라 믿었던 처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총각은 너무나 괴씸하고 분해서 여자를 찾아갔다. “그 몇 년도 못 참고서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말채찍으로 여자를 마구 때렸다. 그래서 여자는 용서를 빌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총각은 그 여자를 때린 회초리를 옆에다 던져버리고는 한양으로 가버렸다.

사람들은 그 때 총각이 던진 회초리가 땅에 꽂혀 지금의 성황당목으로 자랐다하며, 그 옆의 돌무덤도 그 여자의 무덤이라고들 한다.

〈한삼운〉

32

6.25 격전지 대초 왕버들 군락



대초 왕버들 군락

대지면 본초리는 법정리이며 관동, 예동, 대초, 학성이 행정리다. 대초는 구 대초면의 소재지이다. 대출(大出)이라고도 부른다. 1914년 군, 면 폐치분합 때 지포면과 합병하여 대초면의 대(大)자와 지포면의 지(池)자를 한 글자씩 따와서 대지면이라 하였다. 국도 20호, 24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마을 입구 도랑가에 왕버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수령은 삼백 여년 된 것으로 추정되나 애석하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면 소재지일 때 심은 것으로 보인다. 서편이 사말포 늪이다. 홍수가 지면 마을 턱밑

까지 물이 올라온다. 그러면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이 침수되어 민심이 흉흉해진다. 물 빠질 때까지 만이라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여 “물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었다는 말이 구전되고 있다”고 한다. 아름드리나무가 국도변에 줄지어 서서 장관을 연출한다. 도로변에 있으니 행인들이 탐을 많이 낸다. 나무를 사서 조경수 하려는지, 괴목 하려는지, 수시로 이장에게 찾아와서 팔라고 한다. 마을의 수호신이며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신목(神木)을 없앨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빨리 보호수로 지정되어 창녕군에서 관리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왕버들이 지키고 있는 이 곳은 6.25전쟁의 격전지였다. 1950년 9월 대공세 때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 본초리 지역까지 침투했다. 인근에 송장골이라는 지명이 있다(시체를 송장이라고도 함) 이렇게 명칭을 쓰는 연유는 북한군이 참호마다 총을 잡은 채로 2~3명씩 죽어 있었다. 상처 하나 없었다. 주민들은 핵을 쫓았다고 하나 화생방 물질을 사용한 것 같다. 대초에도 골짜기마다 집집마다 시체들로 가득했다. 주민들이 부역으로 시체를 치웠다. 젊은 사람은 포탄을 수거해서 경찰서에 줘버리고 갔다. 여럿이 가다가 한 사람의 지게에서 포탄이 떨어졌다. 혼비백산하여 지게를 벗어 던지고 도랑에 엎드렸다. 폭발하면 대형 사고다. 천만다행으로 터지지 않았다. 다시 무거운 포탄을 줘버리고 한발 한발 조심하며 갔다. 무사히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 시켰다. 무용담 같은 이 이야기는 고인이 된 분에게 필자가 직접 들은 것이다. 부역하는 과정에서 시체에 있는 시계나 철모, 군화 등을 벗겨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

또 왕버들이 알고 있는 마을의 슬프고 기쁜 사랑 이야기가 있다.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딸 6명을 두었는데 딸들이 하나같이 얼굴과 몸매가 연예인 저리가라 할 정도로 미인이었다.

이웃에 이씨 성의 3형제가 있었다.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어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싹텄다. 왕버들 그늘 아래에서 사랑을 키웠다. 둘이서 결혼도 약속했다. 혼인할 나이가 되어 양가부모에게 허락을 요구했다. 너무 가난해서 딸을 줄 수 없다면서 처녀 부모가 극력 반대였다. 싫다는 딸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다. 그러자 총각은 이를 비판하다가 왕버들에 목을 매고 세상을 하직했다. 대중가요 노랫말 같이 갑순이가 시집가면 갑돌이는 화가 나서 장가를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 죽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결혼해도 쉽게 헤어지는 요즘 세대에 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다.

그런데 죽은 총각의 동생과 다른데 시집간 처녀의 동생이 또 사랑에 빠졌다. 총각의 영혼이 두 사람을 연결 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처녀 부모가 어떻게 할지 다들 궁금해 했다. 이번에는 결혼 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에도 영마뚝찮아 하자 처녀가 자살소동을 벌였다. 왕버들에 목메 달아 죽겠다고 뛰쳐나갔다. 고집을 피우다가는 딸을 잃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산다. 이것이 사랑의 기쁜 이야기다.

왕버들이 알려주는 또 하나는 동네 사람들을 몰살 시키려한 엄청난 사건이 다. 일본 교포가 자기 조상 묘소를 명당에 옮기고 묘역을 단장하라고 돈을 보내왔다. 일본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당시 환율

로 우리나라에서는 꽤 큰돈이었다. 시체를 거꾸로 묻어도 탈이 없다는 청명날을 잡아서 묘 이장작업을 시작했다. 마을 남자 대부분이 동원되었다. 그날 따라 봄 같지 않게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 점심때가 되어 천막 안에서 막걸리 반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했다. 막걸리는 한말짜리 말통이었다. 나이 많은 순서대로 한잔씩 돌아가며 마셨다. 네 번째 마신 사람이 “술이 이상하다 농약 냄새난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억지로 토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사람이 술통을 땅에 쏟아 버렸다. 술을 마신 사람이 한 사람씩 쓰러졌다. 결국 앞에 마신 세 사람은 사망하고 억지로 토한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만약 술을 쏟지 않고 작업에 참가했던 사람이 다 마셨으면 모두가 몰살 될 뻔한 아찔한 사건이다. 산소까지 먹걸리를 짊어지고 간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평소 성격이 포악하고 폭력을 함부로 행사하여 마을 사람들과 원수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폭력으로 교도소도 몇 번 들락 거렸다. 모두가 외면하니 자연히 왕따가 되었다. 그래서 저지른 범죄인데 범인을 특정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도 하지 못했다. 범인은 마을 안에 분명히 있는데 약을 넣은 증거를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다. 때는 광주사태가 일어난 1980년이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경찰 수사력이 독안에든 쥐를 잡지 못했으니

유족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요즈음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오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말포 옆에 도축장이 들어 올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으며 돼지축사, 음식물 쓰레기 공장, 폐기물 공장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많이 건립되어 있다. 높이 일정부분 정화작용을 한다고 봤다. 막상 시설이 설치되니 수질오염, 공기오염이 극심하였다. 앞으로 환경정화 시설이 미비한 이런 시설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오염이 없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덕인 러브힐 요양원이 설립되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낙엽활엽교목으로 껍질은 회갈색이며 깊게 갈라지는 편이며, 목재는 가볍다. 잎의 앞면은 광택이 있는 녹색이며, 뒷면은 분백색이다. 어린 새잎은 붉은빛을 띠며, 잎자루에 납작한 선이 있다. 귀모양인 턱잎이 붙어 있으나 얼마 후에 떨어진다. 꽃은 5~6월 중순에 피며, 암수딴그루로, 잎이 생긴 후에 꽃이 핀다. 꽃가루는 황색이며, 암꽃은 황녹색이다. 버드나무 종류 가운데 가장 늦게 꽃이 핀다. 서식처는 하천 고수부지, 제방, 습

왕버들 수간



왕버들 수간



왕버들잎



지 가장자리 등 약간 습한 지역이다. 전국에 분포하나 중부이남 구릉지에 잘 자란다. 왕버들은 버드나무 종류 가운데 가장 크며, 수형이 우람한 교목으로 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한글명도 거기에서 유래한다. 지리적 분포중심지는 한반도 중남부 지방이다. 북한지역에서는 매우 드물고, 평양이북으로는 분포하지 않는다. 전통 마을 숲과 노거수(老巨樹)로도 잘 알려진 자연 유산이다.

왕버들의 ‘버들’은 버드나무 종류의 총칭이고, 끊임없이 뻗어가는 뿌리와 줄기처럼 ‘뻗어가는 나무’라는 의미가 있다. 인간의 삶과 역사가 끊임없이 길게 변창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이름이다.

우리나라 시(詩)문학에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나무가 통칭 버드나무인 까닭이다. 왕버들은 아주 굵은 줄기와 가지를 만들고, 목재 무게가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보통 높이만큼이나 옆으로 푸짐하게 퍼져서 넓은 그늘을 만드는 것도 특징이다. 줄기를 베더라도 새로운 줄기를 잘 만들어 내는 능력(萌芽力)이 탁월하다.

전통적으로 농촌 땀감용으로 훌륭한 자원이 되었던 것도 그런 생태 형질 때문이다. 굵은 줄기나 가지를 지속적으로 잘라 쓸 수 있다. 우포늪에 가면 목포(木浦)라는 지명이 있는데, 본래 나무벌이라 불렀다. 오랜 세월 왕버들 땀감을 얻었던 늪(벌)인 것에서 비롯하는 지명이다. 나무벌에는 지금도 왕버들 노거수 숲이 유적처럼 여기저기 남아 있으며

장마면 대붕에도 군락지가 있다.

왕버들은 물터에서도 안정된 입지에서만 산다. 물 흐름이 심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물 흐름이 아주 느린 구간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강 중하류 지역에서 출현빈도가 높다. 온전한 군락 구조를 유지하려면 1년에 한두 번의 범람과 주기적인 관수(冠水)가 필수적이다. 오늘날, 농촌 개울가나 하천가에 왕버들 노거수가 드물게 남아 있다. 대초 군락지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방을 따라 잔존하는 왕버들 군락은 종종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며, 보존 가치가 높다.

최근 버드나무 종류에 대한 암수의 성비 연구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왕버들의 성비는 암수 1:1이고, 선버들은 암수 1:0.6이다. 안정된 입지에 사는 왕버들은 성비가 평형을 이루었고, 더욱 불안정한 환경에 사는 선버들은 일그러진 성비에 차이가 있다. 결국 일그러진 성비는 불안정한 서식환경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불공평하고 불안정하며 폭력적인 삶터에는 암컷이 수컷보다 많은 것이 자연생태계의 본질이다. 암컷의 출산 능력에 의해 집단의 괴멸을 방지하는 것이다. 암컷과 수컷은 원초적으로 같을 수 없다. 암컷은 생명을 잉태해야하기 때문에 존중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성두철〉

33

김천 만취정 이팝(쌀밥)나무 등

예전 토평천은 지금의 흐름과는 달리 맥산의 잉어바위에 부딪친 다음 북쪽으로 틀어 옥산 앞에서 김천, 석동으로 흘렀다. 이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 이름을 쇠내로 불렀는데 한자로 표기 하면서 김천(金泉)이 되었다. 동리 앞이 7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 김천 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그 우물을 지금은 농업용 관정으로 활용 하고 있다. 김해김씨가 많이 산다. 당초 석리 1번지 주변 개양골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 평지 쪽으로 한 가구씩 이동하여 지금의 위치에 동네를 이루었다.

이 곳은 독립운동가 이창순이 태어난 곳이다. 창녕은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대구 계성고보에 재학할 때 독립운동을 주도한 35명 중 한 사람이다.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복사 배포하고 서문시장에서 만세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부산, 이방면, 대지면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다. 또, 1943년 5월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경찰에 구금되었다가 광복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 석방되었다. 건국공로로 대통령표창 받았다.

앞산이 노씨종중 산이다. 만취정 이라는 재실도 있다. 명당이 많다는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가 밤중에 몰래 산소를 쓸려고 시도했다. 그것을 보고 온 동네 개가 일제히 산을 향하여 짖었다. 시끄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앞산으로 갔다. 관을 옆에 두고 도둑 묘를 쓸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즉시 작업을 중단 시키고 돌려보냈다. 이후에도 수차례 암매장을 시도 하였으

나 그때마다 개가 짖어서 실패했다.

만취정이 있는 이 종중산에 창녕군 보호수인 이팝나무, 마을의 당산나무인 느티나무, 배롱나무 군락지가 있다. 정자와 나무가 잘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다. 이 나무들이 마을과 명당을 지켰다고 한다.

이팝나무(쌀밥나무)

만취정 뒤편에 12-12-8-2호 창녕군 보호수로 관리하는 이팝나무가 있다. 수령이 삼백여년 되었다. 낙엽성 교목으로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주요 분포지는 전라도·경상도 등 남부 지방이며, 해안을 따라서는 서쪽으로는 인천까지, 동쪽으로는 포항까지 분포한다. 그러나 옮겨 심을 경우 중부 내륙에서도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 분포지는 이웃 국가인 일본, 대만과 중국의 운남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이다.

나무의 높이가 약 20m로, 잎은 마주나고 보통 잎자루가 긴 타원형이다. 꽃은 암수딴그루로서 5~6월에 개화하는데, 백색을 띠고 있으며 새가지의 끝부분에 달린다. 꽃받침과 화관은 4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2개가 화관통에 붙어 있다. 열매는 타원형의 핵과로, 검은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10~11월에 익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늦은 봄 꽃송이가 온 나무를 덮을 정도로 피었을 때, 이를 멀리서 바라보면 꽃송이가 사발에 소복이 얹힌 흰 쌀밥처럼 보여 '이밥나무'라고 했으며, 이밥이 이팝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전해지는데,



이팝나무

이 꽃이 여름이 들어서는 입하(入夏)에 피기 때문에 입하목이라 불리다가 입하가 연음되면서 ‘이파’, ‘이팝’으로 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해의 풍년을 점치는 점쟁이 나무로도 알려져 있다. 흰 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꽃이 많이 피지 않은 해는 흉년이, 꽃이 만발하면 풍년이, 드문드문 꽃이 피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활짝 핀 꽃송이가 마치 쌀밥을 그득히 담아 놓은 모양 같아 보여 ‘이밥(쌀밥)나무’라고도 불린다. 꽃이 피는 시기가 마침 보릿고개가 한창 일 때라 쌀밥같이 생긴 꽃을 쳐다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들었다.

이팝나무가 쌀밥과 인연을 맺은 이유는 한 며느리의 한 서린 설움과 죽음 때문이다. 옛날 경상도 땅에 어린 나이로 시집 온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시콜콜 트집을 잡으며 며느리를 구박하였다. 한 번은 큰제사가 있어 제사에 쓸 쌀밥을 짓게 되었다.

평소 잡곡밥만 짓던 며느리가 모처럼 쌀밥을 지으려니 혹 잘못해서 꾸중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되

었다, 그래서 밥에 뜬이 잘 들었는지 알아보려고 몇 개의 밥알을 떠서 먹어 보았다.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는 제사에 쓸 메밥을 며느리가 먼저 먹었다고 하며 온갖 학대를 일삼았다. 그러자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어느 날 뒷산으로 올라가 목을 매 죽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며느리가 묻힌 무덤가에서 나무가 자라더니, 흰 꽃을 가득 피워 냈다. 쌀밥에 한이 맺힌 며느리가 죽어서 나무가 되었다며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이팝나무라 불렀다.

이팝나무가 풍년을 점치는 영험한 나무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배경에는, 이 나무가 꽃을 피울 때 짙으면 못자리가 한창인 철이다. 따라서 땅에 물기가 충분하면 나무는 꽃을 무성하게 피워 내고, 반대로 땅이 가물어 꽃이 적으면 눈에 심은 벼도 생육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신이 아니라 타산지석을 생활 지혜로 삼던 조상의 슬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꽃이 피면 한달 가까이 은은한 향기를 사방으로 내뿜고는, 마치 눈이라도 쏟아지듯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져 낙화 순간 역시 장관인 그런 나무이다. 꽃이 피는 5월에 사진을 찍으면 쌀밥같이 하얀 꽃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아쉽다.



느티나무

지금도 당산제를 지내는 느티나무

예전에는 마을마다 당산나무가 있고 매년 정월 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냈다. 집집마다 비용을 걷어서 제수를 차렸다. 제관은 미리 뽑았다. 부정 타지 말라고 며칠간은 남의 길흉사도 참석 못하게 하였다. 당일은 찬물에 목욕재계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었다. 제수(祭需)는 집집마다 골고루 나누어서 음복했다. 이러한 풍습이 점차 사라지고 지금은 거의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천에서는 당산제를 지낸다. 만취정 북쪽에 있는 300여년 된 느티나무가 당산목이다. 음력 정월 열나흘 날 저녁에 새끼줄을 치고

각자의 소원을 써서 매달고 보름날 0시에 제사를 시작한다. 예전과 달리 제관을 따로 뽑지 않고 이장, 지도자가 주관하고 희망하는 전 동민이 참여한다. 잔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모두 올린다. 날이 밝으면 제사를 모셨던 술과 음식을 회관으로 가져와 먹으면서 결산 동회를 개최한다.

이 느티나무는 보호수는 아니지만 지름이 굉장히 굵다. 마을에 거주하는 정영환씨에 따르면 나무줄기에 구멍이 크게 뚫려서 아이들이 나무속에 들어가서 놀기도 했고, 나무 가지에 매달려 놀다가 떨어져서 기절하는 어린이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외과 수술하여 흔적만 남아 있다.



배롱나무

배롱나무

만취정 남쪽에 배롱나무 군락지가 있다. 길이가 100여 미터에 달한다. 7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장관이다. 10월까지 면소재지인 모산에서 바라보면 온 산이 붉게 물 들은 것 같다.

배롱나무는 여인의 나신을 닮았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고상한 기운이 열다. 선비들이나 유학자들이 서원, 향교에, 스님들의 절터에, 조상을 기리는 묘역에 심고 가꿨다. 공원, 아파트단지에 관상용으로도 가끔 심는다. 배롱나무는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내한성이 약해 중부 이남지역에 많다.

줄기가 매끈하고 얇은데다 붉은 빛을 띠어 여인

의 벗은 몸을 연상 시킨다거나, 꽃이 너무 붉어 피 같아서 집 안뜰에는 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반대로 청렴과 무욕을 상징하기도 한다. 매일 새로 돌아나는 꽃이나 껍질을 모두 벗은 줄기 때문이다. 선비, 스님들이 뜰에 심고 보았다.

백일홍은 크게 세 번을 피었다 진다고 한다. 7월부터 10월 초까지 석 달 열흘 동안 줄곧 피었다 지기를 반복한다.

부처꽃과의 낙엽관목인 배롱나무는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데 국화과에 속하는 백일홍과 혼동의 여지가 있다. 배롱나무의 “배롱”이 백일홍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구분을 위해서 나무(木)백일 홍이라고도 부른다.

간지럼나무라고도 하는데 만지면 사람이 간지러운게 아니라 나무가 간지럼을 타듯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줄기가 굵어도 손으로 쓰다듬어보면 미세하게 나무가 흔들릴 정도다. 또 나무껍질이 상처딱지 떨어지듯 하는데 그 속의 새 수피가 부드러워 자꾸 만져보고 싶을 정도라 해서 희롱나무라는 농담도 있다.

별명이 치안국장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다. 별명을 얻게 된 이유를 배롱나무에게 물어 봤다.

배롱나무 군락지가 김천 앞들을 바라보고 있다. 김천 앞산을 스쳐 지나가던 토평천이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움직여서 모산 앞으로 흐른다. 하천이 지나간 자리에 경지정리를 해서 바둑판 같이 반듯한 논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나무가 지켜봤다.

경지정리란 도로와 수로를 만들고 구불구불한 농경지를 반듯하게 하고, 일정한 면적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트랙터, 경운기등 기계로 농사 짓기에 좋다.

마을 앞 경지정리 된 논 가운데 중앙농로 마지막 부분에 도로가 없다. 농로가 있어야 할 곳이 논이다. 무슨 사연인지 알아봤다.

경지정리를 하면 도로, 수로, 구거 등 공공용지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편입된 농지면적보다 배분되는 환지 면적이 줄어든다. 이를 감모율 이라 한다. 환지할 때 감모율이상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감모율이상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현금으로 정산 한다. 그렇지만 일정한 면적으로

구획되어 있어 환지 하다보면 일부는 과도하게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할머니가 환지 위원을 찾아 왔다. 편입된 면적보다 환지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 현금 정산된 사람이었다. 환지관련법과 규정을 찬찬히 설명하고 정산금을 찾아 가도록 설득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돈은 필요 없고 원래 면적만큼 내 땅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며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다. 환지위원에게 며칠간 항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면사무소, 군청, 도청, 경찰서, 검찰청, 청와대에 찾아갔다. 방법은 힘 있는 관공서를 찾아가서 무조건 고향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시끄러워 직원들이 뛰어 나왔다. 사유를 들어보면 면에서 환지위원들과 처리할 일이라 면사무소로 택시를 태워 보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하루는 검은색 승용차에 선글라스를 낀 두 사람이 할머니를 태워서 왔다. 청와대까지 찾아간 것이었다. 할머니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되 다시는 청와대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때는 군사정권시절이라 어디 감히 시골 면장이 그 명을 거역 하겠는가? 아무리 공리를 해도 방법은 없고 환지받은 토지 옆의 공유지인 농로를 논으로 경작 하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니 그제야 수용 하였다. 당초 환지 계획대로 돈을 정산 받고 땅도 추가로 더 주겠다고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땅의 등기명의로는 창녕군이 다. 이 할머니 별명이 치안국장이다. 힘 있는 관공서를 내 집같이 드나든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그때 당시 군청, 경찰서 등에 근무했던 사람 중에 지금도 그 별명을 기억하고 있는 자가 있다. 관공서에 찾아오면 달래서 택시 태워 보냈다는 말을 종종 한다.

〈성두철〉

34

대지면 구미 관찰사길 회화나무



대지면 구미는 창녕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아홉개 자연부락이 모두 용의 꼬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미라 하였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근내 지명에 구미가 많은데 이들을 살펴보면 지형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다. 지형이 낮은 지대로 움푹 꺼지고 물이 항상 있는 저습지를 이곳 지방말로 “굼”으로 부르는데 이 “굼”의 늘어진 형태가 구미인 경우가 있고, 또한 산이나 산등성이가 거북의 형태를 이루어 거북구를 써서 구뫼, 구산으로 쓴 경우가 있다.

이곳 구미는 호구총수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 오래된 지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굼”의 지명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거북과 같이 생긴 산이 돌말리 서쪽에 있으므로 산의 형태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곧 구미는 구뫼이고 구산(龜山)이다. 마을이 있는 곳이 거북의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 하여 꼬리미(尾)를 썼다고 하나 산의 옛말 뫼의 음차로 보아야 한다. 거북구는 획수가 많아 쓰기에 불편하므로 예전부터 거북구를 쓸 자리에 아홉구를 혼용하여 왔는데 일제 때 아홉구로 고쳐서 구미(九尾)로 하였다.

요약하면 아홉담이 있어서 구미가 아니고 산의 모양이 거북과 같이 생겨서 구뫼, 구미(龜尾), 구미(九尾)로 변하였다.

아홉담까지는 아니지만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삼거리는 그 중 하나다. 이곳에 삼백여년 된 회나무가 있다. 12-12-8-1호 창녕군 보호수다. 십 수년전까지는 당산나무였으나 지금은 당산재를 지내지 않는다.

삼거리로 불리게 된 연유는 한양 가는 길과 관찰사길 이 곳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관찰사 순행길

은 관찰사가 진주에서 출발하여 의령을 방문한 후, 낙동강을 건너 박진, 고곡, 수개, 유어광산, 풍조, 창녕읍 학산을 거쳐 구미 삼거리에서 청날끝을 지나서 송곳 저수지 바닥 길(당시 못이 없었음)을 통과하여 창녕현청에 도착했다.

남지, 장마, 구창락 서부지역에서 한양 가려면 삼거리에서 왼쪽 길을 따라 새비늬, 모산, 원골, 모전을 거쳐서 가야 했다.

삼거리에는 한양을 오고가는 사람, 창녕 시장에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됐다. 먼저 주막이 들어섰다. 술장사, 밥장사뿐 만 아니라 여관도 겸했다. 물건을 매매하러 오가던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떠돌이 보부상들이 며칠씩 묵고 가기도 하고, 각설이 패들도 왔다. 장사가 잘되자 주막이 여러 개 세워졌다. 식육점도 생겼다. 천안 삼거리 못지않게 번창했다.

일제 강점기 때 구미에 일본인들이 7~8가구 살았다. 교통이 편리한데가 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왜놈들이 많이 살았다. 80년대까지 2층으로 지은 왜놈집이 남아 있었다. 필자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집이 걸어서 간다”는 말을 들었다. 왜놈집은 짜 맛 추웠기 때문에 바닥에 둥근 나무를 깔아서 밀고 당기면 집이 움직인다. 가까운 거리는 집을 옮겨 가면서 살았다고 한다.

현재의 창녕천은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 종합개발사업 시행 때 직교 송곳 소류지에서 구미 삼거리, 학산 앞을 지나서 외부 아래 용석천과 합수시켜 광산까지 직선으로 흘러가게 했다. 광산에서는 터널을 뚫어 낙동강으로 내려 보낸다. 기존 하천 부지는 농토로 변했다.



창녕천 터널

옛 창녕천은 삼거리 회화나무 옆을 지나 들 가운데를 거쳐 세거리 늪에 다다른다. 환곡입구에 징검다리가 있었다. 관찰사도 창녕에 가기위해서는 돌다리를 건너야 했다.

해방이후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절에 돌다리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온다. 환곡, 학산, 풍조, 새내, 작달 마을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창녕 장에 오고간다. 때는 여름 장마철, 비가 많이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시장 갔던 여인들이 징검다리에 도착했다. 다리 건너편에 험상궂은 남자가 서 있었다. 무서워서 서로 먼저 건너라고 떠밀었다. 용기 있는 한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건너서 끝에 다다르자 통행세를 내라 했다. 이 다리가 당신꺼냐 못내겠다고 버티니까 시장 보따리를 뺏으려 했다.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여자를 물에 빠뜨렸다. 보따리를 움켜쥐고 한참을 떠내려가다 겨우 물 밖으로 나와서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약한 여자들만

골라서 괴롭혔다. 물건이나 돈을 빼앗긴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부부가 같이 시장을 보거나, 장정들이 순번을 정해서 몽둥이를 들고 징검다리에 보초를 섰다. 그때부터 안전하게 건넜다.

회화나무 옆에 1963년에 준공한 진○○씨의 저택이 있다. 동근 기둥의 기와집, 거실에는 유리문을 달았다. 당시로서는 최고급 주택이었다. 건물은 5채, 관리사가 2채이다. 진○○는 해방되고 왜놈이 버리고 간 부두의 보세창고를 불하받았다. 이것을 운영하여 큰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별장을 지었다. 사후에는 후손들이 재실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다.

건물 준공식 때 시회(詩會)를 갖고, 가수도 불러서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런데 초청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인근 주민들이 “별장을 아주 멋지게 잘 지었다는데 구경 가자” “부자 집 낙성식이니 먹을 것도 많을 것이다”하면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초청인사보다 더 많이 접대할 수 있도록 음식을 여유 있게 준비하였으나 턱 없이 부족했다. 구경 온 사람은 대부분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음식이 나오지 않아 배는 고프는데 가수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자 폭발하였다. 진○○ 건물 담벼락에 x칠하라고 소리치며 돌아갔다.

회화나무는 말한다. 인근 용소의 진씨는 돈으로 덕을 많이 베풀어 주민들이 적덕비도 세워 주는데, 같은 진씨인 당신은 돈을 벌어서 고작 별장이나 짓고, 배고파서 찾아온 사람에게 밥도 못주면서 낙성식은 왜 하였는고?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했다.

〈성두철〉

35

대지면 원동 한양길 이정표 나무



원동 느티나무 전경

1995년 복원된 물계서원이 있는 원골에 조선중기에 8문장 9부자가 있었다. 지금의 원동에는 그 하인들이 살았다고 전한다. 원동은 창녕성씨 세거지이며 훼손된지 129년 만에 우리 선인(先人)들이 이룩한 유업(遺業)을 계승하여 선양코자 창녕향교 및 80여 문중대표 유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부보조금과 창녕성씨 문중, 전국 타문중의 성금으로 1995년 복원된 물계서원이 있다. 서원에는 도 유형문화재 266호인 물계서원 목관 644매를 영보각에 보관 중이며, 도문화재자료 366호 물계서원 원정비가 있다.



물계서원 전경



수액 콧은 나무

원동에는 사방으로 잘 뻗은 300여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 앞에 떡 버티고 있었다. 여름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더위를 식히고, 모임도 하고 당산제도 지냈던 곳이다. 삼십여 년 전에는 그 옆에 한 그루를 더 심었다. 최근에 두 포기 사이에 쉼터를 세워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괴목을 수집하는 자가 이 나무를 팔라고 하였다.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자 밤에 몰래 제초제를 투입하고 도망갔다. 이때부터 나무가 시름시름 말라 가기 시작했다. 군청에 긴급 치료를 요구하였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이 들어간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땀질을 하는 외과수술을 하였다. 남은 부분에는 수액을 넣었다. 거의 대부분을 잘라내고, 파내고 남은 부분은 20%정도였다. 필자가 사진 찍으러 갔을 때도 수액 주사는 달려 있었다.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나무는 대구 가는 5호선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양 가는 큰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소중한 나무였다. 구미에서 새비넘 모산 원동을 거쳐 지금의 물계서원 뒤쪽 원골 고개를 넘어서 모전으로 가는 큰 신작로였다. 원골 고개에는 높이를 낮춘 흔적이 지금도 있다. 2-3명이 지나다닐 정도의 넓이로 깊이 팠다. 고개 너머에도 2-3가구가 살았다.

이 길이 신작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증표가 있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24호인 고려충신 성사제 신도비다. 이 비는 1809년 3월에 송림제 옆에 처음 세웠다. 여기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이어서 만고충절을 세인들에게 알리기에는 부족한 곳이었다.

1930년 전후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옛 물계서원 입구인 대지면 모산리 271번지 노변(路邊)으로 이수 하였다. 이곳이 원동 들머리이기도 하다.

1977년 구마고속도로 준공으로 신도비의 위치가 고속도로와 접하게 되고 도로보다 비각이 낮아져 볼품이 없게 되었다. 사람의 왕래도 뜸하고 태풍으로 노후화된 비각이 내려앉아 무너질 위험도 있어서 2002년 대지초등학교 앞으로 이수하고 비가 있던 곳에는 유희비만 서 있다.

성사제는 두문동 72현(賢)중 한분이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의 골짜기를 이르는 말로써 고려말의 유신(遺臣)들이 조선의 개국을 반대하여 벼슬살이를 거부하고 은거하여 살던 곳이다.

선생은 고려말 보문각 직제학을 이십여 년이나 맡고 있었다. 이성계가 1392년 7월 16일 공양왕의 선위형식을 빌려 조선국왕에 즉위하자 차라리 왕씨의 귀신이 될지언정 이가(李家)의 신하는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부인 성산이씨(現 성주이씨)에게 “나는 고려의 신하이니 신조(新朝)에 다시 벼슬하여 선인(先人)에게 누(累)를 끼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못된다”고 말하고 아들을 가리키며 “오직 이 한 점 혈육뿐이니 이름은 막을 두(杜)자로 개명하여 당신이 데리고 창녕으로 돌아가서 조상을 잘 모시고 이조(李朝)에는 벼슬하지 말며, 후손이 끊기지 않도록 하시오 나는 이제 죽을 것이오” 말하고 고려의 유신 71인과 함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부조현 이라는 고개에서 조복을 벗어던지고 두문동에 들어가서 새 왕조에 출사하지 않고 고려에 충성을 다했다. 시간이 흘러서 제현들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13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조선왕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이들을 불살라 죽였다.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다. 그래서 묘소가 없다. 조산리 송림재 뒤에 망송각(望松閣)이라는 제단에서 추모하고 있다.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두문불출이란 국어사전에 1. 집안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2. 집에서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아니 하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을 막고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들이 모두 아는 정보를 한 사람만 모를 때 두문동에 갔다 왔나 하는 말을 한다. 힘든 일을 당하여 마음정리가 필요할 때, 시험 준비나 공부 등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깥출입을 하지 않을 때 두문불출한다고 한다.

아들 두(杜)가 칠원 현감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선친의 유언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후손들은 대대로 벼슬하지 않고 농사지으며 창녕에서 살았다. 당파싸움에 휘말리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후손들이 번성하였다. 창녕에 사는 성씨의 70% 정도는 두문동선생 후손이다.

두문동에 관한 기록은 성사제 후손이 그의 조상에 관한 일을 기록한 두문동 실기가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성사제 신도비 유허지



성사제 신도비

〈성두철〉



재선충에 사라진 해송

36

대학총장 형제를 배출한 미락 해송 사라지다

대지면 미락은 창녕읍과 경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서편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창녕성씨 세거지이다.

미러기, 미륵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마을 안에 미륵부처가 나왔다고 하여 불린 것이라 한다. 미러기는 미륵의 외음이다. 미러기는 미륵부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용을 말한다. 용의 형국이라 함은 귀동과 미락 사이의 산이 누불미기라 불리는데 누런 미러기(龍)가 놀았던 곳이라 전해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미락은 미러기의 차자로 용 마을이란 뜻이다.

마을에 250여년 된 해송이 있었다. 보호수는 아니었다. 지난 봄 재선충에 잎이 말라 죽어 톱으로 베어내고 그루터기만 남았다. 40호도 되지 않는 작은 동네에 출세한 인물이 워낙 많아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답사 오기도 하고, 조용했던 시골에 아파트, 관공서, 기업체가 유치되어 인근에서 제일 발전하고 있다. 그 모습들을 나무가 지켜봤기에 사연을 올린다.

형제가 입신양명한 집안이 있다. 대학총장만 2명이다. 제일 큰형 성낙승은 대지초등학교, 창녕중학

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투신하여 문화공보부 차관보,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불교방송사장을 거쳐서 불교 천태종 계열의 금강대학교 총장을 하였고, 넷째 성낙인은 6.25 피난 중에 태어나 대지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다니다가 대구로 전학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와 모교 총장에 선임 되었다. 나머지 형제 3명도 관선 구청장, 대기업 중역, 고등학교 교장 등 쟁쟁한 역할을 했다. 해송이 그 집 앞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형제들이 모두 고향을 빛냈다. 지금도 생가가 미락에 있다. 성낙승씨가 수시로 서울에서 내려온다. 성낙인 총장은 퇴직 후 고향에서 초청하면 언제든지 달려온다. 향교 석전대제에 초헌관도 하고, 부곡에서 개최한 경남문화원연합회 워크샵에 특강도 하였다.

마을에는 대학총장 2명뿐 아니라 초, 중등학교 교장 3명, 공무원 사무관이상 3명, 은행지점장 2명, 대기업 임원 2명, kbs중앙방송기자1명을 배출 했다. 또, 형제가 농협 창녕군 지부장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역임 하였다.

미락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로는 도 단위 기관인 양과연구소, 군 단위 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창녕소방서, 교육기관 창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때는 자원재생공사가 있었다. 농약빈병, 페비닐 등 폐기물을 수거하여 저장하였다. 토양이 오염되고 우물에 농약이 침투하여 물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

서 집단민원으로 다른 곳에 이전 조치되었다. 다다미 공장이 먼지 민원으로 옮기면서 자원재생공사에 팔고 갔다.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를 만난 것이었다.

국도변에 동보하이빌 아파트가 건립되고,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처리공장도 들어섰다. 5호선 국도가 4차선이 되면서 진입로도 만들어졌다. 대지면에서는 가장 변화가 많은 마을이다.

해송(海松)

해송은 상록침엽수로 곧게 자라며, 껍질이 검게 보인다. 잎은 바늘처럼 억세고 길며, 짙은 녹색이다. 소나무 잎은 밝은 녹색으로 길이는 해송의 1/3~1/2 로 짧다. 꽃은 5월에 피며, 자갈색 수꽃은 원통형이고, 암꽃은 계란모양이다.

열매는 솔방울이며, 소나무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긴 계란모양이다. 종자는 길이 거칠고 자흑색이며 넓은 창끝모양 날개가 붙어 있다. 서식처는 해안지대, 내륙 산지 등이며 전국에 분포하나 중부 이남에 잘 자란다.

해송 자생지는 해안 절벽과 바다 모래언덕의 후방이다. 소금기 있는 바다 바람이 부는 곳이다. 내륙 산지에서도 종종 관찰된다. 이 경우는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따위를 조립하는 과정에 섞여 심은 것이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관찰되는 모든 해송은 인공적으로 심었다. 이미 1930년대 초에 서울 시내에도 식재되었던 사실이 기록으로 전한다. 소나무와 외형이 비슷하지만, 생태적 습성은 대조적이다.



양파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소나무가 내륙 입지에 산다면, 해송은 바다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 산다.

해송과 소나무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해송은 밑동치 하나가 하늘로 치솟는 수형(樹型)이다. 해변 뒤편 모래언덕(砂丘)에서 해풍이 부딪치는 곳에서만 육지 방향으로 누워 자란다. 이에 반해 소나무는 자유롭게 비틀리며 굽는 특성이 있고, 줄기 등치 아래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자라기도 한다. 해송은 소나무보다는 남성적이어서, 곰(熊)처럼 크고, 우직한 수형이라서 곰솔이라고도 부르고, 거무칙칙한 껍질로부터 흑송(黑松)이라고도 한다. 껍질이 붉은 소나무의 적송(赤松)에 대응하는 이름이다. 해송(海松)이란 이름은 내륙에 사는 육송(陸松)에 대응해 생겨난 것이다. 자생지를 고려한다면 걸맞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해송의 본래 이름은 곰솔이다. 내륙 산지에 흔히 사는 소나무를 일반적으로 솔이라 한다면, 바닷가 거친 환경에 사는 것이 곰솔이다.

곰솔과 소나무의 장점만을 빼닮은 소나무가 있다. 동해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만 관찰되는 금강송이란 품종이다. 한 줄기가 하늘로 치솟는 수형은 곰솔을 빼닮았지만, 껍질 색깔은 소나무와 같다. 육송인 소나무와 곰솔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잡종일 가능성이 높다. 곰솔은 우리나라 해안선 전역에서 흔하게 자생하지만, 북한 해안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단지 식재해 조성된 해송 숲이 강원도 통천과 고성 그리고 황해도 용연에 있다.

재선충병

대학총장 소나무를 죽게 한 재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다.

재선충의 크기는 0.6~1mm이다. 실[絲]처럼 생긴 선충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 거리는

짧게는 100m 안팎이지만, 태풍 등을 만나면 3km 정도까지 가능하다. 크기가 작고 투명해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어렵다.

감염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솔수염 하늘소가 6~9월에 100여 개의 알을 고사목 껍질 속에 낳으면, 유충은 껍질 밑의 형성층을 먹고 성장하며 애벌레 상태로 월동한다. 1월에서 4월에 걸쳐 다 자란 유충은 다시 목질부 속에 굴을 뚫고 번데기 집을 만든 뒤, 4~6월 무렵 번데기가 된다. 이 번데기는 5월 하순~8월 상순 무렵 우화(羽化)하는데, 이 때 고사목 조직 안에 흩어져 있던 재선충이 번데기 집 주위로 모여든 다음, 우화하는 솔수염 하늘소의 몸 속으로 침입한다.

보통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성충에는 1만 5000마리 정도의 재선충이 들어 있어, 매개충이 소나무의 새로 나온 잎을 갹아 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소나무에 감염된다. 감염된 재선충 1쌍은 20일 뒤면 20만 마리로 급속히 번식해 수액 이동 통로를 막고 나무 조직을 파괴한다. 감염 6일 후부터 소나무는 잎이 아래로 처지고, 20일 뒤에는 잎이 시들기 시작하며, 30일 뒤에는 잎이 빠르게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기 시작한다.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데, 그해에 90%, 이듬해에 10%가 죽는다. 대표적인 피해 수종은 적송과 해송이다.

아직까지 재선충 자체를 박멸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매개충의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한 항공·지상 약제 살포, 재선충과 매개충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고사목 벌채 및 훈증 등이 방제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뒤,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일본의 소나무는 전멸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에서도 1988년 10월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두철〉



왕미 꿀밤(상수리) 나무 줄기

37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왕미 상수리나무



대지면 왕미 뒷산에 커다란 왕 무덤이 있어 산 이름을 왕개등, 마을이름 앞 글자를 왕(旺), 동네 앞 넓은 어물리 들에서 쌀이 많이 난다고 뒷 글자를 쌀미(米)자를 써서 왕미라 한다. 김해김씨, 단양우씨 세거지이다.

창녕성씨 19현(賢)의 제사를 모시고 후학을 가르쳤던 물계서원 유허지가 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백산 우재룡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오래된 꿀밤(상수리)나무를 당산목으로 하여 수년전까지 당산제를 지냈다. 왕개등 중간쯤 즉 마을 중앙 산기슭 바위 사이에 비스듬한 모습으로 웅장하게 버티고 있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 쉽도록 콘크리트 계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차릴 수 있는 제단도 있었다. 나무 바로아래 화실을 차려놓고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 김선희 작가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찬물 또는 술을 놓고 열심히 치성을 드린다.

아들이 사범고시 합격해서 관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효험을 본 것이다. 필자가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양초 두 개가 돌 사이 아래위로 서 있었다. 기도한 흔적이다.

경상도 사투리인 꿀밤나무 즉 상수리나무를 당산목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을 수호를 잘 하고 있는 꿀밤(상수리)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자.



왕미 꿀밤(상수리) 나무가지

꿀밤(상수리) 나무

상수리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참나무목 참나무과 참나무속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키는 약 20~30m까지 자란다. 껍질 검은 회색이며, 잎은 밤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겼다. 일반적으로 참나무속에 속하는 나무들은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도토리가 열리고, 그 쓰임이 좋아 '진짜' 나무라는 의미의 참나무라 불렸다.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여 갯목, 받침목 등으로 쓰이고, 표고 버섯재배에도 쓰이며, 참나무로 만든 숯은 최고의 숯이 된다. 열매는 약재로 쓰인다. 효능

은 설사·장출혈·탈항(脫肛)에 치료제로 쓰인다.

또한 들판에 풍년이 들면 도토리가 적게 열리고 흉년이면 오히려 많은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상수리나무를 두고 어진 마음까지 갖춘 나무라 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상수리나무 열매를 꿀밤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맛이 뚱어서 날로 먹을 수 없지만 묵을 쑤어 먹을 수 있는 고마운 열매여서 꿀밤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것 같다. 상수리나무의 잎 뒷면은 연한 녹색이고 껍질

은 세로로 약간 깊게 갈라지지만, 코르크가 발달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굴참나무는 잎 뒷면이 희끗희끗한 회백색이고 코르크가 두껍게 발달한다. 참나무과 나무 이름의 유래도 재미있다. 참나뭇과에서 잎이 가장 넓은 떡갈나무는 떡을 쌀 때 쓴다 해서 그리 불렀고, 신갈나무는 신발 깔창으로 썼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졸참나무는 참나뭇과의 나무 가운데 잎과 도토리 가장 작은 ‘졸병(卒兵) 참나무’여서 졸참나무가 되고, 굴참나무는 나무줄기 껍질에 골이 진다고 해서 ‘골지는 참나무’로 불리다 굴참나무가 됐다.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여러 가지다.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을 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 수라상에 도토리묵이 자주 올라왔다고 한다. 맛을 들인 선조는 환궁한 뒤에도 도토리묵을 즐겨 찾았는데, 늘 수라상에 올랐다 하여 ‘상수리’라 하다가 나중에 상수리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 신빙성이 높지 않다. 상수리나무 열매의 한자 이름이 상실(橡實)인데 ‘상실이’로 부르다 ‘상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백산 우재룡 초상

독립운동가 백산(白山) 우재룡(禹在龍)

우 지사는 1884년 1월 3일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에서 부친 우채희씨와 어머니 진주강씨 사이에 태어났다. 위로 누나가 5명이고 부친이 40세 때였다. 아버지는 구한말 무과를 통해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6품 군직(軍職) 벼슬인 사과(司果)를 역임하였다. 지사는 1955년 3월 3일 사망하여 대합면 모전리에 장사 지냈다가 1967년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 하였다.

선생은 국가보훈처가 2009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대표적인 독립 유공자이다. 19세 되던 해에 대한제국 군대인 대구 진위대에 들어가 1907년까지 5년간 복무 했으며 정미7조약에 따라 조선군이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곧바로 독립운동단체인 산남의진에 가담하여 의병장 정용기와 의형제를 맺고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맹세 하였다. 당시 그의 직함은 선봉장으로 청송, 신녕, 영천, 청하 등지서 20여 차례의 전투를 벌였고 일본군 장교를 참수하는 전공도 세웠다. 그러나 정용기가 순절하고 팔공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1908년 영천전투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어 대구 재판소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을사늑약 특사로 1911년 풀려났다.

1915년 7월에 대구 달성공원에서 박상진과 함께 대한광복단을 조직하여 항일 군자금 모금활동에 전력을 쏟게 된다. 이 시기에 대한광복단은 경주에서 일본군 우편마차를 습격해 군자금을 빼돌렸다. 1918년 대한광복단 회원 대부분이 체포되자 우 지사는 중국 길림으로 가서 ‘길림광복회’를 창단해 국내의 부호들에게 독립운동자금 요구장을 발송하는 등 국 내·외에서 많은 활약을 했다. 이후 우 지사는 신문사를 인수해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임정산하 조선독립군 사령부인 ‘광복단 결사대’를 구성했으며 1920년엔 임정국외독립운동단체인 ‘주비단’을 결성해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중 1921년 6월 군산서 체포됐다. 두 번째 투옥 이었다. 일본 검사는 사형을 구형 하였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17년간 옥고를 치르고 1937년 풀려났다. 그의 나이 54세 때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21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 와중에 일제의 심한 핍박과 우 지사의 돌봄을 받지 못한 부인과 아들 및 딸 둘은 모두 죽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혼해 2남1녀를 두었다. 이후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에 정착해 현재의 광복회 전신인 ‘대한광복회’

재건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항일과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우 지사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그는 20여년 감옥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길고도 험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았다.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경제적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 학문적 스승도 없었으나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 하였다. 일제로부터 두 번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오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되찾으면 새로운 내나라 건설을 다짐 하였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55년 3월 71세로 한 많은 독립운동가의 생을 마쳤다.

2012년 대구 두류공원에 선생의 흉상과 공적비를 건립하고 2019년 8월 15일에는 선생의 생애를 그린 책도 펴냈다.(충청문화 연구소 이성우 연구원)

(대한)광복회 지휘장 우재룡 선생의 맏아들로 독립운동 정신계승 사업회 상임대표인 우대현이 2020년 4월 대구 독립 기념관 건립을 위해 팔공산자락 사유지 47,520㎡(14,400평)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아버지가 간부였던 광복회가 “자자손손 국권회복에 나설 것”을 맹세한 뜻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기부하였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부전자전이다.



물계서원 원정비 유허지

물계서원(勿溪書院)

처음 이름은 물계정이다. 한강 정구 선생이 1580년 창녕현감으로 부임하여 후학양성을 위하여 건립한 8정자중 하나다. 마을 앞을 흐르는 토평천의 옛 명칭인 물슬천에서 따왔다.

서당으로서 130여년이 지난 1712년 사우(祠宇)를 짓고 고려문하시중 성송국을 봉향하여 창효사라 하였다.

1719-20년 시중선생을 주향(主享)으로 하여 세덕사(世德祠)라 칭하고 매죽헌 성삼문, 우계 성혼등 7선생을 배향하여 서원을 건립하기로 결의 하고 1724년부터 사당, 강당, 재사(齋舍), 담장등 서원규모의 건물을 차례로 세웠다. 1729년 향내외의 많은 유림들이 건의하여 세덕사를 물계서원으로 편액(扁額)하고 경종때 우의정을 지낸 풍양조씨 조문명(趙文命)이 초대원장으로 추대 되었다.

1787년부터 1857년까지 5회에 걸쳐 정절공 성사재(成思齊) 부용당 성안의(成安義)등 11선생을 추가 배향 하여 총 19현(賢)을 모시고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으로 사림정신을 드높이고 학문을 권장하여 향리 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물계정을 세운지 286년, 물계서원으로 확대 개편한지 137년만에 조령(고종3년 : 서기 1866년)에 의하여 애석하게 훼철(毀撤) 되었다.

강당은 맥산재 재실로, 재사(齋舍)는 모곡의 성주이씨 재실로 각각 옮겨가고 기타 부속건물도 철거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1790년 대광보국승록대부행관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이 짓고 유림에서 세운 원정비만 서 있었으나 이 것 마저도 물계서원이 복원되면서 옮겨가고 그 곳엔 유허지 표지석만 서 있다.

〈성두철〉

38

성씨 고가를 지키는 석동 느티나무

창녕에서 이방 방면으로 1080호 지방도를 따라 가다보면 대지면 석리 332-1번지 석동 까치 고개에 12-12-8-5-1호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200여년 된 느티나무가 도로 옆에 서 있다.

본래 지포면 지역인 석리가 돌실, 석실, 석동 등으로 불리게 된 것은 마을 앞에 큰 바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 바위가 마을의 문과 같아 보였으므로 석문동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까치형국 마을이라는 뜻의 작령촌(鵲嶺村)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석문동, 석동은 후기에 쓰인 지명이라 할 것이다. 주위에는 까치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까치가 꺼꾸러지듯 한 형국이라 하여 도작골(倒鵲谷), 까치가 죽어 그 혼령이 문혔다는 작령(鵲靈), 까치고개 등이다.

석동은 창녕성씨 세거지이다. 그리고 도 문화재 자료 355호인 성씨고가가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재배하여 보급한 양과시배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고장 최초의 근대식 사립교육 기관인 지양강습소가 있었던 곳이다.





창녕성씨고가



창녕성씨고가 대문채

창녕성씨고가(昌寧成氏古家)

성씨고가는 창녕성씨 문중의 입향조인 성규호 일가가 살던 집이다. 성규호는 1850년대에 이 마을에 들어 왔으며 이후 창녕성씨 집성촌이 되었다. 성규호의 아들 성찬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과 재배에 성공했고, 성찬영의 아들 성낙안과 조카 성낙성은 근대 교육기관인 지양강습소 설립자이다. 성찬영의 손자 성재경은 1950년대 양과채종에 성공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창녕지역에 양과재배기술을 전파하기 위하여 경화회를 조직하였다. 성재경의 장남은 대구소재 식품회사 (주)푸드웰 성기상 회장이며 경화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차남은 서울소재 아웃도어 회사 (주)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으로 7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경화회관을 새로 지어서 (사)경화회에 기증하였다.

후손들 중에는 성기상, 성기학씨와 같이 사업에 성공하여 대를 이어 부자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성규호 증손자이며, 성찬영의 손자인 성유경은 일제강점기 동경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으나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어려운 사람들과 남로당에 나누어 주고 가족을 데리고 북으로 갔다.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그의 아들이 빨치산으로 내려왔다. 토벌대에 쫓겨 성씨고가 큰아버지 집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가족들의 권유로 자수하여 목숨을 건졌다. 전향하여 서울에서 거주했다. 그의 딸은 북한 최고위층의 아들을 낳았고, 그의 또 다른 딸이 낳은 외손자는 북한에서 태어나 상류층이었으나 폐쇄적인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껴 자유를 찾아 탈북 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북한 공무원에게 암살당했다.

이 집은 3,000여 평의 부지에 30여 채의 건물이 있는 대저택이었다. 전형적인 부자들의 주거형태 이다. 6.25전쟁 때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안채, 사랑채, 대문채, 화장실, 곳간 2동 등 6채의 건물과 벽돌로 만들어진 높다란 굴뚝이 불에 그을린 채로 남았다.

남은 건물이 도 문화재자료 355호로 지정 되었다. 문화재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여성공간인 안채를 중심으로 맞은편에 남성 공간인 사랑채와 중문채가 있다. 안마당 좌우에는 흙과 돌로 담을 쌓듯이 지은 토담집 구조의 곳간 2동이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거나 이전된 것 같다. 안채의 뒤쪽에 물건을 넣어두는 작은 공간을 확대하여 겹집 형태로 만들었고 안채에 화장실을 배치하는 등 공간구성과 가구 기법에서 근대적인 한옥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십여 년 전 모 방송사에서 허준이라는 연속극을 방영했다.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얼마나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드라마인지 방영 날은 직장인의 퇴근이 앞당겨졌고 그 시간에는 교통량이 줄 정도였다. 심지어 택시 기사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TV를 시청했다. 시청율 64%를 기록한 역대 사극 1위గా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드라마 중에 창녕 성대감이 등장한다. 대감의 부인이 중풍으로 쓰러졌다. 이름난 의원을 물색하니 산음(산청)의 유의태가 최고 명의였다.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도록 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제자인 허준을 보냈다. 성대감이 노발대발 하였으나 부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맡겼다. 수족을 쓰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햇병아리 의원이 훌륭히 해냈다. 이때부터 허준이 명의를 되었다. 전국에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이 창녕의 성대감집을 찾아 몰려오기 시작했다. 창녕까지 와서는 무조건 성대감 집을 물었다. 그러면 대부분 성대감집은 잘 모르지만 대지면 석리에 구십 구간쯤 되는 고택이 있다면서 성씨고가를 안내 하였다. 그러나 성씨고가는 성대감집이 아니다. 조선 선조 때 대감벼슬을 하고 있는 창녕출신 성씨는 없었다. 작가가 성씨고가를 구경하고 창녕성씨와 성 대감을 작품 소재로 쓴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성대감이 누구며 집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다. 드라마와 소설의 영향력이 이처럼 대단하다.

6.25이후 복원되기 전까지는 담장 안에 공터가 넓었다. 이 곳에 대지 초등학교에서 수차례 소풍을 왔다. 대밭에서 보물찾기도 하고 별당 앞에 있는 연못이 대한민국 지도처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기도 했다.

행정에서 현대식 경로당을 건립 해주기 이전에 아석정은 석동마을 부녀 경로당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최근에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이 옛 건물 대부분을 복원하였다. 외국 바이어 접대, 직원 연수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일류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양파시배지 조형물

양파 시배지

성찬영은 1909년 우리나라에 양파종자를 처음 가져와서 대지면 석동에 재배하여 성공하였다. 손자 성재경은 양파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민단체 사단법인 경화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사랑방이나 마을 회관에서 양파 재배법, 채종법을 가르쳤다. 경화회관이 건립되고는 전 회원을 상대로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확대시켰다. 보리를 대체하는 환금 작물로 보급하여 보리보다 10배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잘사는 농촌이 되었다.

2005년 세워진 양파 시배지 조형물 옆에 사단법인 경화회 명의를 안내판에 유래가 요약되어 있어 원문을 옮긴다.

양파 시배지(始培地) 유래

양과는 1908년 원예모범장에서 시험 재배 되었다는 문헌기록이 있다. 이듬해인 1909년 이곳 대지면 아석가(我石家)의 성찬영 선생이 처음으로 양과재배에 성공했다. 이후 손자인 우석(愚石) 성재경(成在慶) 선생은 한국전쟁 직후 농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리를 대체하는 환금작물(換金作物)로서 양과를 적극 보급 하였다.

1963년 성재경 선생이 김성수, 하재호 선생등과 함께 창립한 농민단체 경화회(耕和會)는 이후 양과재배를 확대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1969년에는 6천여 농가가 양과를 재배하게 되었으며, 그 면적은 빠르게 늘어 1천 헥타르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창녕은 전국최고의 양과 주산지가 되었다.

사단법인 경화회(耕和會)

시배지 조형물의 홍보가 필요하여 창녕을 대표하는 가요제를 만들었다. 명칭은 “박성훈과 함께하는 양과 가요제”이다. MBC주관으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4회까지 열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 상태다. 또, 역세로 유명한 화왕산 등산객이 많이 오는 가을에 양과 축제도 한다. 이 또한 못하고 있다.

시배지 홍보만 해서는 농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이익이 없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늘어난다. 그래서 군청 산하에 양과 장류 연구소를 개소했다. 양과 와인 우포의 아침을 개발하여 람사르 총회 공식 건배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늘·양과 빵, 흑양과를 첨가한 양갱·사탕·젤리, 양과 껌차등을 만들고,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양과국수, 양과즙, 양과 고추장등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개발한 제품은 우리군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다. 양과소비를 확대 하고 일자리도 늘려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또 창녕양과가 지리적 표시제 제30호로 등록되었다. 이것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객관적인 지리적 표시요건을 충족하여 국가가 지역 특산품임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즉, 우리지역 양과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생산품이어서 판매에 유리하다. 이와 같이 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양과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마늘로 대체 되었다. 전국에 양과 재배면적이 늘어난 때문이다. 수입도 마늘보다 적다.

시배지 조형물 주위에는 양과를 심어야 마땅하나 마늘을 심는 경우가 많다. 행정에서 소득차이를 보조하면서 심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군데군데 마늘을 심고 있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주민들이 양과를 재배 하겠다고 한다.

지양강습소(池陽講習所)

우리 고장에 설립된 최초의 사립 초등학교는 지양강습소이다.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일어난 것은 대지면 석동의 성낙성, 성낙안 두 분에 의해서였다. 두 분은 사촌 간으로 그 당시 30세를 전후한 젊은이였다.

근대이전의 기초교육은 서당에서 가르쳤다. 서당은 향교나 서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수백 년 동안 시행해 오던 과거제가 폐지되자 서당에서 향교(서원), 성균관으로 이

어지던 교육체계가 붕괴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키우는 애국계몽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 되었다. 서울에서는 1905년부터 양정의숙, 보성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대구의 교남학교가 세워졌으며, 1908년에는 서북학회의 농림강습소를 필두로 전국각지에서 의숙, 학교, 강습소 등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의 뜨거운 애국심을 접하고는 그때까지 운영하고 있던 서당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학교설립에 나섰다. 지양강습소 사적비가 있는 일대에 약 3,000평을 부지로 확보하여 널찍한 운동장을 만들고 학교건물을 세웠다. 한 교실에 학생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의 교실과 1개의 교무실, 화장실, 관리인 주거용 건물을 지었다. 기둥은 목조로 하고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다.



지양강습소 사적비

지양강습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지면을 비롯하여 인근의 고암면, 창락면, 대합면, 유어면 등지에서 배움에 굶주린 청소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학생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년을 정하여 선발하였는데 학생 수가 많을 때는 3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해에는 교실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기도 했다. 특히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집의 자제와 신분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던 아이들, 그리고 10여명의 여자들까지 입학시켜 함께 공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세적 유교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교육방법 이었다.

지양강습소 교장은 성낙성이 교사는 성달영, 노종환, 성세주 세 분이 담당하였으며 교과목은 수신(修身), 한문, 조선어, 일본어, 조선지리, 조선역사, 만국지리, 만국역사, 산술, 습자, 체조, 창가(唱歌)까지 다양하게 가르쳤다.

그 때까지 서당에서 가르치던 과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성낙성 교장은 당시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승희의 생질이었다.

또한 3.1운동 당시 과리장서를 작성한 곽중석의 제자였으며,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김창숙과의 교분관계로 일제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처지였다.

일제는 자기네 말을 듣지 않고 저항하는 불량선인들이 사립학교를 세워서 우리글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자 일제는 대지면에도 공립 소학교를 세울 계획이니 지양강습소를 폐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하여 3·1운동에 자극을 받아 1920년 봄에 개교한 지양강습소는 1924년 가을에 강제 폐교되고 말았다.

불과 4년 6개월만이였다. 지양강습소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이 고장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익히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공로는 실로 크고 높다.

1981년 60년 만에 지양강습소를 다녔던 분으로서 그 때까지 생존해 있던 사람들을 수소문 하여보니 손무상등 16명이였다. 더 늦기 전에 동창모임을 하자는 의견에 따라 2월 1일 대지면 석동의 일신당에서 8명이 참석하여 동문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옛일을 추억하면서 설립자와 은사의 유덕을 칭송하고 사적비를 건립할 것을 결의하고, 1982년 5월 18일 지양강습소가 있던 자리에 비석을 세우고 주위에는 나무를 심었다. 비문은 동문 회원들의 구술을 토대로 국한문 혼용하여 지었다. 비용의 대부분은 손무상이 부담하였다.

우리 지역 최초의 근대 사립 교육기관이었던 지양강습소 설립취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4월 셋째 주 목요일 성씨고가에서 지양계 모임을 한다.



경화회관

성낙안의 손자 성기학 영원무역회장은 경화회관 건물을 새로 지어서 기증하였으며, 이곳에 영원문화센터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봄, 가을 두 학기에 창녕군민을 대상으로 서예, 사진, 영어, 논어, 주역 등을 10년째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창녕에서 만나기 어려운 수준 높은 교수가 대구, 밀양, 김천 등에서 출강한다.

〈성두철〉

경화회(耕和會) 연혁

1963	경화회 창립 초대회장 김성수	1980	제3대회장 하재호 취임	1994	제6대 회장 이우성 취임
1965	사회단체 경화회 등록 농림부 회지 "경화" 창간호 발행	1981	경화장학회 설립	1997	제7대 회장 이용호 취임
1966	경화회 회가 제정	1983	경화회 기념비 건립	1998	농산물 유통 창고 건립
1971	사단법인 경화회 인가 사회단체 경화회 발전적 해산	1984	회관 사택 건립	2004	제8대 회장 황선웅 취임
1972	제2대 회장 성재경 선임	1985	휴게실 건립(55평)	2006	사단법인 경화회 여성회 발족
1975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상 농촌진흥청장의 공로패 받음	1986	제4대회장 성효영 취임	2016	경화회 신축 건물 준공식
1978	회관 준공식 거행 경상남도지사의 감사장 수상	1988	휴게실 증축(30평)	2017	제9대 회장 박근성 취임
		1991	제5대 회장 박희출 취임		
		1993	우석 성재경 회장 동상 제막		



39

사말포 제방을 지키는 학성 노송(老松)

학성은 옛날 묘를 이장하는데 학이 날라 나왔다 하여 백학동(白鶴洞)으로 불리다가 학동, 학성으로 바뀌었다. 여양 진씨 집성촌이다. 1946년에 개교하여 1999년에 문을 닫은 대학초등학교가 있다. 대학(大鶴)이란 교명은 대지면의 학성에 있다는 뜻으로 면과 마을 이름을 한 자씩 따온 것이다. 필자의 모교다. 초등학교를 대학교부터 다녔다. 군내 학생 체육대회 때 선수들의 가슴에 대학교라는 학교명을 붙이고 출전했다. 지금은 도자기 체험학습장 그럭꿈는집(의도적으로 발음 나는 대로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꿈는집(구 대학초등학교)



총탄자국이 선명한 상석



송진채취 흔적

마을에 청각장애인 부부가 살았다. 그 당시에 특수학교에서 정상적인 수화교육을 받았다. 재능이 뛰어났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배터리를 연결하여 TV를 켰다.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하면 10원씩 받고 보여줬다. 모를 내기 위하여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서 물을 잡을 때 그는 발동기로 물을 댔다.

경운기도 제일먼저 구입했다. 미술에도 재능이 있었다. 호랑이를 그려 놓았는데 산짐승이 보고 도망갈 정도였다. 모든 것이 정상인보다 앞섰다. 명석한 두뇌를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두 명의 자녀가 교편을 잡고 있다.

학교 뒤편에 250여년 된 노송 한그루가 우뚝 서 있다. 1960년대에 학생은 많고 교실은 부족하여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하였다. 오후반은 도시락을 싸들고 일찍 학교 까지 와서는 소나무 근처에서 놀다가 점심을 먹고 시간이 되면 학교로 갔다. 그 곳이 놀이터였다.

나무 아랫부분에 송진을 채취한 흔적과 총탄 자국이 있다. 송진채취는 일제 강점기 때, 총탄자국은 6.25때의 일이다. 나무 북쪽 창녕성씨 산소 앞의 상석이 총에 맞아 깨어진 채로 있고, 비석은 총탄에 글자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 다시 세웠다고 한다.

6.25때 이 곳까지 인민군이 침투해서 격전을 벌였다는 증거다.

국군 희생자가 묻혔다는 정보에 따라 39사단에서 수차례 유해 발굴 작업을 하였으나 찾지는 못했다.

필자가 학생일 때에 학교인근으로 야외학을 나가면 탄피나 총알이 흔히 발견되곤 했다. 하룻길에 지뢰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손이 몽땅 날아가 버린 경우도 있었다. 그 학생은 의수를 하고 등교했다

이 소나무는 총에 맞으면서도, 껍질이 벗겨지면서 송진을 빼앗겨도, 떨감이 부족하여 벌거숭이 민둥산일 때에도, 살아남아 홀로 우뚝 서서 학교와 마을을 지킨 것은 나라를 구했던 충신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성수경신도비

통훈대부 행 진주관관 증 병조판서겸 판의금부사 성수경의 혼령이 나무를 지키고 있었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에서 김시민 장군과 함께 3천명의 병력으로 왜적 3만명을 물리쳤고, 2차 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성의 함락과 함께

전사하여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고 초혼장(招魂葬)하였다고 한다. 선무원종1등 공신에 녹훈되고 병조판서에 추증 되었다.

장창골 앞 국도변에 향군농장 개간 공적비가 있다. 광활한 습지를 농토로 바꾼 역사(役事)였다. 그 과정을 지켜본 나무가 알려준 내용을 정리한다.

대지면 대초, 학성, 예동마을과 세거리, 유어면 회룡, 사말에 걸쳐 늪지 사말포가 있다. 이 습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었다. 사말포는 창녕군 유어면과 대지면 경계에 위치한 367,000평 규모의 자연늪지다. 주변 농민들의 생활터전이다.

1930년대 일본인 겸전(謙田)이란 자가 일본정부의 정책자금으로 개간에 착수하여 제방과 배수시설

을 설치하고 수년간 노력한 결과 늪 주변 저습지에 다소 혜택이 있었으나 큰 홍수에는 방수제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였다. 투자된 일화 10만 엔의 보상책으로 개간 예정지였던 저습지와 늪에 어업권을 설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개간예정지 주변 토지는 침수가 잦아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하고 어업권 사용료는 너무 적었다. 그래서 설정한 물건을 당시 참의원인 유달영씨에게 양도하고, 유달영씨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던 박태근씨에게 양도하고, 박태근씨는 다시 1940년경 지역주민 이민구씨에게 매도하였다. 해방 후 개간 예정지 중 24만평의 소유권이 동아학숙 재단토지라 동아대학교 설립 재단 재산으로 등재되었다.

1960년대 토지개량 사업으로 특별개간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사말포도 개간허가 대상지였다. 성낙희씨가 권리가 기 설정되어 있음을 모르고 허가를 취득 하였다. 개간공사 자금의 절대 부족으로 인건비는 공사 후 나오는 토지를 주기로 하고 늪 주변의 인력과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총 동원 하였으나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인수하여 1968년 준공하였다.

학교재단 소유 땅 24만평은 1970년 10월 26일 농수산부의 승인과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매매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2002년부터 수차례 학교재단 측과 협의하여 평당 15,000원에서 23,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매매하여 개인별로 이전등기 하였다. 땅을 이전받은 경작인이 150여명 이었다. 임대차 계약 60여년 만이다.

재향군인회는 농장 자생단체인 자생회에 지금까지 투자된 모든 것을 무상양도 한다는 증서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케 하였다.

자생회는 20호, 24호선 국도 옆에 재향군인회의 고마움을 비석에 새겨 그 뜻을 기리고 있다. 비문을 옮긴다.



향군농장 개간 공적비

인간 생존의 3요소 가운데 특히 식생활의 빈곤은 인간으로부터 평화와 행복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투쟁과 불신을 가져온다. 인류역사는 이러한 빈곤으로부터 해방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도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향상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개간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바다와 같이 넓은 사물포를 메워 곡창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사업은 재향군인회 창녕군연합분회장 성낙희가 1963년 2월 19일 특별개간허가를 얻어 시작하게 되었다. 1965년 재향군인회에서 이 공사를 인수하여 재향군인의 정신적 물질적 힘을 총 동원하여 박병

규 경남 지회장이 공사를 진두지휘함으로써 천신만고의 고난을 이기고 1968년 2월 21일 착공 5년 만에 기어이 준공검사까지 끝내었다. 그야말로 벽해를 상전으로 만드는 사물포의 기적을 이루어 재향군인회 제1자립농장으로 명명 하였다. 그 후 1971년 4월 7일 재향군인회는 이 광활한 농경지 193,915평과 부대시설물 전부를 이 곳 경작인 175명에게 기증하게 되어 경작인 들의 칭송과 환호 속에 대학초등학교 교정에서 당시 재향군인회 김일환 회장은 박병규 경남지회장 등 간부를 대동 친히 임석하여 경작인의 모임인 자생회 대표 김대훈 사이에 기증식을 가졌다. 이 기증의 뜻을 깊이 새겨 자주적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자생회 명칭도 지어 주었다. 자생회 회원들은 이 기증의 큰 뜻을 마음깊이 새기고 더할 나위없는 은혜에 감축하면서 열심히 일해 오다가 1984년 3월 20일 자생회 정기총회에서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으로만 간직 할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어 돌에 새겨 길이 전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에 전회원은 감사의 정이담긴 성미를 모아 기증 15주년을 맞는 오늘 이 비를 세워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고 이 사업을 길이 기념하게 한다.

1986년 4월 7일

향군농장 자생회 회장 진태홍외 회원 일동

개간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사말리와 세거리 산을 잇는 제방을 쌓았다. 길이는 330m정도이다. 그리고는 150마력 발동기 1대와 폐도자 엔진을 돌려서 물을 퍼냈다. 늪에서 물이 줄어들면 배수 제방을 두 곳에서 쌓아 나갔다. 한곳은 학성에서, 또 한곳은 회룡에서다. 산기슭을 따라 큰 도랑을 내면서 늪지 중간에 섬처럼 있는 곳에서 만났다. 여기서부터는 두 제방을 마주보고 양쪽으로 쌓으면서 더 큰 도랑을 만들었다. 동아 배수장이 있는 곳까지 연결했다. 또 한곳은 예동 앞에 쌓았다. 제방 총 길이가 무려 5,000m 정도다. 대부분 등짐으로 일했다. 창녕군에서 두 대 들어온 하꼬가다라는 수입 경운기 한 대를 회룡에서 구입해서 쉽 없이 흙을 실어 날랐다. 평평하게 생긴 큰 돌에 줄을 묶어서 네 사람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흙다짐을 했다. 그렇게 제방을 쌓고는 사말리 앞에 동아배수장을, 예동 앞에는 예동 배수장을, 중간에는 사말포 1호 배수장을 설치했다. 약 8만여 평은 물이 범람할 때 유수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지로 남겨뒀

다.

공사가 완료 되었으나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은 경작자 몫이었다. 땅이 고르지 않으면 물을 댈 수 없고 모내기도 할 수 없다. 항상 물이 있던 깊은 곳은 오래된 늪지라 뺨이 많이 쌓여서 사람이 들어가면 허벅지까지 빠졌다. 작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런 여건 하에서도 어느 용감한 사람이 소를 몰고 들어가 땅을 골랐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가 빠져서 움직이지 않았다. 주위에서 농사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으나 허사였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다. 산채로 밖으로 이동시킬 방법이 없었다. 소주인은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서 도축했다. 소뿐만 아니고 경운기 등 농기계도 수시로 빠져서 애를 먹었다.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벼가 며칠간 물에 잠기기 일쑤였다. 비가 오면 양수장 관리자는 밤을 새워 물을 퍼냈다.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는 수해가 많았다. 그렇지만 큰물이 들지 않으면 낮은 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벼를 수확 할 수 있었다. 토질은 부식토가 많이 쌓여 농사는 잘 되었다. 한번은 홍수가 나서 학성에서 내려가는 제방이 넘쳐 붕괴하였다. 사말포 전체 면적의 절반정도가 침수되었다. 한 톨의 쌀도 건질 수가 없었다. 이듬해 도랑을 확장하고 제방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동아배수장

1980년대 초에 사말포, 세거리포, 광산포 일대에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사말포, 광산포, 세거리포 등 늪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말포 지역은 이미 개간되어 있었으나 보강공사를 하고, 우수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약 8만평의 땅을 논으로 바꾸고, 주 배수장인 동아배수장은 철거하고 자연배수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들은 주민들은 홍수를 대비해서 우수지는 보존 하고 자연배수는 불가능 하므로 동아배수장 존치도 건의 하였다. 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라 의견은 묵살되었다. 동아배수장을 철거하고, 우수지도 경지정리 하듯 구획

을 지었다. 때마침 집중호우가 며칠간 내렸다. 공사지역인 사말포를 비롯하여 광산포, 세거리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다. 못자리도, 모를 심었던 곳도, 전부 침수되었다. 모가 녹아내려 모내기를 할 수 없었다. 나라 전체를 뒤져서 모내기를 하고 남은 모를 구해서 늦게까지 심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보니 주민들이 하는 말이 타당 한지라 철거했던 동아 배수장을 다시 설치하고 구획을 정리하여 논으로 지번까지 부여한 우수지를 다시 환원하였다. 지금까지 유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후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야 2모작을 할 수 있는 옥토로 변했다.

〈성두철〉

40

용소리 적덕(積德) 회화나무



대지면 용소리는 창녕읍 신촌리 용석리와 경계를 이루며 들판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 넓은 들이 예전에는 대부분 세거리늪이었다. 비가 내리면 높이고 물이 빠지면 풀밭으로 변화였다.

풀밭에는 환곡, 학산, 구미, 용소, 세거리에 있는 소들을 몰고나와 풀을 먹였다. 소를 몰고나온 아이들은 늪에서 조개, 우렁이, 물고기를 잡거나 씨름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놀았다. 수양버들 나무그늘에서 책을 보며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다.

늪지 중에서 약간 높은 곳에는 벼를 심기도 하였으나 홍수가 나면 수확이 불가능했다.

창녕천이 들 가운데로 흘렀다. 주민들이 마을 앞에는 한대제방을 쌓고 농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다. 비가 많이 오면 수시로 제방이 터졌다. 그러면 마을 뒤의 청석을 뜯어서 제방을 다시 쌓았다. 그런데 비오는 날이면 도깨비 불같은 인불이 자주 나타났다. 인불은 사람의 뼈와 습기가 만나면 불빛을 내는 것이다. 여기도 6.25격전지여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시체를 깨끗이 치우지 못하고 남겨진 뼈에서 발하는 빛인데 아이들이 도깨비불로 알고 많이 무서워했다.

여기에 1980년대 종합개발사업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배수시설을 완비하여 옥도가 되었다. 창녕천이 들 중앙으로 흐르는 것을 맞은편 끝 달구남추리 부근으로 물길을 돌렸다. 직선, 구미에서 내려오는 물은 마을 앞에 도랑을 만들고, 세거리를 거쳐 사말리까지 갔다. 여기서 사말포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서 낙동강으로 흘러보냈다.

창녕천이 흐르던 곳에는 구미에서 유어까지 중앙농로를 만들었다. 2차선 비포장 도로였다. 농민들이 도로를 관리하기 어려웠다. 군도승격을 건의하여 13호로 지정되었다. 아스콘 포장을 해서 도로 여건이 좋아졌다. 직선으로 짝 벌은 도로를 차들이 썩썩 달렸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았다. 직선

도로에서 급커브로 바뀌는 후포앞에서 핸들을 미쳐 꺾지 못해 수시로 눈에 차를 빠뜨렸다. 눈 주인과 협의하여 보상하고 차를 견인해 갔다. 하도 차가 많이 빠지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인명 피해도 있었다. 지금은 군도 양쪽에 경작로를 만들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농사짓는다.

용소, 용석은 용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못들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용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소(沼)는 퇴적으로 메워져 사라지고 농토가 되었다



파프리카 유리온실

기름진 눈으로 변한 들판에는 토마토 하우스를 집단재배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수천 년간 부식토가 쌓여서 기름을 주지 않아도 토마토가 잘 되었다. 벼는 비료를 조금만 뿌려도 웃자라서 쓰러지기 일쑤였다.

지금은 유리온실에 파프리카를 집단 재배한다. 대부분 농업회사 법인으로 기업농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이름으로 헨터라고도 한다. 새터가 아닌 옛터, 낡은 터란 뜻이다. 오래 전부터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새터는 마을 명에 많이 나오나 헨터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곳은 군에서 하나뿐이다. 행정폐치분합 되기 이전의 명칭은 대초면 현대

촌(憲垆村)이다. 헌터의 음훈을 빌려서 한자로 표기했다.

여양진씨, 과평윤씨, 김해김씨, 진양하씨 등 4성(姓)의 분포가 비슷하다. 그래서 동네 혼인이 많다. 3대에 걸쳐 원수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본동댁, 한동댁, 지동댁, 헌터댁, 용소댁 등으로 부르는 사람은 마을 내에서 결혼한 커플이다. 모녀가 동네 결혼한 경우도 있다. 엄마는 한동댁, 딸은 본동댁이다.



구멍 뚫린 느티나무



속이 텅빈 느티나무

이 곳에 200년 정도 된 회화나무가 12-12-8-7-1호 창녕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나무의 상태는 줄기 앞부분 절반은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궁글었다. 껍질도 없다. 나머지 절반으로 힘겹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나뭇가지는 담장을 넘어 가옥을 침범하여 철 지주대로 받쳐 놓았다. 줄기 윗부분도 구멍이 뺨 뚫려서 하늘이 동그랗게 보였다. 좁은 진입로에 아스콘 포장은 되어있었다.

예전에는 나무 주위에 집이 없어 어린이 놀이터였다. 아이들이 나무속에서 팔다리를 벌리고 네발로 올랐다. 구멍 뚫린 곳을 통과하여 가지 위로 갔다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 놀이를 하였다. 누가누가 잘하나 내기도 붙었다. 그네를 묶어서 놀기도 했다. 숭바꼭질 할 때는 훌륭한 은신처였다. 밀서리, 콩서리 하다가 들켜 도망 와서 숨어있기도 한 곳이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배를 묶었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 생각으로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 유어 파출소 앞 제방을 일제 강점기 때 쌓았다. 제방이 없을 때에는 큰물이 들면 낙동강, 세거리포, 광산포, 사말포일대가 전부 물바다가 된다. 이때 용소까지 물이 올라온다. 배가 들어왔다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오래된 집들이 모두 높은 위치에 지어진 것만 보아도 그렇다.

보호수 동북쪽 150m지점 헌진산 아래에 창녕장씨 시조 장일의 묘소가 있다. 명당이라고 소문난 곳이다.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전국의 후손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전 부산대총장 장혁표도 후손이다.

보호수 동남쪽 120m지점에 도문화재 자료 250호인 진만석 영세



창녕장씨 시조 장일 묘소

불망비가 있다. 조선시대 자산가인 진만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진만석은 창녕의 부호로 경종원년(1771)과 경종2년(1722)에 흥년이 들자 개인 재산을 내어 굶주린 백성을 도운 이후 영조2년(1726)까지 지속적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 하였다. 관의 곡식을 빌려 갚지 못하는 농민을 대신해 갚아주거나 흥년으로 인하여 노비가 될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는 대신 세금을 내주고 풀어주는 등 덕을 베풀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또한 향리의 선비들과 문중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자택서쪽 산기슭에 세재를 건립하여 용암연속이라 현판하고 선생을 초빙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영조대에 자헌대부의 품계를 받았으며, 공을 기리는 불망비(不忘碑)가 세워졌다. 비문은 정조2년(1778)에 창녕 출신학자 성계우가 지었으며, 순조34년(1834)에 화재로 비각과 비석이 불타게 되자 현종7년(1841)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비석을 지탱하는 돌을 양옆에 세워 보존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지붕돌은 그 크기로 보아 처음 비석을 세웠을 때의 것이 아니라 좌우에 돌을 세울 때 같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공덕을 칭송하는 비석은 보통 관아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진만석 영세 불망비는 관아에서 주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진만석 적덕비



진만석 신도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신도비를 후손들이 2000년 하나 더 세웠다. 성균관장 최창규가 지었다.

자헌 진만석 불망비문은 창녕현지에 실려 있다.

〈성두철〉



41

잉어산 맥산재의 보호수 느티나무

대지면 모산리 504번지 창녕성씨 대종중 소유의 맥산재에 600여년된 느티나무가 있다. 1982년 11월 10일 제12-12-8-7-1호 창녕군 보호수로 지정 되었다. 직경 2.3m 둘레 7.5m 나무높이 20m 나무넓이 30m의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모산리는 대지면 사무소가 있는 면 소재지이며, 창녕성씨 세거지이다. 보리미 또는 맥산(麥山)이라고도 한다. 마을 뒷산이 부리산(浮鯉山)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산의 형상이 잉어 형국이라고 하는데서 나왔다. 산위에 붕어바우(浮魚岩)가 있어 부리되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산의 바위보다 보리바우라 불리는 바위가 마을서편 대지초등학교 쪽에 있는데 바위들의 생김새가 자그마하면서도 수십 개가 밀집되어 있어 꼭 보리알과 같이 통실 통실하여 사람들이 보리방우라고 한다. 이 부리바우, 부리산, 보리방우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법정리는 모산(牟山)으로 하고 별칭으로 맥산 또는 보리미라 한다.



창녕성씨 시조 성인보 묘소

맥산재는 창녕성씨 시조인 성 인보(仁輔)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재실 뒤에 묘소가 있다. 1866년 조령에 의하여 물계서원이 훼손되자 강당을 옮겨와서 재실로 이용하였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1995년 물계서원을 복원할 때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때 문화재 목판이 보관되어 있는 영보각은 복원된 서원으로 옮겨졌다.

성인보의 산소를 이곳에 쓰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고려 중엽 중윤 호장인 창녕성씨 시조가 정초에 조정사로 가서 개경에 머무는 동안 불행히도 병을 얻어 사망 하였다. 문하시중이던 그의 아들 송국은 효성이 지극하여 평소에 가까이 모시지 못한 불효를 한탄 하였다. 그리고는 “시신을 상여로 모심이 마땅한 일이나 내가 몸소 등에 지고 고향까지 모셔 안장하는 것이 애통하고 망극한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펴는 길이며 도리다” 이렇게 생각 하였다. 그리하여 손수 나무로 질 것을 만들어 아버지의 시신을 등에 지고 개경에서 창녕까지 천 리 길을 떠났다. 고행 길에 나선지 수십일 만에 창녕 청산원에 당도 하였다. 해가 저물어 처마 밑에

시신을 안치하고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눈이 내렸다. 밤새내린 눈은 온 누리를 하얗게 덮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다. 송국이 일어나 시신 주위를 살펴보니 시신 둘레에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보였다. 희한하게 들어온 흔적은 없고 나간 자국만 찍혀 있었다.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대지면 모산리 뒷산에서 멧었다. 그곳에 사람하나 누울 만큼의 넓이에 눈이 녹아 있고 따스한 김도 서렸다. 이 곳이 하늘이 주신 아버지의 유택지라 믿고 그 자리에 시신을 모셨다. 사람들이 송국의 지극한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여 호랑이로 하여금 명당자리를 잡아주게 하였다고 한다.



창녕성씨 시조 신도비

하늘이 잡아준 명당이라고 하나 부리산(浮鯉山) 즉 잉어 형상의 산 이라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돌을 얹으면 눌러서 후손들이 번창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래서 상석이나 비석은 애당초 없었다. 그리고 1905년 경상도 관찰사 성기운이 비문을 짓고 면사무소뒤 탕건바위 옆에 세웠던 신도비

를 풍수설에 따라 2001년 대지면 효정리 474-2번지로 옮겼다.

또 잉어는 물이 있어야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연못이 필요하다. 대지면 사무소 부지 안 100㎡의 땅 지목이 유지다. 소유자는 창녕성씨 대종중 이다. 아마 공공건물 부지 안에 개인 토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행정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수도를 설치하고 나무도 심어서 잘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잉어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 잉어는 꼬리가 힘을 상징한다. 머리 쪽에도 물이 있으면 헤엄 치기가 더욱 좋지 않을까 해서 정주권 개발 사업 때 부리산 입구 부분에 맥산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마을회관, 쉼터, 연못을 만들었다. 이제 꼬리, 머리 두 곳에 연못이 있어 잉어가 펄떡이며 놀수있는 여건이 갖추어 졌다. 창녕성씨와 대지면민, 창녕군민이 전국 방방곡곡, 아니 세계로 힘차게 헤엄칠 것이다.

예전의 대지면 모산은 지포(池浦)면 이었다. 이름과 같이 못과 물가였다. 토평천의 옛 이름인 물슬천이 왕미 뒷산을 스쳐 내려와 부리산을 치고 뒤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김천 옆 산을 스쳐서 석동, 창산으로 내려간 흔적이 있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침식되고 방향이 바뀌어 지금은 왕미, 모산 앞으로 흘러서 우포늪으로 간다. 부리산 앞뒤가 온통 물이었다. 그래서 창녕성씨 시조 산소를 쓴지 800여 년 동안 지관의 말만 듣고 석물 일체를 하지 않은 채 봉분도 초라한 옛 모습 그대로 보존 하였다. 이제는 물도 없어지고 지형도 바뀌어서 성역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성씨문중의 결의에 따라 2005년 봉분을 키우고 상석과 묘비를 세웠다. 입구에 성역화사업 현성금 표지석이 보인다.



성삼문선생 유묵필사본

매죽헌 성삼문 유묵을(遺墨)을 맥산재 영보각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반절지 8장에 초서로 쓴 것이다. 6.25피난에서 돌아와 재실을 살펴보니 유묵이 느티나무 아래에 흩어져 있고 비에 맞은 흔적도 보였다. 전쟁의 혼란 속에 도둑이 제기와 제상 등 물건을 훔쳐갔으나 다행히 목판과 유묵의 가치는 몰라서 버렸다. 이 때부터 유묵을 재실에 보관하면 분실할 위험이 있어 관리자를 지정하여 간수했다. 만고충신의 유묵을 그냥 보관만 해서는 되겠느냐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논에 따라 병풍을 제작, 배부하여 제사 때 쓰고 있다. 유묵 관리자가 몸이 노쇠 하거나 사망 할 경우 또다시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관리자를 따라 전국으로 유묵이 옮겨 다니는 불편이 있어 창녕 박물관에 기증 하였다. 이왕이면 문화재로 등록되면 좋을 것 같아 경상남도 문화재로 신청 하였으나 작품에 가필의 흔적이 있어서 성삼문 선생의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진품도 아닌 필사본을 보물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음력 10월 초하루에는 전국에서 4~5백명의 창녕성씨들이 모여서 묘사를 지낸다. 산소를 성역화



대지면사무소 전경

하기 이전에는 묘소 앞에 큰 상을 펴놓고 제수를 차렸다.

묘제 때는 소를 1-2마리씩 잡았다. 쇠고기 포를 떠서 대 꼬챙이에 끼워서 팔팔 끓는 물에 샤브샤브 하듯 삶아서 제수로 쓰고 참석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덜 삶겨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경우도 있었다. 먹지 못하고 집에 가져가서 다시 삶는 경우가 많았다. 십여 년 전부터 비용도 아끼고 준비도 간편한 돼지고기 수육으로 바꾸었다. 점심은 소고기 국밥과 김치, 붕어찜뿐이다. 간단히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제수와 음식은 재실에서 준비한다. 모산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고가 많았다. 고령화로 모산에 노인들만 있다. 지금은 청맥회라는 청년조직이 문중 일을 돕고 있다.

맥산재에서는 대종회 회의, 본향 화수회 관련모임, 대지화수회등 창녕성씨 관련 집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2009년 필자가 면 책임자로 근무할 때 대지면 사무소 신축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다. 어떻게 하면 특색있게 지을까 고민했다. 창녕성씨 시조 산소가 있어서 매년 음력10월이면 전국에서 묘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현들을 모신 물계서원이 있고, 문화재인 성씨고가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붕은 청기와로, 기둥은 나무같이 둥글게 세우도록 설계에 반영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살펴본 주민들과 출향민,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특색있게 잘 지었다고 칭송하였다. 담장도 철거하여 지역행사가 있을 때 재실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창녕성씨 문중행사가 있으면 면사무소 부지를 이용한다.

맥산재 느티나무는 600여 년 동안 재실의 변화, 묘소의 변화, 토평천의 변화, 공공청사 변화, 인걸의 변화 등을 상세히 알고 있겠지만 더는 물어 볼 방법이 없어 쓰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끝을 맺는다.

〈성두철〉

42

귀동 효자마을의 팽나무



대지면 효정리 귀동마을 입구에 창녕성씨 정절공파 추가종중 산에 300여년 된 팽나무가 고유번호 12-12-8-3호 창녕군 보호수로 관리 중이다.

팽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며 주나무·매태나무·평나무라고도 한다. 인가 근처의 평지에서 자란다. 줄기가 곧게 서서 높이 20m, 지름 1m에 달하고 가지가 넓게 퍼진다. 껍질은 회색이며 가지에 잔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에서 달걀 모양 타원형이며 윗부분이 톱니처럼 생겼다. 꽃은 5월에 피며 새로 자란 가지의 밑 부분에 수꽃이 달리고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 1~3개의 암꽃이 달린다. 꽃받침 조각은 4개이며 수꽃에는 4개의 수술과 퇴화한 1개의 암술이 있다. 암꽃에는 짧은 수술과 암술대가 2개로 갈라진 1개의 암술이 있다.

열매는 핵과로서 둥글고 지름 7mm의 등황색으로 10월에 익으며 맛이 달다. 표면에는 그물 같은 주름이 있다. 옛날부터 방풍림이나 녹음을 위해 심었다. 목재는 가구재·운동기구재로 이용되며, 도마의 재료로 가장 좋다. 한국·중국·일본에 분포한다. 어린잎이 자주색에서 자줏빛을 띤 녹색으로 되는 것을 자주팽나무, 잎이 달걀을 거꾸로 세운듯한 모양의 바소꼴이고 늙은 나무 잎의 길이가 11cm인 것을 섬 팽나무, 잎이 둥글고 끝이 갑자기 뾰족해지는 것을 둥근잎 팽나무라 한다.

효정리는 구 대초면 지역이다. 효정이라 불리게 된 것은 현재의 안효정에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의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 하였다고 하며, 밤나무 숲과 정자나무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효도 孝자에 정자 亭자를 붙여서 동명(洞名)을 지었다. 귀동은 한문으로 괴동(槐洞)으로 표시한다. 창녕성씨와 김해김씨가 많이 산다. 귀동 뒷산이 누런 용이 놀았던 터라고

해서 누름터로도 불리었다. 일제 때 한자로 쓰면서 마을 가운데 큰 괴목나무가 있다하여 괴동이라 하였다. 창녕 인터 체인지가 설치되면서 7가구가 철거되어 일부는 마을 내에 부지를 구입하여 신축하고 일부는 창녕읍 등으로 이사하여 가구 수가 줄어들었다.

귀동 서편에 새비넘이 있다. 새비는 새우의 이 지방 사투리다. 마을이 있는 일대가 새우처럼 생겼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바로 앞 고개가 새우등, 그 등 너머 마을이라고 새비넘이라고 한 것이다. 이 근처의 지형들은 마을 고개는 새우 형국, 앞산은 개구리 형국, 건너산은 뱀 형국이라 뱀이 개구리를 잡으려는 사비형(蛇飛形)이라 한다.

새비넘 옆에 창녕성씨 재실이 있다.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를 쫓는다고 재실이름을 축와재(逐蛙齋)로 지었다. 발음하기가 어려워 종종명칭과 같이 추가재로 부른다. 그러나 정식명칭은 뇌룡재(雷龍齋)이다.

새비넘은 구미 삼거리 쪽에서 이 곳을 거쳐 모산, 원골을 따라 한양으로 가는 신작로였다. 또한 관동, 대대, 둔터, 세진, 미구, 가항, 등대, 자미 등에서 창녕으로 가는 길이 교차되는 곳 이었다. 그래서 주막이 번성했던 곳이다. 최근까지 가게가 있었다.

효정리 귀동에도 효자와 열부(烈婦)가 있었다. 2009년 창녕성씨 괴현(槐峴)문중에서 마을 입구에 행적비를 세웠다. 효자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성기준씨의 고조부 성주호며, 열부(烈婦) 김옥선은 故 성천경 전 성산면장의 조모이시다.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라 비문을 필사해서 옮긴다. 독자들이 읽기 쉽게 원문에 한글토를 달았다.



老樵昌寧成公諱柱鎬孝行碑

효심은 모두 받아 났지만 효자로 立名(입명)한 이는 천고에 드무니 成公(성공)이 그 중의한 분이시다 公의 휘는 柱鎬(주호)요 자는 仁淑(인숙) 호는 老樵(노초)며 관향은 창녕이니 고려충신 貞節公(정절공) 휘 思齊(사제)의 후예로 1823년 6월 24일 창녕 창산리에서 父 휘 元烈(원열)과 母 雲成女(운성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으로 학업은 폐하였으나 농사지어 부모 봉양함이 도리라 여겼으며 14세에 부친상을 당하여서도 슬퍼함이 성인과 같았다. 편모를 모심에 정성은 배나 더 하였고 두 아우를 취학시켜 先業(선업)을 있게 하였으니 멀리 내다봄이 남달랐다. 1854년 살길 찾아 칠월현 가동으로 이주한 이듬해에 모친이 악질로 위독할 때 인육이 특약이란 말을 들은 公이 자신으로 대신해 줄 것을 하늘에 빌고 허벅지 살을 베어 닭 탕에 넣어 드렸더니 신호 하였으나 끝내 모친이 모르게 하였다. 모친의 補藥材(보약재)로 인삼을 심었더니 무성히 자랐고 69세 모친 생신에 생선을 드리려고 九嶺浦(구령포)로 나아갈 때 아홉 살의 아들 基永이 대바구니를 메고 따라가서 빈 배안으로 뛰어드는 고기를 부자가 주워 돌아 왔으니 어찌 우연한 일들이리오. 측은지심도 남달라 농사때를 놓치는 이웃을 무상으로 돕고 흉년엔 내 밭의 익은 보릿 이삭이라도 따먹고 죽지 말라 하였으며 아사직전의 아들을 안고 통곡하는 부부에게 노жат돈을 내어주니 活佛(활불)로 칭송되었다. 더구나 두 아우에게는 옥토와 좋은 기물을 주어 모친을 기쁘게 하니 동민이 감화되어 석전대제나 명절에는 제향 육을 반드시 公에게 드렸다. 甲午年(갑오년)에는 壽職(수직)으로 通政大夫敦寧府都正(통정대부돈영부도정)이 내려지고 경주최씨 휘 仁壽女(인수녀)로 婦德(부덕)을 갖춘 부인에게도 淑夫人(숙부

인)을 명하였다. 1905년 귀향하여 이해 6월 24일에 별세하니 生日(생일)이 곧 卒日(졸일) 이었다. 公의 효행을 기려 士林(사림)에서 孔夫子聖蹟圖五倫行實重刊所(공부자성적도오륜행실중간소)에 그 덕행을 천거하니 出天之孝(천출지효)로 표창완의하여 昌寧成孝子(창녕성효자)로 靑史(청사)에 다시 태어났다. 주손 耆駿甫(기준보)가 公의 行蹟(행적)을 증손 박사 麟出(인출)에게 주어 나에게 비문을 청함에 仁人(인인)을 찬양하는 일이라 사양치 못하고 이에 銘(명)한다. 세상이 바뀌어도 천성은 내 것 이라 生日(생일)이 卒日(졸일)이듯 팔십 생애 일관한 孝(효) 화왕산 자리 지키듯 인륜 밝힐 孝子(효자) 心(심)

단기 4342 (서기2009)년 10월

安東後人(안동후인) 文學博士(문학박사) 權 泰 乙(권태을) 謹撰(근찬)
金海後人(김해후인) 文學博士(문학박사) 金 榮 淑(김영숙) 謹書(근서)
昌寧成氏(창녕성씨) 槐岷門中(괴현문중) 宗員一同(종원일동) 謹暨(근수)



烈婦金寧金氏諱玉先行蹟碑

열부의 휘는 玉先(옥선)이요 父는 金寧金公(김녕김공) 휘 成俊(성준)이다. 16세 창녕성씨 고려충신 貞節公(정절공) 휘 思齊(사제)의 후예인 휘 珪鎬(각호)의 아들 安永(안영:1868~1917)에게 출가하여 창녕

대지면 효정리에서 살았다. 孝(효)로써 시모를 모시고 敬(경)으로써 부군을 대하니 새 사람의 婦德(부덕)을 온 집안이 기뻐하였으나 신흠 이태 만에 부군이 괴질로 전신을 못 쓰게 되었다. 이로부터 열부는 시모 봉양 부군간병을 도맡아야 했고 샅방아로 생계를 이으면서도 용한 의원이 있는 곳이면 원근 주야도 잊고 달려 갔다. 시모는 아들걱정 며느리 걱정에 질긴 목숨을 원망하고 아들은 모친께나 아내에게 짐만 더하는 몸임을 한탄할 때마다 천명을 어찌 인력으로 막겠느냐 위로하고 태연한 체 입술을 깨문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늘이 도와 늦게야 남매를 얻어 일인 삼역의 고된 날을 보내면서도 자탄한 적이 없더니 일흔넷의 천수를 누리고 즐한 시모의 죽음을 자신의 불효 탓으로 돌리고 생사와 똑같이 상 제례를 마치니 養生選死(양생선사)에 유감없는 孝婦(효부)로 칭송 되었다. 뒤이어 知命(지명)에 부군이 즐하자 이승에서 못 다한 恩愛(은애) 저승에서나마 잊고자 자결 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아홉 살 난 아들과 세 살든 딸을 눈감을 때까지 염려하던 부군의 뜻을 차마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역지로 힘을 내어 禮(예)로써 대소상을 치르고 살림을 다스리되 근면과 검소로써 하였으며 자녀를 가르치되 의리로써 바르게 하여 先業(선업)을 잇게 하니 烈婦(열부)의 생애가 곧 한 고을의 산 교훈 이었다. 상전벽해 된 나라의 귀감이 될 분이라 여긴 士林(사림)에서 己未年(기미년)에 열부의 덕행을 孔夫子聖蹟圖五倫行實刊所(공부자성적도오륜행실간소)에 천거하니 百世風化(백세풍화)의 표준이라 표창완의 하였으며 1944년 12월 20일에 별세하여 묘소는 부군과 합편이다. 손자 千慶甫(천경보)가 行錄(행록)을 열부의 삼중손 박사 麟出(인출)에게 주어 나에게 비문을 청함에 善人(선인)을 천양하는 일이라 사양치 못하고 이에 銘(명)한다. 한사람 섬김이 부부도리 다함이라, 부모님 이르신 말씀 잠신들 잊을 손가, 지아비 생각는 만큼 소중했던 시어머님, 부부로 만난 인연 恩義(은의)는 山河(산하)같아 이십오 년 하루같이 孝烈(열부)로 잠재운 눈물, 오늘은 烈婦魂(열부혼) 신고 푸른 江으로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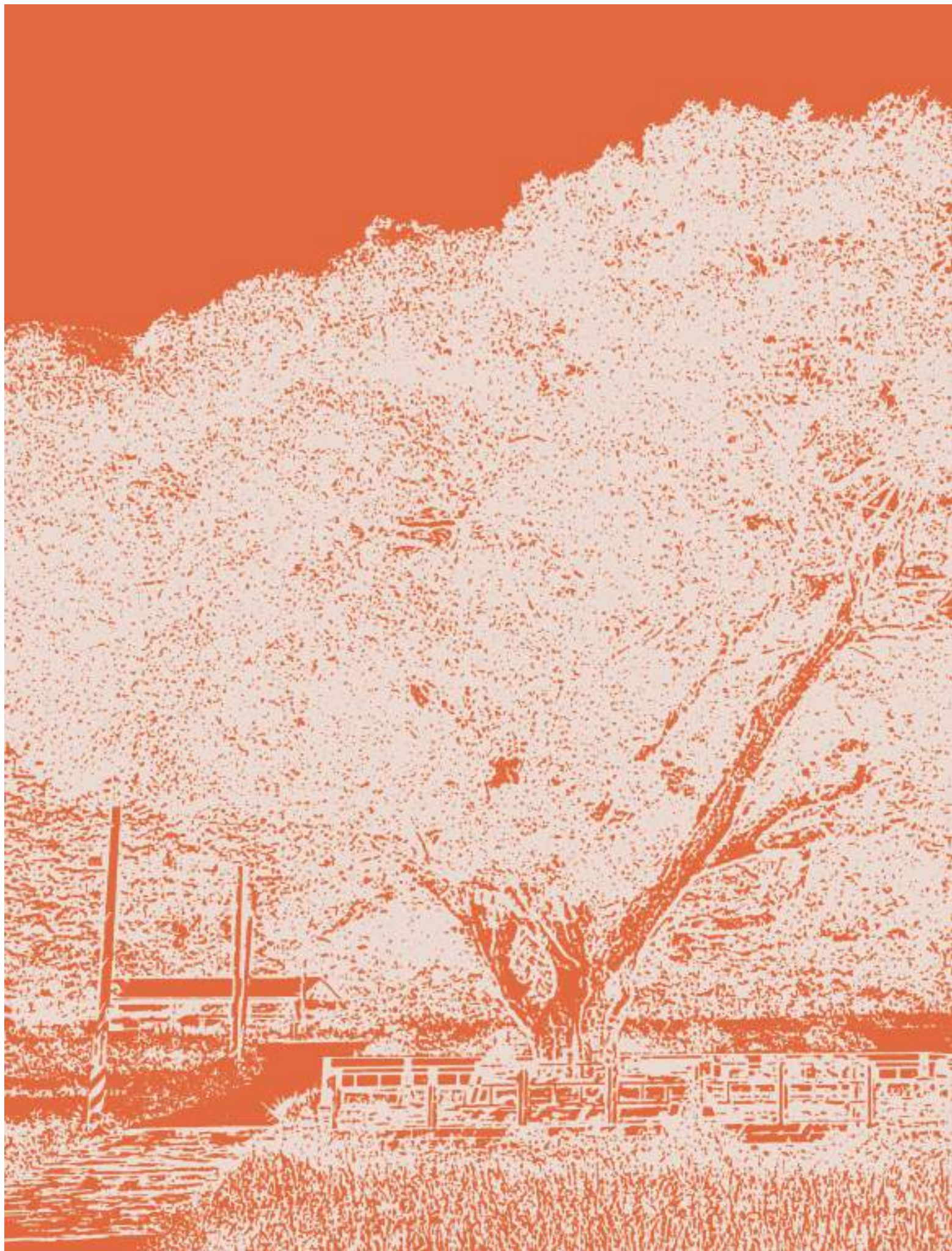
단기4342(서기2009)년10월

安東後人(안동후인) 文學博士(문학박사) 權 泰 乙(권태을) 謹撰(근찬)

金海後人(김해후인) 文學博士(문학박사) 金 榮 淑(김영숙) 謹書(근서)

昌寧成氏(창녕성씨) 槐峴門中(괴현문중) 宗員一同(종원일동) 謹暨(근수)

〈성두철〉



02

전통과
고풍을 잇는 나무들

산간/오지

01

한강 정구선생의 얼이 서린 은행나무

고암면 야동 은행나무

- 고암면 계상리(야동) 824 은행나무



고암면 계상리(야동) 행동재(杏東齋) 20 여m 아래 자리 잡은 수령(樹齡) 424년이 된 거대한 은행나무는 조선 선조 때 한강(寒岡) 정구(鄭述) 선생이 직접 식수(植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 선생은 김굉필(金宏弼) 선생의 외증손으로 그가 처음 외직(外職)으로 부임한 곳이 창녕 현감이다.

때는 1580년 4월로, 그즈음 김굉필 선생의 손자인 김립(金立)선생은 노경(老境)으로 이곳 갈동(葛洞)에 계셨으니 한강 선생은 진외종숙(陳外從叔)되는 김선생께 문안 인사차 왕림했을 때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구전(口傳)은 그가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곳마다 식수를 한 것을 생각할 때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거대하게 자란 이 은행나무는 60여년전만 해도 마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벽 일찍 나와 은행알을 주워와서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는데 그 뒤로 언제부터인가 은행의 수요가 많아 각 처에서 은행알을 구하러 모여드니 입찰을 봐서 그 돈으로 행동재 재실의 운영 경비에 보태 쓰기도 했다.

이로 보아 나무를 심은 분의 멀리 내다보는 사려깊은 안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보기 좋은 정자수(亭子樹)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구

황식물(救荒植物)을 심은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不結子花休要種 無義之朋不可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실로 참 목민관(牧民官)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은행은 황색 열매의 모양이 살구와 비슷하여 표면에 은백색의 가루를 덮고 있어 “은행(銀杏 : 은빛 살구)”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또한 심은지 3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해서 *공손수(公孫樹)로 불리기도 하며 목재는 행자목(杏子木)이라고 부른다.

* 공손수(公孫樹) : 은행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 까지 수십년이 걸리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심은 은행을 손자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뜻.

우리나라 대부분의 향교와 서원에는 은행이 심어져 있는데 흔히 선비들이 학문을 정진하는 곳을 뜻하며, 성인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학문을 닦았다는 의미의 “행단(杏壇)”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특히 학정(虐政)을 일삼는 관원을 응징하는 상징으로 관가의 뜰에 많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고암면 야동의 은행나무는 어릴 때, 나무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하여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나무가 없을 것이라 행각했는데 1982년 11월, 보호수로 지정될 때 높이가 30m를 넘었고 둘레가 8m, 수령이 400여년이나 되는 그야말로 오래되고 거대한 노거수(老巨樹)가 되었다.



행동재(杏東齋)

고암면 계상리(야동) 824번지에 소재한 이 재실은 그 현판(懸板) 이름이 말해주듯이 은행나무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다섯 칸으로 된 재실은 창녕의 서흥 김씨 문중의 서당(書堂)이다. 김씨들의 입창(入昌)연대는 1506년(중종 원년)경으로, 지금은 없어지고 그 형적(形跡)만 남아있는 이 재실 서쪽산 기슭에 자리잡은 갈동(葛洞)이란 곳이다.

입창 후 누대에 걸쳐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자손이

변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입창 후 곧 서당(書堂)을 지었는데 세월이 지남에 퇴락하여 1849년(헌종 15년) 현 건물을 새로 지어 긴 세월 동안 교육, 접빈(接賓), 풍류의 장(場)으로 쓰여 왔으며 오늘 날에도 문중 또는 마을 친목의 장으로 쓰이고 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연회를 했음은 물론이다.

정당(正堂) 대청벽에는 옛 선비들의 풍류를 기리는 풍경과 화수(花樹)의 정(情)을 읊는 시(詩)들의 현판이 일곱 개나 걸려 있다.

한강(寒岡) 정구(鄭逵) 선생 이야기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역사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 한 국가는 어떤 사람이 임금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달라지고 한 고을도 어떤 사람이 수령으로 부임하느냐에 따라 그 고을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

정구(鄭逵)선생은 외직(外職 : 지방관)의 처음을 우리 고을 창녕 현감으로 부임했다. 그가 베푼 선정(善政)이 너무 크고 뚜렷하였기에 그의 일생을 줄여서 조명하고, 우리 창녕현에서의 정사(政事)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우리들이 오래도록 그를 기렸으면 한다.

정구[鄭逵/ 1543(중종 38) ~ 1620(광해군 12)]선생은 호는 한강(寒岡)이라 하고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다. 6대조 정충(鄭攄)이 개국공신이어서 본래 한양에 살았으나 그의 부친 정사중(鄭思中)이 성주 이씨와 혼인하면서 성주에 정착했다.

그는 5세 때에 이미 신동으로 불렸으며 10세에 대학과 논어의 대의를 이해했고, 13세 때 성주향교 교수 오건(吳健)에게 주역을 배웠는데 건(乾) 곤(坤) 두 괘(卦)만 배우고 나머지 괘는 유추해 홀로 깨달았다 한다.

1563년에 이황을, 1566년에 조식을 찾아 스승으로 삼았으며 그 무렵 성운(成運)도 찾아 뵈기도 했다.

1573년(선조 6) 추천에 의해 여러 관직에 임명 되었으나 계속 사양하다가 1580년 창녕현감을 처음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사헌부지평, 1584년 동북현감, 1591년 동천군수에 부임하고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활약했다.

그 뒤 승지, 성천부사, 충주부사, 형조참관, 강원도 관찰사, 대사헌 등 수많은 직을 수행했지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중앙관직보다는 지방의 수령을 많이 했는데, 이는 민생을 돌보고 학문을 육성시켜 백성을 교화하려는 참 목민관(牧民官)이 되려는 그의 포부였음이 분명하다.

1603년 남명집(南冥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인홍(鄭仁弘)이 이황과 이언적(李彦適)을 배척하자 그

와 절교까지 했다.

1613년 계축옥사 때는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구하려 했으며 1617년 폐모론(廢母論) 때도 인목대비를 서인(庶人)으로 내쫓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만년에는 정치적으로 남인으로 처신했다.

읍지(邑誌)에 관심이 많아 1580년 창산지(昌山誌)를 편찬한 이래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곳마다 예외없이 읍지를 편찬해 동복지(同福誌), 관동지(關東誌)등 7종의 읍지를 간행하여 후대의 읍지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함주지(咸州誌) 하나 뿐이다.

읍지 편찬의 목적은 생민(生民)은 물론 풍속의 순화와 백성의 교화에 있었다. 정구 선생이 1580년 처음 우리 고을 현감으로 부임하여 중점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학문에 중점을 둔 인재 양성이었다. 그리하여 현의 요소요소에 다음과 같이 8개의 학교(서당)을 지어 인재를 양성했던 것이다.

1. 팔락정(八樂亭) : 유어면 미구리 -> 현재의 명칭과 동일
2. 물계정(勿溪亭) : 대지면 모산리 -> 물계서원(勿溪書院)
3. 관산재(冠山齋) : 고암면 우천리 -> 관산서원(冠山書院)
4. 백암정(白巖亭) : 고암면 원촌리 -> 현재의 명칭과 동일
5. 술정(述亭) : 창녕읍 술정리 -> 추술재(追述齋)
6. 부용정(芙蓉亭) : 성산면 후천리 -> 현재의 명칭과 동일
7. 만진정(蔓津亭) : 유어면 세진리 -> 이강재(伊岡齋)
8. 옥천정(玉泉亭) : 창녕읍 옥천리 -> 확인 필요(玉川)

이 외에 이문재(以文齋)도 지금의 창녕박물관 부근의 이문재 마을 안에 있었으나 20세기 초,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구 선생이 1580년 창녕현감으로 부임하여 재임기간이 2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 선정을 베풀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으니 떠난 후 당시 주민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그를 기렸음도 당연한 일이고 지금도 그분의 애국 애민 정신을 숭앙해 마지 않는다.

탐관오리(貪官汚吏)가 득실거렸다는 그 시절에 이러한 참 목민관 밑에 살았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 편하고 행복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뒤에, 이조판서에 이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목(文穆)의 시호를 받았으며, 성주의 회연서원, 천곡서원, 창녕의 관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성낙은〉

02

군목(郡木)이 된 고암 계팔(야동) 은행나무

창녕군의 군목(郡木)은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를 군목으로 지정(1982.5.15.)한 의미는 ‘바르고 울창한 나무의 자태는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며, 긴 수명은 창녕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 한다.

창녕지방에도 수백년생 은행나무가 웅장한 자태로 성장하고 있다. 고암면 계팔리 야동마을의 은행나무는 440년 수령의 창녕군 보호수(2003.12.30. 지정)로



고암 계팔마을 수령 440년생 은행나무

성재(惺齋) 김립(金立)선생과 한강(寒岡) 정구(鄭逵) 선생이 심었다고 구전(口傳)되어 오고 있다. 선조 13년(1580년) 4월에 창녕현감(縣監)으로 부임하신 한강선생이 이곳 갈동(葛洞)에 계시던 진외종숙(陳外從叔)이신 성재 선생을 틈틈이 문안드렸을 때 함께 심었다고 한다. 긴 세월 두 분 선생의 도덕유풍(道德遺風)을 담고 마을 주민과 함께 해온 소중한 나무로 수고(H) 40m, 수관폭(W) 45m, 가슴높이 둘레가 8.25m로 대목이다.

경향(京鄕) 각지(各地)의 학자와 선비의 쉼터와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하였고, 서흥김씨 문중 재실의 제사상 비용을 2섬의 은행종자로 충당했다고 전해진다.

은행나무는 기나긴 역사만큼이나 다른 나무가 갖지 못하는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 우선 나무를 잘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 속에 독특한 모양을 한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다각형의 작디작은 ‘보석’이 들어 있다. 이것은 수산화칼슘이 주성분인데, 현미경 아래에서 영롱한 빛을 내어 은행나무에 또 하나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창녕 화왕산 입구 민속가든의 은행나무와 서울 성균관 명륜당에 천연기념물 59호로 지정된 문묘은행나무를 비롯한 몇몇 고목 은행나무에는 ‘유주(乳柱)’라는 특별한 혹이 생기기도 한다. 유주는 모양새가 여인의 유방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공기뿌리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수가 다른 나무로 진기하게도 수꽃에는 머리와 짧은 수염 같은 끈지를 가지고 있는 정충이 있다. 그래서 동물의 정충처럼 비록 짧은 거리지만 스스로 움직여서 난자를 찾아갈 수 있는 특별한 나무다.



천연기념물 제59호 문묘 은행나무 유주(乳柱)

은행나무는 1목, 1과, 1속, 1종의 암·수 딴그루(자웅이주)이며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침엽수이다. 햇볕을 좋아하고 공해에 강하며 열매는 식용, 잎은 혈액순환제(징코민) 약용 원료로 사용된다.



천연기념물 제59호 문묘 은행나무 유주(乳柱)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의 나이가 1,100년이 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에 승려들이 중국에서 씨를 가져와 절 근처에 심은 것이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19그루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은행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고, 병충해에 강해 오래 살며, 흔히 정자나무와 가로수로 많이 심었다.

양평 용문사(龍門寺)는 신라 선덕여왕 통치 3년 되던 해인 64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는 설과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쬐고 갔는데 그 지팡이가 썩어 나서 은행나무로 자랐다는 설이 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수고(H) 42m, 수관폭(W) 28m, 가슴높이 둘레 14m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은행나무로는 최고령의 노거수이다.

천년동안 8.15 해방과 6.25 전쟁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은행나무에서 소리를 내며 사전 암시를 했다고 한다. 수령 1,100년이지만 실제 나이는 1,500년 정도이고 향후 200년 더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는 1조 7천억이라고 수목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최근에 가로수로 식재한 은행나무 열매 채취로 교통사고 유발 및 고약한 냄새 등으로 은행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암·수 구분은 열매의 모양이나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고 있다.

창녕군의 군목(郡木)인 은행나무의 탄소저감 공기 정화 능력이나 가을철 황금물결의 가로수길이 추억과 낭만의 거리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유영숙〉

03

창밀로의 명품 무궁화길

전통과 고품을 사랑하는 고암면(창밀로 346)에 카페가인에서 주체로 나라꽃 무궁화를 중점적으로 재배·육성·전시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가야문화유산과 생태 관광 자원이 풍부한 창녕에는 이미 전국 최장 최고 수준의 100리길(40km) 명품 무궁화 가로수가 무궁화의 날(8월 8일)을 기점으로 다양한 색상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있다.

창녕·창락·초곡로-남지장마로-영산도천로-월령로에 2002년 월드컵 세계축구대회를 앞두고 창녕군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의욕적으로 식재한 무궁화 약 1만주가 여름 꽃이 귀한 국토·지방도에 배롱나무(목백일홍)와 함께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창녕 명품 무궁화길

무궁화(無窮花)는 관습법(2004년)으로 국화(國花)로 여겨온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으로 꽃은 홀·반겹·겹꽃 등이고, 꽃 색깔도 배달계·단심계

(홍·백·청) 아사달계로 구분하고 흰색·분홍·빨강·보라 등 다양하며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한 꽃을 피운다. 꽃이 6월부터 10월까지 120일간 피므로 무궁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학명은 Hibiscus syriacus L.이고, 영명은 Rose of Sharon(신에게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꽃)이며, 꽃말은 '일편단심'이다.

무궁화의 고장 창녕에 새로운 무궁화 사랑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한국조경수협회 부회장 겸 (주)경남조경수·봉수조경 윤수근 대표 중심으로 김종열 경남조경협회장과 박정이 홍보대사 등이 한국무궁화연대(이춘강)와 한국무궁화연구원(이동철)과 연계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홍보·보급하고, 일제강점기(1910~1945)에 무궁화에 대한 왜곡된 잔재와 부정적인 시각을 쇄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문헌상으로 무궁화의 품종은 세계 300종, 우리나라는 250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주)경남조경수·봉수조경은 300종의 무궁화 품종을 보존하며 카페가인(고암면 창밀로 346)에서 100일간 전시 중이며, 25년 전부터 재배 육성한 가로수형 교목 무궁화 3천주와 무궁화 품종 5천주가 전국 최대 규모의 무궁화테마공원 진가를 발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50년생 무궁화와 300품종 전시회장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상징 중심에는 언제나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가 있었다. 특히, 무궁화 보급에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안중근, 남궁억 선생 등 애국지사들의 민족애와 애국심은 남달랐다. 뽕나무 속에 무궁화를 재배하여 보급했던 독립투사이자 교육자이신 한서 남궁억(1863-1939) 선생은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무궁화나무 밑에 묻어 그림이 되게 하라. 죽어서라도 삼천리강산에 무궁화가 만발한 대한 독립을 보리라’는 유언을 남겼다.

훗날 선생의 염원을 담은 홍천 무궁화수목원을 개원(2017.7.28.)하고 우뚝 선 동상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민족혼이 담긴 무궁화를 지켜보고 있다.



남궁억 선생 동상과 홍천 무궁화수목원

‘무궁화는 진땀물이 많고, 눈에 가시가 돌고, 만지면 부스럼이 난다’ 고 국민(초등) 학생들에게 등교 시에 무궁화를 뽑아오면 하교 시에 뱃나무 묘목과 학용품을 상품으로 주며 무궁화를 전멸시켜 왔기에 현재도 100년 이상의 노거수가 귀한 실정이다.

백령도 연화리에 무궁화가 천연기념물(제521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태풍피해로 고사되면서 지정 해제(2019년)되고, 현재는 강릉 방동리 무궁화만이 유일한 천연기념물 무궁화이다.

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는 강릉 박씨 종중 재실 우측 담장에 심어져 있으며 무궁화의 일반적인 수명이 40~50년임에도 수령이 120년

이 넘고 나무의 수고가 4.0m, 근경 둘레가 146cm로 현재 알려진 무궁화 중 가장 수령이 오래되고 굵으며 꽃이 홍단심계로 순수 재래종의 원형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꽃으로 각종 국가 상징 휘장이다. ‘바다 동쪽에 군자의 나라가 있으니, 의관(衣冠)을 갖추고 칼을 차며, 짐승을 먹이고 호랑이를 곁에 두고 부리며, 양보를 좋아하여 서로 다투지 않는 겸허의 덕성이 있다. 그 땅에는 근화초(槿花草)가 있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君子國在其北衣冠帶劍食獸使二大虎在旁其人好讓不爭有薰華草朝生夕死)’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고대 중국에서 편찬된 산해경(山海經)의 대목이다. 한국인이 직접 남긴 기록 중에서 무궁화가 한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언급된 가장 오래된 것은 신라 때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내는 문서에서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 근화향(槿花鄉)이라고 자칭했다.

무궁화가 역사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국화(國花)임에도 나라꽃으로 법제화 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힘이자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다. 창녕이 무궁화의 메카(Mecca : 중심지)로 관광 자원화하고 만병통치제 약효 성분을 활용한 식품개발로 농가소득원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

〈유영숙〉

04

고암 신기마을의 정자목 팽나무



고암면 신기마을 팽나무

팽나무 노거수는 보통 수고 20미터, 줄기둘레 2~4m 가 넘는 큰 나무다. 남부지방에서 부르는 팽나무의 다른 이름은 포구나무다. 배가 들락거리는 갯마을, 포구(浦口)에는 어김없이 팽나무 한두 그루가 서 있는 탓이다. 팽나무는 푸조나무와 많이 닮았다. 팽나무는 해송(곰솔)과 함께 짙물과 갯바람을 버틸 수 있는 나무로 유명하다. 내륙지방에서도 자라기는 하지만 바닷가에서 심고 가꾸는데 가장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산림청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고목나무 1만 3천여 주 중 팽나무는 약 10퍼센트인 1,200 주로 느티나무 7,100주 다음으로 많다. 이 중 대부분은 전남, 경남, 제주에서 자란다.

팽나무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만큼이나 오래 산다. 천 년을 넘긴 나무도 있으며, 남부지방의 당산나무는 흔히 팽나무인 경우가 많다. 팽나무는 8월 보름에 당산제와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를 벌이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당산나무로 오랫동안 대동(大洞) 마을과 함께해온 역사성이 깊은 나무이다.

창녕군 고암면 신기마을 들녘의 팽나무는 수고(H)가 10m, 수관폭(W)이 20m, 가슴높이(B) 둘레가 5m로 수령이 약 300년으로 추정한다. 신기마을의 여름 휴식쉼터와 농사철 중·간식 장소로 이용하였고, 온누리캠프장 교육생들의 놀이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경남 고성의 팽나무(수령 550년)

최근 천연기념물(제494호)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 수동리 팽나무(수령 400년, 수고 11.6m, 가슴높이 둘레 6.7m) 보다 오래되고 큰 것으로 추정되는 노거수가 경남 고성에서 발견됐다. 경남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 658번지에 있는 팽나무로,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이 찾아냈다. ‘노찾사’ 활동가 박정기 곰솔조경 대표가 최근 발견한 팽나무를 측정해 보았더니 수고(H) 22m, 수관폭(W)은 30m, 가슴높이 둘레(B)가 7m로 수령은 550년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고성에서 발견된 팽나무는 아직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개 노거수는 시·군 보호수, 도 보호수, 도 기념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된다.



수령 400년 팽나무의 특수목 과정

조경공사 현장에서 노거수이면서 특수목으로 인기 있는 수종은 팽나무, 느티나무, 모과나무, 산수유, 배롱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이다.

다음 사진의 팽나무도 약 400년 수령의 고목을 강전정하여 특수목으로 수형을 다듬고 있는 과정이지만 목대 가격이 1억 원 이상 평가된다. 꽃과 나무와 숲, 특히 역사성이 있는 노거수, 보호수는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존 공생하는 삶의 일원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유영숙〉

05

육세팔효(六世八孝)의 비각을 품은 송림



팔효각(불계문) 현판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간적 마을은 디근자 형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뒷산은 왕령산으로 해발 500여 미터이나 남과 서는 야산이고 東(동)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와서야 마을이 있는 줄 알 정도로 삼면이 산이며 마을 초입도 산이 겨우 양보하여 길을 틔워주고 있다.

이 마을은 俗稱(속칭) 시치라고도 하는데 도시화 바람이 불기 전 까지만 해도 20여 호 이상이 집성촌을 이루면서 충효를 숭상하고 장유유서의 질서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여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으나 반세기도 안 지난 지금은 가옥들은 퇴락하거나 허물어지고 또는 철거되어 황량하기 그지없는데다 거주하는 사람마저 10명 이하라고 하니 어른들의 꾸지람 속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서로도우며 살아가는 정겨운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니 풍수지탄 마음을 금할 길 없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일본군 정예부대를 자랑하는 소서행장의 군대가 선봉으로 부산에서 김해를 지나 창녕을 거쳐 대구로 진격할 당시 동네가 산속에 숨어 있으니 제대로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스쳐라고 불리다가 音(음)의 변화를 거쳐 시치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전해지며 또한 정유재란 당시 이 마을 초입에 조그마한 산으로 경사가 심한 대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이 대산전투가 치열하여 수 많은 사상자가 나서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가에 피가 많이 흘러내렸다 하여 마을 이름을 시내 澗(간)자와 피의 상징인 붉은 赤(적)자를 붙여 간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곳 간상리 590번지에 간암재 라는 재실과 함께 不匱門(불귀문)이라는 현관이 걸린 육세팔효의 비각이 있고 그 뒤 산에는 울울창창의 송림이 그림처럼 길게 펼쳐져 있다.

이 병풍처럼 펼쳐진 송림을 뒤로 두고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창녕장씨(시조가 하성부원군으로 봉해져 夏山張氏(하산장씨)로 칭해져 왔으나 郡(군)의 명칭이 창녕군으로 바뀐에 따라 창녕장씨로 개명하였으며 창녕성씨 창녕조씨 영산신씨와 함께 창녕지역을 대표하는 受貫姓氏(수관성씨)로 창녕군지에 기록되어 있음)가 임진왜란 후에 창녕군 부곡면에서 이곳으로 移居(이거)하여 지난 400여 년 동안 세거지가 되어 일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이 송림은 창녕장씨 들이 선대 묘를 모시면서 묘를 보호하는 별목 성격으로 심어져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으로 짐작되며 수십 그루가 띠의 형태를 이루어 잘 숲을 이루고 있으며 나무도 자태가 아름답고 우아함을 유지하여 4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고암초등학교 학생들이 4키로미터의 먼 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소풍을 오고하였던 곳이다.

지금은 이 아름다운 소나무가 노송으로 변해서 풍우와 설해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아름다운 자태에 흠이 생기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는데다 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이 옮겨와 아름답리 소나무가 붉은색으로 변하거나 혹은 피해 목으로 잘려나가는 것을 보니 일찍 예방하



간암재



간암재 송림

지 못한 아쉬움이 앞을 갈릴 뿐이다.

이 송림의 정기와 地氣(지기)의 도움을 받아서 인지 이 마을 창녕장씨 문중에서 조선시대에 6세에 걸쳐서 여덟 분의 효자가 나오시는데 조정에서는 정려를 하사하고 각 고을에서는 칭송이 끊이지 않았으며 후손들은 이 송림이 지켜보는 곳에 비각을 짓고 그 이름을 不匱門(불궤문) (효자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문 또는 문중) 이라는 현관을 달아 그 기록을 남기니 자손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효행을 알고 나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송림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여러 개의 개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 한 개울의 물이 흘러가는 형태가 한자 활 弓(궁)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張氏(장씨)가 터를 잡아 자손들이 번성하였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 판서는 배출하지 못 하였어도 조선이 최고의 이념과 덕목으로 삼는 忠孝(충효)정신에 근본으로 삼는 것을 볼 때 육세팔효자 분이 나

오신 일은 창녕장씨의 광영이자 이 고장의 자랑거리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칭송받아야 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마을 앞의 좁은 논들은 경지정리가 되었고 경지정리 작업과 함께 활궁자의 개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을은 정기노선버스가 운행하는 등 상전벽해가 되었다.

이 육세팔효의 행적을 후인들이 가감을 해서도 안 되는 일ियो. 더구나 행적이 지금에 와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하여 편하해서는 더욱 안될 일이고 효자 분들에게 죄는 짓는 일이라서 소개를 하여야 함에도 하도 조심스럽고 겁이 나서 夏山張氏世孝錄(하산장씨세효록)에 담겨있는 夏山張氏六世八孝紀實碑文(하산장씨육세팔효기실비문)을 옮겨 적음으로서 그분들의 효행을 다시 한번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 비문은 龍仁李氏(용인이씨)의 큰 학자 李玄圭(이현규) 님이 지은 것입니다.

하산장씨는 육세팔효로서 세상에 알려졌다.
朝散大夫 諱承吉 高行處士 諱 之白 贈義禁府

都事諱是行贈工曹佐郎諱翼禎諱涑諱滿諱漢輔諱漢弼(조선대부 휘승길 고행처사 휘 지백 증의금부도사 휘 시행 증 공조좌랑 휘 약정 휘 속 휘 만 휘 한보 휘 한필)을 팔 효자라고 한다.

조선대부로부터 공조좌랑에 이르기까지의 四世(사세)는 一代(일대)에 한 분이었고 오세와 육세는 두 분이 있었으니 곧 형제와 중형제가 된다.

高麗平章事章簡公(고려평장사 장간공) 이 나라에 공을 세워 夏山君(하산군)을 봉하였으므로 후세에 貫鄉(관향)이 夏山(하산)이 되었다 장간공으로부터 뒤를 이은 후손에는 평장사가 아홉 분이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도승지 諱友誠(휘 우성) 이 文行(문행)으로 뚜렷하게 높이 들어났으니 이분이 朝散公(조선공)에게는 高祖(고조)가 되고 考(고)의 諱(휘)는 順受(순수)인데 文科正郎(문과정랑)이다.

조선공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뜻 좇아서 몸소 가쁘게 해 드렸고 喪(상)을 당하여서는 廬莫(여막)에서 哭(곡)하고 가슴 치기를 상을 시작 할 때와 같이 하였으며 3년 동안 죽은 上食(상식)에 올리지 않고 보리가루 물을 마셨을 따름이다 春秋(춘추)가 이미 少壯(소장)이 아님에도 살갓이 축나지 않으니 남들은 생각하기를 지극한 효성이 문득 하늘의 도움이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處士公(처사공)께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모시기를 한결같이 조선공처럼 하였고 상을 당하여 여막에서 미음을 마시며 3년을 마쳤고 忌日(기일)을 맞이해서는 6일 동안 蔬食(소식)에 물만 마셨으며 평생을 그와 같이 하니 남들이 말하기를 兩世(양세)의 효도가 다름이 없다 하였고 牧童樵兒(목동 초아)까지도 빠짐없이 여막에 들러 기거하는 安否(안부)를 물었으며 여막을 지나가는 數百(수백)을 잇는 여행자도 노고하는 것을 보고 탄복하고 공경하였다.

禁府都事公(금부도사 공)께서는 12세에 先公(선공)의 여막에 선공을 따라가 周旋(주선)하여 상을 마쳤고 母堂(모당)의 상에 居(거)할적에 家中(가중)에서 失火(실화)하여 불이 빈소에 번져감에 아무도 그 앞에는 접근 할 수 없었다.

공이 불속에 들어가서 빈소를 안고 부르짖으며 곡을 했는데 이때 10세의 아들도 불속을 따라 들어왔으니 그가 공조좌랑 이었다. 조금 있으니 바람이 돌아가고 비로소 불이 꺼졌다 父子(부자)가 모두 불에 데어서 부풀어 올랐으나 數後日(수 후일)에 회복하여 잘 나으니 보는 이가 이상한 일이라고 傳(전)하였다.

공조좌랑 공께서는 10세에 이미 先公(선공)을 따라 불길 속에 들어갔고 커서는 더욱더 純篤(순독)하였다.

先公 禁府公(선공 금부 공)이 노병으로 脫紅(탈홍)하니 공의 손으로 이어서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9개월을 지냈으며 병이 심하여졌을 때에는 왼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입에 주입하니 과연 소생하였다.

가족들이 工曹公(공조 공) 몸에 남은 손가락을 다 벨까 염려하여 여러 칼 종류를 다 물리쳤더니 선공의 병이 다시 위급해지자 右手指(우 수지)를 씹어서 완전한 손가락이 없었다.

이어서 상을 당하자 太叔人(태숙인)이 굳이 여막살이를 중지하므로 날마다 성묘하기를 3년간 왕복 십리 길을 다녀서 마쳤다.

內艱(내간)을 당하자 또 손가락을 잘랐으므로 고을 선비들이 公(공) 부자의 지극한 행적을 도백에게 글월로 올려 肅宗 丙戌年(숙종 병술년)에 두 분 모두에게 贈爵(증작)과 旌閭(정려)가 내려지게 하였다.

諱涑(휘속)은 아버지 병이 급하므로 곧 손가락을 씹어서 피를 주입하여 하루 더 연명하였다.

諱滿(휘만)은 17세에 母喪(모상)을 당하여 여막



간암재 송림

에서 또한 보리가루물을 마시며 侍墓(시묘)하니 朴文秀(박문수) 암행어사가 그 행동을 嘉尙(가상)하게 여겨 임금에게 글을 올려 給復(급복)의 恩典(은전)을 입도록 하였다.

諱 漢輔(휘 한보)는 선공 諱 涑(휘 속)의 상에 여막에서 居(거)함에 호랑이가 와서 여막을 지키는 것 같더니 밤에 와서 새벽에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때 母夫人(모부인)이 병이 나자 하루 한 번 씩 찾아보니 모부인께서 꿍 구이를 생각하므로 여막에 돌아와서 마음속으로 언지 못함을 근심하고 있으니 갑자기 집의 개가 꿍을 물고 와서 앞에 두고 가기를 세 번이나 하였다.

諱 漢弼(휘 한필)은 18세에 모부인의 상을 당하여 여막에 居(거)할적에 역시 보리가루 물을 마셨던 것이다.

대체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극한 행적 가운데서도 한두 가지만 적은 것이다.

비록 옛날의 傳記(전기)라 할지라도 일찍이 본적이 없으니 아! 盛(성)하다고 말하겠도다!

이미 금부도사공 부자는 옛날 高岡書院(고강성

원)에 配享(배향)하였다가 高宗(고종) 때 여러 祠院(사원)을 헐어 없애라는 朝令(조령)으로 헐리었는데 張氏(장씨)는 훼손된 재목으로 世瑩下(세영하)에 재실을 지어 霜露(상로)에 잔 드리고 종족을 모아 재실에서 자고 子弟(자제)들이 다 그 가운데서 배우고 익혔다.

또 장차 팔효자의 사실을 새긴 것을 재실 옆에 기념하려고 후손 仁昊(인호)와 世杓(세표)가 玄圭(현규)에게 와서 그 비문을 요구하기에 二君(이군)이 먼 곳에서 찾아온 뜻을 거듭 어기다가 蕪拙(무졸)한 말로서는 辭讓(사양) 할 수 없었다.

銘(명)하여 가로되 몸은 저절로 있음이 아니고 부모가 낳아서 길렀음이다.

진실로 두 분을 편하게 한다면 百身(백신)인들 어찌 아까우리.

장씨는 선대를 이어서 오직 이같이 열어주는구나 가풍이 끊이지 않고 그 世系(세계) 오직 유세로다. 빛나는 팔효자는 대략만을 말 했도다.

살았을 때 봉양하고 죽었을 때 좃았으니 언덕과 무덤이 서로가 이었다네.

미루어 드리남과 숨은 것을 알 것이니 이 같은 즐거움 다시는 없으리라.

霜露(상로)에 드리는 초라한 祭需(제수)는 받드는 일을 매우 공경함이나.

林風(임풍)이 고요하고 엄숙하니 와서 歆格(흠격)하소서

오르고 내림이 비슷하니 昭(소)같고 穆(목)같구나. 어찌서 鄉邦(향방)에서 만이 예뻐하고 사모하며 한숨지을까?

千秋百世(천추백세)가 되도록 자나는 耆(자) 모두 우러러 볼 지어다.

龍仁 李玄圭 識(용인 이현규 식)

〈장후돈〉

06

대유학자를 배출한 원촌의 은행나무



고암 원촌 은행나무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197번지에는 수령이 538년이며 樹高(수고)가 20미터 수관 폭이 20미터 이고 직경이 1.7미터인 은행나무 노거수 한 그루가 위엄을 갖추고 자태도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다.

1982년 11월 10일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와 함께 풍치를 보존하고 있다.

정씨일가가 은행나무 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불의의 화재로 일가와 나무가 모두 불타 주고 그 뿌리에서 순이 돋아나 현재에 이르렀다는 전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나무가 묵묵히 흐르는 세월 속에 변천과 영욕을 지켜보는 마을은 원촌 1구라는 행정마을이다.

마을이 언제 취락형태를 갖추었는지는 기록이나 전하는 바가 없으나 이 나무의 수령과 전하는 전설에 비추어 볼 때 족히 700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처음 이 마을은 동래정씨가 터를 잡아 득세하였다 한다.

지금도 이 은행나무 밑에는 정월 대보름이면 洞祭(동제)를 지내고 있는

데 동제 때 잔을 드리는 돌이 정씨들의 비석의 투구 (예전에 군인들이 전투 할 때에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던 쇠로 만든 모자를 닮았다 하여 비유함)를 거꾸로 놓았던 돌을 사용한다고 한다.

동제에 초헌 아헌 종헌 등 헌관을 지낸 분 들은 다음 동제를 지낼 때까지는 흥사를 보지 않는 전통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며, 이 은행나무 밑에는 정씨들이 말에 물을 먹이던 샘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사람들의 득세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어느 때 부터 인지 정씨들은 물러나고 최근 창녕조씨와 경주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도시화 현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다른 성씨들도 많이 와서 산다고 한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고암면에서 가장 잘 자리 잡은 동네로는 첫째가 원촌마을이고 둘째 마을이 계팔마을 이며 세번째가 만촌(고만)마을 이라고 하였으니 길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또한 이 마을에서 앞을 바라보면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해발 754.7미터)의 정상 봉우리가 붓을 닮은 문필봉 같이 생겼다하여 큰 학자가 나올 것이라는 口傳(구전)이 있는가 하면 동네가 야산으로 삼면으로 둘러싸여 명당이 있어 3명의 천재가 나온다는 속설도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 창녕조씨 문중에서 구한 말에 우리 창녕지역을 대표할 뿐 아니라 영남지방에서 명성을 날리는 深齋 曹兢燮(심재 조공섭) 선생과 그의 형 偉堂 曹龍燮(위당 조용섭) 선생 형제분이 태어나서 유학을 크게 중흥시키고 면학분위가

를 조성하였다. 일제강점기 어려운 실정에도 책 읽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며 지금도 혹자는 2명의 천재는 출생하였고 한 명의 천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들 한다.

형 위당 조용섭의 학문도 따를 자가 많지 않았다 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는데 동생 심재 조공섭 선생이 워낙 출중하게 학문을 드날리니 형은 동생 때문에 빛을 바랬다고 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의 겸암 柳雲龍(류운룡)과 西厓 柳成龍(서애 류성룡) 대감이 형제로 태어났으나 동생 서애가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고 학문이 뛰어나니 자연히 형의 학문과 행적의 그림자는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겉으로 사료된다.

1871년에 태어난 심재 조공섭 선생은 3살 때 붓을 손에 쥐어주었더니 벽에 황칠을 하는데 그것이 글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년도는 알 수 없으나 동아일보 사회면에 영남에 천재가 나왔다고 대서특필 기사가 실렸는데 심재의 출생년도와 동아일보의 창간 년대를 비추어 볼 때 사실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심재는 선비정신이 뛰어나고 애국심이 강하여 서슬이 시퍼령고 공포정치가 왕왕한 일제강점기 때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켰다 한다.

일생은 학문은 우뚝 솟았으나 생활은 호화롭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린 편이다 일찍이 원촌을 떠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면 인흥리의 남평문씨와 인연을 맺어 만권의 책을 자랑하는 광거당을 이용하여 학문을 넓히고 남평문씨의 지체를 높이는데도 한

몫 했다고들 한다.

창녕은 말할 것도 없고 밀양 달성 대구 등지에 많은 제자를 배출하여 뛰어난 제자가 수 없이 나와 그의 학맥을 이었으며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우리 지역도 면학의 기풍이 면면히 흐르고 있으며 1994년에 발간한 심재선생 門人錄(문인록)에 기록된 제자가 180명이 되니 후학양성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는가?

3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은행나무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원동서당에서 매년 동짓날이면 제자들과 후학들이 모여 심재선생을 추모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학문을 닦는 심재계가 열렸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지금도 매년 봄이면 2년에 한 번씩 석채례를 지내고 있어 큰 학자를 기리는 행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창녕북부 지방의 재실 서원들에 심재의 글이 수없이 남아있어 대 학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심재의 학문은 높고도 깊어 퇴계의 학문과 남명의 학문을 넘나들었다 하며 수십 년 전에 경북대학교에서 사학자들이 모여 구한말 학자 심재 조공섭 선생의 연구라는 발표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위낙 큰 학자이고 저의 조부님[諱 世杓(휘 세표)]의 스승이기도 하여 심재선생을 거론하는 것조차 후안무치한 일인 데가 더 이상 거칠은 글을 쓰다가는 혹여 오류가 있어 죄인이 될까 노심초사 하면서 심재 선생의 일대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록을 대신하고자 한다.

심재의 생애 및 활동상황

본관은 昌寧(창녕) 字(자)는 仲謹(중근) 호는 深

齋(심재) 아버지는 曹柄義(조병의) 이다.

11세때 近思錄(근사록)을 10일 만에 베껴 쓰는 놀라운 글재주를 보였다.

17세 때에는 당시 영남의 큰 선비였던 郭鍾錫(곽종석)을 찾아가 태극 성리 등에 관하여 토론을 벌였다.

1901년(광무 5) 19세 때에는 대구에서 열린 향시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李種杞(이종기)를 방문했다.

심재는 20세를 전후로 張福樞(장복추) 金興洛(김흥락) 등을 찾아가 학문에 대해 문답을 했다.

남명집을 중간하는 사업에 참가해 여러 선배 문인들과 사귀었다.

19년(융희2) 26세 때에 四書(사서)에 대해 의문이 나는 점을 묻기 위하여 다시 김흥락을 찾았다.

1940년 합병소식을 듣고서는 두문불출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서의 학설을 비교 궁리하여 困言(곤언)을 저술하였다.

다음해에 부친상을 당 하였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열의가 식지 않아 居貧解 性尊北卑辨(거빈해 성존북비변) 등의 논문을 써냈다.

부친상이 끝나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선비의 길을 걷고자 鼎山(정산)으로 숨어버렸다.

그 뒤에 文氏(문씨)의 서재인 광거당을 오가며 학문에 몰두했다.

그리고 정산서당을 지어 후학을 가르쳤다.

1919년 3월 일본총독과 동포대중에 보내는 글의 초안을 잡다가 발각돼 17일간 구속당했다.

1928년 겨울에 문인들의 요청으로 정산에서 비슬산 서쪽인 雙溪(쌍계)로 거처를 옮겨 龜溪書堂(구계서당)을 짓고 후학을 계속 양성했다.

1933년 61세로 사망했다.

저작 困言(곤언) 암서집 심재집 조명록 등이 있다.

〈장후돈〉

07

도암재(道岩齋)와 일원각(一源閣) 보호수

창녕읍에서 북쪽으로 십오리 지점인 고암면 간상리에 왕령산과 함께 삼신령·광덕산이 좌·우측으로 기품 있게 솟아 있고, 서쪽으로 대합면, 북쪽으로는 성산면이 있다.

그리고 광덕산 입구에 약 300년 전 창녕조씨 만호공파 도암재 문중 재실이 건립되면서 주위에 느티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은행나무를 심었고, 그 옆에 형체가 매우 아름다운 일원각이 있어 자연미를 더해준다.

1. 느티나무

어려서는 불품없지만 클수록 티가 난다고 하여 ‘늦티나무’라고 불리다가, 후에 ‘느티나무’로 이름지어졌다고 한다. 일원각 옆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

우리의 나무 문화는 흔히 소나무 문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조선 후기의 이야기고, 느티나무 목재는 우리나라 제일로 치며, 무늬와 색상이 아름답고 중후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소나무의 기상은 널리 인정



일원각(도암재) 보호수

해 주었지만 목재로서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대접이 사뭇 달랐다.

서민들은 살아생전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소나무로 만든 가구를 쓰다가 죽어서도 소나무 관에 묻혔고, 양반들은 느티나무로 지은 집에서 느티나무 가구를 놓고 살았으며, 느티나무 관에 실려 저승으로 간다는 마을 구전이 있다.

목재로서 느티나무의 가치를 짐작케 하는 증거들이 또 있다. 신라의 천마총이나 가야 고분에서 나오는 관도 느티나무였으며, 유명한 고궁이나 사찰의 기둥 역시 느티나무로 만들어 졌다.

사람들은 느티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고, 봄에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한 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점쳤으며,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흰머리가 검게 된다는 마을 구전이 전해져 오고 있다.

2. 회화나무

회화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 으뜸으로 치는 신목(神木)이며, 우리 선조들이 최고의 길상목(吉祥木)으로 손꼽아 왔고, 이 나무를 귀하고 신성하게 여겨 아무 곳이나 심지 못하게 했으며, 특별히 공이 많은 학자나 관리한테 임금이 상으로 내리기도 했던 나무다.

예로부터 선비들이 좋아하여 ‘선비나무’로도 불렸으며, 서원, 서당, 재실, 사대부가 등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학자수’라는 별칭도 있다.

회화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학자나 큰 인물이 나며, 잡신이 침범하지 못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모여든다 하였다.

그리고 회화나무는 학자수(學者樹), 출세수(出世樹), 행복수(幸福樹), 양반수(兩班樹)라고 했으며, 도암재 문중에서 이 나무를 심고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기원했고,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전해온다.

또 자녀들의 대학 입시 때 어머님들이 정갈한 차림으로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했던 길상목(吉祥木)이었다.

또 매년 여름이면 피어나는 은은한 회화나무 꽃향기는 갈수록 편협해지고 고집스러운 세상에서 눈과 마음을 밝게 깨우고 살도록 해 준다.

가을이 오기 전에 더위에 흠어진 마음을 푸르게 가다듬어 보려 한다면 회화나무 구경을 하길 권해 본다.

오래된 서원이나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는 회화나무를 찾아봐도 좋고, 창녕이라면 고암면 대암리 도암재(창녕 조씨 문중 재실)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원각 현판

3. 팽나무

박수(朴樹)의 유래를 갖고 있는 팽나무는 우리 민족과 아주 오래부터 인연을 맺어 온 나무다.

팽이란 말의 어원은 ‘폐다’, ‘피다’이다. ‘이삭이 폐다’, ‘꽃이 피다’와 같이 희망이 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팽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신령스러운 나무 밑에서 자식과 집안의 무사를 빌었던 곳이다.

천년을 살지는 못하지만 오백년은 예사로 장수하는 나무라 노거수(老巨樹)가 많다.

작고 붉은 나무 열매가 수없이 달리는데 그 열매는 달콤하여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 준다.

그래서 팽나무는 다산과 풍요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보살피는 당산 나무로 당집 옆에 많이 심어졌고, 우리 민족에게는 신목(神木)으로 여겨진다.



고암 일원각



고암 도암재

4.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겨 심고 키우던 나무다.

유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은 조선사회의 선비들은 유학의 시조인 공자의 행동과 사상을 모두 따르려 했다.

학문을 닦는 곳을 행단(杏壇)이라 하는데, 이것은 공자가 은행나무 단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유학의 교육기관이나 선비의 정자 주변에는 공자의 행단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리고 도암재의 은행나무는 문중의 기개와 지조

를 상징하고, 잎이 싹트는 것에 따라 마을의 한 해 농사 풍흉년(豐凶年)을 미리 점치는 농업 기상목(農業氣象木)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노거수는 오랜 세월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생활과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과거 환경을 알 수 있는 산 증거를 갖고 있으며, 마을의 휴식 공간이자 축제 마당이고, 그들이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소이며,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마을과 문중의 길흉화복을 같이 하는 동반자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후세에 전할 귀중한 수목으로 사료된다.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서

문화재명	道岩齋 一源閣 및 始祖 靈蹟碑	수량(면적)	일원각(9.38㎡), 영적비(1.92㎡)		
크 기	일원각 3.75×2.50, 영적비 1.90×1.20	규 모	일원각 9.38㎡, 영적비 1.92㎡		
재 질	목재, 석재, 한식 토기와	구조·형식	일반 목구조·주신포 및 다포 혼합		
연 대	1892년(고종 29년)	작 가			
소유자 성명	창녕조씨 만호공파 조도암 증중(인)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 2로 1162 동보아파트 102동 406호 010-****-****	성별	남
생년월일	1960. 4. 9	문화재 소재지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386		
현 황	<p>一源閣 및 始祖 靈蹟碑은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386번지 소재하고 있다.</p> <p>一源閣은 昌寧曹氏 始祖 靈蹟碑를 모시는 곳으로 歷史성과 文化的 측면에서 귀중한 資料이다.</p> <p>始祖 靈蹟碑는 昌寧曹氏의 始祖 曹繼龍의 사적과 영험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碑石이다.</p> <p>道岩齋는 昌寧曹氏 萬戶公派 宗中의 大衆 齋室이고, 一源閣을 保護·守護하고 있다.</p>				
신청사유· 문화재 가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一源閣은 昌寧曹氏의 始祖 曹繼龍의 靈蹟碑를 모시는 碑閣이며, 그 形體가 매우 아름다운 모루丹青과 주신포 및 다포 양식의 혼합 建築物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구조이고, 歷史성과 文化的 價値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 靈蹟碑은 고종 29년(1892년) 碑石을 세웠고, 吏曹參判 曹寅承의 주관으로 碑文은 舊韓末 최고 학자 右副承旨 完山 李健昌이 글을 짓고, 後孫 曹寅承 썼으며, 題額의 篆字는 曹斗煥이 썼으며, 상단 부에 ‘昌寧曹氏 始祖 新羅太師駙馬都尉 昌城府院君 靈蹟碑’ 라고 썼으며, 본문은 단정한 楷書로 쓰여져 있다. 3. 一源閣 및 靈蹟碑는 歷史성과 文化的 측면에서 귀중한 資料이며, 建築 당시의 構造的 특성 및 時代樣式을 잘 보여주고 있어 후세에 전할 귀중한 建築物로 慶尙南道 文化財로 지정하여 保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함. 4. 道岩齋는 一源閣을 保護·守護하는 건축물로 약180년 역사와 함께 齋室 本體의 기둥은 사리 나무로써 一源閣과 함께 숲속에 위치하여 自然美를 더해준다. 5. 一源閣과 靈蹟碑는 많은 宗人 및 觀光客이 찾는 장소로, 慶尙南道 文化財로 충분한 價値가 있는 建築物과 碑石이라고 판단 한다. 				
붙임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1. 각종 대장(건축물, 토지), 등기부(토지, 건물) <li style="width: 50%;">2. 도면(배치도, 평면도) <li style="width: 50%;">3. 사진(전경, 정면) <li style="width: 50%;">4. 기타 증빙자료(문헌 등) 				

위 대상에 대하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재 지정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조 병 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5. 일원각

일원각(一源閣：始祖 靈蹟 碑閣)은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386번지 소재하고 있으며, 창녕 조씨 시조 신라 태사 부마도위 창성부원군 조계룡의 영적비를 보호하는 비각이다.

서기 1892년(壬辰) 고종 29년에 건립되었으며, 시조 태사 조계룡 영적비(높이 : 3.0m)를 보존하고 있다.

일원각은 화왕산 득성비와 함께 시조의 영적비를 모시는 곳으로 막돌초석 위에 배흘림이 강한 둥근 기둥을 세웠고, 그 형체가 매우 아름답고, 건축 당시의 구조적 특성 및 시대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모루단청과 주신포 및 다포양식의 건축물로 구성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구조이고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

6. 창녕조씨 시조 영적비

창녕조씨 시조 영적비는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 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지제고 완산李建昌이 글을 지었고(찬), 후손 가선대부 이조 참관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曹寅承이 글씨를 썼으며, 통훈대부 전 하양 현감 曹斗煥이 전자를 썼다.

그리고 2017년 8월 경상대학교 허권수 명예교수가 비문을 번역 했으며, 후손 조규태 교수가 교열 했다.

① 영적비의 내용

조씨는 신라의 태사 부마도위 창성부원군을 시조로 삼는다. 고려조를 지나면서 여덟 명의 평장사와 아홉 명의 소감이 있었으며, 조선에 들어와서 덕업과 공훈이 서로 이어져 오늘까지 대성이라 불린다.

태사의 어머니 이씨는 신라 한림학사 이광옥의 따님인데, 출가하기 전 속병이 있어 창녕 현(縣) 화왕산 용지에서 기도하였는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낮인데도 그믐처럼 캄캄하더니 이윽고 애기를 가졌다.

꿈에 누가 말하기를 ‘나는 동해 용왕의 아들 옥결이니 잘 기르라.’고 하였다. 아기가 태어나자 생긴 모습이 비상하고 겨드랑이에 ‘曹’라는 무늬가 있어, 신라 진평왕이 듣고서 ‘曹’라는 성을 하사하고 이름을 계룡이라 하였다. 장성하여 진평왕의 사위가 되었고, 동래에서 왜적을 방어할 때 왜적이 두려워 복종하며, ‘조공은 하늘이 내신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이는 조씨의 가첩에 기록되어 있다.

고종 29년(1892)에 조씨가 서로 의논하여 용지 위에 비를 세우기로 하였는데, 이조 참관 조인승이 그 일을 주관하였다. 비문을 나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조씨와 사이 좋게 지냈으므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가첩의 글에서 약간 요약하여 위와 같이 적었다.

내가 생각건대, 기(氣)가 정기(正氣)로 변한 일은, 시경(詩經)의 상송(商頌)과 대아(大雅)로부터 좌씨전(左氏傳), 사마의전의 사기(史記)에 이르기 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 괴이한 일이 많다. 요컨대 또한 이치로서도 혹 있는 일이기도 하다. 소순이 일체 허탄한 일이라고 논단한 것은 아마 또한 스스로 믿는 것에 과감하여 천지의 크고 고금의 다름을 모른 것이니, 일반적인 견해로 한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문의 시작이 가장 늦어 신라는 한 나라에 해당된다. 그 뒤로 천하가 바야흐로 절박함이 흠어지고 순진함이 경박해져, 기가 정기로 변하

고 기를 기르는 것의 기이함은 왕왕 아득한 옛날 일과 같았다. 오직 그 기를 기른 것이 오래되어 나타남이 더디었지만, 삼한 천년을 지내고 우리 조선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내려주는 아름다움은 여전히 다하지 않았다. 세가(世家)의 부귀와 목록은 오히려 다하지 않았으니, 조씨는 그 중에 특히 두드러지는 집안인 것이다.

무릇 이미 들은 바와 전해들은 바가 있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자손 되는 자로서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미 믿을진대 또 어찌 드러내어 밝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씨가 하는 일은 예(禮)에 들어맞으니, 예(禮) 근본과 시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명은 이러하다.

큰 바다 그 동쪽은 해와 달이 문으로 삼네.
영해유동(瀛海維東) 일호월비(日戶月扉)
용의 아들 거처는 구슬로 된 궁이었네.
용자지거(龍子之居) 궁이주기(宮以珠璣)
물고기들이 시종하나 아내로 삼으려 앓고
린린자잉(鱗鱗者媵) 불설이비(不屑以妃)
비로소 멀리 눈길을 돌려 기를 타고 날아왔네.
숙언피고(傲焉避顧) 승기이비(昇氣而蜚)
창녕 땅 화왕산은 높고도 우뚝하며
화왕지산(火旺之山) 기고외외(其高巍巍)
그 못에 구름 일어 남쪽 지방 자욱하도다.
기택옹옹(其澤滄滄) 침우남기(浸于南畿)
정숙한 젊은 숙녀 의지함이 있는 듯도 하네.
유제계녀(有齊季女) 약혹유의(若約或有依)
사내 아이 태어나니 헌걸차게 장성했도다.
내생남자(乃生男子) 기장기(其長頤頤)
공주에게 장가둠에 모습이 성대했고

상우이관(尙于貳觀) 상복유기(象服有祗)
섬 오랑캐 침범함에 위덕으로 따르게 했네.
도이태의(島夷駉矣) 아회아위(我懷我威)
복의 발산 널리 퍼지니 잎새마다 빛나고
발지류영(發祉流榮) 엽엽이휘(葉葉以輝)
충성도 효도도 혹시라도 어김이 없네.
유충유효(惟忠惟孝) 망혹유위(罔或有違)
신령이 도우는 바이거니 그 누가 감히 알겠는가.
신령소우(神靈所祐) 기주감기(其疇 감幾)
돌에 글을 새겨 그 아름다운 덕 드러내니.
탁사우석(琢辭于石) 이창궤휘(以彰厥徽)
수많은 후손들 의젓하게 빛나리.
운지예예(雲之裔裔) 유엄기(有儼其旂)

음기(陰記)

음기는 후손 조병의가 기록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태사공이 기이한 기운을 받아 태어난 일은 서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공이 세상을 뜬 지 일천 삼백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관향인 창녕에 비명하나 세우지 못하여, 수많은 후손으로 하여금 우리 시조께서 어느 지방에서 배태되었으며, 어느 시대에 비롯되었는지 모르게 되었으니, 실로 누대 동안 유감으로 여기던 바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선대의 큰 뜻을 따르고, 후손이 보고 느끼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비가 이루어지자 세우는 곳을 의논할 제, 모두 말하기를, '화왕산 꼭대기에 두어 나무하고 풀 베는 자에 의해 닳아지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후손이 거주하는 곳에 두어 오래도록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

는가.’라고 하였다.

또 보성 사는 일족 조석규의 집에 있는 가승에 공의 외조부 이 한림이 ‘창녕 고암리에 거주하였다’ 하니, 오늘날의 대암은 곧 고암 땅이다.

생각건대 공의 배태는 비록 저 산꼭대기 용지 이기는 하나, 공이 태어난 곳은 반드시 이곳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따라 대암에 세운다.

7. 고려 충신 청구당 조계방 (高麗 忠臣 靑丘堂 曹繼芳)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선비는 오로지 그 명예와 절조를 소중히 생각하고 말과 글이 같아야 하며,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그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청구당은 고려 말에 문과로 벼슬이 중정대부 보문각 직제학(中政大夫 寶文閣 直提學)에 이르렀으며, 공민왕 10년 흥건적이 송경(松京)을 함락하고, 복주(福州)로 피난 갈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호종록(扈從錄)에 기록되어 이미 국사(國史)에 나타나 있다.

1362년 9월 공북루(拱北樓)에 올라 문신들과 함께 “관상시(板上詩)를 화답할 때 공(公)과 원송수, 이색, 성사달 등 25인의 현인(賢人)들과 시(詩)를 지어 올렸다”고 동문선(東文選)과 청구풍아(靑邱風雅)에 실려 있으며, 계묘년(1363년) 봄에 임금이 문무(文武)의 공을 세운 신하의 가문을 영원히 돌보아 주기로 약속하여 공(公)은 임금을 호종(扈從)으로 모신 철권록(鐵券錄)에 새겨졌다.

그리고 고려가 망한 후 조선이 들어서게 되자 공

(公)은 향리(鄉里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로 물러나 몹시 곤궁하게 살면서도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도리를 다하였다.

“새 조정(朝廷)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은거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전야은(田野隱)의 녹생시집(祿生詩集)에 실려 있고, “꽃가루로 기둥을 단장한들 어찌 오래 갈쏘냐?” 하며 비웃고, “푸른 산과 맑은 물은 언제나 변하지 않음을 노래하며 살았다”라고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기록하고 있다.

[관직을 물러갈 때 원쌍매(元雙梅)가 올린 시(詩) - 부퇴거시증시(附退居時贈詩)]

같은 조정(朝廷)에서 수년을 함께 벼슬하고 의논한 이들이 새 조정을 향함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임금의 수레를 호종(扈從)한 공신들이 철권(鐵券)에 새겼는데 이제는 그들을 성심으로 우러러보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청구당(靑丘堂)의 시(詩) - 퇴거이수(退居 二首)]

관직을 물러나면서 지은 시(詩) - 옥역청춘(屋亦靑春)

한쪽이 성긴 울타리를 보니 이것이 나의 집이라 봄이 오면 온 산에 꽃이 만발하는데, 꽃가루로 기둥을 붉게 단장한들 어찌 오래 갈꼬. 뜰 가운데 앉아 밝은 달빛을 즐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를 따르고 가난을 따르지 않는데 뉘라서 강촌(江村)의 차고 여원 사람을 기억하리오. 오직 하늘과 땅이 있어 두텁고 얇음이 없는데 적막한 초가집이 이 또한 청춘이라네.

[서거정의 동인시화(東人詩話)에 실려 있는 청구당의 시(詩) - 산사(山寺)]

밤중에 길손이 문을 두드리며 가르침을 기다리

나, 산가(山家)로 하여금 기이한 일을 알게 하지 말지어다. 집 모퉁이 배나무에 꽃이 만발하였으니 소쩍새가 달 밝은 밤에 와서 우짖는다.

그뿐만 아니라 성균관 유도회(成均館 儒道會) 경상남도 본부 유림보감(儒林寶鑑) 및 창녕 현지(昌寧 縣誌)에도 공의 충심과 절개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천만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당의 인품은 문장으로서 드문 인재였고, 남의 앞에 나타날 때는 용모를 흐뜨리지 않았으며, 죽을 때까지 곧은 절개로 두문동(杜門洞)의 여러 선비와 마찬가지로 의(義)를 지키고, 망하는 나라를 차마 볼 수 없어 자취를 감추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공의 묘소(墓所)는 화왕산 서록 관사 뒤 죽전(火旺山 西麓 官舍 後 竹田: 지금의 창녕읍 만옥정 공원 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종인(宗人) 심재(深齋) 조공섭(曹兢燮)이 쓴 청구당 비문(靑丘堂 碑文)에 나타나 있고, 같은 종인(宗人)인 조선의 대 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儒學者 南冥 曹植 先生)이 지은 글 사실(事實)에 의거한 판서(判書) 오도일(吳道一) 행장(行狀)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후손들의 노력으로 청구당(靑丘堂)의 묘소(墓所)가 창녕읍 만옥정 공원 내(內) 신라 진흥왕 순수비(新羅 眞興王 巡狩碑) 좌측 옆에 있음을 인

지했고, 종인들은 묘소(墓所) 참배(參拜) 사실(事實)을 전하고 있으며, 묘(墓)는 화왕산(火旺山) 용지(龍池) 방향이다.

또 전(前) 경북대학교 의대 학장과 창녕 조씨 대종회 회장을 지낸 조준승(曹準承) 박사도 생전(生前)에 공의 묘소는 만옥정 공원내 진흥왕 수순비(眞興王 巡狩碑) 옆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昌寧郡 高岩面 元村里) 유림(儒林)의 선비인 조대섭(曹大燮)은 생전(生前)에 명절 때 마다 공의 묘소(墓所)에 성묘를 다녔다고, 아들(廷純)이 그때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오래전 창녕 도서관에 근무한 서덕원씨는 만옥정 공원 내 묘소가 존재 했다고 전하고 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국에서 많은 종인(宗人)들이 묘소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창녕군민 다수도 청구당의 충절에 깊은 감명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慶南 昌寧郡 游漁面 世津里)에 청구당(靑丘堂)을 기리는 학음제(鶴陰齋) 재실이 있어, 봄에 지방 유림(儒林)들이 스스로 모여 매년 제(春享)를 올리고 있고, 현재는 매년 같은 종인들과 뜻있는 분들이 제(春享)를 올리고 있다.

〈조병암〉

08

냉천, 이천마을을 지켜온 보호수들

냉천리는 성산면의 동쪽 끝 가복리 천왕산에서 시작되어 달창저수지로 흘러가는 운봉천 하류에 위치하는 법정리로 수백년 수령의 노거수 동신목·정자목과 함께 냉천·석정·이천등 자연부락을 형성 취락한 이래 각각 당산나무에서 동제를 올리며 마을의 오랜 역사를 지켜오고 있다.

수백년 팽나무군의 찬샘골 냉천마을

냉천마을 입구에는 마을의 오랜 역사를 증언하듯 300여년의 팽나무(성산면냉천리 358-7)가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어 마을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뒷담에는 물이 맑고 찬 샘(옹달샘)이 있어 찬아물, 찬샘골 이라하며 한자말로 냉천(冷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본동인 냉천마을에는 경주이씨의 봉선소인 원천재(源泉齋)가 있고 재사입구에는 수백년 느티나무(성산면 냉천길47)가 보기 좋게 도열해 시원한 숲을 이루고 있다. (자료제공 : 냉천리 이재목)



냉천마을 입구 팽나무군락

이천마을과 송나라 정이천의 학문을 흠모한 외신재 선생

이천 마을은 임진란 때 피난 왔던 파평 윤씨들이 1594년 처음 입향하여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마을 곳곳에 고목의 느티나무가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 마을은 성산면 소재지로 북쪽 연비봉 앞자락에 파평 윤씨 연곡 문중 외신재(畏神齋)(성산면 냉천리 166)가 수백 년 향나무와 회화나무 등의 노거수와 함께 마을의 풍광을 더욱 멋지게 한다.

진사 외신재 윤남룡은 비록 높은 관직이 없어도 시골에서 사족을 잃지 않은 연원을 고찰할 수 있고 덕행을 가히 말할수 있는 선비로, 효우를 행함에 하늘에 근본을 두었고, 묻고 배움은 스스로에게 넉넉하여 어린나이에 부용당 성안의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윤공은 일찍이 이계(伊溪/지금의 운봉천)옆에 집을 짓고 편역을 외신재라 하였으며, 무릇 어두운 방에 있어도 귀신의 눈이 번



냉천웃마을 원천재와 느티나무



이천마을 외신재와 회화목



석정마을 보호수



석정리 느티나무 군락

개처럼 빠르다는 뜻을 취한 것이라고 외신재기(畏神齋記)에 적고 있다.

외신재 공은 마을 앞에 흐르는 조그만 내를 보며 송조 대표적 성리학자 정 이천(程伊川)선생의 학문을 흠모하면서 이 마을을 이천(伊川)이라 명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창녕군지에서는 이천 마을을 뒷산(연비봉)의 형태가 마치 제비가 날개를 펴고 저내(운봉천)를 바라보며 나는 형국이라 하여 연곡(燕谷)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저내”를 한자말로 이천(伊川)마을이라 부른다고 쓰고 있다.

석정마을의 느티나무 군락과 돌무정의 내력

냉천마을의 서북쪽 석정마을 도로가에는 시원한 느티나무 군락속의 정자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더위를 식히며 마을의 유래와 부용정 안마당에 우뚝 솟은 은행나무에 얽힌 선현들의 고결한 수백년 역사를 기리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주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석정(石亭)을 돌무정(回舞亭) 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임진란 이전부터 창녕성씨들이 취락을 형성한 세거지로, 옛적에 성만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며 애쓰던 중 마침내 집안의 아이를 양자로 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양자를 얻게 되자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정자나무 아래에서 “나도 아들이 있다.” 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한다. 그래서 춤을 추며 돌았던 정자라 하여 돌무정(回舞亭)이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마을 이름도 석정(石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느티나무 수십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한마을에 두 개의 보호수가 있는데, 도로옆 450년 수령의 정자나무와 길 건너 마을회관 앞에 있는 300여년 수령의 느티나무를 말한다.

이 마을 느티나무 군락은 세월의 온갖 풍상 속에서도 마을의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루면서 잘 관리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풍광도 좋고 운봉천 바람이 이 느티나무 숲과 합쳐 한 더위를 식혀주고 있으니, 길손들도 걸음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 나누며 쉬어 간다고 한다.



부용정과 은행나무

부용정(芙蓉亭)의 역사를 묵묵히 지키는 은행나무

이 마을 서북 쪽에는 임란 의병장 성안의(成安義) 선생을 모신 부용정을 지키며 약 3백년 수령의 군 지정 보호수(성산면 냉천리 222)인 은행나무가 높이 서 있다.

부용당 성안의는 정한강(鄭寒岡)선생의 문인으로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찍이 홍문관 정자(正字)로 있으면서 같은 집안 성천희, 유학 곽찬과 더불어 의병을 모아 광재우장군 휘하에서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하였다.

그 후 조정의 부름으로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으나, 인조반정 후에 제주목사, 우부승지등 관직을 제수 받고도 칭병하며 모두 사양하였다고 하였다.

부용당의 스승인 한강(寒岡) 정구(鄭逯)선생은 일찍이 창녕현감에 부임하여 현민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창녕 군지에 의하면 조선조에 창녕 현감을 지낸 분이 148분, 영산 현감을 지낸 분이 130분이고, 일제 감정기 때 군수가 14명, 광복 이후 48분의 군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분이 고을을 다녀갔지만 우리 군민의 입에 오랜 세월 동안 자주 오르내리는 분은 송사에 명 판결을 하였다는 고창녕과 선정을 베풀어 영산 현민들이 생사당을 지어 사모하였다는 신담 현감과 선조 때 창녕 현감을 지내신 한강 정구선생이다.

그 중에서도 정한강 선생은 퇴계, 남명의 학통을 함께 이어받아 이조 500년 유학사에 우뚝 선 분으로, 짧은 재임 기간에 하산 권징안등 많은 업적을 남겼음은 물론이며, 특히 우리 창녕에 8개 제실을 지어 인재 양성 교육에 주력하여 많은 후학을 길렀는데, 이곳 성산 부용정을 비롯한 유어면 미구에 팔락정, 대지면 왕산에 물계정, 고암면 우천에 관산재, 창녕읍 술정에 술정, 창녕읍 옥천에 옥천정, 유어면 세진에 만진정, 고암면 원촌에 백암재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한강 선생은 석정마을과 후천마을의 경계지점인 이곳에 부용정을 지어(1582년) 우리 지역의 후학을 널리 교육 양성하였고, 현감을 떠나면서 문하의 성안의에게 부용당을 작호하여 이 정자를 주고 강석(講席)을 맡기셨다.

이에 부용당 선생은 스승이 물려준 이곳 부용정에서 평생을 지방교육에 헌신하였으며, 뜻있는 후학들이 스승의 학문과 덕행



부용당 교사비

을 기리며, 정자 앞 마당 은행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노거수들이 묵묵히 지켜보는 가운데 매년 향사를 올리고 있다.

부용당 선생의 아들 성이성과 춘향전 이 도령 이야기

춘향전에 나오는 주인공 이몽룡의 실제인물은 성이성으로 부용당 성안의 선생의 아들이라고 전한다.

한 논문(연세대 설상경 교수/2001년)에 의하면, 창녕현지 과거조에 성이성은 창녕사람으로 인조 정묘(1627)년에 급제하여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두루 거쳐 벼슬이 부사이고 청백리에 선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仁祖 丁卯 登第 歷任三司 官府使 選錄 清白吏)

임란이후 의병장이었던 성안의 선생이 서기 1600년에 영해 부사로 4년간 나갔다가, 1604년에 부모의 병환이 깊어 창녕으로 돌아온 후 부모상을 당하여 3년 상을 치르는 동안 원근의 수학자가 몰려들어 글을 가르쳤는데 그때 같이 수학한 제자들의 기념비인 교사비(敎思碑)가 부용정 바로 곁 은행나무노거수 아래에 세워져 있다.

당시 성이성은 10살 정도였으니 부용당 선생이 계시는 창녕 성산에서 공부하며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 성안의는 상을 마치고 1607년부터 5년간 남원 부사로 떠나게 되는데, 성이성은 13세에서 17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있으면서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에게 수학 하였다고 한다.

성이성은 그 뒤 과거에 급제를 하고 다섯 고을의 수령과 한차례의 경상감사와 세 차례의 호서 호남지방에 암행감사를 나갔는데, 어느 날 남원에서 스승 조경남과 술을 마시면서 옛날 공부할 때 있었던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를 듣고 조경남이 글로 남긴 것이 춘향전의 창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성이성은 춘향이 만큼이나 절개가 굳은 목민관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고 권세에 영합하지 않고 직언하며 청빈한 청백리로, 소설 춘향전의 주인공 이 도령의 실제인물은 창녕 성산의 성이성 이라며 이 논문은 밝히고 있다.

〈김화영〉

09

곽천마을 동신 소나무와 미역바위 전설

성산면 안심과 가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운봉 천과 북쪽 대산리 말등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천이 만나는 하류에는 경상남도 창녕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계마을인 후천리 곽천마을이 있다.

이곳은 약 400여년전 서흥김씨가 입향하여 처음 취락을 형성한 이래 동리 동쪽 연화봉 의 한줄기로, 매를 놓아 보내는 형국의 매방산(방웅산) 아랫 자락에 있는 수백년 노송군락을 수호목으로 하는 동신제와 함께 이 마을에는 미역바위, 연암 서원터 등 역사적 유적을 남기고 있다. (자료제공 : 후천리 전수진)

미역 나는 바위가 있는 후천리(後川里) 곽천(藿川)마을

이 마을 동남쪽 운봉천 하류 부용정(芙蓉亭) 근처에 소(沼)가 있어 물이 깊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큰 바위가 있어 “미역바위”라 부르면서 효자의 전설을 전해 주고 있다.

옛날 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노부모가 “미역국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또한 조기를 구워 먹었으면 원도 한도 없겠구나”하시니, 그 효자가 이 바위에 와서 정성으로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바닷물에서 나는 미역이 신기하게도 민물인 이 바위에 돌아나 있었고 또 조기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두고 “미역바위(藿巖)”라 부르는데, 근세 달창저수지가 축조 되면서 이 효자 바위는 아쉽게도 물에 잠기게 되었다.

옛 부터 미역 바위가 있는 내라 하여 이 하천을 미역 내 즉 곽천(藿川)이라 하고, 마을이름도 곽천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서흥 김씨가 처음 시거 할 때에는 미역 내의 앞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전천(前川)이라고 하다가, 언제인가? 창녕 성씨(成氏)들이 입향 세거하게 되면서 하천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후천(後川)으로 부르기 시작한 이래 지금의 후천리가 되었다고 한다.



후천리 동신목(소나무 군락)

연암서원과 금헌 이장곤 선생

옛날 후천(곽천)마을에 있었던 연암서원은 조선조 성종3년(1472)출사한 증좌찬성 벽진인 이승언, 그의 아들 병조판서 금헌 이장곤 및 조선중기 문신이며 임란 의병장 부용당 성안의를 배향하여 조선 중기이래 창녕 지방 교육의 일익을 맡아 왔으나, 고종의 서원 철폐령(1868년)으로 이곳 곽천의 연암서원은 훼철되



후천리 동신목아래 연암서원 옛터



금헌선생 봉천조대

고, 바로 옆 부용정의 수령 300년 은행나무가 지켜 보는 가운데 서원옛터와 유희비만 잡목 속에 쓸쓸히 남아 있다.

다행이도 좌찬성 이승언과 금헌 이장곤 선생은 뜻있는 후손들에 의해 합산 대동마을 금호재(琴湖齋)에 옮겨 배향하고, 의병장 성안의 선생은 이웃 부용정에서 후인들이 매년 제향하고 있다.

병조판서 금헌 이장곤은 부친 좌찬성 이승언 선생의 뒤를 이어 연산군조에 생원시에 장원합격하고 점필재 김종직-한훤당 김굉필문하에서 수학하여,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는데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삭탈 관직되고 거제도로 귀양 보내졌다. 그 후 연산군은 이장곤 선생이 무술에 뛰어나 혹 반란을 일으킬 가 두려워하여 곧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아채고 선생은 귀양지에서 배를 타고 함흥으로 도피하였다고 금헌 선생 실기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실기에 의하면, 당시 함흥 어느 산골길을 도주해 가던 중 하도 목이 말라 우물가 처녀에게 물을 청했더니 급하게 먹을 까 염려하여 수양버들 잎을 띄운 물바가지를 내밀었으니 그녀의 총명한 행동에 감탄하게 되었다. 선생은 그 곳에서 잠시 피신을 위해 은거하다 이 처녀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으니, 처녀는 고기잡이 등을 주로 하는 천민 양 수척의 딸이

었다.

그 후 증종반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잘 아는 사람에게 옷과 갓을 빌려 함흥 부중으로 가서 관찰영의 심부름꾼에게 쪽지를 전해주니 관찰사와 여러 관원들이 이장곤 선생을 알아보고 관계(官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선생은 문무를 겸비하여 일찍부터 재상과 장수의 적임자로 알려져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쳐 마침내 병조판서에 오르게 된다.

이장곤 선생이 관계에 돌아간 후 천민의 딸을 정실부인으로 인정하느냐는 논란으로 한바탕 조정이 시끄러웠는데, 다행히도 증종의 신임으로 비록 천민의 딸이지만 어려운 시절에 동고동락한 아내를 양반의 정식 아내로 인정하여 정경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후 조정에서는 다시 훈구파와 사림파의 극심한 대립으로 남곤등이 주동한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등 사화에 연루된 사림과 선비들의 처형에 반대하다가 금헌선생은 또 다시 삭직 되어, 이곳 고향 창녕으로 내려와 낚시로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도 달창 저수지로 유입되는 운봉천 하류의 바위에 새겨진 금헌 선생 조대[釣臺]가 석정마을 느티나무 숲과 함께 역사의 향기를 되새기게 한다.

〈김화영〉

10

운봉마을 당산목 느티나무



운봉리 정촌 정자나무



운봉 당산나무

운봉(雲峰)은 앞산의 형국이 구름이 떠오르는 형상을 말하며 성스러운 부처님이 계신곳 연화대의 주위에 피어 오르는 상서러운 구름 봉우리로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할 것이다.

또 운봉리에는 수백년 고목의 느티나무가 마을마다 몇 그루 씩 있어 마을의 풍광을 더 해주면서 한 여름

의 시원한 휴식처인 정자목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특히 음지마 한 뜰인 정촌(亭村)마을은 조선조 대학자 정한강(鄭寒岡)선생이 심었다는 정자나무(성산면 정촌길2)가 있어 마을 이름을 정촌이라 하였으며 김해 김씨들이 오래 살았으며 강학소인 도산재와 봉선소로 오곡재가 있다.

한강 정구선생은 창녕현감으로 부임하여 창녕고을 8곳에 정자를 지어 지방 교화에 힘을 쏟고, 우리 성산에는 특별히 운봉천 아래 부용정을 짓고, 이곳 운봉 정촌을 비롯 대산, 연당등에도 정자나무를 심었으니 후인들이 한정지(寒亭地)로 이름하여 자랑하고 있다.

또한 본뜰 운봉에는 마을 쉼터에 정자와 더불어 450여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두 개의 가지가 하나의 수관을 왕성하게 이루어 군 보호수(운봉리 924번지)로 지정되어 잘 관리 보존되고 있고, 마을의 당산목으로 매년 정월 보름이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동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당산목의 동쪽편에는 조선조 청백리공 이지직(李之直)의 도덕문장과 도학절의를 길이기 위하여 남향의 사람들이 향당에서 의논하고 도산원에서 태학에 고하여 영조계사(1773년)에 후예들의 집성촌인 창녕 성산 이 마을에 운곡서원(雲谷書院)을 세워 사인(舍人) 이장손(李長孫), 대사간(大司諫) 이극규(李克圭)을 비롯 광이(廣李) 선열(先烈) 육현(六賢)을 함께 배향해 왔으나, 1868년 고종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고 지금은 그 유허지에 서원 복원을 염원하면서 운곡서원 구기비(舊基碑)만 남아 있다.

이외에도 운봉리에는 운정(雲亭)과 창녕성씨의 봉선소 개정재(蓋井齋)가 있다.

〈김화영〉

운봉리 운곡서원 구기비



11

연당리 한정지와 느티나무와 연화각시 설화

연당(蓮塘)리는 연꽃이 핀 연못으로 부처님이 계신곳 즉 연좌·불좌를 가르킴이니 이 주변은 연내골이라 속칭되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마을임을 보여준다.

동쪽 수봉산 중턱에 연화사가 있었으며, 서남쪽으로는 연꽃 모양의 연화봉이 우뚝 솟아 있으며 산아래 들판 마을은 연평이라 부른다.

또한 남쪽으로는 상스러운 구름 봉우리를 상징하는 운봉, 마을 북쪽 비슬산 관기봉 중턱 안심골에는 용흥사라는 큰 사찰이 있었으니, 이 지역을 흔히 절골을 연상케 하는 연내골, 연화골 등으로 이라 불려 지기도 한다.

조선초기에는 이 마을이 연화로 불리다가 그후 연당리로 범정되고 행정동으로 연당마을과 연화마을로 구분 되었다. 이 마을은 정한강 선생의 한정지와 연화각시 이야기로 유명하다.

한정지 느티나무의 내력

이 마을 옛 성곡초등학교에는 수령 440여년의 느티나무가 폐교로 텅빈 교정을 곳곳이 지키고 있다. 이 고목은 창녕 현감으로 부임한 한강 정구 선생이 1580년에 부임하여 심은 것으로, 정 한강선생의 한(寒)자와 정자나무 터의 정(亭)자를 따서 한정지(寒亭地)라 이름 하였고 지금도 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이에 동민들이 한강 선생의 뜻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매년 정월 보름날에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며 농악놀이를 즐긴다.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 228번지에 소재하는 이곳은 대산리와 연당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 폐교를 잘 활용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특히 밤이면 맑은 물 푸른하늘

성산 연당리 한정지(느티)





성산 연화마을 당산나무와 정자



구연화마을 연화각시 묘단

에서 반짝이는 별이 쏟아지는 성곡 오색 별빛마을로 지정받아, 천체관측망원경 등 각종최신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내방객들이 천문을 교육·관찰하게 하고, 또한 친환경농업 및 농촌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다목적 교육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설의 연화각시 이야기

이곳 연당리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연화각시 이야기로 유명하여 마을의 오랜 역사를 한층 깊게 하고 있다.

이 연화마을 입구에는 마을 쉼터인 정자와 함께 느티나무(성산면 연당대산로 151)가 있어 동민들이 지금도 정월 보름이면 연화각시의 원력을 빌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연화각시를 연당각시, 연내각시, 여내각시 등으로 불려 지기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연화각시로 통칭 하고자 한다.

이웃 연당마을에 있는 연화각시 사당에서도 제사를 지내며, 또한 동쪽 수봉산 구연화 마을 뒤에 있는 연화각시 묘도 마을 주민들이 별초를 하며 잘 관리 하고 있다.

이 연화각시 설화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하늘의 옥황상제 부인께서 오랫동안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는 오직 지상에서 구해야 되기에 딸에게 그 약초를 구해 오기를 명했다.

지상으로 내려온 딸이 약초를 구해 천상으로 돌아왔을 땐 어머니는 이미 돌아 가시고 말았다. 옥황상제가 늦게 돌아온 그녀를 책망하여 다시 지상으로 귀양 보내게 되었으며, 그녀는 슬픔을 안은 채 무지개다리를 타고 내려온 곳이 이 마을 동쪽 수봉산(秀峯山) 계곡의 폭포가 쏟아지는 반석이었다. 그래서 이곳을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이곳을 “무지개도랑”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인가를 찾아 계곡을 오르니 마침 서너 채의 초가가 있어 찾아든 곳이 지금의 구연화 마을이었다. 그 후 그녀는 산 아래 평지 마을인 지금의 마을로 내려와 이웃을 도우며 살게 되어 모두들 ‘연화각시’ 라 부르게 되었다.

마을사람들이 처음에는 연화각시를 의심하였으나, 그녀는 천상 선녀라 얼굴이 맑고 아름다우며 언행이 바르고, 더구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며 질병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나타내므로 서서히 마을에서 그녀를 존경하여 서로 도우며 살았다.

세월이 흘러 옥황상제께서 지상으로 내려간 딸이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간에게 은덕을 베풀기에 감동하여 귀양을 풀고 천상으로 돌아오기를 허락했다.

연화각시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동민들에게 “저는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내 몸 하나 거처할 수 있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약간의 식량과 물을 넣어 주십시오.”라 부탁하였다. 이에 동민들도 이제 승천하게 되는 선녀 연화각시와의 이별의 아픔을 참고, 그녀가 내려왔던 무지개도랑의 조금 위쪽 수봉산 서쪽 기슭에 토굴을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토굴에 들어가면 곧 입구를 돌로 막고 여기서 흐르는 뜬물이 그치면 승천한 줄 아십시오.”하고는 자신이 여태까지 입었던 잠자리 날개 같은 얇고 고운 색깔의 천의(天衣)인 열 두 폭 치마에서 두 폭을 잘라내어 마을 노장(老長)께 드리면서 “이것은 마을에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니 그때 사용하십시오.”하고는 몸을 감추었다고 한다.

이곳은 지금의 구연화 마을 뒤편에 연화각시 무덤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 동민들은 곧 사당을 지어 그곳에 잘라낸 두폭 치마를 모시게 되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해에 마침 수봉산 기슭에 연화

사(蓮華)란 절을 짓게 됐는데, 그 대웅전 대들보가 될 수백년 된 고목이 크고 무거워 인력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승려와 동민들은 실의에 잠겼다가, 마침 연화각시가 남긴 치마폭이 생각나기에 사당에 모신 치마폭을 장대에 매달고 대들보 위에서 흔들었더니 그 대들보는 나무토막처럼 가볍게 옮길 수 있었다.

또 어느 해인가 마을 앞 넓은 들판의 농작물에 병충해가 심했기에 이 깃발을 나무쪼터니 마을 들판은 씻은 듯 병충이 사라지고 풍년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대풍을 맞은 마을에서는 추수를 앞두고 온 동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년에 감사하는 축제를 올렸다고 한다.

그후 어느 날 당집에 보관되어 있던 치마 한 폭이 옥천마을로 날아가 옥천 서낭에 걸리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언젠가 옥천서낭은 남자서낭으로 연화각시와 인연을 맺음으로 창녕에 풍년이 온다고 하여 축제의 줄을 당겼다고 한다. 이 행사가 일제강점기에 잠정 중단 되었으나 그 후 근년에 와서 창녕문화원이 주최하는 “비사벌 문화 예술제”에서 재현한 바 있으며, 이 연화각시 이야기는 “창녕의 설화”(창녕문화원/2016)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다.

옛날에는 지금의 연화마을 입구 느티나무가 있는 도로 건너편에 연화각시를 추모하며, 돌로 쌓아 솟대를 만들어 제사를 지냈으나 언젠가 솟대는 무너지고, 지금의 이 느티나무를 솟대의 후계목으로 변함없이 연화각시를 기리고 마을의 강녕을 기원하며 정성으로 동제를 올리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다.(자료제공 : 연당리 김창희)

〈김화영〉

12

대산리 당산목 연리지와 안심동 관기봉의 신이한 나무설화



대미 죽림재



요요정과 불의대(이건)

창녕군의 최북단 성산면 대산리는 신라시대 경주에서 마을 동쪽 마령치고개를 넘어와 낙동강 서부지역을 이어주는 한길(大路)의 요지인 역촌(驛村)마을로 입구를 알리는 돌장승이 있고, 역마를 기르던 마리동(말등)과 장군석의 유적으로 보아 상당한 군대가 이 요로를 지켰다고 창녕군 지명사(1992)는 보고 있다.

옛날에는 대산동과 안심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914년 이래 대산리로 법정되고, 지금은 행정동인 대산(대미), 월곡, 안심마을등 3개동으로 되어있다.

본동인 대산마을에는 과평윤씨의 세거지로 비슬산 남쪽 생기산 기슭 큰 대밭아래 있는 입향조 과평 윤씨 통덕랑 탕좌(湯佐) 문중 봉선소인 죽림재(성산면 대미길 23-62/지방문화재 354호)가 있고, 월곡마을 북쪽 길 아래에는 저수지의 축조로 수몰된 안심폭포에 있던 불의대(拂衣臺)와 요요정(樂樂亭)이 아름다운 느티나무(성산면 대산로 164)와 함께 이견 되어 있다.

또한 대산리 최북단의 안심마을은 옛날 대사찰 용흥사와 함께 각료암을 비롯한 팔방 구암자가 있었으니, 삼재팔난을 피할수 있어 안심하고 살수있는 동네라고 하여 안심동이라 하며, 이 대산리 계곡 일대를 사람 들은 안심골이라 불러 왔으며, 최근에는 사라진 천년고찰 용흥사의 복원계획이 부처님의 가피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대미마을의 느티·회화나무 연리지 설화

대미마을은 대산(垓山)의 본뜬으로 옛 역의 터라 하여 대미라 하였으며 큰산이란 뜻이다.

이곳 대미마을에는 수백년(300~400년 추정) 수령의 노거수가 있는데, 이 고목을 일러 느티회화나무 연리지(성산면 대미길 28)라 하고 있다.

연리지는 서로 다른 나무가 맞닿아서 한 몸이 되듯이 화목하게 백년해로하는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나무를 말한다.

옛날 이 마을에는 이별하는 부부가 많아 마을의 노장들이 이를 걱정하여 정성으로 복을 빌어 이 느티회화나무 연리지를 갖게 되었고, 매년 동민들이 합심하여 이곳에서 정성으로 동제를 지낸 이래로 마을사람들이 모두 평안을 얻었다고 한다.

(자료제공 : 대산리 윤중용/윤기은)



대미마을 연리지

호랑이도 감동한 효자와 동네를 구출한 궁내부 주사 성휴이야기

창녕의 최북단 대산리 안심 마을에는 큰담 뒤쪽 비슬산 관기봉 남단 3부 능선에 수백년 묵은 당신목(괴목)이 있었는데 오래 전 고사되어 그 후계목(성산면 대산로 322)을 큰담(안담) 도로 아래에 옮겨 심어 지금도 매년 정월 보름이면 마을의 강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변함없이 올리고 있다.

이 마을에는 효자각과 불망비가 회관 앞에 세워져 있는데, 효자각은 어려서부터 중병의 부모를 여러해 동안 극진히 봉양하였음에도 돌아가시자, 낮에는 생존하고 계신 조부님을 지극 정성 모시고, 밤에는 부모님 산소에서 밤 세워 시묘하니 이에 감동한 호랑이도 지켜주었다는 김녕 김공 주상(柱祥)의 정려각으로, 고목 백일홍이 좌우에서 에워싸고 뒤에 있는 은행나무가 높이 서서 마을 정자와 함께 지켜주고 있다.(성산면 안심산림길1)

김 공은 계유정란 당시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하여 사절한 절

안심동 후계당 산목





효자각과 백일



성휴선생 혜덕 불망비



용흥사 본당 옛터



용흥사지 해우소옛터

신으로 숙종때에서야 사육신에 복관된 충의공 백촌 김문기선생의 후예이다.

또한 회관 앞마당에는 아름다운 큰 느티나무 아래 무진년(1928) 사나운 우박으로 농작물이 전멸되어 궁핍하게 된 마을을 구제해 주신 궁내부 주사 성휴(成休)의 큰 은혜에 보답코저 세운 혜덕 불망비가 우뚝이 서 있다.(성산대산로 282)

(자료제공 : 안심리 김홍대)

비슬산 관기봉의 신이한 나무 설화

창녕의 최북단 대산리 안심골 뒤쪽 비슬산 관기봉은 불교가 흥행했던 통일 신라시대 안심마을 수호 당산목의 서쪽 바로 위에 있었던 대사찰 용흥사지가 잡목만 무성한 가운데 허물어져가는 석축과 함께 주춧돌, 시주석, 해우소 등과 함께 복원을 염원하며 이 터전을 지키고 있다.

그 옛날 용흥사를 최초 창건한 관기대사의 성스러운 자취를 신고 있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시대 고승 관기와 유가사를 창건한 도성 대사가 옛 포산(비슬산의 다른이름)의 남과 북에 십 여리를 떨어져 지내면서, 포산의 북쪽에서 도성이 관기를 부르고 싶으면 나무들이 모두 남쪽으로 구부러 졌으며, 마을 뒤 관기봉 정상에 바위에 올라 관기가 도성을 부르고 싶으면 나무들이 모두 북으로 누웠다고 쓰고 있어, 후인들이 이 마을 뒷산을 비슬산 관기봉이라 하였고 그 바위는 관기바위라 부른다.

각료암 전경



용흥사 지킴이 각료암의 대원(大願)

이 마을의 당산 고목과 함께 팔방으로 용흥사를 비롯한 대전사, 연화사, 심적암, 은적암, 극락암, 남암, 북암, 각료암등 구암자가 있었으나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용흥사의 말사인 각료암(성산면 안심산림길 376)만이 지금껏 남아있다.

이 각료암은 지금은 통도사 말사로써 허물어져가는 용흥사 옛터를 외로이 지키면서 오로지 용흥사의 복원을 대원하는 도량으로, 고려 중엽 용흥사의 부속암자로 세워졌으며, 처음에는 봉황이 깃들직한 곳이라 하여 봉서암(鳳棲庵)이라 이름 하였으며, 그후 고려시대 각료선사가 이곳에서 득도하여 각료암으로

개칭된 이래 600여년의 온갖 풍상 속에 어렵게 견디고 있다.

용흥사의 내력에 대한 많은 구전 설화가 있었으나, 6년전 부임한 각료암 주지 대운(大雲)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용흥사 창건기를 비롯한 많은 기록과 유물·유적을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관계 부처에 청원하여 3년전 지표조사를 끝내고, 올해는 측량을 완료하고 대응전 터의 굴착작업에 정부예산으로 착수하게 되는 역사적 용흥사 복원의 기초를 마련하는 쾌거를 올렸다.

지금은 우리 창녕 군민들이 힘을 모아 이곳 용흥사지에서 잠자고 있는 용을 깨어나게 하여, 남면의 관룡사와 북면의 용흥사가 손에 손잡고 옛 창녕의 찬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내야 하겠다.

천년 고찰 용흥사의 창건과 패망

경일스님의 동계집에 기록된 용흥사 창건기를 개략해 보면, 통일신라시대 고승이었던 관기대사가 이 절을 처음 짓고 편액을 용흥이라 하였다.

그 후 병화를 여러번 거치면서 소실되고, 고려시대 언제인가? 각료선사와 단사 곽항이 다시 세우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了恒寺(료항사)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조선조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어 1614년(갑인년) 지혜스님이 료항사 터임을 알아 정지했으며, 어느 날 혜공스님은 받을 때마다 우연히 발견한 바라 한쪽에 쓰여진 글귀로 원래 용흥사임을 알게 되어 다시 편액을 용흥사로 고치고, 성오대사등이 합심하여 1688년(무진년)에야 비로소 용흥사를 재건 완성하였음을 동계 경일대사는 이 창건기에 기록하고, 경일 대사가 서거한지 16년 되던 1711년(신묘년)에 자감, 익상, 원순등 문도들에 의해 비로소 이 창건기를 실어 동계집을 간행하였으니, 이 시기에는 용흥사가 존재하였음을 추측하게 하고 있다.

또 최근 용흥사지에서 발견된 자연석 바위에는 강희 33년(1694, 갑술년, 조선 숙종 20년)에 가선대부 차 명룡이 시주한 것으로 새겨져 있으며, 창녕현지(2006년/창녕문화원)에서도 조선 영조(1726-1776)의 여섯째 따님 화녕옹주 방원당으로 기록하고 있고,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이 소장하고있는해동지



용흥사지 가선대부 차명룡 시주석

옛 용흥사가 표시된 해동지도(1872)





국보 제75호 용흥사 은입사향완

도(1872년 지방지도(규1052)/고대 4709-41/창녕현)에는 용흥사를 비롯한 북암과 남암이 그려져 존재하고 있다.

또한 밀양 표충사에 보관 전시되어 있는 국보 제75호 청동 은입사 향완(靑銅銀入絲香垸)에는 57자로 된 명문이 아래와 같이 새겨져 있는바, 고려 명종 7년(117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받침의 안쪽면에 점각으로 원래 이 향완이 있었던 곳이 표충사가 아닌 창녕(昌寧) 용흥사(龍興寺)임이 새겨져 있으며, 어느시기에 표충사로 옮겨 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대정(大定) 십칠년(十七年) 정유(丁酉) 六月八日 법계(法界) 생망(生亡) 공증(空增) 보리(菩提) 之願 以 주성(鑄成) 청동(靑銅) 함은향완(含銀香垸) 일부(一副) 중팔근(重八斤) 인(印) 동량(棟樑) 도인(道人) 효초통강주등(孝初通康柱等) 근발지성특조(謹發至誠特造) 수희자(隨喜者) 감문(敢文)”

(향로(香爐) 의 화사(火舍) 둘레 이면(裏面) 57자 은입사(銀入絲))

“창녕(昌寧) 북면(北面) 용흥사(龍興寺)”

(받침의 안쪽면 7자 점각(點刻))

이외에도 많은 유적 유물이 있었으나 도굴되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다행히 주춧돌 등 일부 석조물은 안심동민들과 협의하여 더 이상의 도난을 막기위해 최근에 와서야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용흥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도성대사가 827년 비슬산 유가사를 창건하였는데, 관기대사와는 도를 함께 나누었던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바, 창녕 비슬산 용흥사를 통일신라시대 관기대사가 9세기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비정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창녕현지에서 조선 영조(1726-1776)의 여섯째 따님 화녕옹주 방원당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패망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18세기경에는 천년고찰 용흥사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세를 떨쳐낸 스님들의 큰 바위 “불의대”와 유림의 놀이터 요요정

이 안심마을에서 남쪽 방향으로 월곡마을의 북쪽 산굽이 아래 대산천의 깊은 골짜기에 이른바 안심폭포가 있어, 한때는 창녕 제일의 경관으로 손꼽히던 계곡이 있었다.

이 폭포 바로 옆에는 옛날 창녕, 청도, 현풍 유림들이 모여 시문을 주고 받은 요요정(樂樂亭)이라는 아담한 정자가 있었고, 폭포 옆 아름다운 수백년 고목과 함께 40여명이 넉넉히 앉을 만한 넓고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하며 이 바위를 사람들이 불의대(拂衣臺)라 부른다.

이 안심골은 신라시대 창건한 대사찰 용흥사를 비롯한 팔방구암자가 있었으니, 많은 스님들이 세속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길목의 노거수 그늘 아래 있는 이 바위에 앉아 속세에서 문은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입산한다 하여 옷을 떨치는 바위로 불의대(拂衣臺)라 한 것이다.

현재 이 계곡은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물속에 잠겨 아까운 절경을 못 보게 되었고, 불의대와 요요정도 노거수와 함께 수몰되었으나, 다행히 근처의 못둑 아래 월곡 마을 북쪽 도로가에 후계목인 아름다운 느티나무 그늘 아래 불의대 모형을 앉히고, 이곳에 요요정도 함께 이 건하여 지금도 성곡 경로당을 중심으로 뜻있는 동민들이 사월 초팔일이면 제를 올리며 옛 선현들의 역사를 기리고 있다. “빛별문화”에서는 그 옛날 이 계곡의 절경을 담은 시한수를 전하고 있다.

老松은 鬱鬱하고 물소리는 구슬픈대
數聲啼鳥는 仙境을 이루누나
眞仙은 어디가고 拂衣臺만 남았는고
요요정 맑은 물은 拂衣臺를 휘돌고야
창공에 뜨는 鶴이 이골에 眞仙인가
擾擾塵 다 잊고서 樂山樂水 하리라

〈김화영〉



불의대와 요요정 모형



불의대와 요요정 옛 전경(사진보)

13

의병장 박극을 지키는 느티나무



방리 227(느티나무)

방리는 성산면의 동부로 고암면에서 북쪽 방골재를 넘어 있는 마을인데 창녕-고암중대-방리-청도로 이어지는 20번 국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방리는 밭이 많은 골짜기이므로 밭골이라 불리다가 방골로 변하고 음차하여 한때 방동(方洞)으로 썼으나, 봄이면 산에 참꽃이 만발하여 경치가 아름답다하여 방리(芳里)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순천박씨 세거지로 수령 300년의 역사적 당산나무(느티나무/방리 227번지)로 임란 의병장 박

극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순천 박씨 종중에서 식수하여 군보 호수로 지정·관리하며 매년 마을에서 동제를 올리고 있다. (자료제공 : 방리 박종하/하태식)

이 마을의 북쪽 비치산(飛雉山) 소류지 위로 9부 능선에 크기가 가로 2.2m, 세로 4.05m, 높이 2.2m이고 20여명이 함께 할수 있는 넓은 굴이 하나 있다. 이 굴은 임진왜란을 당하자 사복시정 박극(朴克) 선생이 세 아들과 함께 의병을 모아 한양에서 하산(창녕)까지 내려와 하산 싸움에서 의병장으로 왜군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마침내 왕재산(旺嶺山) 대산성(臺山城) 큰 싸움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게 되어, 이 비취산 굴속에 피신하여 자책하며 살았다고 “임진란 위훈록”에서 박종하 선생은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후인들은 선생의 이 의로운 삶을 생각하며 “박장군 굴”, “의암 굴”로 부르고 있다.

임란(1592년)이후 의병장 박극선생은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순천박씨 입향조로 이곳에 세거를 이루어 취락을 형성·정착하고, 호를 의암이라 하며 방리 의암재에서 일생을 마쳤으며, 이 마을 뒤 비취산 끝자락에는 “사복시정 의암 박선생지묘”라 새겨진 묘비가 있다.

또한 자신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패하였으니 세상에서 용서 받기 어렵다”며 자책하는 충정의 시 한수를 이곳 비치산 굴 암벽 위에 새겨 후세에 전하고 있다.



비치산 의암굴(박장군굴)



의암재

千里從軍 敗夏山
 천리 길 종군하여 창녕에서 패하니
 回頭空望 五雲間
 머리를 돌려 멍하니 하늘을 바라 보네
 藏身愧我 忘君罪
 몸을 숨기니 임금에 잊은 죄가 부끄럽구나
 大駕龍轡 不暫閑
 임금께서는 의주에서 잠시라도 한가하지 않으실 텐데

〈김화영〉

14

가복마을의 당산 정자나무



하가복 동점마을 정자나무

창녕에서 제일 깊은 계곡을 말하자면 창녕읍의 옥천 계곡, 고암 천간 계곡 및 성산 가복 계곡을 꼽는데, 성산 계곡의 가장 안쪽에는 500여년전 진양하씨가 처음 입향한 이래 순천박씨, 청도 김씨등이 취락을 형성 세거한 가복리라는 마을이 있어, 창녕군의 북쪽 변두리이고 성산면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어 가골(邊谷)로 불리며 가골 돌부처 설화로 유명하다.

이 가복리에는 수백년 수령의 회화나무가 지키고 있는 제일 위쪽 가복 마을을 비롯하여, 예전에 구리가 많이 나왔다는 하가복 동점이(銅店) 마을에는 300여년 된 느티나무가 동구에 우뚝이 서있고, 그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마을 입구 수호목이 정자와 함께 마을의 역사를 기리는 큰 골인 덕곡 마을 등 행정동 세 마을이 있다.

이 덕곡마을의 300년 보호목(성산면 가복리 616-1)은 몇 년 전 태풍에 사라져 그 후계목을 심어 보호목 지정비와 함께 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마을은 인동장씨가 입향 시거하여 취락·형성 된 이래 지금도 매년 음력 11월 15일이면 어김없이 동제를 지내며 마을의 강녕을 기원하고 있다.

(자료제공 : 덕곡리 강정규)

가골 돌부처 이야기

이곳 가복리의 동쪽에는 밀양으로 넘어가는 험하기로 이름난 천왕재(千往嶺)고개가 있는데, 호랑이와 도둑이 많아 천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다고 전해온다.

이 천왕재는 밀양을 오가는 지름길 큰 고개인데 이 가복리 당산 나무 아래에서 수 많은 등짐장수들이 쉬어 넘어 다녔다고 한다.

어느 날 돛자리 장수가 가골(갯골)을 지나다가 몸이 지쳐서 가골 동구 밖 돌장승이 서 있는 곳에서 짐을 내리고 그 돌장승(자연석 부처)에 기대어 잠깐 쉬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너의 덕으로 이슬을 덮어주어 따뜻하게 잘 잤다. 너는 이 길로 어디 어디로 가면 장사가 잘 되리라.”고 돌부처가 그에게 현몽하는게 아닌가? 돛자리 장수는 잠에서 깨어나자 하도 이상하였지만 꿈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과연 장사가 잘 되어 돛자리도 단 시간에 팔리고 큰 돈도 벌게 되었다.



성산 가복리 덕곡마을 수호목(고사)



덕곡마을 후계정자목



상가복 정자나무(회화)

이 일을 dot자리 장수가 가는 곳 마다 자랑하며 돌장승이 복을 주더라고 널리 소문을 내니 밀양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고개 너머 밀양 가골마을에서 창녕 가골로 돌장승을 훔치러 가게 된다.

그때 이 마을 한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돌장승이 나타나 “밀양 가골 사람들이 나를 훔치려 하니 대비를 하여라”하였다. 이 일을 동민들에게 알려 밤낮으로 잘 지켰으나, 어느 날 밤사이에 밀양 사람들이 돌장승을 몰래 훔쳐 가다가 불과 몇 백 미터 못가서 놓고 쉬었는데 그만 돌장승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가져갈 수 없어 창녕 가골 사람들이 이를 지켜냈다고 한다.

그 후로 마을에서 가는 복을 붙들었다 하여 가골에 복(福)을 한자 더 붙여 가복동(加福洞)이라 불렀으며, 동민들은 이 신이 한 돌장승을 부처님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후 동민들이 수백년 당산나무(회화나무/성산면 상가복길70)에 정성을 다해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어느 날 제수를 장만하기 위하여 벼를 명석에 말리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자, 주변에서 부처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

또 언젠가 이 마을에 우연히 객지에서 놀러온 한 아주머니께 이웃사람이 이러한 전설을 이야기하였더니 함께 가서 보고 와서 날이 저물자 이곳에 묵게 되는데, 꿈에 “나는 제석 천왕(33천 하늘세계의 天主)인데 미륵이 되었으니 너는 나의 상자이니 나를 받들어라”고 하였다. 그 후 돌부처를 모시고 있으면 몸이 아프지 않고 이곳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면 몸이 아프기에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을 모시는 절집을 이 마을에 마련하여 지금까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 재계로 정성을 올리며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어 온지가 어느 듯 삼십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창녕의 발자취를 찾아서(창녕향교/2020)”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다.

마을에서 지난 날 정월 보름에 제사를 올리다가,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에 제를 올리고, 복을 빌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 드리고 있다.

〈김화영〉

15

길곡면 오호리 느티나무와 덧나무



길곡은 낙동강이 흐르며 생성되고 키운 동네다. 최근에는 부곡면 학포리와 창원시 동읍 본포리가 연결되는 본포교가 창원시의 배후지역으로 부각되면서 길곡도 지역발전의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으로 확 뚫린 낙동강변 지방도로 1022호를 따라 오호리는 창녕보를 통하여 함안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적 입지가 뛰어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 오호리 농업환경은 평탄한 들판과 완만하고 웅장한 산자락과 배후를 가져 건너편 함안군보다 입장효과가 좋고 북풍에서 견뎌낼 수 있어 시설채소재배와 과수단지로 활용성이 높아 많은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오호리(五湖里)는 신라시대 이후 오가이향(烏加伊鄉)이 있었던 곳이다. 오가이향이 있었으므로 ‘오가리(烏加里)’라고도 불렀는데, 낙동강이 남지에서 동으로 흘러와 여기에서 오고당하계(오그라드는 모양의 이곳 지방말) 약간

동남으로 굽어 들면서 흐르는 형세에 따라, ‘오고당-오고랑-오구랑-오가리’로 변한 것으로 추측된다. 오가리는 1914년 내동과 외동 등을 합하여 오호리로 개칭되었는데 이 역시 이 일대에 다섯 개(법사지, 앞늪, 새양개, 복숭늪, 연지늪)의 큰 늪이 있어 다섯 개의 늪이라는 뜻의 ‘오호리(五湖里)’가 되었다고 한다. 행정리로는 외동, 내동, 신촌 3개로 나뉜다’고 소개하고 있다. 낙동강이 만든 우포처럼 같은 지세로 자원이 풍부한 동네이며 우포보다 교통성이 발달하고 외연성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다.

오호리를 지나다 우연히 발견한 큰 나무를 보고 찾았더니, 이미 2013년 경남신문에서 기획 연재한 ‘경남의 마을 아, 본향!’ 4월 기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내동에 가면 수령 200년의 느티나무를 만날 수 있다. 창녕군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봄비를 맞아 푸른 잎을 활짝 펼치면서 외지에서 비를 맞고 찾아온 손님에게 쉼터를 제공했다. 느티나무 앞에

는 딱총나무로 알려진 덧나무가 위세를 뽐내고 있다. 마치 두 나무가 키재기를 하듯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다. 이명곤 이장은 “어릴 때 딱총나무 열매로 충을 쏘면서 뛰어놀기도 했다”면서, 흑백영화를 돌리듯 옛일을 이야기 했다’ 라고 나무를 설명하고 있다. 앞에 작은 나무는 덧나무이고 뒤에 큰 나무는 느티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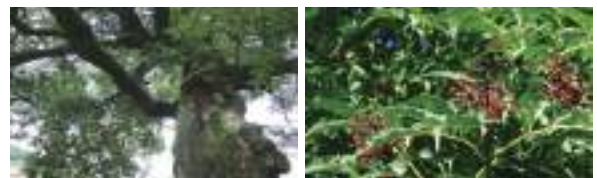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할머니들이다. 할아버지는 어딜, 가셨나? 두리번 살펴보니 보이지 않는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여자 86세 남자 83세, 2010년에는 여자 83세, 남자는 76세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남자의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추세로 할아버지도 볼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옛날 농촌에 농번기 잠시 허리를 펴고 쉬는 분들 대부분은 할아버지였다. 그때는 농촌에서 할머니는 시집 온 이후 농사일을 떠날 수 없었고, 할머니 연세가 될 무렵부터는 실질적으로 농촌 가정에서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힘을 보태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농촌의 아침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유모차를 밀면서 병원진료 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할머니들이다. 은행나무가 가을의 아름다운 빛깔과 열매로 먹을 것을 내주시는 할머니 같다면, 느티나무는 아무것도 내 주지 않지만 그늘을 내주시면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할아버지로 비유된다.

덧나무를 딱총나무로 부른 이유는 빨간열매를 대나무 속에 넣어 쏘는 충을 만들어 충싸움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열매를 충알로 사용해야지 하면서 나무에 기대를 하면서 자란 동네아이들은 친구들과보다 더 많은 충알을 가지려고 새벽부터 열매를 딸려고 했을 것이다. 나무 통 속이 비고 휘늘어지고 오래된 덧나무 가지를 보면서 오호리의 역사를 되새긴다.



덧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보니 ‘무엽무경 접골목(無葉無梗接骨木)·광엽접골목(光葉接骨木)·접골목이라고도 한다. 산중턱의 숲속에서 자란다. 높이는 약 3m이고, 수피는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어린 가지에 털이 없고 겨울눈의 끝이 날카롭다. 잎은 마주나고 홀수1회 깃꼴겹잎으로 2~4쌍의 작은잎이 달린다. 작은잎은 바소꼴로 끝은 뾰족하고 밑은 멍뚱하며 길이 7~10cm로 양면에 털이 없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5월에 가지 끝에 원추꽃차례가 달리고 엷은 노란 빛을 띤 흰색 꽃이 핀다. 꽃잎 5개, 수술 5개, 암술 1개이고 암술머리는 자줏빛이다. 열매는 핵과로 주름지고 공 모양이며 6월에 붉게 익는다. 공업용·관상용으로 쓰고 수피·뿌리껍질·줄기·잎 등은 약용한다. 한국(제주)·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출처 : 두산백과]





1906년에 세워진 오호리 교회는 계속 남아 있으나, 안타깝게도 오호리에 있었던 학교는 사라졌다. 동아일보 1938년 4월 9일자 ‘五湖夜學盛況(南旨)’ 기사는 인근 창녕군 길곡면에 오호야학회가 결성되어 경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즉 5년 전부터 송량모, 송재수, 송국로, 송병팔, 이승문 등의 제씨들이 맹렬한 성적으로 농촌무산아동을 문맹에서 구하려고 야학회를 경영하고 있고, 성황을 이루고 있는 바 당국의 보조가 이어지는 중이라 전하고 있다. 낙동강이 흐르는 오지 농촌에 문맹퇴치를 위해 야학교가 세워진 것은 증산리에 세워진 경덕서당의 전통을 잇는 대천야학교(1929년) 운영을 하는 후손들의 노력을 존경하면서도 교회설립 이후 개화한 오호리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세워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정부의 지원으로 정식학교가 되고, 오호국민학교로 발전하다 1994년 길곡초등학교에 병합되어 사라졌다. 대부분 폐교된 농촌의 초등학교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호야학회처럼 마을사람들의 정성과 헌신으로 학교가 만들어졌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청에 맡겨지고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처음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의 건학정신과 주인의식은 사라지는 것이다. 늦었지만, 폐교로 전락한 농촌학교에 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부터 도천과 길곡을 잇는 곳에서 구리가 생산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1975년 12월 1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아래와 같은 ‘창녕서 대단위 동광산 발견’이라는 기사를 찾았다. 요즘 자원 외교라는 말이 넘쳐날 정도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다. 50년전 지질광물연구소 이정환(李正煥)씨가 발견한 매장량 60만톤의 구리자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루 2백톤 생산으로 10년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당시와 과학적 발전을 이룬 현재의 기술력이면 훨씬 다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신문에서 전설이 사실임을 알게 되고 길곡의 성장동력이 되리라 기대를 해본다.

〈김부열〉

16

금곡 마을 어르신 정자나무



- 수종 : 회화나무
- 나무둘레 : 3m
- 수령 : 약 200년

길곡면 증산리 금곡마을 입구 하천변에 휘나무 한 그루가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다. 나무 숲의 직경이 20m가 넘어 가지가 무성한 울창한 나무다.

언제 누가 심었는지 전해오는 이야기는 없지만 400년 전 용성 송씨의 세거지로서 하천변 공터에 미래의 숲을 바라보며 누군가 식재했을 것으로 본다.

나무가 크고 숲을 이루면서 마을의 모든 행사나 회의가 있으면 휘나무 밑에서 행해졌고 마을주민들은 언제부터인가 마을 어르신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마을의 안가태평을 기원하며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금곡 마을은 옛 신라시대부터 쇠(金)를 관 곳이기에 쇠금이라 한 것이 씨기미로 변해서 지금은 금곡이라 한다.

일제시대는 70여호의 큰 마을이라 했지만 지금은 30여호가 살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금곡마을의 주민을 지켜보면서 말 없는 웃음과 눈물이 많았던 사연들을 안고 한 마을의 주인이기에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꿋꿋하게 버티고 금곡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

인생을 짧지만 정자나무 어르신이라도 영원했으면 한다.

〈이선조〉

길곡 증산리 금곡마을 회화나무

17

내동마을의 상징 서낭나무



길곡 오희리 내동마을 느티나무

- 수종 : 느티나무
- 나무둘레 : 450cm
- 수령 : 약 250년
- 보호수 지정 : 1982. 11. 10



길곡면 오호리 내동마을 앞에 나뭇가지가 직경 삼십여 미터나 되는 우람한 서낭나무인 느티나무가 마을 전체를 쳐다보며 서 있고 주변에 2그루의 느티나무가 주관을 이루며 녹음을 제공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음력 구월 보름에 정성껏 제를 올리고 있다.

예부터 마을의 회의나 행사가 있으면 이 정자나무 밑에서 둘러앉아 행해졌다.

여름이 되면 별다른 피서할 곳도 없었기에 부채만 들고 모이는 곳이 이 정자나무 밑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웃끼리 모여서 가정사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정을 나누며 마을의 화목과 단합을 이루었는 곳이 이 정자나무이다.

장기, 바둑판을 항상 비치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의 바둑 실력이 길곡면에서 으뜸이다.

새마을사업으로 나무 주위가 포장되어 주민들의 편한 쉼터가 제공되고 지금은 팔각 정자며 체육시설 까지 건립되어 주민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내동마을은 양지바르고, 평탄한 마을이며 청정마을로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 도시에서 귀촌, 귀농하는 사람이 늘어 50여호 되는 마을이 70여호로 큰 마을이 형성되고 있다.

내동마을하면 서낭나무 느티나무가 마을의 상징물이 되어있다.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서낭나무는 내동마을 주민의 희비애락을 같이 할 것이고 수 백 년 동안 살아온 많은 사연들을 안고 깨끗하게 버티고 살아 갈 것이고 주민들의 희망이 되어 줄 것이다.

〈이선조〉

18

동점마을 수호신 정자나무



길곡 마천리 동점마을 느티나무

- 수종 : 느티나무
- 나무둘레 : 480cm
- 수령 : 약 230~250년



길곡면 마천리 동점마을 입구에 한마디로 멋진 웅장한 정자나무가 있으며 주변에 3그루의 느티나무와 더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동점은 옛 중국인들이 구리를 생산한 곳이라 중국인들이 동점이라 이름 붙여져 부르다 지금은 동점 자연마을이다. 예전에는 30여호가 살았지만 지금은 10여호가 거주하는 작은 자연마을이다.

언제 누가 식재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마을 입구에 식재한 것을 보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마을의 수호수로 심은게 아닌가 보고 있다.

지금은 제방이 되어 수해가 없지만 제방하기 전에는 태풍이 불고 홍수가 지면 정자나무 밑까지 물이 차올라 큰 수난을 겪어 가면서 마을을 지켜낸 의연한 마을의 수호수다.

마을 앞 자라 등에 창원 황씨의 선산이 있다.

옛날에 해마다 묘사를 지내던 창원 황씨들은 묘사를 다 지내고 장만해 온 음식을 모두 마을 앞 정자에 가져와 술 한잔을 쳐 놓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한다.

정자나무 맞은 편에 마을 회관과 노인정을 겸해 건립되어있다.

마을 주변에 건립할 것은 정자나무의 웅장함과 울창한 숲을 이용,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자나무 앞에 건립했다한다.

보면 볼수록 멋진 나무다.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동점마을의 안녕을 위하여 지키리라.

〈이선조〉

19

북마마을의 지킴이 느티나무



길곡 마천리 북마마을 느티나무

- 수종 : 느티나무
- 수령 : 약 200년

- 나무둘레 : 430cm
- 보호수 지정 : 1982. 11. 10

길곡면 마천리 신덕마을에서 북마마을 올라가면 도로변에 울창한 느티나무가 4그루 서있다.

수령이 200년 정도 되는 큰 느티나무 옆에 3그루의 느티나무가 가족처럼 다정히 자리 잡고 장관을 이루며 오고가는 마을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옛날에는 여름이면 북마, 신덕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 화합을 위하여 윷놀이와 장기, 바둑을 두면서 막걸리 잔을 들면서 흥을 돋우는 자리기도 했다.

누가 언제 심었는지 내려오는 전설은 없지만 이런 주관을 형성하여 두 마을과 오고가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지금도 저녁이면 두 마을 아줌마들이 운동 삼아 모여 수다를 떨다 헤어지는 정겨운 장소와 6.25 사변 때는 인민군이 이곳까지 내려와 피난갔던 청년들과 마주쳐 장기를 두기도 하고 청년들이 밥을 지어와 같이 먹으면서 북한도 이런 나무가 있다면 인민군들이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남북이 따로 없고 적이 따로 없는 따뜻한 정자나무의 정기에 인민군들이 도취되었나 보다.

지금은 정자나무 밑에 팔각 정자를 지어 휴식을 즐기고 항상 장기, 바둑을 비치하여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 의자를 많이 비치하여 정말 아름다운쉼터가 되고 있다.

북마 마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마을 어르신으로 모시고 1년 내내 마을이 평안하도록 음력 정월보름에 제를 올리고 있다.

〈이선조〉



20

상길마을의 보호수 정자나무



길곡면 길곡리

- 수종 : 느티나무
- 수령 : 약 450년

- 나무둘레 : 530cm
- 보호수 지정 : 1995. 8. 25



길곡면 길곡리 상길마을은 안골, 동산, 웃마, 아랫마 4개의 자연마을로 되어있다. 상길마을 정자나무는 아랫마 정자나무 앞에 식재되어있다.

정자나무 주위에 3개 가량 되는 느티나무가 있어 수관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이 넓어 모든 주민의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지금 유선방송 시설이 되어있지만 옛날에는 동하인(마을 심부름꾼)을 고용, 마을 마다 다니면서 고향을 쳐서 알리고 정자나무 밑으로 모이도록 했다.

마을 주민들이 모이면 계획된 행사를 마치고 윷놀이, 그네 뛰기 등 오락을 즐기고 막걸리 파티로 4개의 마을의 단합을 가졌다.

수량이 너무 많아 밑둥치 부분에 몇군데 시멘트로 보안을 해 놓고 옛 그네 타던 가지는 철골조로 받쳐두었다.

정자 땀에는 초가집 4호가 있었는데 창녕군에서 제일 늦게 까지 남아 창녕군지에 사진이 등재되기도 했다.

부산에 사는 부호 한 분이 정자나무 땀 대지를 모두 매수하여 정자나무를 뒷 배경으로 하고 본채와 행랑 두 채를 한옥 외가로 마을 앞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건축해서 살고 있다.

상길마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숲속의 와가와 시원한 상길저수지를 보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인다.

부곡 온천이 가깝고 청정마을로 소문나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귀촌하여 새 집을 건축하고 길곡면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마을이 형성되고 있다.

상길마을 정자나무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마을을 지켜 줄 것이며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번창을 위해 해마다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릴 것이다.

〈이선조〉



21

하내 마을 보호수 회화나무

• 수종 : 회화나무

• 나무둘레 : 3m 1본/ 260cm 1본

길곡면 증산리 하내마을 앞에 회화나무 2그루가 식재 되어있다. 확실한 연대는 모르지만 전해오는 말로는 하내 마을은 벽진 이씨 세거지로서 덕망이 높고 재산이 많았던 벽진 이씨 한 분이 신작로변에 위치한 자기 토지 발머리에 앞으로 나무의 숲이 울창하면 오고가는 사람의 쉼터가 될 것을 바라보고 심었다 한다.

그 때만 해도 들판에 나무가 없어 농사일을 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쉴 곳이 없어 숲을 빨리 만들기 위하여 두 포기를 심었다 한다. 나무가 커 가고 숲을 이루면서 형제 나무, 부부 나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자랐다. 나무가 숲을 이루니까 마을에서 수호신으로 당산나무로 지정, 마을의 안녕과 번창을 위하여 매년 구월 보름에 제를 올리고 있다.

옛날에는 열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하내 마을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 6.25 사변 때도 인근 마을에서는 가옥이 불타고 했지만 하내 마을에서는 불탄 집이 없었고 피난 갔던 마을 사람들도 한 사람도 희생자 없이 귀향한 것은 마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두 당산나무 영험이라 믿고 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길곡 들판에 참외, 수박, 무, 배추, 땅콩이 주 재배 작물이었다. 여름 수박 출하 시에는 많은 사람이 당산나무 회화나무 그늘 밑으로 모이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가게가 형성되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고 장사가 잘 되다보니 아줌마까지 고용해서 장사를 했는데 하내마을 웃 어르신들이 마을 앞에서 특히 당산나무 밑에서 불미스럽다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였다.

수령이 다 되어가서인지 경지정리로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아서인지 나뭇가지고 죽어가는 가지고 생겨서 마을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옆에 다른 나무를 심자는 의논이 나오고 있다.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하내마을의 안녕과 번창을 지켜주시기를 마을 주민들은 염원 할 뿐이다.

〈이선조〉



22

홀로 남은 사등마을의 수장 포구나무

• 수종 : 포구나무

• 나무둘레 : 3m

• 수령 : 약 150년

길곡면 마천리 사등마을은 낙동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예전에는 50여호가 거주한 마을인데 백 수십 년전 큰 수해로 인하여 마을에서 수호신으로 모시던 이백년이 넘는 당산나무인 느티나무가 가옥 몇 채와 같이 떠내려가고 말았다.

그 뒤 몇 년간 당산나무도 없이 지나다 또 홍수를 만나 마을 전체가 고립되었을 때 5년생 정도 되는 포구나무가 떠내려가다 마을 앞에 걸려 마을 주민들이 건져서 마을 제일 높은 공터에 식재 한 것이 잘 살아서 숲을 이루고 주민들은 당산나무로 지정하고 매년 마을 안녕과 번영을 빌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사등 마을은 홍수가 들면 마을 전체가 섬이 되고 미리 가족들과 가족들은 피신시키고 남은 사람들은 당산나무 밑에서 마을을 지켰다.

사하라 태풍 때 가옥 수십 채가 유실되고 20여호만 남았다.

1985년도 마을 회관을 재건축 하면서 땅을 높여 건축해서 홍수가 지면 피신을 가지 않고 전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피신했다.

정부에서 낙동강변 마을 정비 사업으로 사등 마을 20여호도 인근마을로 이사를 하고 당산나무인 포구나무만 남게 되었다.

이장을 중심으로 그 간 당산나무의 은덕을 기리고 떠나는 주민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이장이 제문을 읽을 때 많은 분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백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의 희비애락을 지켜보던 당산나무는 많은 사연만 간직할 채 허허벌판에서 수명이 다할 때 까지 평소 같이 이웃감나무와 땅버들과 같이 숲을 이루며 4대강 사업으로 하루 수십 명, 수백 명 지나가는 자전거 동우회원과 도시 사람들의 나들이객들을 맞이하면서 더 많은 사연을 간직하면서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묵묵히 버티고 살아 갈 것이다.

〈이선조〉

23

길곡면 경덕서당 배롱나무



이후경(李厚慶) 선생의 후손들 집성촌이었다. 문이 잠겨있어 담 너머로 살펴보니 붉은 배롱나무가 선생의 학덕처럼 은은하게 빛난다.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배롱나무가 본 건물을 에워싸듯 붉은 꽃으로 가지를 편 모습에 이끌려 다시 앞쪽으로 작은 통로가 있었다. 살며시 들어가니 백당 정기헌(白堂 鄭基憲)선생이 쓰신 경덕서당(景德書堂) 편액과 여재헌 편액과 주련도 보인다. 7월 불타는 태양 아래 미풍에 흔들리고 있지만 큰 울림처럼 빛을 발하는 배롱나무를 한참 바라보았다. 자미화(刺薇花)라고도 불리며 오래된 절과 고택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은 이유는 무엇일까? 꽃말은 부귀(富貴)인데 꽃말보다 백일동안 피어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아닐까 싶다.

배롱나무는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백일홍나무라고 하며, 나무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하여 간즈름나무 또는 간지름나무라고도 한다. 높이 약 5m이다. 나무껍질은 연한 붉은 갈색이며 얇은 조각으로 떨어지면서 흰 무늬가 생긴다. 작은가지는 네모지고 털이 없다. 새가지는 4개의 능선이 있고 잎이 마주난다. 잎은 타원형이거나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며 길이 2.5~7cm, 너비 2~3cm이다. 겉면에 윤이 나고 뒷면에는 잎맥이 털이 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창녕함안보를 지나 길곡면 초입에 들어서면 커다랗게 벽진이씨 세거지 표석이 장승처럼 서있다. 웬지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 1607년(선조 40) 봄 한강(寒岡)정구(鄭述)와 여헌장현광, 망우(忘憂)곽재우(郭再祐), 외재(畏齋) 이후경(李厚慶) 등이 용화산 아래에서 풍류를 즐기고 기록한 것이 『용화산하동범록(龍華山下同泛錄)』이다. 여기가 외재(畏齋)

꽃은 양성화로서 7~9월에 붉은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 원추꽃차례로 달린다. 꽃차례는 길이 10~

20cm, 지름 3~4cm이다. 꽃잎은 꽃받침과 더불어 6개로 갈라지고 주름이 많다. 수술은 30~40개로서 가장자리의 6개가 길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蒴果)로서 타원형이며 10월에 익는다. 보통 6실이지만 7~8실인 것도 있다.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배롱나무(for. alba)라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자란다. 중국 원산이며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꽃은 지혈·소종의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 월경과다·장염·설사 등에 약으로 쓴다. [출처 : 두산백과]

배롱나무가 유명한 곳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병산서원이다. 2008년 4월 7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400년, 수고 8m, 둘레 0.85m인 배롱나무를 포함해 약 12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후일을 염려하여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서애 류성룡 선생을 배향한 곳에 배롱나무가 지천이다. 여기 길곡면 증산리는 하회마을 병산서원 만큼 승경이 뛰어난 곳은 아니지만, 서애 류성룡선생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를 한 것처럼 외재 이후경 선생도 국난극복을 위해 온 몸을 던지셨던 분이다.

외재 이후경 선생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자. 자는 여무(汝懋), 호는 외재(畏齋). 본관은 벽진(碧珍). 엄(嚴)의 아들. 정구(鄭逵)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배웠으며, 학행(學行)이 뛰어나 영남(嶺南)의 명유(名儒)로서 추앙을 받았다. 광해군때 이시발, 김우옹의 추천으로 천거받아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에 강화(江華)로 왕을 호종(扈從)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서울로 돌아와서는 음성현감(陰城縣監)을 지냈다. 만년에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데에 몰두하였으며, 사망 후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추증(追贈) 되었다. 1703년(숙종29)



영산(靈山)의 덕봉서원(德峰書院)에 제향(祭享)되어 있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경덕서당에 보전되고 있다는 『외재집』은 1744년(영조20) 그의 후손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이 문집에는 아들 이도보(李道輔)의 『익암유고』도 함께 실려 있다. 두 사람의 문집을 하나로 묶어 1864년(고종1) 총 82매로 판각하였다. 이후경 부자는 왜란과 호란이라는 국난의 시대를 몸소 겪으며 살았던 인물로 부자의 시문이 함께 실린 문집 판각이 전해 오고 있어 좋은 선례이다. 이 문집은 당시 사대부들의 우국충절 정신과 성리학에 대한 관심과 사회인식, 시국관, 향촌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한다.

외재선생의 학풍이 대대로 전해온 까닭인지, 1920년대 창녕군 소재지에서 최남단인 오지였던 길곡면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동아일보 1924년 1월 28일일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길곡면 증산리 이정화씨는 교육기관이 없음을 개탄하여 지난해 4월에 먼 중앙인자기 동리 길

24

길곡면 창녕보를 지켜보는 소나무



우리는 소나무는 어떻게 생각할까? 소나무가 너무 흔해 남부지방에서는 재목보다 연료로 많이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의 북부와 강원도 태백산맥에서 나는 중곰솔이 재질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래된 소나무로 잘 알려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소재한 정이품송이 있다. 이 소나무는 수령이 약 60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조선 세조가 정2품의 벼슬을 내렸다는 설화가 전하는데,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는 송금제도를 만들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에 봉산과 금산을 정해 보호하였다. 일본강점기 청도 운문사에서 송진을 채취한다고 훼손하는 수탈정책으로 아름다운 소나무에 상처를 남겼다.

소나무는 솔·솔나무·소오리나무라고도 한다. 한자어로 송(松)·적송(赤松)·송목·송수·청송이라 한다. 줄기는 높이 35m, 지름 1.8m 정도이며 수피는 붉은빛을 띤 갈색이나 밑부분은 검은 갈색이다. 바늘잎은 2개씩 뭉쳐나고 길이 8~9cm, 너비 1.5mm이다. 2년이 지나면 밑부분의 바늘잎이 떨어진다. 꽃은 5월에 피고 수꽃은 새가지의 밑부분에 달리며 노란색으로 길이 1cm의 타원형이다. 암꽃은 새가지의 끝부분에 달리며 자주색이고 길이 6mm의 달걀 모양이다.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길이 4.5cm, 지름 3cm이며 열매조각은 70~100개이고 다음해 9~10월에 노란빛을 띤 갈색으로 익는다. 종자는 길이 5~

6mm, 너비 3mm의 타원형으로 검은 갈색이며 날개는 연한 갈색 바탕에 검은 갈색 줄이 있다. 잎은 각기·소화불량 또는 강장제로, 꽃은 이질에, 송진은 고약의 원료 등에 약용으로 쓴다. 화분은 송화가루로 다식을 만들며 껍질은 송기떡을 만들어 식용한다. 건축재·펄프용재로 이용되고 테레핀유는 페인트·니스용재·합성장뇌의 원료로 쓰인다. 관상용·정자목·신목(神木)·당산목으로 많이 심었다. 중국 북동부, 우수리, 일본에 분포하고 한국의 북부 고원지대를 제외한 전역에 자라며 수직적으로는 1,600m 이하에 난다. [출처 : 두산백과]

창녕함안보를 지켜보는 소나무는 건너편으로 고압전력을 배전하는 한전철탑처럼 키가 쭉 뻗어 있다. 아주 오래된 소나무는 아니지만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옛날부터 오희리와 증산리의 경계지역에서 건너편 광심정(廣心亭)을 바라보며 서있다. 광심정은 송지일이 1664년 자모산 기슭에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정자이다.

예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는 나라경영의 근본이라 하였다. 산과 물을 잘 다루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입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치자(治者)의 덕목이었다. 심지어 나라의 흥년이 계속되면 역성혁명과 같이 강제 아닌 강제로 스스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면서 나라의 지도자는 전통시대와 달리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 강가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하소연을 들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름철 장마나 호우 또는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피난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찌 알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지 방수제(피수대)와 같은 것들이 길목면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강력한 수마는 제방을 허물고 범람하여 물난리를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이다.



나라에서도 범람이 잦은 ‘4대강유역종합개발’(四大江流域綜合開發)을 1966년부터 실시했다. 4대강에 대한 하천유역조사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1차 국토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개발계획에 제시된 개발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홍수피해를 50% 줄인다. ②수해상습지를 없애고, 중요하천을 90% 개수(改修)하여 홍수범람을 막는다. ③내수(內水)피해 상습지 138개소를 없앤다. ④는 68만 3,000ha 중 59만 8,000ha를 수리안전담으로 바꾼다. ⑤상수도 보급률 30.6%를 65% 수준으로 올리고, 공업용수를 3.8배로 증산·공급한다. ⑥4만 1,420ha의 황폐한 산지(山地)와 27만 4,016ha의 나무없는 땅을 숲으로 가꾼다. ⑦도시 주변의 수질오염과 하구염해(河口鹽害) 및역수(逆水)의 피해를 막는다. 4대강 유역은 국토의 핵심부를 이루며 국토의 63.7%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인구 62.0%, GNP 67%, 경지면적 53.7%, 물자원 부존량 62.2%, 연평균홍수피해 69.5%, 가뭄피해 60.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계획기간 중에 3,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출처 : 두산백과]

청계천개발사업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륙수운으로 잇는다는 구상의 한반도 대운하

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취소하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그해 12월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4대강유역종합개발에 대하여 창녕 지역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이다. 첫째, 창녕함안보를 만들면서 대규모 준설사업을 통하여 저수량을 높혀 웬만한 호우와 범람을 예방하면서 해마다 행사처럼 치루어야 했던 물난리와 수해지원 및 복구비용이 없어진 것이다. 둘째, 유역정비를 통하여 저수율과 수위가 높아져 대규모 식수 조달과 농업용수 등 물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생활의 편의 도모와 안정적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었다. 물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동



시에 광활한 하천유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농토가 사라지면서 농업생산량과 하천부지 보상에 따라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면서 이해관계 대립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상류나 하류도 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이다. 강변여과수 개발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 수자원 보호는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와 같은 맥락이다. 반대와 찬성의 외침 울려도 강물은 계속 흐른다.

창녕함안보를 바라보는 소나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외치는 극단적인 목소리에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2008년을 전후로 10년 넘게 싸워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창녕사람도 아니고 길곡사람도 아닌 낯선 타지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씁쓸해할 것이다. 예부터 곧게 잘 자란 나무는 재목으로 팔려 가고 못 자라 굽은 나무는 조상묘를 지킨다는 말대로 관심을 못 받아 창녕보를 지키고 있지만, 어리석은 싸움은 헛된 것이라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여과수개발 반대한다!!는 목소리까지.

〈김부열〉





03

애환과 역경을 나무를 이겨낸

강변/야토

01

낙동강 남지읍 피수대와 남포동 느티나무



약 50년전 남지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를 옮겨가기 전 기와공장이 있었다. 그 기와공장의 아들로 세계복싱협회(WBA) 라이트플라이급 제5대 세계챔피언을 지낸 김환진 선수가 있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의 고속도로 쪽으로 옮기기 전 풍경은 뒤편에 큰 제방이 길게 철교 방향으로 벽처럼 있었다. 반대편에는 예전에 남지고등학교와 정구장도 있었는데 대신동으로 옮겨 갔다. 그 제방(둑)에 남지목욕탕, 남포동 가는 쪽에 작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2~3차례 옮겨 지금의 자리에서 있다. 왜? 그랬

을까? 그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나무의 역사가 아닌 100년전 남지 피수대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

낙동강을 젓줄로 살아가는 남지는 비옥한 땅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한 낙화생(땅콩), 엽연초와 같은 특용작물과 사계절 생산하는 풋고추, 오이 재배로 소득증대를 이룬 부자동네로 유명하지만, 매년 장마와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수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는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그 역사를 되짚어 보자.



1929년 조선하천조사서-을축년 7월 호우분포도



1926년 7월 18일 동아일보

삼국시대 이래 홍수의 기록은 수없이 많다. 근세에 들어 큰 홍수는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9월에 발간한 『을축년 대홍수의 평가 및 홍수기록 복원 연구』 보고서 p24쪽에 나온다. ‘1925년은 을축년 홍수라 하여 7월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 동안에 내린 장맛비가 전국평균 700~970mm에 이른다. 이는 1년 평균 강우량의 80% 정도가 불과 보름만에 쏟아져 내린 것으로 엄청난 폭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7월 한달에 만 2개의 태풍 《2559, 2560》이 한반도를 거쳐 가면서 사망 및 실종이 51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해 9월에 다시 태풍 (2563)이 한반도를 덮쳐 사망·실종 63명을 기록하였다.’ 1925년 4회에 걸친 호우로 인하여 전국에서 사망자 647명, 가옥 유실 6363호, 붕괴 1

만 7045호, 침수 4만 6813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논 3만 2183단보, 밭 6만 7554단보 등이 유실되어 피해액은 무려 1억 300만엔에 달하였다.’ 당시 피해액의 규모는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약 58%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었다.

해마다 겪는 수해를 참다못한 남지사람들이 1934년 9월 임시치수위원 낙동강수해지답사 때 방수제 공사 진정서 전달과 1936년 3차례 남지주민 대회를 개최하여 방수제건설촉진결의와 진정위원 선임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남지방수제, 일명 [남지피수대]의 출발이었다. 여러 차례의 수해 대책 제방공사를 거쳐 1966년 4대강 유역종합개발과 2008년 4대강사업 실시 후 홍수피해는 희박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과정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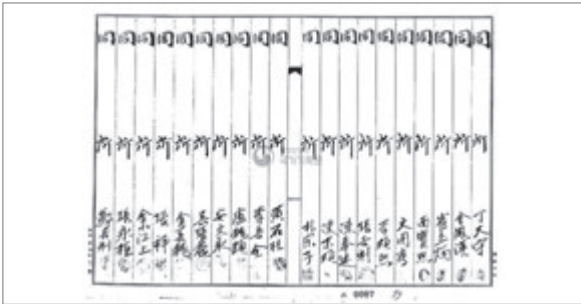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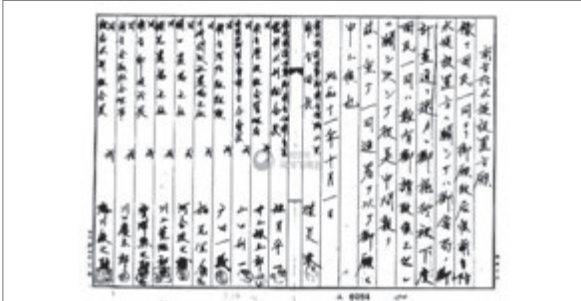
1934년 9월 13일 부산일보



1936년 3월 9일, 5월 21일 동아일보

1936년 동아일보 기사에 소요경비 50만원을 예

산으로 3차레로 나누어 진정서를 올릴 계획과 남보희, 권연수, 정대수, 김정호, 권경수, 김기우, 서상영, 정수천 같은 분이 중심이 되어 진정위원 조선인 3명과 일본인 3명, 창녕군수 오두환을 입회하게 시켰다.



1936년 '남지방수제설치방법' 진정의 건-국가기록원

1936년부터 1938년까지 문제로 지역내에서 의사통일이 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1939년 3월 2일 동아일보 '紛糾로 難産中이던 南 旨防水堤築造 今春來로 着工豫定' 기사로 방수제 공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 방수제(피수대)는 1939년 5월 1일 착공하여 1940년에 완공되었다.



1965년 7월 25일 남지 대홍수



1976년 3월 개통한 구마고속도로 V자 낙동대교

그 후 1964년 6월 1일 하천법에 의해 남지읍 시가지 중심에 설치되어 있던 피수대에서 하천 방향에 위치한 부지가 모두 하천부지로 고시되었다. 이후 주민들은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 오던 중, 1985년 2월 1일 도시계획선에 따라 제방법 선을 조정하여 일부 권한 행사는 인정되었으나, 제방이 미설치 된 관계로 낙동강 홍수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받는 일이 연례적 반복되었다.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남지제 하천개수 사업을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수년동안 사업을 착공조차 못 하였다.



[사진 : 남지닷컴]



1990년 홍수시



현재의 모습



2000년 피수대 걷어내고 개설한 고속도로 진입도로

2000년 9월 18일, 이한동 국무총리가 태풍 '사오마이' 수해 현장 방문시 숙원사업을 건의한 결과 예산지원을 약속하여, 그해 10월 10일 수해복구비 3백억원이 지원됨으로써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남지제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에 착공, 제방축조 1.7km, 낙동강 제외지 편입 주택 및 주민이주 478세대, 건물철거 2천 48동, 제외지 정비 39만8천평 등 총사업비 853억원을 투입 5년간에 걸쳐 추진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5년 7월 12일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남지주민들은 홍수로부터 해방과 아울러 낙동강 수변공간을 갖게 되었다.

남포동 상록아파트 앞 느티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낙동강 제방인 피수대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남지사람들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신문 기사와 사진을 붙여 설명하였다. 낙동강의 홍수를 지켜본 남지철교 은행나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편에서 신기하게 하겠다.

위 자료들을 보면 이 느티나무를 실은 까닭을 이해할 것이다. 한번 옮겨 심어 살리기도 어려운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거기에서 마을의 변화와 도시계획의 수정에 따라 2~3번 옮겨가는 스토리를 기억하고 묵묵하게 지켜보고 마을의 상징목이 된 느티나무다. 지금보다는 먼 훗날 남지읍의 중심부에 자리한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또 모른다. 교통에 방해된다고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요즘 남지 5일장 열리면 이 나무 아래 '벼룩시장'이 열리고, 구제품이 팔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돌고 돈다는 것을 느낀다. 역사 속 주인공은 이름을 남기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역사는 본분을 다하며 한 그루 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남는다. 이제 나무도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자연유산이다.

〈김부열〉

02

남지제방 축조를 지켜본 은행나무



남지철교 보호수 은행나무(낙동강 건너 함안쪽)

창녕 남지의 현안 남지제 축조사업

남지의 최대 현안이었던 남지제 축조사업은 오늘의 남지읍과 창녕군 발전을 있게 한 마중물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다스리는 치수(治水)사업이다. 창녕은 낙동강을 관통하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조건 속에 해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그러나 한 지도자의 의지와 열정, 군민의 단합된 역량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성적인 물 문제를 완전 해결했다. 사람은 세월 속에 명멸해 가지만 역사와 숨은 스토리를 머금고 있는 남지제 부근의 나무들은 아직도 말 없는 가운데 그 때의 상황과 진실을 전하고 있다.

당시 군 행정의 수장으로 봉직하셨던 기산 김진백 전 군수께서는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과 애환을 자서전 “箕山漫歩(기산만보/2019년 발간)”를 통해 이렇게 밝히셨다.

남지제방축조사업은 우리 창녕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남지는 낙동강 변에 자리한 지역 촌락이었으나 1930년경 영남수리가 개간되자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현재는 1만 여명이 거주하는 읍소재지로 상전벽해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잦은 대홍수로 낙동강이 범람할 시 주위는 물바다가 되었고 마을은 외딴 섬으로, 강변 저지대는 물에 잠기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1939년 5월에 마을 주민들은 홍수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마을 가운데 모래 독을 강을 따라 남북으로 1.6km 정도 쌓았다. 이를 이름 하여 피수대(避水臺)라고 하였다.

정부는 1964년 피수대를 제방으로 간주하고 이

를 기점으로 하여 하천구역 법선을 고시하였다. 하폭은 650m로 되었는데 남지 집단마을의 반 정도가 하천구역이 되었다. 남지파출소와 우체국, 정부양곡도정공장, 남지5일시장과 국도5호선 구간이 강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낭패를 당하였다. 토지와 건물 등 매매가 중지되고 주택의 증개축과 보수를 할 수 없게 규제되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거나 딴 곳으로 이사를 하고자 해도 속수무책이었다. 주민들은 아우성이었다. 피해 주민들은 관계 당국을 상대로 남지 용산제방에서 남송교(도천면 송진제방)에 이르는 구간에 제방을 축조하거나 강의 하폭을 대폭 축소하여 변경 고시하고 강으로 편입되는 토지와 시설물을 현 시가로 보상하고 안전지대로 이주시켜 달라는 민원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창녕군에서도 경남도와 건설교통부에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였다. 그러던 중 창녕군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하폭 650m를 450m로 축소하고 하천 법선을 변경 고시하였다. 그렇다고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제방축조와 이주대책은 계속 현안이 되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관선과 민선을 합쳐 약 9년 동안 고향 창녕에 재임하셨던 기산 군수께서는 남지제방 축조와 밀양댐 광역상수도 사업 등 두 개의 대형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창녕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소요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건설교통부 관계 국장을 찾

아 설명하고 예산국회도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관선군수 때인 1990년 초에는 저지대 주민이 언젠가는 안전지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택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남지읍사무소 북쪽 흥포동 중심부 모래밭 10만평을 대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남지읍의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1993년 14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출범 시 추진할 국정공약사업 목록에 남지 제방축조 사업이 책정되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해당부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꼭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럼에도 남지제방사업은 김영삼 대통령 5년 임기 중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생각건대 1985년 2월 1일 하폭 변경 고시 때 제방축조와 이주대책은 경상남도 또는 창녕군이 책임진다는 조건을 핑계로 방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하천법선 밖의 토지와 시설물 그리고 영업권 보상자료를 확실히 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였다. 용역결과 토지 123만 9천 제곱미터, 수목 및 농작물 122만 4천 제곱미터, 463세대와 건물 1,999동, 영업권, 이사비, 정착금 등 총 1,045억원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다. 이들 자료를 갖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도 없이 방문하여 건의하였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다. 하늘의 도우심인가 2000년 9월 사오마이 태풍으로 남지가 물바다가 되었다고 중앙 일간지(동아, 조선)에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000년 9월 17일

남지수해지구를 직접 순방하여 주민들을 위로하였고, 그 다음 날 9월 18일에는 이한동 국무총리가 인근 함안군 칠서지역을 순행 하였다.

당시 기산 군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리 일행이 귀경하려는 헬리콥터 앞에까지 달려가 남지제방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35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 민원을 이번 기회에 꼭 성사되게 하도록 울먹이면서 읍소하였다.

이 한동 총리께서도 우리 군의 보고서와 감동적인 설명을 듣고 이를 가납하시고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2000년 10월 10일 수해복구 지원 사업 예비비에서 우선 300억원을 배정해 주셨다. 2000년 11월 25일 그 동안 외면하던 건설교통부도 150억원을 재배정하므로 인해 사업은 본격 시작 되었다.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남지제 축조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해야 할 업무를 지역주민의 편의와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대행하기로 하고, 남지제 추진팀을 구성하여 남지 현지에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045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478세대의 방대한 보상업무, 2,048동의 시설물 철거, 주민이주대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담당 공직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밤낮없이 열성을 다하였고 한 건의 비리나 부조리가 없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은 2005년 종결되고 그 해 7월 준공식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이한동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격려사를 하시면서 김진백 전 군수의 열성의 덕이라고 칭찬해 주셨다.



남지 제방축조 (전) / 사진 : 하동철



남지 제방축조 (후) / 사진 : 하동철

이제 남지는 낙동강 홍수로부터 방호되고 고층아파트가 우뚝 섰으며 매년 봄에는 유채축제로 전국의 명소가 되어 웃음과 희망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 보조금 1,045억원 중 집행잔액 150억원은 건설교통부의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 남송교 재가설과 상대포에서 남송교에 이르는 계성천 제방보강 공사 사업비로 전용하였다.

구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비 8억원은 낙동강 하천 부지 상에 축구장 2개(잔디축구장 1면, 모래 축구장 1면) 유채단지 조성, 주차장 건설 등에 재투자하였다.

낙동강 홍수 방지를 위해서 이후에도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하여 죽전제방, 유어제방, 남지의 월상과 월하제방, 길곡제방, 부곡 학포제방 등등 기존 낙동강의 부실한 제방을 모두 보강했고 배수장 시설문제는 농림부장관에 건의해서 모두 개수하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농사용 용수는 낙동강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조그만 양수장은 큰 가뭄에는 무

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큰 양수장을 만들어야 했다. 이 일은 농림부에서 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방에 요구하지 않으면 해 줄 리 없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창녕에서 가장 큰 양수장인 우강양수장과 광산 농업시설 양수장, 이 두 사업을 진행했다. 돈으로도 100억에서 200억이나 드는 큰 사업이었다. 이 사업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창녕에는 1년, 2년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낙동강이 마르지 않는 한, 이 두 양수장만 가동이 되면 농업용수가 거뜬히 해결되었다. 2017년 큰 가뭄에도 군 전역이 물 부족 없이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을 구가하였다.

남지제 축조사업과 주변 양 배수시설 등이 차례로 들어서, 치수와 농업 생활용수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서, 창녕은 전국에서 치수사업의 가장 모범적인 선진 자치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다.

〈한삼윤〉

03

남지읍 남지경로당 느티나무





창녕의 나무를 탐방하면서 50년만에 찾아간 남지 경로당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세월의 변화를 실감케 하였다. 남지경로당이 1940년에 건립되었다면 느티나무의 수령도 거의 100살이 되었다. 세월에 따라 달라진 듯 경로당 주변사람들의 민원에 따라 이발(?)을 하셔서 너무 단출하고 품위 없어 보여 안타까웠다. 경로당 안에 역대 회장님들 사진을 보면서 어릴 때 뵈었던 분이 계셔서 숙연해진다. 지금은 거의 고인이 되신 분들이 남긴 노제에 기록(松塙居士 善山金公裏禮執事)된 함자들을 살펴보니, 당시의 남지경로당은 고래로부터 이어져 온 향약의 정신으로 마을의 풍속을 세우고 교화를 담당하던 어르신들의 마른기침 소리가 더 울림 깊은 시대였다.

어린 시절 추억은 남아 있다. 해질녘 매일처럼 경로당 나무 그늘 아래 책을 읽거나 장기 두시던 아버지께 저녁 드시러 가자고 찾아간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하시던 말씀이 아래쪽 사진 광고에 나오는 남창제재소와 남창정미소를 운영하시던 이윤기(초대 남지민의원) 어른과 지역민들의 주도로 경로당 건립이 시작되어 잘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셨다. 6.25전쟁을 겪고 난 후 어려운 살림살이와 형편에도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신 노력이 남지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경로당이 되었다.



50년 전 그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경로당 옆에 남창제재소(후에 영남제재소)가 있었고, 그 옆에 남지에서 공설운동장보다 작았지만, 아주 큰 우시장이 있었다. 일명 '소전걸'로 불리었다. 2일과 7일 간격으로 5일장이 열리던 남지장날에 본동에 시장통부터 시작하여 어물전과 포목전 옛날 남지 옷개나루터로 가던 길에는 온갖 시장이 열렸다. 남지감리교회를 기점으로 곡물을 거래하던 쌀전, 돼지전, 닭전 그리고 남지철교 이어지는 길에 산업조합과 큰 목재소와 농방 2개와 목공소들이 있었다. 그 아래에 우시장이 있었다. 가운데 빗물이 고이는 작은 도랑이 있고 양편으로 초가집들이 빙 둘러 에워싼 형세로 마당에는 소를 묶는 막대기가 촘촘히 박혀 있었고, 가운데 소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는 사무실에서 소를 거래하였다. 5일장이 열리면 남포동 소전걸에 사는 어른들과 아이들은 모두 들떠 있었고, 자전거에 남지공동탁주 1말짜리 통을 10개씩 달고 달리던 종아리 굵은 아재의 힘찬 소리도 생생



사진 : 김택진

하다. 또 해질녘 과장이 되었는데도 소판 돈으로 실랑이 벌이던 아재와 소를 팔지 못해도 기분좋은 “~니나노 놀리리야~” 노래하시며 비포장도로 자갈길 저벽저벽 소리와 소 몰고 가시는 풍경이 아련하다.

남지경로당 넓은 마당에 두 그루의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한여름 두 느티나무에서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동네를 울릴 정도로 깊고 깊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경로당 느티나무에 가보면 꿈지락 꿈지락 땅을 파고 올라오는 굴뚝이와 나무에 기어오르는 껍질을 벗지 못한 매미와 갓 껍질을 벗은 매미들이 네 아름이 넘는 나무 허리춤에 잔뜩 붙어 있었다. 그 매미 잡는 재미로 여름방학 내내 새벽이면 소전걸 친구와 동생들이 경로당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또 경로당 앞에는 공동묘지터가 있어 '무덤걸'이라 부르며, 친구들과 요즘 방송에서 격하게 싸우는 UFC 비슷한 행복받기(그때는 고생받기) 레슬링을 무덤가 잔디 풀밭에서 또래 친구들과 뒹굴며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경로당 옆에는 '건생당' 약방 아재가 조성한 넓은 복숭아 과수원이 있었다. 가시 많은 탕자나무로 울타리를 해놓아 먹어도 배고픈 시절 아이들은 긴 장대에 못을 달아 복숭아를 찍어 서리하곤 했다. 당시 건생당 약방은 마을의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치료소인 동시에 마산-대구간 시외버스 중간 승차장이었기에 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그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은 50년 전에 남지

경로당 앞에는 '밀가루독'이라고 임시로 급히 쌓은 작은 독이 있어 홍수를 피했는데. 지금은 새로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그러나 1936년 전후에 만들어진 남지방수제(남지들)는 본동 끝에서 남포동까지 이어졌지만, 남지리 531번지 인접 마구선 국도를 지나게 되어 국도 위에는 제방을 쌓지 못하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가설하였다. 동쪽은 본동 동편 입구에서 마구선 국도와 병행하여 안쪽은 도로, 바깥은 제방으로 연장 축조되어서 남송교에 이르렀고, 동갯들을 보호하며 상대포 못미처 당포수리 제방과 연결되었다. 서쪽 끝자락은 남포동 활터에서 명지들 앞을 지나 옥산마을 앞까지 연장되고 거기서부터 용산리까지 제방 겹 도로로 3,500m가 축조되어 낙동강 홍수를 막아내게 되었다. 이 제방의 총연장은 당포수리 제방의 연결 지점에서 피수대를 지나 용산 앞까지 7.5km이다. 지금은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 큰 독과 외곽도로가 개설되었다. 그 후 2005년 마무리된 제방을 다시 정리하며 오늘날과 같은 수변 공원이 되었다.



〈김부열〉

04

남지읍 동포동 적산가옥과 즐가시나무





일제강점기 남지에는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이 많았다. 즉, 일본에서 식민지에서 미지의 개척을 통하여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한 사람들이다. 앞선 근대화를 경험하고 현해탄을 건너와 정착하여 남지는 근대적 도시계획과 수리시설로 낙동강 하천유역을 개발하여 대농장과 신도시로 개척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남지는 전라도 목포와 군산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일본식 가옥과 정원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일본인 학생들이 다닌 '남지심상소학교'였던 동포초등학교 주변에는 오래된 탱자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을 가진 적산가옥들이 아직 남아 있다. 위의 두 줄가시나무가 있는 집도 대표적인 적산가옥이었다. 비교적 보전이 잘된 이 정원은 특이하게 출입구가 가려 있었다.

이 집에는 줄가시나무보다 훨씬 더 큰 소나무가 네 그루 정도 있었고, 사철나무가 낮게 울타리를 만들어 맵시나게 꾸며져 있었다. 현재는 남지읍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적산가옥과 정원수들은 사라졌으나 다행히 줄가시나무 두 그루는 살아남았다. 위 오른쪽의 사진은 <해방의 기쁨을 널리 알린 남지청년들의 가장행렬>인데, 이들은 해방이 되어 일본인이 버리고 간 집들을 적산가옥이라 하여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고 한다. 재조일본인이 고향 그리며 심은 나무가 벌써 100년 가까운 세월을 지키고 있다.

줄가시나무는 상록 활엽 교목으로 난대지역의 비

옥한 적윤지에서 잘 자란다. 참나무과의 상록수 중에서는 내한성이 제일 강하여 대구, 김천, 전주에서도 큰 나무의 월동은 가능하다. 크기는 높이 10m, 지름 60cm 정도로 자란다. 잎은 어긋나기하고 넓은 타원형 또는 도란상 긴 타원형이며 가죽질이고 약간 윤채(潤彩)가 있으며 둔두 또는 약간 예두이고 원저 또는 얇은 심장저이며 길이 3-6cm, 나비 1.5-3cm로서 가장자리에 물결모양의 톱니가 있고 표면은 짙은 녹색,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양면의 주맥 기부에 털이 있고 측맥은 6-9쌍이다. 엽병은 길이 2-5mm이며 털이 있다. 어린잎일때는 황색의 털이 있지만 후에 거의 없어진다.



꽃은 일가화로서 4-5월에 피며 수꽃꽃차례는 길이 2.5-4cm로서 새가지 밑부분에서 나와 누른빛이 도는 꽃이 많이 달려 밑으로 처지고 꽃대축에 황갈색 용털이 있으며, 암꽃 꽃차례는 길이 4cm로서 새가지 윗부분에서 나오고 꽃은 대개 2개씩 달린다. 수꽃은 4-5개로 갈라진 꽃덮이와 4-5개의 수술이 있고 암꽃은 총포로 싸여 있으며 3개의 암술



1933년 11월 신축 낙성한 남지금융조합



영남수리조합 남지사무소



머리가 있다. 각정이는 견과를 1/2-2/3 정도 둘러싸고 기와장을 인 모양으로 덮여 있는 비늘잎과 잔털이 밀포한다. 견과는 길이 15-22mm, 지름 8mm로서 타원형 또는 긴 타원상 달걀모양이고 9-10월에 성숙한다. 높이 10m, 지름 60cm이고 일년생까지는 회암갈색이며 황갈색 별모양털로 덮여 있다. 열매는 식용할 수 있고, 앞은 차의 대용으로 사용한다. 가지가 많이 나온다. 둥근 껍질 눈이 많다. 정원수, 녹음수, 풍치수, 방풍림, 생울타리용으로 쓰이며 동해안지대의 울진까지는 시험 식재할 가치가 있다. 목재는 땀감 및 목탄 제조용으로 쓰인다. [출처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식물도감]

적산가옥(敵産家屋)이란?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 혹은 ‘적들이 만든’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적들이 만든 집이라는 뜻이다. 근대 및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지은 건축물을 뜻한다. 해방 후 이 집에서 살던 일본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본으로 돌아가기 급급했고, 당연히 소유권이고 뭐고 붕 뜨자 적산가옥도 당연히 집 없는 한국인들이 차지했다. ‘한일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일본 정부가 ‘적산’에 대한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함을 명시해 이 문제는 끝났다. 남지에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대표적인 건축물로 남지철교외, 남지금융조합, 남지산업조합, 남지수리조합 등이 있었다.

그중에 몇 년 전까지 남아 있었던 남지수리조합은 철거되고, 사진에 두 그루 향나무는 2009년 2월, 알 수 없는 곳으로 팔려 갔다. 최근, 일제 잔재 청산을 이유로 일선 학교에 가이즈카 향나무 수목 교체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조경업체의 제안으로 향나무 폐기가 아닌 외지로 반출해 다시 식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년 넘게 학교에 심어져 있던 향나무를 제거한다고 일제 잔재가 청산되는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김부열〉

05

남지읍 동포초등학교 호랑가시나무



일제는 오랜 역사와 지역성으로 일제에 저항적 요소가 많은 창녕과 영산은 공립보통학교를 먼저 인가하였다. 이와 달리 남지(당시 남곡면)는 1916년 2월 10일 남지학교조합과 1917년 '남지심상소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조합'이라는 것은 일제가 일본인 아동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이에 의하여 만들어진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는 일본이 1886(明治 19)년에 제정한 소학교령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의 일종으로 1941년(昭和 16)년 국민학교령이 제정될 때까지의 일본의 의무교육 기관이었다.

따라서 1921년 5월 개교하여 조선인 아동을 위하여 교육한 '남지공립보통학교'과 달랐다. 1938년 4월에

는 학교 명칭을 일본인 학교와 차별이 없게 한다면 서 '남지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으나 차별 교육은 여전하였다. 기록이 없어 개교한 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의 동포초등학교 자리에서 해방될 때까지 일본인 아동만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다. 해방 전 동포초등학교는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이었다. 본관과 서관의 복도와 교실 마루바닥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었다.

또 동포초등학교 졸업앨범에는 한결같이 교무실 입구에 커다란 바위처럼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다. 흑백사진 속에 1976년 2월 졸업한 학생들 뒤편의 호랑가시나무의 규모와 46년이 지난 오늘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른 느낌이다. 매년 4월 동창회가 열리면 사라진 탱자나무 울타리와 느티나무를 안타까워 하면서 최고의 포토존이 되기도 한다. 호랑가시나무가 가진 유래에서 옛사람들이 심은 뜻을 알게 된다.



일본식이라 지진대비용으로 동포초등학교 본관 뒤편은 울창한 대나무숲이 조성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동편에 수목시범포와 느티나무 2그루가 있어 동포초등학교 상징목으로 체육관이 건축될 때까지 '느티나무 형제'라 불리며 사랑받았다. 졸업생들의 앨범에 느티나무 두 그루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보이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사라졌다.

호랑가시나무의 특징은 무섭도록 날카롭고 굳은 침갈이 생긴 잎 가장자리의 결각 끝 마디에 달린 가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철에 호랑이가 등이 가려울 때 이 나무의 잎 가장자리에 돌아난 가시로 등을 비벼 긁는다 하여 전북에서는 「호랑이 등긁기나무」라고 부른다 하며 「호랑가시나무」란 이름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가시가 날카로워 고양이 새끼의 발톱같다 하여 묘아자(猫兒刺)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구골목(狗骨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 나무에 얽힌 중국에서 전래된 오랜 민속이 있다. 음력 2월 4일 날 호랑가시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정어리의 머리를 꿰어 처마 끝에 매달아 놓는데, 이것은 악귀를 쫓는 주술적인 민속으로서 이렇게 하면 악귀가 겁을 먹고 범접을 못



사진 : 동포초등학교

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악귀가 여자와 어린이를 뺏어갔다는 전설에서 정어리의 눈알로 귀신을 노려 보고 호랑가시나무의 가시로서 귀신의 눈을 찔러서 물리친다는 뜻이라고 하며 일본에도 우리와 똑같은 민속이 있다.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겨우살이(mistletoe)와 빨간 열매가 달린 홀리를 장식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민속이 있다. 옛날 「로마」시대에는 농신제(農神祭)에 월계수와 함께 썼다 하며 A.D 1세기(로마시대)에 쓰인 「푸리니」의 박물지(博物誌)에는 이 나무를 마을이나 집에 심으면 마법의 힘이나 저주를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민속식물, 1997)



동포초등학교는 특이하게 선생님만큼 한결같이 사랑하는 ‘윤씨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분의 손길 속에 학교환경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1989년 소년한국일보 주최(문교부 후원) 제1회 [전국 아름다운 학교 뽑기 대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학교상]을 수상하였다. 졸업생 중 어린 시절 유별났던 남학생 동창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탱자나무 울타리 위를 달리는 시합을 할 정도로 학교 구석구석이 아저씨의 손에서 잘 꾸며졌다. 그런 까닭에 동창회가 열리는 날 환하게 반겨주시는 아저씨는 학교의 터주대감이자 오래된 나무처럼 아름다운 숲을 남겼지만, 세태는 달라지고 나무들은 사라져 안타깝다.



위는 1959년 6월 22일 남지성결구락부 유치원 졸업사진이다. 지금은 각 초등학교에 부설유치원이 있지만, 5~60년대 읍면단위지역에 유치원은 보기 드문 형편이었다. 당시, 동포초등학교 앞에 있는 현재 남지장로교회에서 개설한 유치원인데, 왼편 건물은 교회 예배당 건물이고 오른편 건물이 유치원이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동포초등학교 제19회 졸업생들이다. 까까머리와 단발머리에다 코흘리개들의 손수건이 가슴에 붙어 있어 그리운 추억이 생각난다. 그 옛날 일제강점기에 남았던 교실에서 공부하였기에 요즘 학교를 방문하면 너무나 달라져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것으로 생각된다.

〈김부열〉

06

남지읍 박정희 대통령과 사랑의 마을 느티나무



남지읍에 오래된 나무를 찾아보니 대부분이 느티나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나무에 상처가 나면 피를 흘렸다는 본동 어물전 주변에 있었던 느티나무, 동포초등학교에 있었던 느티나무 형제, 서동 백암정미소 앞에 느티나무, 남포동 경로당 느티나무, 아지마을 느티나무, 반포와 대곡마을에 느티나무 등등인데 앞으로 잘 보전해야 할 나무들이다.

왜? 느티나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가? 은행처럼 밤처럼 열매가 좋아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도 느티나무를 심었을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수명이 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목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보다 나무가 자라면서 큰 그늘을 제공하면서 당산나무처럼 마을의 구심점이 되는 상징목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남한에서 1,000년 이상된 노거수가 64그루 중 25그루가 느

티나무라고 한다. 그 중 13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95호 삼척 도계읍 도계리 느티나무와 161호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느티나무가 수령 약 1,000년이라 한다. 느티나무의 수명은 길다는 것은 보여주는 사례가 천마총이나 가야분에서 느티나무로 짜진 관이 나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느티나무는 규목(槻木)이라고도 한다. 산기슭이나 골짜기 또는 마을 부근의 흙이 깊고 그늘진 땅에서 잘 자란다. 높이는 26m, 지름이 3m이다. 굵은 가지가 갈라지고, 나무 껍질은 회백색이고 늙은 나무에서는 비늘처럼 떨어진다. 피목(皮目)은 옆으로 길어지고, 어린 가지에 잔털이 뽁뽁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 모양 또는 달걀모양이며 길이가 2~12cm, 폭이 1~5cm이고 표면이 매우 거칠 거칠하며 끝이 점차 뾰족해진다. 잎 가장자리에 톱

니가 있고, 잎맥은 주맥에서 갈라진 8~18쌍의 측맥이 평행을 이루며, 잎자루는 1~3mm로 매우 짧다. 꽃은 암수한그루이고 5월에 취산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수꽃은 어린 가지의 밑 부분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암꽃은 윗부분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수꽃의 화피는 4~6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4~6개이다. 암꽃은 퇴화된 수술과 암술대가 2개로 갈라진 암술이 있다. 열매는 핵과로 일그러진 납작한 공 모양이고 딱딱하며 지름이 4mm이고 뒷면에 모가 난 줄이 있으며 10월에 익는다.

봄에 어린 잎을 떡에 섞어 찌서 먹고, 목재를 건축·기구·조각·악기·선박 등의 재료로 쓴다. 한국(평남·함남 이남 지역)·일본·몽골·중국·시베리아·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속리산에서 자라는 둥근 잎느티나무(var. latifolia)는 잎이 넓은 타원 모양이고 끝이 둥글어서 느릅나무의 잎과 비슷하다. 잎이 넓은 바소 모양 또는 바소 모양인 것을 긴잎느티나무(var. longifolia)라고 하며 강원도 삼척·통천, 경상남도 함양·충무에서 자란다. [출처 : 두산백과]



위 사진은 1934년 7월 23일 촬영되었던 『남선의 홍수(조선총독부)』 책에 나온다. 1936년에 영남수리제방과 도천수리 제방도 터진 병자년 수해를 연상할 수 있다. 당시 인명 피해만 14,100여 명 《사망 1,916명》이며 가옥피해는 438,000여 호를 넘으며 이재민은 58만명, 선박피해만 2,527척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그해 8월에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만

1232명에 달했다. 후일 방수제(피수대)가 1939년 5월 1일 착공하여 1940년에 완공되었다. 홍수 때 상습 침수지역 남지리 마을 주민의 피난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1965년 7월 23일 전후, 큰 홍수가 있었다. 이때 월하리부터 반포, 칠현은 물론 고곡까지, 남강과 합해지는 용산리부터 학계리 마산리 남지리를 탁류가 휩쓸게 되었는데 그해 7월 24일에 남지리 시가지는 서동 대신리 일부만 남고 수년만에 처음으로 침수되어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일주일 간 탁류에 잠겼던 가옥들이 성할 리가 없었는데 특히 본동과 남포동은 침수기간이 길어 많은 가옥이 전복 도되(倒壞)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읍 전체 피해 가옥은 220채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읍의 수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헬리콥터를 타고 순시하러 왔다. 온 읍민들이 다 모여 들어 환영을 했는데, 읍이 생긴 이후 우리 나라 최고위 귀빈을 맞는 것이라 대통령 환영 인파가 순시 연도에 수천 명이 도열하였다. 대통령은 그때 남지공설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남지리 758번지에 내려 승용차로 읍사무소 앞을 지나 동포동 마구선 국도를 경유하여 본동 끝의 제방에서 낙동강을 바라보며 수해 피해 상황을 관계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해민들에게 적극적인 복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길가에 도열했던 읍민들은 처음으로 가까이 대통령의 얼굴을 바라 볼 수 있는 일생일대의 호기라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 박수를 하고 악수를 하기도 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대통령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례를 보냈다.

수해를 입어 무너져 내린 가옥이 남지리 일대에



수해피해를 보고받는 박대통령(피수대 끝에서, 지금의 남지대교 동편)

60여 가구가 넘었는데, 대통령이 내렸던 공설운동장 부지를 이들에게 제공하여 시멘트블록으로 벽을 쌓고 그때 최신의 지붕자재로 인기가 높았던 슬레이트를 이은 똑같은 건평과 형태의 집을 수재민 의 연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신축하게 되었다.

원래 이곳에 남지공설운동장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을 터를 물색한 결과, 이곳이 최적지라 하여 새 운동장 부지를 본동 북쪽에 있는 백구마당 일대의 밭을 매입하여 공설운동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1965년 9월 20일에 착공하여 12월 23일 시멘트 블록 가옥 67동이 준공하였으며 수해 지구에서 대부분 옮겨와 입주하였다. 이때 피해를 입은 가구 중 건축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이주 신축된 가옥은 54가구가 이주 정착하게 되었다. 새 마을의 총 동수는 65동이며 총공사비 11,869,450

원이었다. 1966년 8월 마을 행정이 시작되었다.

새 동네의 준공식은 화려했으며, 당일 전면 [사랑의 마을]이라 조각되고 새마을의 탄생 내력을 적은 [신남동수해복구기념비]의 제막도 있었고, 잔치가 벌어져 남지 소재지는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다. 남지의 새마을이라 하여 동명을 신남동(新南洞)이라 명명되었다. [출처 : 남지읍지]

그때, 신남동이 생기면서 기념으로 심어진 느티나무가 마을회관을 지키고 있다. 사람들은 오고가고 신남동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최근 70~80년대를 드라마화한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 되돌아 올런지 모른다.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김부열〉

07

남지철교와 500년 된 은행나무



남지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다리와 나무가 있다. 남지철교와 그 아래 은행나무이다. 그 나무를 심었다는 간송당 조임도 선생은 함안과 창녕을 대표하는 거유로 학문적 교량 역할을 하였다고 보면, 남지철교는 500년전 예정된 운명적 구조물이 아니었는가 싶다.

오른쪽 그림은 『용화산하동범지도』중 4번째에 해당하는 도판이다. 일명 ‘용하산수도’라고 불리는

데, 1607년(선조40년) 한강(寒岡) 정구(鄭逋),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선생이 함안의 용화산 아래에서 뱃놀이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사실을 1728년에 박상절이 조임도선생의 현손인 조홍엽에게서 『용화산하동범록』에 자신의 선조인 박진영의 기록을 발견하고 『근서용화산하동범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후 1744년에는 간송당 조임도 선생이 남긴 8폭의 병풍을 모사하여 (1) 용화암 (2) 청송사 (3) 도홍보

(4) 내내촌 (5) 경양대 (6) 시우포 (7) 평사면 (8) 창암사 8폭의 병풍그림을 1744년에야 『용화산하동범지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도관을 보이는 큰 나무는 간송당이 심었다고 후선생이 쓴 <징사간송당유행비>가 남아있는 은행나무로 보인다. 이 은행나무는 합강정과 청송사 그리고 내내촌에 나란히 어떤 위세를 자랑하고 있음은 공자님이 은행나무를 심은 뜻을 좇아가려는 학문하는 자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숨은 뜻이 임금이 불려도 나가지 않은 선비라는 뜻의 징사(徵士)로 불린 남명 조식선생의 뜻을 이어간 것을 기리는 것일까? 아니면 소리없이 세상을 울리는 징처럼 살았던 것일까? [출처 : 김부열, 남지닷컴]

도관과 사진을 비교해보면 남지철교만 추가되었을 뿐 신기하게 500년전 그대로이다.

이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조임도 선생에 대하여 『취산군지』 이사(異事)에 보면 망우당 유허비에 관한 이사와 함께 조간송 사우(祠宇)의 자미화(紫微花 : 백일홍나무, 배롱나무)에 대한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依舊簇立云趙潤松先生祠宇內有紫微花一樹 本先生手植而 屢世經驗則 其宗家運否則其本死幾年間之無枝葉 幾年後其家運復則 或一邊生芽惑中心出芽依舊簇立云云而(조간송선생사우내 유자미화일수 본선생수식이 누세경험칙 기종가운불칙 기목사기년간지 무지엽기년후 기가운복칙 흑일변생아 흑중심출아 의구족립 운운이)

조간송 선생님의 사우 안에 자미화(백일홍) 한 나무가 있으니 이는 선생께서 심으신 것이다. 여러 대(代)로 경험한바 그 종가의 운이 쇠(衰)한 즉 그 나무가 말라 죽어서 몇 해고 원 줄기와 가지와 잎이

없어지고 또 몇 년 후 그 집안 운이 돌아 온 즉 그 한쪽에 눈이 트고 혹은 중심에서 눈이 나와 옛날처럼 순이 무성하게 자라나더라고 한다.

위 기록처럼 간송 조임도는 유가적 학문 기반에 도가적 기상도 겸비한 학자였다.

조임도는 선조 18년(1585)에 태어나서 현종 5년(1664)에 죽었는데 자는 덕남(德男) 호는 간송으로 본관은 함안이며 입암(立巖) 식(植)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에게 학업을 닦았다. 승정 계유년(1633년) 봄에 기강(岐江 : 지금의 용산리)으로 옮겨왔다고 그가 쓴 「망모암기(望母庵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낙동강변 용화산(龍華山) 기슭에 소정삼간(小亭三間)을 지었는데 그 중 하나는 망모암이라 하였고 그 왼쪽 하나는 사월루(沙月樓)라 하였고 오른쪽 한 칸은 연어대(鰲漁臺)라 하였는데 이를 합하여 합강정사(合江精舍)라 하였는데 여기서 간송은 큰 뜻을 품고 가차없이 자신을 궁구(窮究)하면서 숨어 살았다.

광해조 때 정인홍이 오랫동안 권세를 잡고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도암(陶庵) 이언적(李彦迪)의 문묘종사(文廟從祠)를 반대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진계(陳戒)의 소를 올리고 마침내 미움을 받아 기강으로 피신, 몸소 고기를 낚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한다. 간송은 평소 존모(尊慕)하기를 곽망우(郭忘憂) 정동계(鄭桐溪) 이외재(李畏齋) 문모계(文矛溪) 유수암(柳修巖) 허미수(許眉未) 등 제공(諸公)이었는데 서로 도의풍절(道義風節)이 같았다 한다. 1660년 76세 때 망모암을 지었고, 1664년 2월 15일 향년 80세에 타계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천거로 벼슬이 내리기를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이르렀고, 현종 때 어사 남구만(南九萬)

의 서계로 행의(行誼)의 표장과 쌀과 콩을 하사 받았으며, 후에 사후인 1666년 사람들이 행의순영(行議巡營)에 글을 올려 사헌부지평으로 추증되었고 1721년에 함안 사람들이 상소하여 송정서원을 세우고 위패를 봉안, 송정서원(松亭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는 이광정(李光庭)이 서문을 쓴 간송집『澗松集』이 있다.

전해 오기는 임금님께서서 간송의 높은 명성을 듣고 망모암을 찾아왔더라고 한다. 그런데 간송은 짚신을 삼으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임금님임을 알았으나 짐짓, “선 빛 얻고 후 빛 갠다니!” 하면서 맞았다. 임금님이 하도 기가 막혀, “낙동강 구구봉(용화산)을 줄까? 낙동강 칠백리를 줄까?” 물었다. 간송은 구구봉을 달라고 하여 용화산을 하사 받았고 그리하여 용화산 구구봉이 함안 조씨의 소유가 되었다고 전한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남지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동아일보는 1931년 9월 15일 ‘남지교(남지철교)의 기공식’ 기사를 아래와 같이 실었다. 기사를 요약하면, 경남 창녕, 함안, 마산, 창원 등 각지의 실업가 및 관민유지 사이에 지방교통 및 산업계발을 위하여 오랫동안 맹렬한 운동을 하였고, 총공사비는 25만원(국고보조, 지방비, 지원민 1/3 부담), 15일 오후 2시에 거행되고, 준공은 1933년 3



좌) 부산일보 1928년 12월 20일
우) 부산일보 1930년 10월 4일



부산일보 1931년 9월 1일

월말 예정으로 적고 있다.

그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1928년 12월부터 부산 일보를 통하여 ‘수출이 성행하는 남지의 발전’이라는 기사에서 보인다. 즉, 1920년 도천수리조합과 1925년 영남수리조합설치인가 후 그곳에서 생산한 쌀을 마산항으로 연결되는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재조 일본인 대지주 가운데 조선총독부를 움직일 수 있는 神戸(고베) 출신 川崎武之助(가와사키 다케노스케, 천기농장(川崎農場)를 중심으로 정략적 결탁으로 이어졌다.

1930년 10월 4일 기사에는 남지교 건립을 추진한 요체가 창녕군이 아니라 마산상공회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31년 9월 부산일보는 창원군수와 마산상공회장이 ‘산업개발에 획기를 이룬 남지교의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남지교 가설은 마산항의 꿈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쌀의 산지 남지는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고 다리가설로 혜택받을 대 발전을 상세히 보도하고, 마산상공회도 방문하였다. 1933년까지 남지교의 준공 무렵, 1933년 1월 부산일보는 ‘대구에 빼앗은 남지교의 이용가치’ ‘동면상태에 있는 마산상인 분발할 때’라는 제목으로 상권확장과 마산항의 활로를 기사화한 것은 일제가 얼마나 쌀 수탈에 매달렸는가를 알 수 있다. 준공식



사진 : 남지닷컴

의 축사에 마산부윤(馬山府尹)과 마산상공회장이 축사를 할 정도였다. 그 결과, 1934년 4월의 기사와 같이 마산항은 남지교의 가설로 인해 엄청난 산업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1934년 4월 2일자 부산일보는 [마산항에 쇄도하는 쌀, 전년동기보다 5만석의 증가] 라는 제목 아래 그 원인은 나락값 상승과 남지교 완성 전국의 우수 신문과 지방지에서 집중 기사화한 것은 마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임을 증명하고 있다.

남지사람들의 앨범에는 1장이라도 없다면 남지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명절이나 기념일엔 기념사진을 많이 찍어 사진사가 대기해있을 정도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은 남지철교와 은행나무에 추억이 많이 남아 있다. 남지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를 읽어 보자.

洛東江

아침엔
안개 감돌아 오르고
저녁엔
노을이 피어 잦아 지는 곳

천만년 흐르는
푸른 물줄기
億萬怯 우뚝 솟은
저 절벽

이 언덕
저 들에서
아버지도 살으셨고
할아버지도 살으셨다

내 서 있는 곳
흙냄새 그윽하고
땀을 스치는 바람
이다지도 화사하고

산이여
들이여
내 이 땅에서 살고 지고
우리 다 함께
여기서 살고 지고

* 강홍운(1909-1999)
시집 [노방초] [노방조후집]

은행(銀杏)나무

낙강 물 위에 그림자를 띄워놓고
흐르는 세월 속에
저처럼 늙었느냐?

풍상에 가지 마냥 꺾이고
거구(巨軀) 텅 비어 거죽만 남아
아롱진 연륜에 새겨진 기록은
비에 씻기고 이슬에 닳여졌다

변천도 무상도 전란의 쓰라림도
이제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바위 위에 꿈틀꿈틀 얽힌 뿌리에
꿈도 맺히고 전설도 깃들었다

* 강홍운(1909-1999)

시집 [노방초] [노방조후집]

남지 철교

그게 그냥 다리가
가슴 몽클한 그리움이지.

가파른 난간 위로
누군가 두 팔 짝 벌리고,
성큼 성큼 깨금발로
건넜다더라.

어린 눈망울에
까마득히 높아만 보이던
그 엽음쇠 위로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렀는데.

누가, 참 누가
우리 여리고 소박한
꿈을, 그리움을 난도질 하고
추억의 보금자리
둥지째 들어내는가.

벼락 맞은
지양담 은행나무,

아직도 눈 시퍼렇게 뜨고
손 대려는 자 누군가
옹골차게 지켜보고 있느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철교는 남지다
남지의 텃줄이다
그리움의, 꿈의 우리 엄마다.

우리 모두
말 안해도 알고 있지 않은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느낌만으로 환히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냥 다리가 아니다
철교는, 남지 철교는.

- 사향인 2004년 2월

<김부열>



남지교(남지철교) 1931년 착공, 1933년 준공 - 국도 5호선 대구 마산간 교량



남지철교에서 바라본 용화산 능가사 절경 (사진 : 김부열)

08

교육공동체가 살린 남지초등학교 플라타너스 나무



지에 대한 차별적 교육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0년 7월 3일자, '昌寧郡南旨市發展과 公立普通學校設立' 동아일보 기사에서 이주목(李周穆)과 선구적 활동을 해온 분들의 뜻을 모아 주변 환경과 지리적 위치로 보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남지에 학교가 없는 것을 알렸다.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요구에 교육당국의 수용의사가 1920년 09월 29일 매일신보에서 '조선내학교증설' 과 같이 본격적으로 공립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후 1920년대 남지 선각자들의 줄기찬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위한 민족교육운동으로 1921년 5월 개교한 이후,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늘어난 학생들의 수용과 원거리에서 통학의 애로점을 호소하는 고곡지역의 분교운동이 일어나 1934년 간이학교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 1936년 4월 11일 '남지공립보통학교 신축기성회 총회'를 열어 2학년 증설과 내년 신축을 목표로 총 공사비 2만 5천원에 경남도 당국에 보조금 6천 4백원 창녕군비 7백 7십원 지역 민부담금 1만 7천원으로 정하고, 당선역원으로 회장 권경수, 부회장 김정호, 평의원 남보희외 14인 간사 정대수외 11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1925년 을축년 수해 이후 해마다 수해를 입는 학교를 안전한 지역에 부지 7천평을 확보와 2미터 성토계획으로 남지리와 마산리 중간지역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부지와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지지부진했다. 그때, 부회장직을 맡아 활동하던 김정호씨(위의 사

동포초등학교가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아동 교육을 위하여 세운 남지심상소학교(1916년)에서 출발하였다면, '창녕공립보통학교'(1911년)과 '영산공립보통학교'(1913년) 보다는 늦게 1921년 5월 개교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교육당국에서는 남지에 이미 일본인 아동들을 위한 '남지심상소학교'가 운영되고 있었기에 식민

진)가 신축부지내에 있던 자신의 땅 3,500평을 전부 기증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부가 늘어나 1937년 3월 31일 개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름다운 기부를 한 김정호씨에 대한 재조명과 기념비를 세워야 마땅하며, 함께 활동하였던 분들의 면면도 살펴 기려야 할 것이다.

당시, 남지에는 지역선각자들에 의해 1907년 마산정에 설립 운영중이던 대중야학원과 1922년 부터 남지노동야학회가 남지청년회를 중심으로 조선인들의 문맹퇴치와 배움을 위하여 민족교육운동에 조직적이며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지역단위 야학원과 노동야학회는 학교를 설립한 선각자들 스스로 기금을 출연하여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실천하였으나, 노동야학단체들이 대규모로 연합하며 일제의 침략정책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조짐을 보이자 일제는 동아일보 1932년 11월 29일자 ‘昌寧郡 馬山亭의 大衆夜學閉鎖, 八十兒童痛哭散會’기사와 같이 야학원의 폐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제출하였으나 인가를 해주지 않았고, 경찰과 주재소에서 야학교 전간부와 설립자 등을 불러서 조사와 야학을 계속하지 말라는 폐쇄명령을 내려 90명의 무산아동들은 쓰라린 가슴으로 귀가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차츰 남지지역에 무산계급의 아동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남지공립보통학교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이후 학교는 성장하여 2021년 2월 11,23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명문학교로 발돋움하였다.



남지초등학교 교정에는 플라타너스 나무 만큼 후배들에게 나라사랑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호국영웅 진두태 중위의 흉상을 건립하여 열과 혼을 기리고 있다. 진두태 중위는 1996년 3월, 6.25전쟁기념사업회에서 ‘100인의 호국인물’로 선정되고, 2001년 9월 호국영웅의 흉상이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 모셔져 있다. 그분의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1927년 경남 함안군에서 출생한 진두태 해병대 중위. 6·25전쟁 전까지 제주도 공비도발작전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6·25전쟁 발발 이후에도 원산상륙작전, 고성, 함흥지구 등의 전투에서 혁혁



또한 1934년 5월 4일 남지야학교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즉 일제의 교육정책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한 공을 세웠습니다. 1951년 3월 8일, 진두태 중위는 대관령 공격작전 중 수색소대장으로 정찰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매복해 있던 적에게 포위되었고 진두태 중위는 부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단독으로 적과 교전, 수명을 사살하고 장렬하게 산화합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합니다. 또한 고인의 모교인 남지초등학교와 출생지 함안의 호국공원, 전쟁기념관에 그의 흉상을 건립하여 진두태 중위의 살신성인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시대의 변화와 학교환경개선으로 학교에 나무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 속에 남지초등학교의 플라타너스 나무는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살아났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2003년 8월 22일,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이 운영하는 남지닷컴에 글이 올랐다. 나무를 사랑하는 교육자로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하여 조심스럽게 소개한다.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교육감과 함께>>교육감에게바란다

>>에 '학교교정의 플라타너스 별목반대' 의견을 제시한 글이다.

‘역사가 깊은 학교는 시설이 낡고 불편해도 현대식 신설학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이 교정의 수목입니다. 울창한 학교숲의 교육적 효과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학교의 교정은 아름다리 큰 플라타너스가 많이 식재 되어 있는데 근래에 도내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나무가 인체에 해롭다는 아무 근거없는 이유로 모조리 별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나무에다 장승을 조각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한심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중략) 우리나라에도 청주의 플라타너스거리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는 함안 칠북초등학교의 플라타너스를 들 수 있는데 방송사에서 촬영을 올 정도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일본꽃이라고 벚꽃나무를 무자비하게 별목해 버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의 어리석음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글월을 올리는 저가 근무하는 학교는 역사가 오래되어 정말 큰 플라타너스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학교앞 4차선 도로의 자동차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낙동강의 모래바람과 운무를 막아주며 우리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무는 곧 별목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행정지시(우리교육청 3무운동중 하나:플라타너스 없애기)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쾌적한 우리의 학교숲을 살릴 방도는 없겠습니까? 아름다리 나무동치에 의지에 숨바꼭질하는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늘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

서'결국,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별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남지초등학교와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학교숲이 되었다.

〈김부열〉



09

부자동네 명암을 지켜본 명지마을 느티나무



1917년 10월 26일 창녕 남지 낙화생 재배



명지 본동의 옛 이름으로 동리 뒷산이 해처럼 둥글게 생겨 해{日} 마을{村}이란 뜻이라 한다. 예전에 낙동강이 이 마을 앞으로 흘렀다 하므로 나루터 마을 곧 날물이라 불리었을 것이다. 나리{津}는 옛말{古語} [鏡]로 내{川}의 한 변형으로 나리{日} 나리{津} 나라{國}의 어원이 되었다. 후대에 한자의 뜻이 좋은 자로 바꾸어 명지(明旨)로 한 것이다. 곧 밝을 명(明)은 해, 날의 [日]과 통하고 지(旨)는 곧 마을, 촌에 통용되었던 한자이니 촌(村)자보다 좋아 보인다. 마을 앞 학계리 일대의 강가에 있는 들이 예전에는 소나무가 가득한 들이었으므로 솔밭들{松旨坪} 솔밭들이라 불리었다. 1920년대에 개간되어 왜밀(호맥)과 왜콩(땅콩) 수박등을 심게 되면

서 지금은 비닐하우스 물결이 일렁이는 옥토가 되었다. 남지방콩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남지민물회도 같이 알려졌다.

햇별 좋고 물 좋은 낙동강에서 난 민물회, 땅콩, 오이, 풋고추와 감홍시로 만든 비법의 초고추장이 마산권으로 진출하면서 남지명물이 횡집의 차림, 세트화 된 것이다. 거기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호황으로 마산이 전국 7대 도시로 도약하면서 남지도 구마고속도로, V자대교가 개통되고 일약 마산합성동과 마산역전엔 나루터 부근 횡집사람들이 민물횡집을 내면서 북적거리며 횡집과 바다회의 초고추장까지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맥콜과 롯데칠성의 비비콜이 120% 판매액이 신장되면서 야심차게 출발하였다. (주)농인은 천연보리에 맥주호프 9%, 코피엑스 6%를 첨가한 보리커피 ‘맥씨’를 개발하고 대리점 모집과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마신 보리커피 한잔! 농촌을 살찌운다! 농인(농인) 보리커피 “맥씨” 보리커피 국내생산 시판을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 명지마을에 ‘농공단지사업’이 추진되었다. 1983년 말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었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였다. 조성기간은 1987. 9. 18.~1989. 12. 20일 위치는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일원 단지규모 44,340㎡이었다. 입지여건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지IC(3.6km), 국도 5호선과 인접하여 교통망이 편리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출발했다. 세금감면을 비롯하여 각종 금융과 기술지원을 하면서 추진했지만 결과는 참담하였다.

그러나 너무 앞선 사업투자였고, 소비자의 기호 변화는 더 빨랐다. 제대로 판매도 해보지 못하고 (주)농인은 문을 닫고 말았다. 기억하고 찾기도 힘들 만큼 순식간에 사라졌다.

세상의 변화는 무쌍하다. 남보다 먼저 개발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한 것들이 더 많다.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밥보다 더 먹는 커피, 밥보다 더 비싼 커피를 먹는 추세를 감안하여 ‘디카페인’ 커피원두를 국산검정보리로 대체하는 보리커피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격세지감이다. 쌀 생산액과 커피 수입액이 연간 10조원으로 같아지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세상이다. 우리도 커피농사를 시작해야 하나....

〈김부열〉

남지농공단지에 야심차게 출발한 대표적 기업이 1987년부터 보리 음료시장이 급신장하는 추세에 따라 보리커피를 제조하면서 시장에 뛰어던 (주)농인이었다. 당시 콜라시장까지도 넘보던 일화(주)의

10

상대포 영남수리조합 느티나무





남지사람들에게 상대포는 영원한 소풍장소이다. 지금부터 50년전 남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당연시하며 상대포 제방으로 소풍을 갔다. '영남들'이라고 부르는 상대포 제방을 향해 걸어 걸어서 노래 부르며 갔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련수업과 군사훈련을 받던 때에도 목총메고 수통 차고 군가 부르며 행군을 했다. 남지리 밖에 있었던 신전리와 성사리쪽 아이들은 소꼴 먹이면서 종일 소타기 놀이하던 곳이기도 하다. 되돌아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상대포를 즐겨 찾아간 까닭은 넓은 들판의 조망과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곳이며, 1920년대에 만들어진 최첨단의 수리시설 탐방을 통하여 남지가 가진 지역적 환경과 농업적 특성을 살펴보고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라는 진로탐색 수업이었는데도 모르겠다.

남지는 낙동강 광활한 하천유역을 끼고 있었지만 홍수의 땅으로 주인이 없었다. 또 일제의 침략에 지속적이며 집단적으로 반발할 만한 토착 세력이 없어 무혈입성(無血入城) 할 수 있었던 신개척지였다. 즉 한일합병 이후 일본인들의 경제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과 근대적 소유권제도 시행을 명분으로 토지침탈을 시도하였다. 전국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단통치의 강압적인 정책을 취함에 따라 어수선한 상태였다. 이미 일본은 문호개방 이후 근대 산업기술을 받아들여 국가적 토목산



업이 발달한 상태에서 침략자 일본인들이 주목한 것은 쌀 생산을 위한 대농장 개척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쌀 생산의 최적지인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한 군산, 나주, 목포가 침략 1번지가 되고, 국도 1호선이 목포에서 시작으로 전국에 토지수탈의 앞잡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쌀은 경제의 척도였고, 산업의 근간이었다.

일제는 부산과 김해평야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마산과 진해였다. 마산에 정착한 일본상공인들과 결탁한 한반도 진출세력이 쌀농사가 발달할 수 있는 낙동강 하천유역을 정략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 침략적 토지수탈사업은 주인없는 낙동강 하천유역에 주목하고 마산과 가까운 창녕지역 도천과 영남수리조합을 정략적으로 결성하였다. 일본에서 정치력을 가진 관료들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를 움직여 수리조합사업에 관여하게 되고 막대한 토지를 장악하게 되었다. 지금도 일본 재벌로 성장하는데 기반을 쌓은 대표적인 사례가 영남수리조합 300만평 가운데 대지주 7인 중 일본 神戸(고베) 川崎武之助(가와사키 다케노스케, 천기농장(川崎農場)개성사(開成社)가 150만평을 차지하고, 나머지 6인이 일본인이고 한국인 1명이 소유한 땅은 20만평 정도였다. 이로써 영남수리조합의 중심지인 남지는 일본인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 대농장에서 수확한 쌀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국도 5호선 건

설과 남지철교의 가설로 인해 마산항은 엄청난 산업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게 되게 하였다.

도천수리조합은 1920년 3월 19일에 설치인가를 받고, 영남수리조합은 1925년 3월 5일 조선총독부로 인가를 받아 운영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대지주의 대농장 운영에 불만이 쌓여 1923년 조합비 부과에 대한 불만과 소작료 인하를 요구한 압태도 소작쟁의와 같은 농민운동이 1927년 12월 7일 남지에서도 발생하였다. 이른바 ‘불납동맹(不納同盟)’으로 영남수리조합 구역 토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의 천기농장(川崎農場) 남지 개성사(開成社)에 300여명의 군중이 몰려가 소작인들의 요구조건과 불평등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수확고의 80%~90%를 바치라고 하니, 이에 응할 수 없다며 남곡면 등 5개면 수백명이 장마면 유리에 모여 ‘소작인동맹’을 결의하고 서명 날인 한 후, 7일 오후 3시 천기농장 개성사에 300명이 집결하여 항의하였다. 그러나 지주들은 소작인들의 요구를 듣고 억울한 사람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온하다며 해산을 강제하였다. 이에 이 자리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지주에게 생명이 달린 소작인에게는 별도리가 없다며 오후 7시경 일제히 소작료 불납의 사실을 발표하고 해산하였다고 전한다. [출처 : 김부열, 1920-30년대 남지사람들의 항일운동]



그 후 1928년 남지정진단의 해체와 1934년 조선 농민총동맹 창녕농민조합을 강제 해산당한 남지사람들의 일제에 대한 불만과 반항의식은 고조되어 갔다. 우연한 사건인지 몰라도 일제에 대한 분노가 1935년 2월 27일 영남수리조합 공사장에서 폭발하였다. 장마면 대봉리 공사장에서 당일 오후 7시 30분경 노동자 170명이 단체로 인부감독 일본인 등정(藤井)과 전원(田原)을 부상으로 난타하여 2명의 생명이 위협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등정은 두골이 부서져 생명이 위협하였다. 난타당한 원인은 임금전표를 불공정하게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창녕경찰서와 남지주재소에서 30여명을 검거하여 취조한 결과, 용의자 윤주립(尹周立)외 12명 체포하여 창녕경찰서로 인치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공정 임금지급에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침략적 사고방식과 임금착취에 대한 불만 누적과 남지지역에서 끊임없이 농민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적 항거라고 볼 수 있다. 서슬 퍼런 일제강점기, 오직 노동자의 삶과 맨주먹으로 불공평에 맞서 싸운 그분들은 [남지사람들]의 얼이다.

또 동아일보 1935년 3월 1일자, 1935년 3월 8일자 영남수리공사에서 감독을 난타 중상 상대포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는 1927년 12월에 일어난 ‘불납동맹(不納同盟)’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울분에 찬 3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소작인들의 요구조건과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또 1935년 2월에 영남수리조합 공사장에서 폭발한 불공정에 항거하여 170여명의 노동자가 일본인 인부감독을 난타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후 대책을 협의하는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김부열〉



11

성사고개 아지마을 느티나무



남지읍에 제방이 축조된 1940년 이후 태어난 남지사람들은 아래 1917년에 제작된 남지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남지면’이 아닌 ‘남곡면’이라 불렀는지 이해될 것이다. 조선 정조 때(1789년)의 기록으로 각 방면의 인구와 호수를 기록한 책인 『호구총수』에 보면, 아지리(阿支里)는 본래 창녕현의 땅으로 본남곡촌(本南谷村)과 아지촌(阿支村)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다. 이곳을 본남곡촌이라 기록하고 남곡면의 소재지가 아지였다는 것이다. 그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 지도에서 두가지 부분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호개방 이전 조선시대에 남지는 지도상 원A 표시처럼 남지리 옷개나루를 중심으로 촌락 일부가 있었을 뿐이지 용산리에서 학계리를 거쳐 마산리와 도천면 송진까지 낙동강의 범람에 따라 형성된 전형적인 하천유역이었다. 그래서 하얗게 아무런 표시도 없고 군데군데 공동표지가 보일 뿐이다. 즉, 조선시대 영산현 관할의 낙동강 조창은 길곡을 거쳐 진주방향으로 송진 쇠나리, 용산 창나리, 창아지 앞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출처 : 국가기록원 1917년 남지지도]

당시, 지도를 보면 영산에서 남지 방향의 도로가 없고, 장마를 거쳐 고곡, 칠현과 낙동강변을 따라 의령 박진나루를 거쳐 다시 의령 신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도로가 영산과 의령을 잇는 주요 선로였다. 남지철교도 개설되지 않았던 때다.

둘째, 지도상 원B는 지금의 창아지로서 조창이 있었던 아지라 볼 수 있다. 부산에서 진영과 수산을 거쳐 진주를 향하는 낙동강 수운(水運)의 중요한 기점이었다.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용산리앞 기강나루와 영산현으로 연결되는 육로가 있는 조창이 바로 창아지였던 것이다. 어쩌면 육로로

운반해야 할 것은 기강나루에서 창나루로 연결되고 다시 영산과 창녕으로 연결된 육로가 있는 창아지를 경유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낙동강 강변에는 위치한 것은 창아지라 칭하고, 두곡을 거쳐 장마로 넘어가는 육로에 구진산성 아래는 고곡리, 건너편은 본남곡촌이라 칭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은 남곡면 초대 면장이 아지리에 살았던 성문호(成文鎬 고종 11년:1874~1935)였다는 사실이다. 성문호 면장의 재직 연도나 기간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집무 장소는 자기 사랑채였다고 한다. 앞이 가려있는 동리라 하여 아까리라 부르던 것을 [아지]로 차차한 것인데 앞실 아까리가 서로 그 음이 비슷하므로 조선조 말에 본남곡촌과 아지촌이 합해지면서 이동명이 아지리로 된 것이다. 아지리의 북쪽에 있는 산이 옥녀봉으로 이 산이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 하여 산이 둥글어 여자의 둥글고 부드러운 선을 가진 것에서 연유되었으니 마찬가지로 아지리의 [阿]도 다분히 옥녀봉과 연관된 지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개는 예전에는 넘기 힘든 분수령 같아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흔히 남지 사람들은 고곡지구를 산너메라 부른다. [출처 : 남지읍지]



전설인지 모르나, 아지리 앞쪽에 700여년 전에는 마을 앞의 늪을 용이 등천하였다 하여 용강이라 불리고, 풍수적으로 아지리 뒷산이 옥녀봉으로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 길지라고 한다. 아지 뒤산 신전과 연결된 개비리 능선에 지역출신 인재들의 선조들 산소가 있는 것으로 볼 때, 700년전 성인이 느티나무는 낙동강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 역할과 쉬어가는 쉼터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성인으로 추앙받던 고려말 ‘신돈’ 이후 상스러운 기상이 서려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 또 성사에서 넘어오기 힘든 고개라 남지사람들은 고곡지구를 산너메라 부르는데 강변사람들과 구분하려 함일까?



성사고개에서 천천히 내려오면 굽이굽이 한참 돌아서 내려온다. 내려오는 길 오른쪽에는 큰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깊은 골짜기가 있고 아랫마을 사람들 농사를 도와줄 수원지가 있고 다랭이 계단식 논처럼 층층이 내려간다. 길지(吉地)라서 그런지 고즈넉한 가을 황금들판에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느티나무 자태가 범상하지 않다. 이 나무를 지나치면서 든 느낌은 먼 길을 걸어온 길손들이 몸을 다스릴만한 그늘과 사람들을 품어 살릴 기품이 있어 보인다. 예로부터 전해져온 풍속이 남달랐는지, 작은 동리지만 품성들이 나무 아래 자라면서 기상을 닦았는지, 마을사람들의 도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자와 비석이 있어 소개한다.

남지읍 고곡리 살구정에 가면 모은정이 있고 앞에 ‘윤씨부자세관정현경인난시혜비(尹氏父子世官正鉉庚寅亂施惠碑)’가 있다. 비석의 유래는 6.25 전쟁으로 피난갔던 사람들이 아지출신의 윤씨부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와 은혜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세운 것이다.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미군이 북한군에게 뚫려 고곡지구가 점령당하였다. 1950년 8월 3일 국방부와 미군은 남지면 근처 주민들에게 소개명령을 내려 밀양 수산 방향으로 피난을 재촉하였다. 이에 따라 남부 주민들은 피란길에 올랐다. 금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주일 먹을 양식만 가지고 피난을 떠났다. 4일경에는 줄지은 피난 대열은 꼬리를 물고 부곡의 험준한 벼랑길을 넘어갔다. 검문을 하던 미군과 국군에게 위험한 물건과 이동에 불필요한 것은 버렸다. 훗날 비석을 세우지고 주창한 손관주(당시 61세)도 10여명의 식구를 이끌고 밀양 초동면 신희리 초동 수리조합 저수지 제방에 8월 8일 해질 무렵 도착했다. 이미 수천명의 피란민이 제방 위에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때 6척의 큰 키에 건장한 40대 농부(윤정현씨, 당시44세)가 잡자리가 불편한 피란민들을 불러 보리짚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윤씨는 제방 아래쪽 독산 마을주민으로 2일째 보리짚을 피란민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그날 밤 초동면 일대에 뇌성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며 폭우가 쏟아졌다. 피란민들은 폭우를 피하기 위하여 독산마을로 모여 들었다. 윤씨는 피란민들을 자기 집방과 처마 밑까지 자리를 깔아 주었고 이웃 10여 가구에 분산시켰다. 밤잠을 자지 않고 피란민 짐을 지켰고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죽을 쑤어 주었다. 알고 보니 고향이 아지마을이었다.

다음날, 윤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윤씨의 만류에도 비를 맞고 제방으로 나섰다. 초동제방에

자리를 잡은 피란민들은 10일쯤 지나자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틈만 나면 마을을 나와 피란민 속을 살피던 윤씨가 이날부터 창고를 열었다. 보리를 쪼개 보리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팥감 소금 된장까지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윤씨로부터 식량과 찬을 얻은 피란민들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다. 매일같이 윤 씨의 집 창고 앞에는 자루를 든 피란민의 줄이 이어졌다. 1개월 남짓 만에 윤씨 창고에 쌓여있던 100여 섬의 보리와 10여섬의 쌀이 동이 났고 장, 소금, 팥감도 모두 떨어졌다.

윤씨가족도 보리등겨로 죽을 쑤어 먹기 시작했고 당시 이미 90이던 윤씨 부친 세관 씨를 위해 남겨 두었던 쌀마저 피란민 중에 있는 병든 어린이와 노인을 위해 모두 나누어 주었다. 창녕사람들이 피란을 마치고 귀향한 것은 10월 초순이었다. 고향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손판주(孫判周)씨는 윤정현씨가 생각났다. 1956년 11월 윤씨를 위한 위로연을 갖기로 하고 윤 씨의 선덕을 기억하는 주민들에게 모여 달라는 유인물을 군내 각 마을에 돌렸다. 손씨의 제의는 며칠 만에 큰 호응을 얻어 남지를 비롯 영산 계성 장마 도천 길곡 등 6개 읍면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윤씨의 은혜를 갚는다고 곡식과 돈을 갖고 개별적으로 윤씨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했다 하며 이 기회에 모은계(慕恩契)를 조직하여 윤 씨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살구정에 1973년 12월 은혜를 사모한다는 모은정을 세우고 앞에 비각을 지어 시혜비를 세워 매년 그를 기리고 있다. 또 모은계 활동 상황과 계원 명단을 기록한 『창선록』도 발간하였다. [출처 : 창녕문화원]

〈김부열〉



동아일보 1977년 12월 16일

12

남지읍 반포초등학교 플라타너스 나무



1008번 지방도로에 대한 추억이 있다. 남지읍 칠현리는 창녕에서 가장 늦게까지 누에고치 수매를 한 곳이다. 33년전 누에수매와 대금정산을 위해 아침 6시쯤 칠현리까지 비포장도로를 타고 가면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돈 가방(5백만원 가량)을 단단히 묶고 달렸다. 정신없이 달리다 뒤돌아보니 돈 가방이 없었다. 혼비백산 놀라 정신없이 되돌아가니 다행히 길 중간에 떨어져 있어 낭패를 면한 기억이 있다. 돈 가방이 떨

어진 이유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갈길 위를 달리니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도 타닥타닥 바퀴가 튼에 따라 돈 가방이 조금씩 풀려 빠진 것이었다. 그 후로 돈 가방은 반드시 목에 두르고 다녔다. 키 큰 이태리포플러 가로수와 자갈길 달리던 그때가 그리운 이유는 뭘까?

그 길을 오고 가며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왜? 다른 지역은 아스팔트 포장을 해주면서 1008번 지방도로 중 남지읍 고곡에서 월상까지 구간을 비포장도로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할 정도로 궁금했다. 상습적인 낙동강의 범람이 아스팔트 포장을 방해하였나? 창녕군 내 제방 위에 도로까지 포장해주면서 유독 먼지 풀풀 나는 비포장도로 상태로 둔 월상에서 대곡, 반포, 칠현에 이르는 마을사람들은 데모도 한번 안하는 이유는 뭘까? 심지어 이 도로는 포장하지 않는 이유가 6.25전쟁의 기억으로 군사 전략적 목적에서일까? 생각도 들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1008번 지방도로는 해방이후 50년 동안 포장되지 않았다.

그러다 낙동강연안개발사업이 추진되고 1994년 6월부터 총사업비 195억 6천만원을 들여 삼부토건(주)에 맡겨 착공된 박진교는 교량길이 810m에 접속도로 5천 990m 등 총연장 6천 800m에 이르고 교량폭은 10.5m에 도로폭은 8m로 건설됐다. 6년 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0년 9월 5일,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와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를 잇는 박진교 가설공사가 준공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창녕과 의령 양 지역 주민들은 40km의 거리단축으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절약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양파·마늘 등 농산물 수송원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행정, 문

화교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해방 후 55년만에 월상에서 고곡까지 새로운 길이 뚫림에 따라 진주시를 기준으로 서부경남과 전라도 지역과의 교통이 쉽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0년동안 비포장도로로 그대로 둔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던 이유가 낙동강의 범람 때문이다. 반포리는 반개라고도 불리었는데 이것은 이 일대의 들판이 낙동강변이기 때문에 항상 강물이 드나들어 반쯤은 물에 잠기어 있었기에 반개라 불리었다 한다. 그러므로 반포의 「泮」은 곧「半」과 같은 뜻으로 통용되니 곧 「泮浦」는 「半浦」이며 좋은 글자의 지명으로 쓰인 것이다. 또 반포들이 넓은 들이며 벌이므로 「泮, 半」은 들[野], 벌(伐)의 뜻을 가지는 나라의 옛말 「벌」의 차자(借字)로도 볼 수 있다. 「벌」은 「火·伐·弗·不·發·八·……」 등등으로 차자되었다. [출처 : 남지읍지]

개비리에서 박진으로 향하다 오랫동안 방치된 학교를 한창 보수하고 있어서 들렀다. 올해 9월 말쯤 캠핑장과 키즈카페로 문을 연다는 얘기가 반갑게 들렸다. 1999년 3월 폐교 이후 한동안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제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더 반가운 것이 학교 운동장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 활용하여 캠핑장을 꾸민다는 것이었다. 리모델링하고 있는 운동장이 궁금해졌다. 아마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운동장에 늘어선 오래된 플라타너스들도 기뻐하리라.

반포초등학교는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 603번지에서 1941년 7월 25일 남지공립국민학교 부설 월하간이학교로 인가되고, 1945년 9월 1일 반포국민학교로 설립 인가와 1946년 10월 30일 개교하였다. 반포국민학교로 개교하면서 월하간이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한다. 1950년 3월 1일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50년 6.25전쟁때 교사가 불타 버려 다음해 2월에 임시 교사 4교실에서 수업을 하였다. 농촌 인구의 증가로 1969년에는 8학급이 되고 월상분교장은 5학급이 되었다. 1984년 노후 목조교실 4개를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개축하는 등 발전하면서 학구내 아동들을 교육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결국 1999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가슴 아픈 일이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낙엽 큰키 나무로 전국의 도로나 공원에 가로수로 심는다. 높이가 50m, 지름 1m에 이르며, 수피는 세로로 갈라지면서 작은 조각으로 떨어진다. 잎은 마주나며 넓은 난형으로 3-5 갈래로 얇게 갈라지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드문드문 톱니가 있다. 꽃은 4-5월에 암수한그루에 피며, 수꽃은 가지 옆에 달리고, 암꽃은 연한 녹색으로 가지 끝에 달린다. 열매는 9-10월에 익으며, 둥글고 지름 3cm정도다. 버즘나무와

비교하여 열매가 한 개씩 달리고 잎 중앙 열편의 세로가 가로보다 긴 특징으로 구분된다.

낙엽 큰키나무다. 높이가 50m, 지름 1m에 이른다. 수피는 어두운 갈색으로 세로로 갈라지면서 작은 조각으로 떨어진다. 잎은 마주나며 넓은 난형으로 3-5개로 얇게 갈라지고, 폭 10-20cm,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드문드문 톱니가 있다. 어린잎은 양면에 털이 많으나 점차 털어지고 뒷면 맥 위에만 짧은 털이 남아 있다. 꽃은 암수한그루에 피며, 수꽃은 가지 옆에 달리고, 암꽃은 연한 녹색으로 가지 끝에 달린다. 열매는 수과가 여러 개 모여 지름 3cm정도의 공 모양을 이룬다.

꽃은 4-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익는다. 가로수나 녹음수로 도로변이나 공원에 식재한다. 원산지인 북아메리카에서는 감기, 기침, 피부병, 부인병, 위장병 치료제로 사용한다.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시원한 그늘이 드리운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전부터 가져온 구상을 펼쳐 본다. 2006년~200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낙동강, 국난극복의 숨결을 찾아서’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개척한 트레킹 코스의 중간 기점으로 舊)반포초등학교가 활용하면 어떨까? 길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포플러나무 아래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펼쳐볼 수 있도록 꿈꾸어 본다. 천혜의 아름다운 낙동강과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언택트 시대를 초월하는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의 체험학습장으로 미래의 주역들이 신라의 화랑처럼 힘찬 호연지기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단계 남지철교에서 출발하여 낙동강을 따라 남지읍 용산리 창나루 개비리까지 2단계 개비리 입구



에서 용산배수장을 거쳐 영아지까지 벼랑길을 거쳐 3단계 영아지에서 舊)반포초등학교까지 4단계 舊)반포초등학교에서 박진전쟁기념관까지 연결한다면 좋은 트레킹 코스가 될 것이다.

공하리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 코스의 중간지점이며, 영아지부터 박진전쟁기념관까지 트레킹 중 좋은 체험장이 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적 입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늘 깊은 플라타너스 나무를 잘 보전하고 활용하여 옛날 반포초등학교처럼 아이들처럼 환하게 웃고 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 코스가 낙동강 국난극복의 체험학습의 연결벨트가 되고 舊)반포초등학교를 잘 활용한다면 국토사랑과 민족통일의 교육장으로서 역할과 활력을 제

〈김부열〉



13

남지읍 반포마을 느티나무 세 그루



반포리는 낙동강변이기 때문에 항상 강물이 드나들어 반쯤은 물에 잠기어 있었기에 반개라 불리었다는 말처럼 태풍이나 호우가 내리면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었다. 오죽하면 1965년 7월 25일 마산일보에도 수마가 할킨 자국으로 표현했을까?

사실, 남지읍 방수제 문제해결은 지지부진하였다. 이유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였다. 1925년 을축년과 1936년 경자년의 기록적인 폭우 쏟아지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 나라는 해방과 독립을 맞이했지만, 물난리는 계속되었다. 이에 일부 남지리 구간만 1939년 착공하여 1940년 일부 혜택을 주었지만, 그마저도 1965년 큰 비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제방이 터지고 무너져 남지리사람들은 피수대로 피난을 갔지만, 반포지구에서 사람들은 산 쪽으로 피할 수 밖에 없었다.

상을 초월하였다. 읍에서 비상연락이 되도록 집을 떠나지 말라 하기에 피난을 가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 전화를 받고 있다는 얘기에 미안하였다.

사명감에서 가족과 함께 피난하지 못한 난감한 목소리는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늘 미소 가득한 분이기에 문득 얼굴이 그려진다. 그래서 반포리에 가보면 1008번 도로변 보다 높은 산쪽에 마을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이유를 알게 된다. 창녕군에서 지정한 반포리 노거수 느티나무도 마을 안쪽에 초입에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관 가운데 지정받지 못한 두 그루가 한데 어울려져 있고, 더 안쪽 마을에 가보면 팽나무 한 그루도 있었다. 2000년 9월, 박진교 준공과 함께 반포제방도 잘 정비되어 물난리에서 해방되어 반포리 안쪽 마을보다 바깥쪽 도로를 따라 마을 형성이 더 잘 될 것 같다.



사진 : 하동철, 부곡 인교

1987년을 전후로 여름에 큰 장마와 호우로 상류 지역에서부터 물난리가 나고 남지읍 전 지역이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을 때다. 물난리에 대비하여 남지읍사무소에 비상대책반을 만들고 각 리동의 동장이나 영농회장과 부녀회장과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전화를 일일이 걸어 수위나 홍수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때 기억이다. 반포리 마근 부락에 리장님에게 전화를 하니 빨리 전화를 안 받아 한참 기다렸는데 통화가 되었다. 수화기에서 흘러나온 첫말이 상

반포리 노거수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바라보니, 젊은 여성 한 분이 오셔서 부탁한다. “혹시 행정기관에서 나오셨으면 느티나무에 벌레가 많은데 방역을 좀 해주세요”

하길래 우리 동네 일꾼인 창녕 군의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돌아 나왔다.

코로나시대라서 그런가? 참! 민감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1970년대 농촌에서 부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던 누님들 생각이 났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 되었지만, 시원한 그늘나무 아래서 ‘홀치기’하던 모습이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염색할 부분을 묶어서 일 본으로 보내는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홀치기를 다른 말로는 오비(おび)라고 했다. 오비(おび)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통용되는 시절이었다. 지금 찾아보니, 기모노(着物 きもの)의 허리띠의 매듭을 오비

(帶おび)라 이해된다. 그때 그 시절 한 동네에 남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고된 농사와 돈벌이를 위하여 밤낮없이 흘리기 감는 소리가 들렸다. 다듬이 소리는 간데 없어졌다.



사진 : 하동철

옛부터 마을 정자나무는 특별한 전설이나 역사가 전해 내려왔다. 또 마을 공동체의 상징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의 향약이나 두레와 같은 전통이 살아 있는 지역에 가면 대부분 큰 정자나무 근처에 서당이나 경로당, 경모당, 마을회관이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이후 도로 확·포장으로 고난을 겪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남포동 경로당의 느티나무처럼 병충해와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민원

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 뿌리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이는 지경에 있어 나무가 죽는 사례도 있다. 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바람에 쓰러지거나 침수를 당하여 베어져 점점 수난을 당하는 추세다. 지자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때이다.

예전처럼 길손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정신과 품격을 보여주며, 고향의 이미지와 풍경을 결정하는 상징물로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진왜란때 홍의장군을 도와 화왕산성 전투에서 왜적을 물리친 성안의(成安義)의 자(子) 성이성(成以性) 부사의 주도로 조성한 전남 담양의 관방제림처럼 후세에 전해져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보호받는 나무도 있다. 창녕군의 나무는 지역자산이다.

〈김부열〉



14

6.25전쟁을 들려준 대곡마을 느티나무





舊)반포초등학교에서 길게 뻗은 도로로 쪽 달려 오다 솔터(소나무 군락지)를 지나 강쪽으로 제방을 쌓은 흔적이 있는 곳부터 대곡마을이다. 대곡마을 초입에 큰 자연늪이 있는데, 창녕사람들 보다 외지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곳이다. 자생연꽃으로 유독 연분홍빛이 좋으며 연밥도 튼실하게 씨알이 굵어 탐내는 사람들이 자택질을 할 정도다. 또 민물낙시를 즐겨하는 소위 ‘꾼’ 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찾는 이가 많다. 마을 초입에서 한참을 진입해 보면 대곡이라 부른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동네가 크고 넓다.

본래 명칭은 남곡면(南谷面)의 대곡촌(大谷村)이었다. 서북부 지역으로 남쪽은 낙동강에 닿아 있으나 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로 강에서 골짜기 안까지는 2km가 되어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골짜기이다. 서편으로는 월하리가 있고 동편으로는 산간지로 고곡리 북실과의 사이에 인가가 없는 산지만이 있다. 이렇게 큰 골짜기 안의 마을이라 한실로 불렸다. 낙동강 남쪽의 들은 모래땅으로 땅콩과 왜밀 등을 예전부터 많이 재배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수박, 소채 재배가 주류를 이룬다. 마을 앞에는 큰 늪은 대곡늪으로 여름이면 연꽃이 많이 피며, 이 늪의 서쪽들을 고을터, 남일 장터라 부른다. 예전에 큰 장

터가 있어 이곳에 장이 섰다고 전해 오고 있다.

낙동강이 지금의 흐름과는 달리 북서쪽에서 월상 마을에 바짝 붙어 하담 서편 기슭으로 흘렀을 것이며, 그때 강 상류를 다니던 배들이 이곳에 닿을 내리는 선창이 있었을 것이고, 자연히 나루터에 사람이 모여들고 장이 서고 따라서 각종 화물을 사고 파는 장터가 있었기 때문에 남일장터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이다. 대곡늪의 서편 옆에 있는 마을이라 늪가라 부른다. 한자로는 하담으로 쓰는데 [荷]는 연꽃 하, [潭]은 물 맑을 담이니 바로 연꽃이 피어나는 물 맑은 연지(蓮池)를 뜻한다. 하담이란 아주 좋은 지명을 지은 사람은 1640년경 이곳에 입향하여 복거(卜居)한 하담(荷潭) 성창우(成昌遇)로 여기에 와서 하담정을 짓고 학문을 닦으며 말년을 보냈던 것이다. [출처 : 남지읍지]

대곡늪 연꽃을 보니, 염화미소(拈華微笑)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라 한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실 때,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자 마하가섭이란 제자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어 진리를 전해 받았다 한다. 연꽃은 탁한 연못에서 피어나는데 꽃은 아름답고 깨끗하기 그지없다는 뜻을 깨달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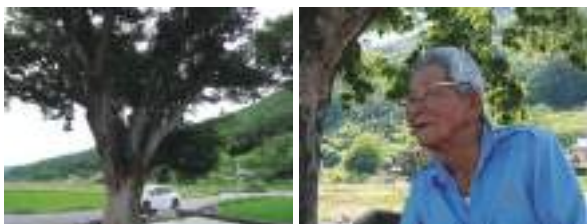
복숭아처럼 볼이 붉은 듯한 연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삶아 주시는 연뿌리(연근)을 먹을 때, 얇은 비단실처럼 빠져나오는 것이 신기하여 쪽쪽 널리며 먹던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겨울엔 연밥을 털어 칼바람 부는 상대포 제방에서 구워 먹던 생각도 차디차다. 그때는 왜 그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고팠을까?



사진 : 창녕군 블로그

연꽃은 아시아 남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가 원산지이다. 연못의 진흙 속에서 자라며 잎은 뿌리줄기에서 나와서 높이 1~2m까지 자라며 잎자루 끝에 달리고 둥근 모양이다. 또한 지름 40cm 내외로서 잎 표면은 미세한 잔털이 뺨뺨이 있어서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물을 밖으로 흘려 버린다. 잎맥은 중심에서 밖으로 길게 퍼지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자루는 겉에 가시가 있고 안에 있는 구멍은 땅속 줄기의 구멍과 통한다.

꽃은 7~8월에 피고 백색 또는 홍색이며 꽃줄기 끝에 1개씩 달리고 지름 15~20cm이며 꽃줄기에 가시가 있다. 꽃잎은 타원형 모양이며 수술은 여러 개이다. 꽃받침은 크고 편평하며 지름 10cm 정도이다. 열매는 별집처럼 꽃받침의 구멍에 씨가 검게 익는데 이것을 연밥이라고 하며 까서 먹기도 한다. 연은 씨앗 채로 식용하고 잎은 연잎차로 또는 연잎밥의 재료로 사용하며 뿌리줄기의 굵어진 부분은 연근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 좋은 반찬의 재료가 되는 쓰임새가 많은 식물이다.



지난 2018년 6월에 창녕문화원에서 기획한 『창녕이 겪은 6.25전쟁 수기』를 수집하고자 박진전투의 중심이었던 월상마을부터 시작하여 대곡마을을 거쳐 전투가 치열했던 대봉마을 등지를 돌았다. 6.25전쟁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여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얘기해주신 대곡마을의 정기진(1929년생) 어른께 감사하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느티나무도 6.25전쟁을 기억하는 듯 서 있다.

윤혁근 : 70년전 6.25전쟁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피난생활과 군대간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정기진 : 우리 큰딸을 피난 가서 낳았기 때문에 피난생활을 기억한다. 7월 2일날 밀 양 새터 박씨 재실에서 낳았다. 비가 엄청와서 고생했다. 폭격 때문에 밤에 불을 못 켜게 해서 12시쯤 불빛을 가려서 낳았다. 피난은 고곡으로 영산으로 쇠나리로 갔다 도롱골 지나 길곡 오호리에서 아내가 산후조리로 굉장히 아파해서 고생 고생했다. 부곡으로 밀양 자터둑으로 가서 피난을 했다. 그 동네에서도 나가라고 했지만, 산후조리중인 사람이 있다고 아버님이 부탁을 해서 그곳에서 지냈다. 그러다가 지역방위대들이 와서 밀양에 징집되어 재실앞 독에서 배 열해 섰다가 용변을 본다고 둘러대고 있다가 몸을 피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군대를 갔다.

고향에 와보니 인민군도 많이 죽어 있고 미군도 많이 죽어 있었다. 산 위에 호를 파고 전쟁을 하다가 그런 모양이더라. 동네가 전부 소각되었더라.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았다. 황철은 백씨도 행방불명되었다. 월상 낙동강전적비 서 있는 곳에 미군들이 인민군들에게 포위되어 엄청나게 죽었다.

군대는 부산보충대로 가서 춘천보충대로 쉬어가서 강원도 철원 제2미사단으로 배치되었다. 저녁에 위장하고 중 무장하고 나가면 인민군들과 서로 싸우다 한 사람씩 사라지고 해서 시체를 찾으려 가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7월 27일 휴전하고 밤 12시가 되고 산천이 조용해지더라. 그 후 39사단으로 배치되어 전역했다. 39사단 유선반 통신대장도 했다.

정기진씨는 남지박진전투를 목격한 분은 아니다. 다만 그분이 동네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낙동강 돌출부 사수’ 『한국전쟁 기갑전사』에 나오는 서술과 비슷하다. 요약한 전투상황은 다음과 같다. 창녕-영산(창녕군 영산면)일대의 낙동강 돌출부를 방어하던 미 24사단은 8월 5일 밤부터 북한군 4사단의 공격을 받아 내고 있었다. 북한군은 수차례 전면공격화 측면침투를 감행한 끝에 낙동강을 건너 영산일대 까지 진출했다.

북한군은 일부 전차와 보병부대가 도하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군의 배치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낙동강의 수심과 도섭 가능지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낮에 소수의 인원으로 강 바닥을 체크하고 야간에 여러 지점을 이용해 동시다발적인 도하를 실시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보다 북한군의 정찰조들은 치밀했고 일부 수중교는 점령지의 주민들을 강제동원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렇게 북한군 4사단은 물론이고 다부동 방향의 15사단의 일부 부대도 도하점에서 은밀히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이 돌출부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8월 17일 1임시해병여단이 역습을 가해 대봉리(창녕군 장마면) 북단 102고지를 차지하여 북한군의 재역습에 대비하였다. 17일 저녁 무렵 북한군 4사단은 T-34

전차 4대를 앞세워 왔고, 1임시해병여단에 배속되어 있었던 M26 퍼싱 3대와 75mm 무반동총, 3.5인치 로켓포 2문을 동원하여 방어선을 갖추고 항공지원을 요청했다.

대구비행장에서 출격한 F-51 머스탱 3대가 지원에 나섰으나 큰 효과는 없었고 T-34는 계속해서 1임시해병여단 앞으로 다가왔다. 선두전차가 화망에 걸려들자 먼저 3.5인치 로켓포가 불을 뿜었고 이윽고 75mm 무반동총도 사격을 가해 전차에는 크게 구멍이 났으나 아직 기동이 가능한 상태로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그 불가사의한 난동은 M26 퍼싱의 근거리 사격을 마지막으로 끝날 수 있었다. 나머지 3대의 전차도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공중지원에 모두 파괴되었고, 북한군 4사단은 여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으며 끝내 전투력을 복원하지 못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이 이야기는 대봉전투에서 오른팔을 잃어버린 러스터씨가 전투 참가했을 때와 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민족상잔의 전쟁이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남지사람으로서 쓸쓸한 몇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지유채축제’라 부르면 될 것을 굳이 ‘창녕낙동강유채축제’라는 지리적표시가 불분명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이다. 축제를 하면서 지역 명칭을 빼놓는 일이 있는가?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부르며 대한민국 올림픽이라 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 ‘낙동강 돌출부 전투’에 대한 명칭이다. 낙동강전투는 6.25전쟁때 최후의 방어선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당시는 유엔군이 주도한 전쟁상황이라 그들의 전투적 시각



마산일보 1950년 8월 21일



마산일보 1950년 8월 22일

으로 부른 명칭이지만, 그 후 '1차 영산전투', '2차 창녕전투', '창녕 박진지구 전투'라고 부르는 명칭 어디에도 남지가 없다.

바이다.

〈김부열〉

필자 의견으로는 '남지박진전투'가 제일 합당한 명칭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전투는 1950년 8월 2일 이후 9월 20일까지 일어났는데, 의령 박진쪽은 북한군이 점령하고 남지는 미군 제 24사단의 배치되어 붉은 침략을 맞아 싸운 지역이다. 전투는 박진에서 북한군의 낙동강 도하로 시작되고 남지에서 미군의 반격과 진격으로 끝났다. 결국 적을 몰아낸 주체는 남지에 주둔한 미군이고 쫓겨난 북한군은 박진에 주둔했으니, '남지전투'라 명명해야된다. 하지만, 박진전투, 박진전적지 등으로 많이 알려졌고, 박진은 현재 의령군에서 소속된 지역명이지만, 남지 옷개나무처럼 공용어로 사용한 것을 감안하여 '남지박진전투'라 칭하는 것이 옳다. 전쟁으로 붉게 물든 피의 강, 낙동강이 흐르는 남지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음에도 남지는 없고, 영산전투와 창녕전투로 전하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혼선을 초래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되기에 제언하는



마산일보 1950년 8월 21일

15

용산리 간송(澗松) 조임도(趙壬道)선생과 자미화(紫薇花)¹⁾

축산군지(鷲山郡誌)²⁾ 이사편(異事篇 p625)의 기록을 찾아 창녕군 남지읍 용산 본동길 37-4번지(용산리 447)의 함안조씨 간송파(咸安趙氏 澗松派) 파조(派祖) 간송(澗松) 조임도(趙壬道) 선생의 사우(祠宇)가 있는 종택(宗宅)을 찾아갔다.



선생이 생활하던 용산리 생가 종택은 400여년을 종손이 대를 이어오다 6.25 한국전쟁으로 마을이 모두 불탔을 때 모두 소실되었으나 선생의 사우(祠宇)만 건재하여 이상히 여겼다 한다. 종택(宗宅)은 복원하여 14세 종손이 거주하다 수년 전에 서울로 거주를 옮기고 선생의 위패는 아호제³⁾ 사당으로 옮겨 불천위(不遷位)⁴⁾ 제사를 봉행하고 있으나 종택은 인적이 끊어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초만 무성하였다.

위패가 없는 빈 사우는 관리하는 후손이 없으니 칩냉쿨이 담장을 뒤덮고 사우 뒤편의 팽나무를 꼭지까지 뒤덮고 있다.

- 1) 자미화(紫薇花) : 배롱나무를 당나라 장안의 자미성에서 많이 심었기 때문에 중국 이름으로 '자미화(紫薇花)'라고 하는데 백일 동안 꽃을 피우므로 백일홍(百日紅) 또는 백일홍나무라고 부르며, 매끈한 나무껍질을 문지르면 간지럼을 탄다하여 '괴양수(柏瀼樹)', '간지럼나무'라고도 한다. 본군 남지리에서 박진을 연결하는 지방도 가로수로 붉은 꽃 배롱나무 그리고 도천면 송진1구 가로수는 흰꽃 배롱나무가 7월부터 9월까지 꽃을 피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배롱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6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8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다.
- 2) 축산군지(鷲山郡誌) : 昌寧文化院에서 昌寧鄕土史料第九輯으로 2006.11.25. 발행한 창녕현지 축산군지 합책(昌寧縣誌 鷲山郡誌 合冊).
- 3) 아호제(鵝湖齋) :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암4길 194-2번지(장암리 산 60-21)에 위치하는 함안조씨 재실. 아호제 뒷산에는 선생의 부모와 선생과 두 부인의 묘가 있으며, 함안군에서 함강정에 보관되어 오던 간송문집 책판과 금라전언록 책판을 보관하기 위하여 아호제 곁에 책판서고를 지었으나 완벽하게 보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책판을 함안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어 있는 서고는 용산리 사우에 모셔져 있던 간송 선생과 부인 벽진이씨와 안악이씨의 위패를 이곳으로 옮겨 서 모시는 사우로 사용하고 있다.
- 4) 불천위(不遷位) : 일반적으로 조상의 기제사(忌祭祀)는 4대까지만 봉사하고 5대부터는 혼백을 무덤에 묻고 묘사의 대상으로만 하는데, 불천위는 그 자손들이 있는 한 분묘와는 별도로 사당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라에서 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정한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 문중에서 정한 사불천위(私不遷位)가 있으며, 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림과 사불천위에 속한다. 불천위와 그에 대한 제사는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정하는 공훈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훌륭한 조상은 살아 있을 때의 지위에 따라 죽어서도 특별대우의 영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중 성원들의 단결과 동질감을 강화시켜 주고 위세와 우월감을 가지게 한다.



선생의 사우(祠宇)

굵은 가지가 잎도 없이 앙상하게 말라 죽고 겨우 팽나무 정수리에만 들성들성 있는 푸른 잎이 무정한 세상사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선생은 34세(1618. 광해10년) 때 폐모론(廢母論)⁵⁾이 일어나자 “신자(臣子)로서 대비를 폐출(廢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로 인하여 정인홍(鄭仁弘)⁶⁾을 비롯한 대북과의 미움을 받게 되자 이들의 세력을 피하여, 가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검암에서 내내(奈內)⁷⁾로 피신하여 상봉정(翔鳳亭)⁸⁾을 짓고 살면서 몸소 고기를 낚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공양과 모심에 효성을 다하여 백효(伯孝)로 칭송받으셨다.

선생은 생육신(生六臣)⁹⁾의 한 분이신 어계(漁溪) 조여(趙旅. 吏曹判書 追贈)의 6세손으로 선조 18년(1585)에 검암(儉巖)¹⁰⁾에서 사도사 첨정(司 寺 僉 正) 입암(立巖) 식(埴)의 아들로 출생하여 8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 경북 봉화로 피난하여 퇴계의 재전제자(再傳弟子)인 반천(槃泉) 김중청(金中淸)과 의성(義城)에 사는 두곡(杜谷) 고응척(高應陟)에게 학문을 배우고, 17세(1601) 때는 경북 인동(仁同)에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¹¹⁾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여 20세에 향시(鄕試)에 합격했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셨다.

5) 폐모론(廢母論) : 광해군 5(1613년)년 대왕대비인 인목왕후를 폐하자는 논의. 인목왕후는 경운궁에서 서궁으로 옮기고 대비 호칭을 폐하는 선에서 종결되었으나 후일 인조반정으로 인목대비는 복호되고 광해는 폐위된다.

6) 정인홍(鄭仁弘) :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來庵), 본관은 서산(瑞山)으로, 1535년 합천에서 출생.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수제자. 임진왜란 때는 58세 고령에 직접 의병을 일으켜 충의(忠義)를 실천하였으며 광해군 즉위의 일등공신으로 우의정에 이어 영의정으로 대북의 영수로서 1품(品)의 관직을 지닌 채 고향 합천에 기거하다 인조반정으로 참형되고 가산이 적몰(籍沒)되었다. 1908년 4월 30일 관작이 회복되어 신원(伸冤) 되었다.

7) 내내(奈內) 함안군 칠서면 내내리로 지금의 남지철교 앞 능가사 일대의 마을

8) 상봉정(翔鳳亭) 함안군 칠서면 내내리 능가사의 남서쪽의 산자락에 간송이 지은 정자 이름. 상봉정 유허지(遺墟地) 뜻말이 있었으나 찾을 수 없음. 함강정 중수 때에 함강정으로 옮겨 지었다고 한다.

9) 생육신(生六臣) : 1455년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여 세조로 즉위하자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모진 고문으로 죽임을 당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6명을 사육신(死六臣), 죽지는 안았지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사는 이맹전, 남효온, 김시습, 조여, 원호, 성담수를 생육신(生六臣)이라 함.

10) 검암(儉巖) : 지금의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11) 장현광(張顯光 1554~1637) : 경상도 인동부 인의방에서 출생. 호는 여헌(旅軒). 영남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퇴계학을 공부하였으며, 간송 조임도의 스승으로 학문은 지행병진(知行并進)으로 학문의 길은 앎과 행함에 있다고 강조하는데 특징이 있다. 간송은 스승인 장현광으로부터 퇴계학을 배움으로서 스스로 퇴계문인임을 밝히고 있다.



종택의 살림집



종택의 사랑채

선생은 용화산(龍華山)¹²⁾ 동편 끝인 내내(奈內) 상봉정(翔鳳亭)에 살면서 용화산 서편 끝 아호제 뒷산에 부친의 묘소를 모셔 놓고 바라볼 수가 없어 안타까워 애를 태우다가 49세 되던 1633(인조11년. 癸酉)년 봄에 홀어머님을 모시고 부친의 묘소를 바라볼 수 있는 창녕군 남지읍 용산마을로 이사를 와서 생가 옆에 망모암(望慕庵)¹³⁾을 짓고, 가을에 낙동강 건너 용화산 아호(鵝湖)에 합강정(合江亭)¹⁴⁾을 지었다고 간송집(澗松輯)에 전하고 있다.

선생은 퇴계학을 공부하였으나 23세에 남명의 제

자인 래암 정인홍의 문인인 이흠(李屹)의 따님과 혼례하여 퇴계학과와 남명학과의 융화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한 대표적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선생은 인조12년 50세에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불취(不就)하고, 남명을 배향(配享)한 신산서원(新山書院)¹⁵⁾의 원장을 맡았다. 남명학의 후학에 원장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것을 유림의 여러 선비들의 추대로 선생이 원장을 맡았음은 퇴계학을 공부한 선생이 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당시의 강우지방(江右地方)에서 선생의 학문적 명망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 12) 용화산(龍華山) :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서 대산면에 이르는 낙동강을 따라 있는 해발 193.5m 99봉에 9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전하는 산. 남지읍의 남측 정면의 낙동강에 붙어 있는 산.
 - 13) 망모암(望慕庵) : 간송 선생이 남지읍 용산마을로 이사와 선고(先考)를 사모하여 살림집 동편에 선고의 묘가 보이는 곳에 지은 정자 이름. 선생은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바라보기 위해서'라고 간송집에 밝히고 있다. 선생 사후에 망모암 뒤편에 선생의 사우를 마련했다.
 - 14) 합강정(合江亭) 선생이 은거하며 수학하던 곳으로, 49세(인조11년, 1633) 봄에 내내(奈內)에서 기강(岐江 지금의 용산리)으로 옮겨와 살 때, 용산마을에서 마주 보이는 강 건너 용화산 기슭 함안군 장암리 장포 산60-1의 현 위치에 왼쪽에 사월루(沙月樓) 오른쪽에 연어대(鰲漁臺) 등 소정삼간(小亭三間)을 지어 합강정사(合江精舍)라 현관하고 은거(隱居)하였다고 암모암기(望慕巖記)에 전한다. 정사(精舍)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와가건물(木造瓦家建物)이며 이곳에 간송문집 및 금라전신록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함안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합강정은 1924년과 1937년에 중수(重修)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5) 신산서원(新山書院) : 산해정(山海亭)은 1530년(중종 25)에 남명 조식 선생이 학문에 정진하면서 제자들을 강학하기 위하여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에 건립한 누정이다. 신산서원(新山書院)은 조식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이 산해정 옆에 창건한 서원으로 임란 때 소실과 서원 철폐로 훼손되었으나 지금은 복원과 중건을 거쳐 한 건물이 되었으며, 남명과 송계 선생을 병향하고 있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인조25년 대군사부(大君師傅)에, 현종1년에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었으나 불취(不就)하였으며, 문집으로 『간송집(澗松集)』이 있으며, 함안 지역에서 배출된 인물의 전기와 업적을 수록한 『금라전언록(金羅傳言錄)』을 저술하였다.

현종 5년(1664년) 향년 80세로 용산 자택에서 고종(考終) 하셨다.

1666년(현종7년)에 통선랑 사헌부지평(通善郎 司憲府持平)으로 추증(追贈)되었고, 1721년 송정서원(松亭書院)¹⁶⁾을 건립하여 간송을 향사(享祀)하셨다. 후손들은 선생을 함안조씨 간송파 파조(派祖)로 승조(崇祖)하고 불천위(不遷位) 제사를 모시고 있다.

선생은 창녕군의 입향조(入鄕祖)로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까지 5왕조를 거치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합강정(合江亭)에서 학문 탐구와 저술 활동을 하신 큰 학자이시다.

선생에 대하여 축산군지(鷲山郡誌)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축산군지(鷲山郡誌) 이사편(異事篇)에 선생의 자미화(紫薇花 배롱나무)에 대한 기록에,

『趙澗松先生 祠宇內 有紫薇花一樹 本先生手植 而 屢世經驗則 其宗家運否則 其木死幾年間 之 無枝葉幾年後 其家運復則 或一邊生芽 或 中心出芽 依舊簇立 云云而』

「조간송선생사우내 유자미화일수 본선생수식이 누세경험칙 기종가운불칙 기목사기년간지 무지엽기년후 기가운복칙 흑일변생아 흑중심출아 의구족립 운운이」



선생이 심은 400년 수령의 자미화

“조간송선생 사당 안에는 선생이 손수 심은 자미화(紫薇花) 한 그루가 있는데 여러 대를 거쳐 경험해보니, 선생의 종가가 운세가 쇠하면 자미화는 몇 해고 가지도 나지 않고 잎도 나지 않고 죽은 듯이 있다가, 종가에 운세가 돌아오면 자미화는 새싹이 나고 혹은 중심에 주간(柱幹)이 나서 옛날과 같이 울창해지면 종가도 옛날과 같이 번창하더라.”라고 기록으로 전한다.

간송집 권2 시편(詩編 p140)과 축산군지(鷲山郡誌 p643)에 『龍山一樹紫薇花 花外茅檐是我家 只爲松楸長入望 非無勝地寄生涯』

16) 송정서원(松亭書院) : 1721년(경종 1) 간송(澗松) 선생을 향사하기 위해 창건된 서원이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후 복원되지 않았으며 서원터에 유허비가 건립되어 있다.



살림집 뒤 지붕 위로 보이는 자미화

「용산일수자미화. 화외모침시아가 지위송추장입 땅. 비무승지기생애」

‘용산에 한 그루 자미화, 자미화 앞에 초가집이 내 집이다. 장차 소나무와 오동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을 보고자 좋은 땅이 없지 않으나 여기서 살아간다.’라고 하였다.

축산군지(鷲山郡誌 p641) 옥천동(玉川洞) 제하(題下)에 『溪流如玉石如枰 水弄潺湲坐濯纓 安得移家專一壑 薜蘿烟月送餘生』

「계류여옥석여평 수롱잔원좌탁영 안득이가전일학 벽라연월송여생」

‘흐르는 개천은 옥같이 맑고 돌판은 바둑판처럼 편평하네. 잔잔히 흐르는 물에 장난치며 앉아서 갓 끈을 씻노라. 오로지 편히 살고자 이 골짜기로 이사했으니 태평한 세월에 자연과 더불어 남은 생을 보내리라’

간송과 종중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불천위 제사를 모실 때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강가로 선생을 모시러 나가면 선생이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현재 용산리 생가의 망모암(望慕庵)은 빈터로 남아 잡초만 무성하고, 아래채와 살림집은 인적이 끊어져 400년 세월을 이어온 선생의 자취들이 사라지는 느낌에 안타깝다. 자미화가 거목(巨木)으로 성장하여 선생의 음덕(蔭德)이 종택과 이 땅에 고루 미치기를 기원해 본다.

〈박태명〉

16

남지읍 월상 박진전쟁기념관 앞 팽나무



박진전쟁기념관을 찾을 때 초입부터 걸어갔더라면 진즉에 발견했을 것인데 이 팽나무를 그냥 지나친 것이다. 월상교회 앞에 서 있는 이 나무를 동네 사람들은 ‘팔구나무’라 부른다. 팔구나무를 검색해보니 팔구나무는 없다. 혹시 사투리인지 찾아봐도 없다. 그런데 AI시대라고 한참 검색하니 ‘팽구나무’라는 단어가 떠올라 찾아보았다. 포구나무와 팽나무의 다른 말이라 한다. 팽나무를 누가 여기에 심었나 궁금하다. 창녕의 오래된 나무를 찾아 돌아보면서, 망우정에 팽나무가 홍의장군 망우당의 굴곡 많은 삶과 낙동강을 침범하는 왜적은 물리치기 위하여 웅크리듯 지키고 있다. 이상한 인연이다.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국난을 극복한 치열한 전투를 치룬 곳에도 팽나무가 자라고 있다.

망우정 팽나무는 낙동강 기슭에 위치하여 강변을 향하여 뻗어 있어 수형과 수세가 특이하지만, 월상마을 팽나무는 아주 단정한 모범생 같이 좌우대칭과 비례도 맞게 형세가 좋다. 보호수로 지정될 정도 수령은 아니지만 6.25전쟁을 지켜본 것으로 보이고 마을의 당산나무로 신성시되고 있다. 아마 그것은 6.25전쟁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날아오는 총탄과 포탄 속에서 훼손이 되었겠지만, 몸을 피한 군인과 피난민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었을 것이다. 나무 수피를 조사해보면 전쟁의 파편들이 박혀 있을 것 같다.

월상마을 팽나무는 오래된 과거를 기억하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지켜보면서 지역의 산증인처럼 나이테를 쌓아 갈 것이다. 이 중요한 역할을 오래오래 하면서 지켜볼 팽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팽나무는 키 20미터, 줄기둘레가 두세 아름이 넘는 큰 나무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잘 자라지만,

항상 소금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도 끄떡없다. 그것도 두툼한 껍질을 뒤집어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되어도 울퉁불퉁하게 갈라지지 않는 얇고 매끄러운 껍질을 갖고 그대로 버틴다.

남부지방에서 부르는 팽나무의 다른 이름은 포구나무다. 배가 들락거리는 갯마을, 포구(浦口)에는 어김없이 팽나무 한두 그루가 서 있는 탓이다. 나무의 특성은 물론 자라는 곳을 그림처럼 떠올릴 수 있는 포구나무가 팽나무란 정식 이름보다 훨씬 더 정겹다.

팽나무는 곰솔과 함께 잔물과 갯바람을 버틸 수 있는 나무로 유명하다. 내륙지방에서도 자라기는 하지만 바닷가에서 심고 가꾸는데 가장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산림청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고목나무 1만 3천여 그루 중 팽나무는 약 10퍼센트인 1,200본으로서 느티나무 7,100본 다음으로 많다. 이 중 대부분은 전남, 경남, 제주에서 자란다.



늦봄에 자그마한 팽나무 꽃이 지고 나면 금세 초록색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 가난하던 시절의 시골 아이들은 주위의 모든 곳이 놀이터였고 장난감 재료였다. 그중에서도 팽나무는 아이들과 가장 친근한 나무였다. 초여름 날, 콩알만 한 굵기의 열매를 따다가 작은 대나무 대롱의 아래위로 한 알씩 밀어넣은 다음, 위에다 대나무 꼬챙이를 꽂아 오른손으로 탁 치면 공기 압축으로 아래쪽의 팽나무 열매

는 팽하고 멀리 날아가게 된다. 이것을 ‘팽충’이라고 하는데, 팽충의 총알인 ‘팽’이 열리는 나무란 뜻으로 팽나무란 이름이 생겼다. 팽충놀이가 끝난 팽나무 열매는 가을에 들어서면서 붉은 기가 도는 황색으로 익는다. 열매 가운데에는 단단한 씨앗이 있고, 주위는 약간 달콤한 육질로 싸여 있다. 이렇게 잘 익은 열매 역시 배고픈 아이들의 좋은 간식거리로 인기가 높았다.

팽나무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만큼이나 오래 산다. 천년을 넘긴 나무도 있으며, 남부지방의 당산나무는 흔히 팽나무인 경우가 많다. 옛날에 배를 매어 두던 나무로 천연기념물 494호로 지정된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의 팽나무는 키 12미터, 줄기둘레 6.6미터, 나이 400년에 이르며, 우리나라 팽나무 중 가장 굵다. 커다란 버섯 갓을 닮은 모양새는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같이 아름답다. [출처 : 박상진, 우리 나무의 세계]

1950년의 남지박진전투를 지켜본 팽나무가 기억하는 전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지박진전투는 6.25 한국전쟁때 북괴군이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박진나무를 중심으로 낙동강을 도하하여 박진에서 남지읍과 장마면 그리고 영산면과 도천면 일대에 전개된 치열한 공방전을 말하며, 6.25 한국전쟁 전사에는 ‘낙동강 돌출부 전투’로 명명된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의 전투를 말한다.

‘낙동강 돌출부 방어(洛東江突出部防禦)’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의 지원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제조한 탱크로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 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아군의 열세를 몰아붙여 부산을 점



령하고자 치열하게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괴군에 의하여 낙동강 북쪽을 모두 점령당하여 정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다시 부산으로 피난하는 국군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국군은 포항-경주-대구-창녕-마산을 연결하는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 돌출부 방어(洛東江突出部防禦)’선을 구축하였다.

밀양-창녕 방어선에는 밀양에 사단본부를 둔, 미제24단(사단장 처어치 장군)은 창녕에 미제24단 제21연대, 현풍에 국군 제17연대, 영산에 미제34연대(연대장 찰즈 E. 뷰챔프 대령) 그리고 기동 예비대로 미제19연대와 수색중대를 창녕에 집결 배치하고 ‘낙동강 돌출부 방어’에 임했다.

미제24사단의 제34연대가 영산에 연대 본부를 두면서 본부의 정면인 박진 지역의 지형이 영산의 서쪽에서 돌출되어 있어서 이 지역을 ‘낙동강 돌출부’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거창 합천지역에서 영산을 거쳐 밀양과 삼랑진 그리고 부산에 이르는 중요한 접근로이다. 인민군은 8월15일까지 ‘부산 해방’이라는 시한부 임무수행 목표를 세우고 ‘8월 공세’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미제34연대 부참프 연대장은 고곡지구에 제3대대(대대장 진즈페레즈 중령)를 배치하여 강을 건너려는 인민군과 대치하게 하였으며, 월하리에서 낙동강을 따라 용산리까지 강변에는 34연대병력을 주둔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미군은 8월 2일 창녕군내 부대 배치를 완료하고 강변으로부터 8km 이내 지역의 빠른 확보를 위하여 전단을 뿌리고 확성기로 방송하며 주민 소개를 단행하며, 불응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하겠다는 포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당시에 창녕 영산 지역에 모인 피난민이 30여 만명이나 되었다.

당시 창녕에는 의령과 합천 경찰서에서 철수했던 경찰 등과 함께 경찰대 2개 병력과 대한청년단과 의용경찰 등 지방의 애국청년들로 구성 편성된 자치병력 500여명이 치안유지와 경계근무를 주 임무로 활동 할뿐 국군의 전투 병력은 전무한 상태에서 미 제 24사단이 유일한 전투 병력이었다.

남지(박진)지구 제1차 전투(8월 공세)

낙동강 시절(洛東江時節)의 시작

‘낙동강 시절’이란 1950년 8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14일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제1차 낙동강 돌출부 남지박진지구 전투의 또 다른 이름으로 미군 병사들이 붙인 이름이다. 이 구간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남지 기강(歧江)에서 상류 유어면 경계까지의 ‘낙동강 돌출부’를 지칭한다.

북괴는 서울 영등포, 대전공락에 수훈을 세우고 영웅 칭호를 받은 악명 높은 김책사단 즉 북괴 제4사단(사단장 이권무)은 8월 4일까지 전 사단을 합친 주변에 집결하여 사단 병력 총 7,000명 보병연

대 1,500명 포병 12문으로 낙동강 도하를 준비하여, 8월 6일 0시 북괴군 제15사단은 왜관 도하, 제6사단의 마산 공격에 호응하여 북괴 제4사단 16연대(연대장 백대좌) 주력은 유어면 부곡리 마수원 여높나루 도선장에서, 16연대 3대대 800명은 미 제34연대 I중대 전원이 표고 130m 고지 정상에 배치시켜 놓은 시남의 오항(烏項) 도선장에서 도하를 개시하였다.

부곡리에서 도하한 북괴군은 미제34연대와 미제21연대의 전투지경선으로 미제21연대장 스티븐선 대령에 의해 섬멸 당했으나 남지 시남의 오항에서 도하를 한 북괴군 제16연대 3대대 800명은 계속을 따라 고곡으로 남하하여, 8월 6일 01시가 지나서 남곡초등학교에 있던 미 제34연대 4.2인치 박격포중대를 기습을 하고, 이어 고곡리의 제3대대 본부를 습격하였다. 제3대대장 퍼레즈 중령은 강리에 있는 제1대대로 피신을 하여 02시경 제34연대(연대장 부참프 대령)에게 적의 기습을 받고 교란상태에 빠졌다고 보고함으로써 낙동강돌출부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후 피아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박진나루를 통한 적의 도하와 크로바 고지를 비롯한 대봉리 고지의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어 8월 8일 제34연대 병력은 1,000명 제19연대는 1,700명 선으로 감소되어

사단의 전투력은 40%로 평가되자 미8군 사령관 워커장군은 미제2사단 제9연대를 제24사단에 배속시켰다. 제24사단장 처치장군은 ‘돌출지역 내에서 적과 교전중인 모든 전투 부대를 제9연대장 힐 대령에게 배속시켜’힐’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하여 전투에 임했으나 8월 10일 밤 적은 수중교를 이용하여 야포와 중회기 및 전차를 도강시켜 방어력을 증강하여 남지철교까지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8월 11일 미 제25사단 27연대(연대장 존 H.미켈리스 대령) 2대대는 출동 명령을 받아 남지철교를 탈환하고 12일 밤 자정에 남지철교 북단에 교두보를 설치하여 용산리 창남에서 도천면 일대의 적과 싸웠다. 이때 이미 북괴군은 남지와 도천에 산재해 있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8월 13일에는 영산 탈환을 위한 공격을 개시하여 탈환하였으나 전투는 더욱 치열해져 박진나루와 이이목 나루를 건너온 인민군을 격퇴 할 수 없자 8월 15일 제24사단에 도착한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마지막까지 보물처럼 아껴온 미8군 예비인 미제1해병여단 제5해병연대(연대장 머레이 중령)을 제24사단에 배속시켜 반격을 개시하여 19일 아침 낙동강 돌출부에 대한 북괴군 소탕작전을 끝냈다. 이 전투에서 해병대가 노획한 무기는 122밀리 곡사포를 비롯하여 포 34문, 중기관총 16정, 경기관총 25정, 기관단총 63정, 3.5인치 로케트포 1문 등이었고 매장 사체는 1,200구를 헤아렸다. 북괴군 제4사단은 이 전투에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고 다시는 낙동강 전투에 참전 할 수가 없었으며 중공군이 개입하여 북괴군이 재편성 할 때까지 다시 전투부대로서 등장하지 못했다. 8군 예비로 북귀명령을 받은 해병대는 강변 방어진지를 인계한 다음 북귀하였다.

남지(박진)지구 제2차 전투(9월 공세)

재편성한 북괴군은 8월 26일 박진나루에 부교를



설치하고 26대의 전차를 앞세워 공격을 시도하게 되어 다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를 남지지구 제2차 전투 시발로 ‘9월 공세’라 한다. 북괴군은 박진나루와 유어면 적포교(8월 16일일 폭격으로 단절된 상태)로 도하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제24사단과 임무교대를 한 미제2사단(사단장 로렘 카이즈 소장)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장갑차 부대의 반격으로 적은 패주하였다.

8월 31일 밤 23시 30분, 인민군은 2차 공격을 하고자 북괴군 제2,4,9,10사단으로 4개사단 2,900명으로 월상의 박진나루, 월하마을 앞 강, 월평의 들뚝나루, 용산리 기강나루에는 인민군 9사단이 그리고 유어면에서 기습 도하를 하여 미 제2사단의 10km에 이르는 진지를 순식간에 돌파하여 크로버고지와 어봉고지를 점령하여 인민군이 영산(9월 1일~9월 4일)과 창녕(9월 2일~9월 9일)까지 진출하여 그때까지 피난가지 않았던 영산, 도천, 계성, 창녕 북부지방의 주민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다.

9월 3일 미제5해병연대의 증원군이 도착하여 9월 4일 08시 미해병연대는 제2사단 9연대와 함께 3일째의 반격을 속행하여 클로버 동쪽 고지를 탈환하였다. 8월 31일 밤부터 9월 4일 밤까지 북괴군의 주요 도하 지점인 박진나루터를 강제하는 대곡고지(150m)를 고수하고 있던 스미드부대 생존자 22명이 칠현, 창아지, 용산의 강을 따라 귀대하여 보고한 ‘북괴군은 야간에만 가설하는 철주교(鐵舟橋)와 수중교(水中橋)로 하룻밤에 800~1,000명의 수송

대를 도하시켜 보급품을 운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날 밤 미 공군은 이 철주교를 파괴하였다.

9월 6일 3일간의 역습으로 남지지구 2차 전투는 일단락되어, 미 해병대는 진지를 재편성한 미제9연대에 인계하고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10월 초까지 인민군은 낮에는 유엔군 비행기 폭격을 피해 토굴이나 골짜기에 은신하다 밤만 되면 나타나 집을 뒤지고 약탈하며 공격하였다.

9월 9일 남지철교가 폭파되었다. 남지철교는 중요 시설로 미 제25사단 35연대에서 8월 13일 이후 미 25사단 35연대 F중대 1소대(소대장 닉케리 소위)가 배치되어 경비를 맡고 있었다.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유엔군 전사)”에 의하면, 사태의 잘못 판단으로 미군 제트전투기(F-82)가 5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하여 교량 중앙부 25m를 파괴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폭파된 철교는 1953년 복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제2사단은 패잔병 소탕을 위하여 9월 16일 반격을 개시하자 인민군은 의령군 쪽으로 도강하여 철수하게 되었으며, 9월 18일 유어면 부곡리에서 도하를, 9월 20일 아침 23연대 3대대는 월평 들보나무에서 공격단정으로 도하하여 의령군 신반쪽으로 적을 추격하며 진격하여 신반을 수복하였다. 비



로소 남지에는 인민군의 위협이 없는 지역이 되어 10월 4일 경찰이 치안을 맡으러 오게 되었다. [출처 : 다음 카페 남지마을기업]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가 2010년 8월 31일 박진전쟁기념관을 방문하였다. 6.25전쟁 당시 미제24보병사단, 미제2보병사단, 미제1해병대여단의 참전과 희생을 추념하였다. 이 전쟁기념관은 1941년 7월 25일 남지국민학교 월하간이학교로 인가 개설되어 운영되다가 1946년 반포국민학교의 개교로 학생들을 반포국민학교에 수용되게 되었다. 그 후 1971년 학생수가 증가하자 3월 1일 6학급 규모 월상국민학교로 승격 개교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의 월상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세웠으며 부지면적 9,781㎡, 건축 총면적 722.13㎡의 지상 1층 건물이며, 2003년 11월 준공하여 2004년 6월 25일 개관하였다.

〈김부열〉



17

장마면 대봉전투와 미군 살린 느티나무

전쟁과 같은 일상을 넘어서 커다란 사건이 한 개인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을 큰 트라우마(Big Trauma)라고 한다. 이 트라우마를 이겨 내려면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 한다. 6.25전쟁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오른팔을 찾아 30년 지난 후에 자신이 겪은 끔찍한 전투지를 방문한 미해병대 소속의 허버트 러스터는 인간승리와 진정한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 러스터에 관한 기록은 박진전쟁기념관 한 칸에 자리하고 있지만, 생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활동상을 되새겨 보면 너무나 한편의 영화와 같다.

러스터를 기억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부터 40년전 해마다 8월이 오면 오른팔이 없는 건장한 퇴역한 미국인이 한국기와 미국기를 배낭에 매고 남지에서부터 박진까지 비포장도로를 터벅터벅 혼자 행군을 하였다.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학교를 방문하여 왼팔로 농구를 하면서 고등학생들과 서스럼없이 어울리곤 했다. 그때 같이 운동을 하

던 친구들과 저분은 누군가? 매우 궁금했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 6.25 참전용사로서 전쟁중에 오른팔을 잃어 버렸고, 대봉늪 근처 큰나무에 의지하여 북한군의 총격을 피하여 살아남았다고 했다. 농구 코트에서 반팔 티를 입고 싱긋 웃는 미소가 부드러운 분으로 기억이 되는 그분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있었구나 하는 미안함도 있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 그분은 남지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는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해 조용히 소천하신 것이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흐른 뒤 러스터의 흔적을 우연히 찾게 되었다. 창녕문화원에서 기획한 『창녕이 겪은 6.25전쟁 수기』를 수집하면서 대봉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대봉전투(어봉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전용사 러스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봉(어봉)고지와 클로버 고지에는 피로 물든 참혹한 전투지였고, 미 해병대 탱크부대의 공격에 부서진 북한 탱크들이 대봉에서 두곡으로 거쳐 고곡으로 향하는 길과 장마를 거쳐 영산으로 가는 고개에 늘어서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남지방위군으로 활동하신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무용담을 들을 때와 전혀 다른 참혹한 6.25전쟁 수기를 수집하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며, 전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참전용사 러스터는 왜 자신에게 상처를 남긴 전쟁터에 다시 돌아와 옛날을 회상하며 찾을 수 없는 오른팔을 그리며 30년의 세월을 견뎌내었던 것인가? 속된 사람으로 헤아리지 못할 부분이다.

1950년 8월 17일, 러스터가 기억하는 대봉전투의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 찾아간 대봉마을에는 6.25전쟁 후 지금까지 마을을 지키고 있는 당산나



무도 왼쪽 큰 가지가 잘렸지만 기상차게 서 있었다. 어쩌면 나무도 러스터의 상처를 기억하는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대봉(어봉)고지 쪽에서 쏘아대는 북한군의 사격을 피하기 위해 나무를 방패 삼아 싸웠다고 한다. 그리고 러스터의 목숨을 구했으나, 오른쪽 팔을 잃은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고 회술한 미국의 『한국전쟁 교육사』를 편집 자료에 의하면 (출처 : 배대균, 창녕 방어전투 실화 P368~371) 당시, 러스터는 미 제 1해병임시여단 제5연대 B중대 2소대 AR 자동소총 사수로 마산 진동과 고성 배둔과 고성전투에 참전하고 이어 창녕 방어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때 낙동강 돌출부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최고의 격전장이었다. 때를 같이한 1군단의 인민군 6사단(사단장 방호산)은 8월 3일 마산을 점령할 참이

었다. 인민군 1군단 소속 4사단장 리권무는 중공군 8로군 718참모장 출신이며 김일성이 가장 아끼는 부대로서 서울을 점령한 북한의 최정에 사단으로 8월 15일 이전에 부산 점령을 명령받고 있었다. 한국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부산과 1시간 거리 밖에 되지 않았다.

러스터는 “8월 17일 이른 아침, 대봉(어봉)고지와 클로버능선에서 멀리 105mm 야포의 포성이 들리는 중 AR부사수 벅스틴(Buxton)과 대봉에서 고곡마을로 진입하고 있었다. 적은 보이지 않았고 적군 기관총에서 5발마다 1발씩 조명탄이 날아가고 있었다. 막대기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30발의 AR 탄창을 발사하고 새 탄창을 끼여 넣는 순간 오른쪽 어깨가 크게 들썩했다. 바로 그때 적군 몇 명 나타나서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주저앉았으며 앞가슴에 수류탄을 빼려 했으나 불가능했다. 오른쪽 팔이 말을 안들었다. 바라보니 오른쪽이 간신히 붙은 채 흐늘거리고 피가 붉은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부대원 엘리(Elli)과 위생병 켈러(Koehler)이 달려왔다. 팔을 내 등 뒤에 깔려 있었고 아무 감각이 없었다. 위생병은 결합할 실이 다 떨어지고 아편 그램을 주사했다. 엘리와 켈러는 칼빈 총 멧뺩을 풀어서 지혈대로 오른쪽 팔을 묶었다. 순간 나는 꿈속을 유랑하듯 몽롱해졌고, 그 사이 대원들은 내려치는 탄막을 뚫고 나는 산기슭에 도착해 있었다. 몸쓸 붉은 쓰레기들이 내 팔을 앗아간 뒤의 일이었다”

러스터의 술회를 바탕으로 추적해보면, 지금도 대봉마을쪽에서 고곡방향으로 진입하려면 두곡고개로 올라가야 한다. 당시, 북한군은 클로버고지에서 진지를 구축한 채 반격을 하였다. 8월 17일 전투 일지를 보면 미24보병사단은 제5해병연대가 참여

하고, 미2보병사단 9연대 2대대가 전투에 투입되었지만, 완강한 반격에 많은 사상자를 낸 상태에서 후퇴하고 있었다. 러스터가 소속된 미1해병명시여단의 전투일지에 의하면 오전의 포병과 항공기의 선제공격에도 물러나지 않던 북한군들이 항공기 근접 지원 폭격과 적의 탱크를 무력화시키니 낙동강을 수영해서 도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러스터는 대봉마을 느티나무를 방패삼아 전투하는 과정에 적의 총탄에 오른팔을 잃게 되고 몸을 피했던 것이다. 러스터는 1980년 대봉(어봉)리 119고지와 144고지를 다시 찾았고 이 느티나무에 의지하여 목숨을 구하였다 전해 대봉마을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참전용사 러스터는 1980년 1월 한국방문 이후 산골 이름없는 재실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6.25 전쟁때 잃어버린 팔과 기억을 더듬어면서 대봉마을 주변을 돌면서 지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지읍 칠현리 박재윤씨와 부인 윤영순 여사의



박진전쟁기념관 전시중인 미군 러스터



1988년 4월 고곡지구 경로위안잔치 참석

지극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1982년부터 3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갔다. 그러한 사연을 박재윤씨가 2018년 창녕문화원에서 펴낸 『창녕이 겪은 6.25 전쟁』에 기고함으로써 알려졌고, 박진전쟁기념관에 러스터의 전투 발굴물과 사연을 전달하여 현재 전시되고 있다. 러스터의 한글 이름은 ‘노성도’이며 참전 후 15년동안 학교 교사로서 지냈고, 또 10년 동안 교회목사로 봉직하고 2012년 1월 향년 80세로 타계하였고 상이기장 훈장과 애리조나 국립묘지에 묻혔다.

〈김부열〉

18

장마면 대봉늪과 왕버들



1933년 남지철교가 준공되기 전, 남지에는 영남수리가 조성되면서 1927년 5월에 건립 ‘공영교’가 있었다. 남지읍에서 출발하여 신전을 거쳐 황새목 같이 생겼다 하여 붙인 ‘황새목’을 거쳐 대성마을과 대봉마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야산배수장’이 나타난다.

소야산배수장은 상대포양배수장과 유사한 형태지만 규모가 작다. 새로 만들어진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공영교’는 2012년 2월 철거되고 새 다리가 만들어졌다. 기억에 ‘공영교’는 장마에 있는 도동교와 비슷하게 도로와 연결된 폭이 2차선 정도가 아니었지만, 교각은 높고 촘촘하게 만들어져 단단하게 보였다. 1925년 영남수리가 만들어지면서 ‘공영교’와 ‘도동교’는 만들어졌다. 늦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심이 있다면 수리시설을 만들면서 구축한 구조물과 교량은 지금이라도 근대농업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

대성마을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야트막한 구릉지대에 작은 마을이 보인다. 마을입구에 정자가 멋진 대봉마을이다. 대봉은 6.25전쟁때는 어봉이라 알려져 두가지 지명을 같이 쓰지만, 현재는 대봉으로 정리되어 있다.



공영교

도동교

이곳은 우포늪보다 더 원석이라는 대봉늪이 있어 환경과 ‘유리정원’의 촬영지로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진 동네이다. 혼자 생각인지 모르나, 이 마을에 들어서면 초입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두 그루 나무가 있다. 한 그루는 수세가 마치 한 마리 공작새가 꼬리를 부채살처럼 펼치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보는 듯 묘한 느낌을 주는 소나무로 생생하고 활기찬 모습이다. 또 한 그루는 대봉늪의 기원을 말해주듯이 왕버들로 마치 공통 장판지 같이 큰 나무둘레로 마을쪽을 향하여 누워 있는 터줏대감의 자세로 수 백년 된 품위가 느껴진다.



압도당한 느낌을 뒤로 하고 대봉늪으로 들어가면 쉽게 보여주지 않는 원시림에 둘러 싸인 늪이 조금씩 보인다. 속으로 감탄하며 카메라를 드는 순간 큰 구조물이 나온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다. 많은 비가 왔을 때 저수하는 대봉늪의 순기능이 넘쳐 애써 지은 농사에 피해를 주기에 늪 가운데 제방을 쌓은 것이다. 현실이고 자연의 일부다. 그러나 제방으로 가릴 수 없는 대봉늪의 숨은 가치는 더 푸르다. 왕버들 천국이다.

왕버들을 찾아보자. 학명은 *Salix glandulosa* SEEM이다. 지름 1m 이상 자라고 높이가 20m에 달

하는 나무로서, 키가 크고 잎도 버드나무에 비하여 넓기 때문에 ‘왕버들’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선이 포 안에 들어 있으며 성숙하면 삭과(蒴果: 속이 여러 칸으로 나뉘고 각 칸에 많은 씨가 든 열매)로 된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수피는 회갈색이고 깊게 갈라지며, 새 가지는 처음에 털이 있으나 없어지고 2년생 가지는 윤채가 나며 붉은 빛이 도는 황색이다. 동아(冬芽)는 3개의 아린(芽鱗)이 서로 포개져서 싸고 있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으로서 밑에 잎 같은 커다란 턱엽이 있고, 자라기 시작할 때에는 붉은 빛이 돌며 마치 붉은 꽃이 달린 것같이 보인다.

꽃은 4월에 잎과 같이 피고 암·수꽃이 딴 그루에 달린다. 수꽃은 긴 화수에 모여 달리고 6개의 수술과 3~6개의 밀선이 1개의 포 안에 들어 있다. 밀선은 6개이지만 두개씩 합치는 것이 있어 3개에서 5개까지로 된다. 암꽃화수는 길이 2~4cm로서 밑에 잎이 달리는 것도 있다. 암꽃은 1개씩의 지방과 밀

왕버들 천국인 대봉늪을 창녕출신 기자 김훤주는 ‘우포에 가려진 원석, 당당히 제 빛 뽐내는 보석’ 기사로 대봉늪을 누구보다 아끼며 잘 안내하고 있다. 그의 감성을 보자.

‘창녕은 우포늪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창녕에 우포늪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길게 보면 창녕은 우포늪 말고 다른 습지를 찾아내 사람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가꾸고 꾸밀 필요가 있다. 갈수록 우포늪으로 집중되는 탐방 압력을 골고루 흩어놓으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할 그럴듯한 습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열매를 따야 한다는 조금한 기대를 접고

차근차근 해볼 만하다. 초목을 심고 길을 내고 포토 존을 설정하면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을 습지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대봉늪은 창녕 장마면 대봉리 422-6 일대에 있다. 화왕산에서 발원한 계성천이 낙동강을 향해 나아가는 어귀에 형성된 습지인데 그 바로 위에 대봉마을 민가와 농지가 놓여 있다. 한 번 보기만 하면 누구나 감탄할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공영교 다리에서 내린 다음 제방에 올라 길 따라 상류를 향하면 만날 수 있다. 조용히 흐름을 잇는 물줄기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 크거나 작게 무리를 이룬 버드나무들이 다양한 높이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스치는 바람이 사람만 지나가는 것은 아닌 모양인지 버들 군락도 아래위로 출렁인다.

자동차가 한 대 다닐 만한 콘크리트 도로는 제방 위에서 습지 한가운데로 내려가면서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에 잠길 정도로 낮아진다. 습지의 속살은 여기에서 제대로 볼 수 있다. 양쪽으로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높이 자라지 않았고 둥치도 한 아귀에 들어올 정도로 가늘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한결 더하다.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대봉늪은 약간 어둑어둑하면서 희끄무레하다. 여기에 햇살까지 그늘을 잘게 가르면서 내려서면 분위기는 좀더 몽환적으로 바뀐다.

위로는 새로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뭇잎이

하늘거리고 숲속에서는 공기가 부유했던 기운을 일으키면서 몽글거리고 있다. 바닥에 미치는 햇살은 그다지 세지 않은 편인지 그 아래로는 억세지 않은 풀들이 곱게 자라나 있다.

도로를 따라 걷다가 돌아서면 자리를 깔고 잠깐 머물 만한 공간도 나온다. 노랑어리연이 동동 떠 있는 물웅덩이와 푸른 잎사귀로 그를 둘러싼 나무들이 잘 어울린다. 가만 앉았으면 바람도 햇살도 나를 위하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 장마면 대봉리 422-6으로 검색해도 되지만 공영교로 검색하면 가장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출처 : 김훤주, 경남도민일보 2021.05.26]

두 동강 났지만 대봉늪은 살아있다. 왕버들 정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속 뿌리는 느리지만 부지런히 호흡하며 새로운 천년을 기약하듯 실뿌리를 살며시 내리고 있다.

덧붙여 반가운 소식은 창녕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따오기 복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방사하였는데, 따오기가 대봉늪에서 발견되었다. 일본에서도 따오기 방사의 생존율이 30%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창녕의 따오기 생존율은 60% 이상이라 매우 고무적이며 창녕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든 결과다. 우포늪 뿐만 아니라 늪지천국 창녕에 따오기가 활활 날아 다니는 날을 기대 한다.

〈김부열〉

19

월영마을 옛 신사터, 당산나무



영산면 월영리에 가면 창녕군에서는 보기 힘든 도로 이름이 있다. '삼복도로'라고 부르는데 낯설지는 않다. 왜냐하면 마산에 산복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산복도로의 산복(山腹)은 산허리를 뜻하며, 산복도로는 경사지를 개발하면서 맨 위쪽에 자리한 도로다. 부산과 마산과 같이 높은 산쪽에 통행을 위하여 개설한 도로이다.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6.25전쟁으로 남쪽으로 피난민들이 부산과 마산에 정착하여 산동네를 만들면서 다니던 꼬부랑길로 교통이 불편해지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린벨트가 점점 풀려서 개설된 도로이다. 여기 영산면 월령리와는 전혀 다른 입지인데, '삼복도로'라 부른 이유가 뭘까? 지도를 보면 그리 높지 않은 야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높은 곳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유는 낙동강의 범람과 홍수를 피하기 위한 지혜로 볼 수 있다. 이 마을에 당산나무는 '슬픈 역사도 역사'라는 의견과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굴곡의 역사를 알고 있는 세대를 지나면 멸실될 수 있다는 보기 때문이다.



남지읍 상대포쪽에서 작은 다리를 건너 월령마을에 들어서면 삼복도로가 시작되는 곳에 아름드리 느티나무 3그루 있다. 유추하건대 이 나무들과 당산나무는 같은 시기에 심은 것 같다. 대개 당산은

한 마을 안의 비교적 야트막한 언덕 또는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게 마련이다. 더러는 낮고 작은 봉우리에 위치하기도 한다. 당산은 숲 안에 있어서 우묵하고 안존하다. 다소곳한 성격이라는 느낌을 풍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령이 깃든 곳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당산의 핵심이 바로 당산나무이다. (중략) 당산나무는 신격화된 나무이다. 신목이자 신주 나무이다. 고을지킴이 신이 깃들여 있는 것으로 모셔지기도 하지만 마을 또는 고을의 지킴이 그 자체로 승화되어 있기도 하다. 접신목(接神木)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 신주로 승격되어 있기도 한다. 나무가 곧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산나무는 성수(聖樹)가 된다. 당산나무 또는 서낭나무는 당산, 도당 또는 서낭당의 중핵이다. 당산의 당집 또는 서낭당의 당집과 어울려 있는가 하면 그 자체로 당산 또는 서낭당이 되기도 한다. (중략) 그러나 당산나무는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당산의 중심이자 마을의 중심축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당산나무가 지니는 지역공동체와의 연관성을 찾게도 된다. 이런 경우 한 마을 또는 공동체의 정자나무가 되고 신목이 된다. 정자나무는 한 지역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다움을 향유하게 되는 구심체가 되기도 한다. [출처 : 김열규, 한국민속신앙사전]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찾아보니 농촌의 고령화 현상을 대변하듯이 관리하월령마을에 가운데 높은 자리에 일제강점기에 만든 신사(神祠)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마을 사람들도 당산과 당산나무가 는 손길이 여의치 못하여 수풀이 우거지고 점점 퇴락하고 있다. 당산은 창고처럼 썰렁하고 그 옆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세력가들이 많이 살았던 남지에도 없었던 신사(神祠)를 월령마을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세

왔던 것일까? 느티나무는 알고 있지만 말이 없다.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1936년 11월 6일 발행한 부산일보 기사를 찾았다. ‘월령(月嶺)에 신사건립 창녕군 영산면민의 염원을 합하여 3일 진좌제(鎮坐祭)’를 지냈다는 제목의 소식이다. 진좌제는 본래 진좌제의 주된 목적은 역병(疫病)을 비롯해 마을에 뜻밖의 재앙이 생기는 것을 막아내어 마을의 안녕 기원과 농사의 풍요를 바라는 제의로 1950년 이전에 많이 열렸다고 한다.

신문내용을 요약하면 남지와 월령은 낙동강의 수마(水魔)로 매년 상습침수 빈궁하였으나, 산미증식 계획 시행에 따라 영남수리조합이 설립한 후 안전을 보장받는 농사로 대농장 지주의 지도력을 잘 따르고, 밤낮없이 개척하며 마산항 쌀수출로 창녕군에서 부농 발전하고 있음과 중일전쟁이후 국민으로서의 도를 지키고 정신수양과 일야염원하는 지원병제도에 제1기 지원으로서 입소를 기념하며, 부락민들과 염원을 모아 김아무개의 스스로 건립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마친 후 낙성식과 진좌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행사는 당시 남지향군분회장 주도로 행정기관과 각 단체인이 참여하였다. 결국, 일제강점기 효과적인 식민통치인 산미증식계획으로 쌀수탈과 1937년 일본이 일으킨 중일전쟁에 필요한 군인 징병을 위한 지원병제도 추진을 위한 신사(神祠) 건립에 자원한 이야기이다.



월령마을 당산나무는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일으킨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원병으로 뽑혀간 청년과 학생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 것이다. 영산에서도 변방인 작은 월령마을까지 신사를 건립하였다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국신민서사까지 외우며 대동아전쟁의 승전 결의를 다졌을까?

힘없이 침략당하는 나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다 짐한 월령마을 당산나무 탐방이었다.

〈김부열〉

20

무정치(無情峙)설화를 품은 예리 팽나무와 느티나무



예리 팽나무

도천면 예리 마을의 본동(예리1구)을 모리(慕里) 또는 모례(慕禮)라고 부른다. 淸州韓(청주한)씨와 羅州林(나주임)씨 세거지로 입향 한 지 4~5백년이 되는 오래된 마을이다. 오랜 옛날에는 120여호가

넘는 제법 큰 마을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현재는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동네가 오래되어서 마을 앞 당산나무가 고목이 되어 속이 등글 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나무의 수종은 느릅나무과의 ‘팽나무’로

일명 ‘풀구나무’라고 불리어 왔다.

팽나무는 이삭이 꽤다. 꽃이 피다하는 데서 왔다고 전해진다. 다산과 풍요를 비는 신목의 기능을 했다. 한 여름에 팽나무 열매를 대나무 꼬챙이에 꽂아 손바닥으로 탁 치면 아래쪽의 팽나무 열매가 날아가는 데 이 때 날아가는 소리가 ‘팽’하고 소리가 나서 팽나무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해마다 당산제를 지내왔던 나무로 지금은 옛 나무는 거의 사라지고 일부만 남아 그 이후 생겨난 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다. 마을에서 300여 m 정도 이격된 곳, 들 판 한 가운데 또 다른 당산나무가 있다. 수종은 느티나무이다. 이 곳 당산나무도 옛날에는 당집이 함께 있어 마을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매년 재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다 점심이나 중참을 먹거나 노동에 힘겨운 농부들의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던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수시로 와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옛날 구수한 전설 덕담으로 애기꽃을 피우던 곳이다. 한 마디로 이야기 마당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곳 당산나무 밑으로 모이곤 했다. 들판 한 복판에 들어선 쉼터였기에 여기에만 들어서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동네 할머니, 아줌마들이 울고 보채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놀아주던 모습들이 가장 정겹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다가온다. 옛 소도와 같은 기능을 하던 곳이다. 옛날에는 이곳을 삼정지 나무라고 불렀다. 뭣 때문인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이 당산나무가 품고 있는 여럿 얘기들 중에서 무정치 고개의 애달픈 사연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예리 정자목 느티나무(상 : 여름, 하 : 가을)

도천면 예리(모리)의 동쪽에는 남북으로 연결돼 있는 두 군데의 고개가 있다. 남쪽에는 길곡면 중길마을과 이어지는 큰 무정치, 북쪽에는 길곡면 상길마을과 통하는 작은 무정치 고개다.

특히 남쪽의 큰 무정치 고개는 신라시대 인마의 왕래가 많아 한길(大路)로 닦여졌다고 한다. 후대에 와서 다른 쪽으로 신작로가 생기고 차가 다니면서 고갯길의 이용이 크게 줄었으며 근래와 와서는 주변에 새롭게 임도가 개설되면서 보행이 거의 끊어져 버렸다.

신라시대 이후에는 부산, 김해 등지에서 뱃길로 북곡면 임해진까지 와서 길곡면 마천을 경유 해서

이 무정치를 넘어 영산-창녕-대구, 경주, 서울 등지로 연결되는 고개였다. 신라시대부터 큰 길로 번창했던 것으로 보아, 예리(모리)마을 아래쪽 서부실 마을에 있었던 서화현 관원이 경주로 향할 시 북으로는 첩첩산중이니 남으로 가서 낙동강 도선을 이용하여 밀양, 청도, 양산 등을 경유하는 코스로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정치 고개라 불리게 된 것은 오누이간의 슬픈 사연 때문이라 구전되고 있다.

친정에 왔던 시집간 누이가 시집으로 돌아갈 때 배행을 나섰던 오라비가 마침 이 고개 근처에서 소나기를 만났다. 여름이라 앞서 가던 누이의 옷이 빗물에 젖어 예쁜 곡선이 그대로 보이게 되었다. 뒤따르던 오라비가 이를 보고 음심이 발동하였다. 순간적인 일이었으나 누이에게 음심을 품게 된 것이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라 몹시 자신을 자책하여 누이에게 “먼저 가거라”고 이르고는 고갯마루 바위에 낭심을 돌로 짓이겨 피를 많이 흘려 결국 죽고 말았다.

누이가 걱정이 되어 산길을 되돌아보니 오라비는 유혈이 낭자하여 죽어 있었다.

그 누이가 통곡하며 말하기를 “아이고 무정한 우리 오라비야! 말이라도 해 보지!”하였다 한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는 신행은 더 이상 이 고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고갯마루에는 돌무지가 있는데 행인은 물론 나무꾼들도 고개를 오르내릴 시 돌 하나씩을 던지며 무사를 기원하며 오라비의 명복과 자신의 행운을 빌었다 한다.

나무꾼들은 돌을 던지는 날엔 나무를 쉽게 한 짐을 해오는데 돌을 던지지 않은 날에는

나무 한 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전한다.

북쪽에 있는 작은 무정치 고개는 남쪽에 비해 행인의 발길이 많지 않았다. 이 고개 또한 길곡면과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남편에게 구박 받다 이혼한 본처가 남편과 세상을 원망하며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아랫마을에 주색으로 방탕한 남자가 살았는데 남자는 못생기고 농사일 밖에 모르는 본처를 날마다 구박하는 사람으로 예쁜 첩을 얻자 본처를 집에서 쫓아냈다. 본처는 첩을 얻든 술을 마시든 좋은데 그냥 살게만 해 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끝내 그녀는 쫓겨 나고 말았다. “아~ 남편도 하늘도 모두 무정 하구나” 하느님에게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나 별 소용이 없자 그녀는 이 세상을 저주하고 무정한 남편을 원망하면서 뒷산 고개에 올라 죽었다. 훗날 사람들이 한을 품고 죽은 그녀의 원혼을 기려 애도했으며 본처의 불쌍한 모습을 슬퍼하여 이 고개를 “무정치 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무정치(좌 : 작은 고개, 우 : 큰 고개)

도천면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리(禮里)는 신라 때 서화현(西火縣)이 있었다는 서부실이 있는 마을이다. 도덕봉(道德峰) 줄기가 뺨어내려 들과 골짜기를 만들어 한 고을이 형성되었다. 덕실에서 흘러내리는 냇가 서부실과 새터(예리2구)로 흐르면서 이루는 들은 논리 앞을 지나 길곡면 오호리와 도천면 송진리 까지 이어진다. 예로부터 땅이 기름져 오곡이 잘 자라니 살기 좋은 고장이다. 그런 연유로 신라 때 서화현(현 서부실)이 들어섰던 곳이다.

이 일대에 서화현의 현청이 있었을 때 꿩다는 서블새미가 예리와 인근지역 어만리 두 곳에 있으며, 당시 사람들이 말(馬)에서 내려 말을 매어놓고 현청으로 들어갔다. 그 말을 맨 곳이 지금의 마밭(馬田/예리2구 중 자연마을)이다. 또한 신라 때 1만호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했다는 어만리(於萬里)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아마 ‘많다’는 것을 강조하여 일만 ‘만(萬)’자를 쓴 것으로 추측한다. 신라 때 한길(大路)로 통하는 무정치 고갯길은 옛 과거 길로서 사람들의 수많은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길이다.

“호구총수”에 나오는 촌명은 모례리(慕禮里)이다.

“예리”라는 명칭은 “모”가 떨어져 나간 형태인데, 지금의 명칭은 1914년 모리(慕禮)와 새터(新禮)가 병합되어 쓰여진 행정 리 명이다. 현 모리는 예리1구가 되었고, 새터는 예리2구가 되었다. 도덕산(道德山)기슭에 자리한 이 동네가 필자의 고향이다. 살면서 도덕(道德)을 잘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어릴 때부터 ‘도(道)’는 삶의 ‘근본 원리’를 말하고 ‘덕(德)’은 삶의 ‘보편법칙’으로 알고 배웠다. 하늘의 운행이치(道)를 바탕으로 상대를 보살피는 마음(德)을 가지라는 의미다. 모리(예리1구)의 가구수는 과거엔 120호가 넘었으나 지금은 70여 호에

불과하다. 예리1구 마을은 청주 한씨와 나주 임씨 집성촌으로 이곳에서의 입향과 함께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道)와 예(禮)를 숭상하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짙다.

예리에는 청주 한씨 재실인 ‘도양재(道陽齋)’가 있다. 도(道,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항상 ‘참(眞/밝음)’과 ‘거짓(假/어둠)’이 있으니 잘 분별하라는 뜻이라고 들었다. 별 ‘양(陽)’자속엔 ‘거짓’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개보수 확장이 되어 지금의 재실이 되었다. 재실 중건기(重建記)를 해석한 설명문을 통해 마을의 역사를 기늬해 볼 수 있다.



도양재

道陽齋 重建記(도양재 중건기)

옛 영산고을 남쪽 도덕산(道德山) 아래에 마을이 있으니 모리(慕里)라고 하는데, 청주 한(韓)씨가 대를 이어 지켜온 고장이다.

한(韓)씨의 선조는 동추공 휘 술(同樞公 諱 述)

이요 안양공 휘 종손(安襄公 諱 終孫)(공조판서 역임, 工曹判書 歷任)의 7세손으로서, 선조(宣祖) 때에 청주로부터 처음 영산으로 와서 이 마을에 삶을 정하여 자손에 미치니 이제는 세(世)가 십(十)대를 지나고 호수가 수백에 이르며 사람들이 모두 윤리도덕에 두텁고 부지런하며 올바른 문벌로 고을에서 일컬어 왔다.

중세에 와서 모든 자손들이 공을 사모하려고 세 칸 재실을 산 아래에 지어서 도양재(道陽齋)라 현관하고 해마다 시사 때에 재숙(齋宿)하고 손님을 맞으며 후손을 가르치는 곳으로 삼았더니 세월이 오래되어 허물어지고 기울어서 무너져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모든 자손들이 뜻을 합하고 의논하여 철거하고 중건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지난해(癸亥年/1983年)에 시작하여 금년 봄에 준공을 고하니 그 규모를 더 넓혀서 훌륭하게 다섯 칸을 엮어 正堂과 문간과 행랑이며 부엌들을 환경에 맞추어 구비하게 하고 담장은 또한 치밀하고 사치하게 하여 돋보이게 하였다.

일이 이미 끝남에 후손인 원삼(元三)이 문중의 뜻에 따라 내 집을 찾아와 기문을 청하고 또한 원직(元直)이 지은바 있는 공의 사적과 행장을 내 보였다.

거기에 말하기를 “공께서는 효(孝)는 어버이에게 출천지효(出天之孝)요, 살아 계실 때 섬기는 일과 장례와 제사에는 정성을 다 갖추었다. 선대의 분묘가 모두 청주에 있어 천리를 멀다 아니하고 해마다 반드시 한 번은 성묘하여 잔을 올렸다. 나이 많아 근력이 쇠하여 거행이 어려움에 동산에 단을 모아 날로 바라보며 추앙하더니 단의 제삿날에는 북쪽을 향하여 망배(望拜 : 멀리 바라보며 절 하는 것)하는

것이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그만두지 않았다”하니 이에 공의 두터운 효의 실상을 가히 알만하다.

대개 효는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이요, 만 가지 착함의 근본이라 공께서 이미 그 근원과 근본에 독실함이 이와 같았으니 그 외에도 착한 일을 하여 기록할 만한 것과 자손에게 끼친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이로부터 십(十)세가 지난 지금 사람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패한 때에 그 후손이 된 사람들이 능히 나쁜 일에 빠지지 않고 먼 조상을 생각하고 근본에 보답하는 일에 정성과 힘을 다하고 더욱 돈독히 하여 먼저 재실을 작은 것을 크게 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어찌 공의 끼친 혜택이 아직 끊어지지 아니함이 아니리오.

오직 원하노니 후손인 모든 공들은 오늘 재실을 지은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인륜에 두텁고 몸을 닦는데 힘써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오로지 아름답게 지은 바를 감동하고 분발한다면 어찌 한(韓)씨 한 문중의 영화에 그치지 않고 이 또한 국가의 풍화(風化)에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일에 권이(權伊)가 사실 주역으로 노력하였고, 상술(尙述), 정윤(丁潤)이 도왔으며 오작(五作)과 상수(相守), 경윤(敬潤), 덕수(德守)와 금돈(金敦)이 특별히 성금을 내었다고 한다. 아울러 기록하여 재실의 옛날에 있었던 사실로 갖추노라

甲子年(갑자년, 1984年) 立夏節(임하절)에 碧珍 李興中(벽진 이흥중)은 撰(찬)하노라

〈한삼운〉

21

도천면 호국충정 무궁화백리길



창녕 도천면을 무대로 백리길 무궁화가 아름답게 피고 있다. 한때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진주를 중심으로 지방도로 가로수로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래서 지리산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차창 밖을 보면서 불그스름한 꽃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 있는 풍경을 보며 감탄하였다. 이름 모를 나무와 꽃이 선물하는 경치는 신비롭다. 창녕에도 명품 무궁화 가로수 있어 창녕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자 소개한다. 원래는 영산과 남지를 잇는 국도 5호선이었으나 1997년 1월, 죽사리~남지대교~칠서면으로 이어지는 2차선의 기존국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죽사리~창녕 도천면~함안 칠북면과 칠원면을 연결하는 노선을 2001년 완공하게 됨으로써 국도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쓸쓸함을 무궁화가 대신 해주듯 영산에서 창녕까지, 또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 돌출부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남지

읍 월하리 박진전쟁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도로까지 선국선열을 추념하는 나라꽃이 심어진 것이다. 나라사랑의 꽃길이다.



전하는 이야기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1896년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의식 때, 애국가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을 넣으면서 민족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무궁화 노래는 아마 박종오 작사, 함이영 작곡의 동요일 것이다. 1946년 8월 미 군정청에서 《초등 노래책》을 새로 엮었는데 최초의 국정 음악 교과서였다. 그 책에서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이 실려 알려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 많이 불리었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요가 안병원 작곡의 ‘우리의 소원’, 권길상 작곡 ‘과꽃’, 김메리 작곡의 ‘학교 종’, 손대업 작곡의 ‘얼룩 송아지’ 등이 새 교과서에 실려 널리 불리었다.

해방과 독립을 맞이한 격동의 시대에 동요는 황금을 맞이하였다.



무궁화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해경》제 9권 <해외동경>(海外東經)편에 ‘군자의 나라가 북방에 있다… 훈화초(무궁화)라는 식물이 있는데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는다(君子國在其北…有薰(薰)花草 朝生夕死)’라는 기록과 897년 신라 효공왕 원

년, 당나라 광종에게 보낸 국서에 신라를 ‘근화향(槿花鄉)’이라고 대문장가 최치원의 《최문창후문집》(崔文昌侯文集) 초안에도 있다고 전한다.

이처럼 무궁화는 근화(槿花)라고도 한다. 내한성(耐寒性)으로 높이 2~4m이고 때로는 거의 교목이 되는 것도 있다. 전체에 털이 없고 많은 가지를 치며 회색을 띤다. 잎은 늦게 돌아나고 어긋나며 자루가 짧고 마름모꼴 또는 달걀모양으로 길이 4~6cm, 너비 2.5~5cm며 얇게 3개로 갈라지며 가장 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표면에는 털이 없으나 잎 뒷면에는 털이 있다. 꽃은 반드시 새로 자란 잎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피고 대체로 종(鍾) 모양이며 자루는 짧다.

꽃은 지름 7.5cm 정도이고 보통 홍자색 계통이나 흰색·연분홍색·분홍색·다홍색·보라색·자주색·등청색·벽돌색 등이 있다. 꽃의 밑동에는 진한 색의 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무늬에서 진한 빛깔의 맥(脈)이 밖을 향하여 방사상으로 뻗는다. 꽃은 홑꽃과 여러 형태의 겹꽃이 있다. 홑꽃의 꽃잎은 대체로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으로 5개인데 밑동에서는 서로 붙어 있다. 겹꽃은 수술과 암술이 꽃잎으로 변한 것으로 암술이 변한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출처 : 두산백과]

창녕의 호국정신을 보여주는 무궁화길은 영산호국공원에서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혼을 모신 창녕읍 퇴천리 충혼탑까지 40km(100리) 길에 무궁화 1만여본을 심어 2004년에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고, 2014년에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제1회 명품 무궁화 가로수길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시상금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한 뜻이 담긴 무

궁화길은 어떻게 보전할 것이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다. 조금 아쉽다면 망우정에 가보면 입구에 흰 무궁화꽃들이 피어 있는데 홍의장군 곽재우과 함께 왜적을 물리친 의병들의 길과 6.25전쟁 낙동강 남지박진지구에서 붉은 무리를 물리친 무명용사들의 길에도 보완하여 국난극복의 혼과 얼을 무궁화로 승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길의 관리는 지자체도 잘 하겠지만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남지비상활주로 관리 부대와 공조한다면 더욱 빛날 것이다.



영취산 아래 큰 들판에 확보된 남지 비상활주로는 1970년에 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공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다. 2001년 국도 5호선이 영산 죽사리에서 남지를 거쳐 지나가는 경유지에서 벗어나 영산 죽사리에서 함안군 칠서면 이령리를 지나가는 새로운 구간으로 설계되기 전까지 국도 5호선과 평행선으로 비상시 군용항공기 지원도로로 사용하였다. 6.25전쟁때 낙동강 남지박진전투에서 활약한 항공기의 중요성을 알기에 구축한 것이 아닐까?

시대가 달라져 군부대의 활동과 작전의 일부를 지역민들에게 시연하고 군사기지의 중요성을 동의 받고 있다. 2019년 11월 21일 뉴시스 보도를 통해 점점 열려가는 오늘날의 국정참여를 보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공군작전사령부는 훈련에서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KF-16과 국산 FA-50 전투기와 KT-1 훈련기 등 총 8대의 전력이 참가시켰다. 두 번의 사전훈련을 진행하고, 비행절차

와 각종 작전지원 소요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국산 전투기 FA-50은 착륙 이후 정비와 재보급을 받은 뒤, 재출동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비상활주로 운용능력을 검증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전투기를 비롯한 훈련기 등 8대의 비행기 뜨고 내리는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전국에 6개의 예비항공작전기지가 있는데, 창녕 낙동강 남지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예비항공작전기지 앞에 피고 있는 무궁화꽃은 호국충절의 표상이다. 매년 6월에서 9월까지 울긋불긋 피어나는 무궁화꽃길은 하늘을 수호하며 나는 군용기와 비행기들이 비상시 착륙과 이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도 불빛처럼 선명한 무궁화 붉고 흰색으로 호국충정을 꽃 피운다.

〈김부열〉

22

도천면 도천수문과 팽나무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당시로는 상상 못 할 공사가 있었다. 공사의 목적은 1920년 6월 도천수리조합 인가에 따라 수리시설의 수문을 만들기 위하여 산을 절개하는 공사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망우정과 연결된 혈맥자리 근처 요갱이 부르는 요광원(要光院)이 있었던 곳을 절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혈맥 자르기로 저지른 만행은 엄청나게 많고 많다. 분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명명백백하다. 임진난 때 낙동강에서 침략한 왜구들을 물리친 홍의장군의 활약상을 모를 리가 없을 일제가 꾸민 계략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구전에 의하면 비슷한 사례가 강 건너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용화산에서도 일어났다.

1933년 완공된 남지철교 건설하면서 은행나무 뒤편으로 신작로(지방도 1040호)를 만들기 위해 풍수지리적으로 용화산은 용이 낙동강을 끼고 누워 꿈틀대는 아흔아홉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용의 목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잘랐다는 것이다. 그 자른 혈맥(血脈) 자리에 몇일간 피가 솟구쳤다는 말도 있었다. 과장인지 몰라도 손대지 말아야 할 성스러운 곳을 함부로 파손시킨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남지철교 건설 당시 지역민들의 반대에 따라 위치선정에 대한 반발도 많았으나, 결국 암반이 있는 곳에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에 따라 설계대로 진행되었다.



도천수문도 같은 맥락에서 망우정과 연결된 혈맥을 자른 것이라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지도상으로 보면 낙동강이 휘돌아가는 송강(松江) 망우정 오른쪽 암반이 있는 곳에 수문을 만들어도 될 것인데, 굳이 산을 절개한 것은 계략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동아일보 1927년 10월 14일자 '전 조선수리조합 실태답사기' 탐방기사에 보면, '도천수리조합 역시 낙동강 연안이면서 전기 영남수리조합의 동편에 인접한 면적 147정보 작은 수리조합으로 1920년 3월

19일에 설치인가를 받은 것이니까 비교적 일찍 된 것에 속한다. 관개는 자연수에 의하여 하게 되고 배수설비는 갑문을 두어 자연배수한 고로 설비 중 가장 큰 자는 이 역시 낙동강연안이라 방수제방 뿐이다. 따라서 사업비는 총히 49,400원에 불우하여 반당 33원 60전강이다. 따라서 별표와 같이 조합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라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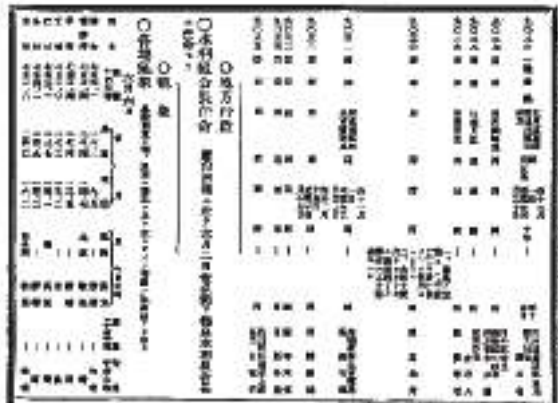
도천수리조합의 규모는 영남수리조합이 1032정보 300만평인데 비하면 작은 면적으로 147정보 45만평 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문을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한 이유와 갑문이라 표기할 정도로 투자할 연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추론하건데 수리시설을 빙자하여 홍의장군의 유적지 주변을 정략적으로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도천수문을 직접 가보면, 산 전체가 암반인데 수로를 파낸 것을 보면 공사에 동원된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 당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면서 진행도 했겠지만, 포크레인도 없었던 시대에 쇠정과 쇠망치질한 조선인들의 피와 땀

으로 파낸 자리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적어도 100m의 수로를 파내면서 수억 만번의 쇠망치질 소리를 도천수문 꼭대기에 있는 팽나무와 대나무는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6월 10일 수리조합장 임명
 우강마을을 반으로 자르는 도천수문(都泉水門)이 193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37년에 준공하였다는 기록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천수리조합의 설치인가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후일 수리시설 추가공사를 했다면 설득력은 있다. 최근 함안군에서 용화산 용머리 복원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는 것을 볼 때, 우강마을의 도천수문도 슬픈 역사지만 근대농업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할 만한 유적으로 보전해야 할 것이다.

도천수문 위에 선 팽나무는 망우정 팽나무와 같은 수종이나 수령은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별장으로 관리하는 집 마당에 선 팽나무지만, 30년전 처음 보았을 때 감탄할 정도로 탐나는





형세였다. 도천수문의 역사를 지켜본 팽나무는 아마 요광원(要光院)이 있던 자리는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하면서 소개한다. 요광원은 고려시대 이후 역원제도의 일부로 공적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에게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30리마다 설치한 시설로 함안과 창녕을 이어주는 쇠나리(송진) 주변 풍광이 좋은 곳에 만들었을 것이라고 망우정과 연결하여 가정해본다.

팽나무는 누기(漏氣) 있는 땅과 마른 땅의 경계에 주로 산다. 강과 육지의 경계인 자연제방이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인 해안 충적 구릉지에서 자주 발견된다.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의 온화한 마을 어귀나 중심에서 마을나무나 당산나무로 자리 잡아 전통 민속경관을 특징짓는 대표 종이다. 해안지역에 더욱 흔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공간인 당집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장수하는 유전적 특질과 새들의 먹이인 열매를 풍성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영육(靈肉)의 생명 부양 나무로서 소중한 역할을 한다.

팽나무는 느티나무처럼 1,000여 년 살지는 않지만, 500여 년을 예사로 사는 장수 종이다. 속명 셀티스(Celtis)는 고대 희랍어로 '열매가 맛있는 나무'란 뜻으로, 열매가 달콤해서 새들이 무척 좋아한다.

오랜 세월 동안 한 장소에서 많은 생물을 부양하는 셈이다.

팽나무처럼 장수하는 종은 매우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노거수(老巨樹) 수형(樹型)이나 건강상태로부터 지역의 자연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거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히 감소되었고, 그로 인해 농촌의 전통 경관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한글명 팽(imagefont)나무는 한자 膨木(팽목), 朴樹(박수) 등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달주나무라고도 하며, 한자로 靑檀(청단)이라고도 한다. imagefont나무의 'imagefont'은 'imagefont다', 즉 이삭이 패다, 꽃이 피다가 어원인 말이다. 팽나무는 영육의 생명 부양 나무로 다산과 풍요 그리고 안녕을 보살피는 민속적 관계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한자명 포슈(朴樹, 박수)는 샤먼(무당, 점(卜)을 치는 사람)의 나무(木) 또는 신령스런 나무라는 의미다. 박수무당(朴樹巫堂)이라는 것도 팽나무(朴樹)로 대표되는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굿을 하는 남자 무당을 말한다. 이처럼 팽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신목(神木)으로 인식되었던 민족식물이다. [출처 : 한국식물생태보감, 김종원]

〈김부열〉

23

도천면 망우정의 팽나무





홍의장군 곽재우(郭再祐 1552~1617)는 왜? 낙동강 망우정에서 만년을 보냈는가? 궁금하였다. 자신의 생가와 가족이 있는 의령 유곡 세간마을에서 살지 않고 망우정에서 운명하셨는가? 선생의 최후까지 지켜본 팽나무는 그 뜻을 알까?

『용화산하동범지도(龍華山下同泛之圖)』에도 현존하는 팽나무가 보인다. 도판에서는 망우정을 ‘창암정’이라 적고 있다. 곽재우는 1600년 봄에 병을 이유로 삼아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사직하였다. 이 때문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2년 동안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되었고, 그 후 현풍 비슬산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다가 1602년 영산현 남쪽 창암진(蒼巖津, 지금의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강가에 망우정(忘憂亭)을 짓고 기거하였다. 이후 망우당(忘憂堂)이라는 곽재우의 호(號)도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한다.



이 도판에도 곽재우는 창암정에서 찾아 오는 선비들과 나룻배를 띄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곽재우는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대개는 이순신장군의 투옥과 절친했던 의병장 김덕령의 무고한 옥사(獄死) 때문이었다고 한다.

1604년과 1610년 조정의 부름을 거절하지 못하고 관직에 나간 적이 있으나 삼도수군통제사·한성부우윤·한성부좌윤·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의 제수하여 불렀으나, 모두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아마 처음에는 1585년(선조 18년) 과거를 보아 별시문과(別試文科)의 정시(庭試) 2등으로 뽑혔으나, 지은 글이 선조의 비위를 거스른 까닭에 급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파방을 겪고 난 후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키고 국난극복에 헌신하였지만, 전쟁이 끝나자 벼슬을 버리고 현풍에 돌아와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갔다. 처음부터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고, 생사를 초월한 기개(氣概)는 선조와 광해군으로 바뀌는 과정에 세력을 잡게 된 정인홍 등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곽재우가 망우정을 짓고 만년을 보내면서 쓴 시(詩)에서 망우정을 떠나지 않은 심경을 읽을 수 있다.

1. 初構滄巖江榭 (초구창암강사) 처음 창암강사를 얻고

斥土治巖階自成° (척사치암계자성) 땅 파고 바위 쪼으니 계단이 절로 만들어지네
 層層如削路危傾° (층층여삭로위경) 층층이 가파란 길 위태롭게 기울었네
 莫道此間無外護° (막도차간무외호) 여기 울타리 없다고 말하지 말게
 李三蘇百玩空明° (이삼소백완공명) 장삼이사 누구나 밝은 달을 보아야지

2. 歸江亭 (귀강정) 강가 정자로 돌아와

誤落塵埃中° (오락진애중) 티끌 가득한 세상 살아가려다
 三千垂白髮° (삼천수백발) 흰 머리만 한가득 해졌네
 秋風野菊香° (추풍야국향) 가을바람에 들국화 향기 가득 맡으며
 策馬歸江月° (책마귀강월) 말을 달려 달빛 가득한 강가로 돌아왔네

3. 江榭偶吟 (강사우음) 강가 정자에서 시를 읊다

下有長江上有山° (하유장강상유산) 아래로 긴 강 흐르고 위로는 산이
 忘憂一榭在其間° (망우일사재기간) 근심 잊을 집 한 채 그 사이에 있네
 忘憂仙子忘憂臥° (망우선자망우와) 망우선자 근심 잊고 누워 보니
 明月清風相對閑° (명월청풍상대한) 청풍명월 서로가 한가롭구나

4. 江榭偶吟 (강사우음) 강가 정자에서 시를 읊다

朋友憐吳絕火煙° (붕우연오절화연) 친구들은 곁기를 끊은 나를 불쌍히 여겨
 共成衡宇洛江邊° (공성형우낙강변) 낙동강 변에 함께 오두막집을 지었네
 無飢只在啗松葉° (무기지재담송엽) 솔잎을 먹으니 허기는 없어지고
 不渴惟憑飲玉泉° (불갈유빙음옥천) 맑은 샘물 마시니 목마르지 않구나
 守靜彈琴心澹澹° (수정탄금심담담) 고요함 속에 거문고 타니 마음도 고요하고
 杜窓調息意淵淵° (두창조식의연연) 문 닫고 호흡 고르니 생각이 깊어지네
 百年過盡亡羊後° (백년과진망양후) 백년이 흘러 진실을 잊은 후에
 笑我還應稱我仙° (소아환응칭아선) 나를 비웃던 이들 도리어 나를 신선이라 하리라

[출처 : 『忘憂先生文集』卷2]

또한, 굽이치는 낙동강과 강변 모래사장이 내려다보이는 야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망우정을 광재우는 죽기 전에 외손 되는 벽진이씨 이도순(李道純)에게 망우정을 물려주었기에 여현정(餘賢亭) 현액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 사연을 읽어 보면 광재우의 도량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현정은 조선 중기의 학자 간송당 조임도(趙任道 1585~1664)가 이도순에게 제안한 명칭으로, ‘광재우가 어진 이에게 물려준 정자’라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여현정기(與賢亭記)는 조임도선생의 간송선생문집 4권에 전한다.

‘여현정은 영산현(靈山縣) 읍치에서 1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다. 북쪽으로는 깎아지른 산기슭을 베고 있고, 남쪽으로는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다.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백사장은 눈이 내린 듯 하얗다. 곳곳이 구름에 덮인 산이고, 사방이 확 뿔려 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 낸 절경이다. 이곳은 바로 옛날에 곽망우당(郭忘憂堂. 곽재우)의 정사였는데, 지금은 나의 벗 이자수(李子粹. 곽재우의 외손서) 군의 소유가 되었다. 어찌 곽 상공의 정사(精舍)였던 것이 이군의 소유가 되었는가? 어

찌 예전에는 ‘망우정(忘憂亭)’이라 편액(扁額)했던 것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었는가? 어진 이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곽 상공이 이군에게 준 편지를 읽어 보았는데, 그 편지에 “요순은 천하를 어진 이에게 주었고 나는 강가의 정사를 어진 이에게 준다. 주는 것의 크고 작음은 비록 천지 차이지만 그 주는 바의 의도는 요순과 내가 같다. 내가 보건대 강가에 정사를 지은 사람 중에 능히 그 정사를 지킨 사람이 드물었으니, 무엇 때문인가? 능히 어진 이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한 정사를 사사롭게 여기지 않고 그대에게 주는 것은 그대에게는 산수(山

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내 정자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내가 그제야 곽 상공이 정자를 준 까닭과 이군이 받은 까닭을 알았다. 곽 상공은 초야에 은둔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그곳에서 장차 세상을 마칠듯이 하였다. 난리가 일어나는 시대를 만나 의병을 창도(唱導)해 왜적을 토벌하여 명성이 당대에 떨쳤고 지위가 2품에 올랐는데도 헌신짝 버리듯 벼슬에서 용감히 물러났다. 초연히 속세를 벗어나 신선술에 의탁하여 곡식을 물리치고 술값을 먹으며 강호(江湖)에서 늙어가도 후회하거나 근심함이 없었으니, 명철(明哲)하지 않고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군은 평정공(平靖公)에게서 소박한 기풍을 이 어받았고 충간공(忠簡公)에게서 넉넉한 아름다움을 받아, 풍모와 기개가 다른 집안과 달랐다. 집안에 거처할 적에는 효성스럽고 공손한 행실을 몸소 실천했으며, 세상에 처신할 적에는 모나게 행동하는 병통을 끊어버렸다.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초연히 속세를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었으니, 어질지 않고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건대, 곽 상공 같은 명철함이 아니라면 이군이 어진 줄을 알아서 강가의 정사를 부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군 같은 어짊이 아니라면 곽 상공의 명철함을 보고 자기를 알아주는 분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명철함과 어짊이 만나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루었고, 천년토록 쉽게 얻을 수 없는 미담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렇지 않다면, 이군은 곽 상공에게 외손서(外孫壻)일 따름이고, 곽 상공의 자손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강가의 정사를 부탁하기를 저 자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군에게 하였으니, 이런 이치가 있는가. 내가 여기에서 곽 상공은 명철하고 이군은 현명하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다. 정자에 ‘여현(與賢)’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

‘망우(忘憂)’를 ‘여현(與賢)’으로 바꿀 것을 청한 것이 옳은가? 이군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대는 나를 희롱거리로 만들 셈인가? 정자 주인이 스스로 어질다고 일컬으면, 나를 비웃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여, 내가 또 설명하기를 “‘여현(與賢)’이란 글자는 곽 상공의 글에서 나왔으니, 그대는 어찌 꺼려서 굳이 피하려고 하는가? 그대는 청컨대 작은 혐의를 피하지 말고 그 실질을 힘쓰면 선할 것이네.”라고 하였다. 이군이 “‘실질을 힘쓰는’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곽 상공이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고 한 맹세를 그대가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곽 상공이 자연에서 유람한 것을 그대가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네. 풍월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고, 시와 술을 그만 두어서는 안 되네. 무릇 곽 상공의 낚시터와 고기잡이배, 거문고와 술항아리, 붓과 책상, 약탕기와 차술을 모두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곽 상공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곽 상공의 유적은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을 것일세. 곽 상공이 그대에게 부탁한 뜻이 여기에 있을 것일세. 그러니 그대는 힘쓰고 힘쓰시게.”라고 하자, 이군이 “알겠네.”라고 하여 드디어 그 기문으로 삼았다. 함안 조임도 기록하다.

與賢亭在靈山縣治十餘里°北枕斷麓°南臨大江°蒼厓擁屏°白沙鋪雪°面面雲山°四望通敞°眞天作之絕勝°乃故郭相公忘憂精舍°而今爲吾友李君子粹之所有也°曷爲相公之舍而李君有之也°曷爲舊扁忘憂而易以新號歟°與賢故也°吾嘗讀相公與李君書曰°唐虞以天下與賢°吾以江舍與賢°所與之大小雖若天淵°其所以與之之意°堯舜與我同耳°吾觀作亭於江上者°鮮有能守之者°何哉°以不能與賢也°今吾不私一亭°與之於君者°以君有喜好山水之心°而可以守吾亭也°吾乃知相公之所以與°李君之所以得矣°相公嘉遯林泉°若將終身°逢時板蕩°倡義討賊°名震一世°位躋二品°而脫屣勇退°超然塵臼°託於仙術°辟穀餐松°終老江湖°無悔無悶°不明而能之乎°李君襲素風於平靖°沐餘休於忠簡°文彩氣岸°異乎他族°而居家躬孝弟之行°處世絕厓角之病°性好山水°超然有出塵之想°不賢而能之乎°余謂非相公之明°不能知李君之賢而託以江舍矣°非李君之賢°不能當相公之明而許爲知己矣°是知明與賢相孚°而成就得一箇好事°將爲千載不易得之美談矣°不然°李君於相公°外孫壻耳°相公子孫不爲不多°而江舍之託°不於彼而於此者°有是理耶°余於是益信相公之明而李君之賢也°名亭以與賢°不亦可乎°請以與賢換忘憂可乎°君蹙然曰°子欲以我爲玩戲之具耶°亭主自稱賢°則人不笑我者乎°余又解之曰°與賢字出於相公之文°君何嫌之固避乎°君請不避小嫌°而務其實則善矣°君曰°何謂務實也°曰°相公鷗鷺之盟°君不可不尋也°相公煙水之遊°君不可不續也°風月不可閒也°詩酒不可廢也°凡相公釣磯漁艇琴罇筆床藥壺茶鼎°皆不得使之荒涼°則相公雖逝°而相公之遺跡°永久不替矣°付託之意其在斯歟°君其勉旃°君其勉旃°君曰諾°遂爲之記°

[출처 : 한국고전종합DB - 간송집(澗松集) 『澗松先生文集』 卷4]

곽재우를 사모하는 정이 남다른 조임도가 쓴 시(詩))에서 곽재우를 그릴 수 있다.

題郭丈忘憂亭 (제곽장망우정) 곽 어른의 망우정에 쓰다

烈烈郭兵使°(렬렬곽병사) 기개가 있는 곽 병사는
堂堂眞丈夫°(당당진장부) 뜻이 큰 참된 대장부네
文章追謝陸°(문장추사륙) 문장은 사영운과 육유를 따르고
合變邁孫吳°(합변매손오) 임기응변은 손무와 오기보다 나았네
偉績銘彝鼎°(위적명이정) 위대한 공적은 예기(禮器)에 새겨지고
雄風振海隅°(웅풍진해우) 위엄 있는 기세는 우리나라에 떨쳤네
功成身自退°(공성신자퇴) 공을 이루었으나 자기 스스로 물러나
從此老江湖°(종차로강호) 이로부터 강호에서 늙어갔네

[출처 : 『澗松先生續集』 卷1]

〈김부열〉

24

망우당의 넋을 기리는 여현정의 느티나무



망우정

망우정은 임진왜란 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고귀한 넋이 서려 있는 성지다. 이곳을 지키는 나무들은 당시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망우당 곽재우 장군은 1552년(명종 7년) 8월 28일, 외가인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황해도 관찰사 곽 월, 모친은 진주 강씨로 남명 조식 선생의 외손자이다. 34세 때 정시 2

등으로 합격했으나 당시 지은 글이 선조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발표한지 수일 만에 무효화 시켰다. 그 뒤 과거에 나갈 뜻을 포기하고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인 기강 위 둔치에 집을 짓고 평생 은거할 결심을 하였다.

그 곳에 머문 지 3년 만인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병이 몰려오자 4월 22일에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대신해 싸웠다. 초기에 노비 10여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틀만에 50여명으로 늘어났고, 그 뒤 2,000여명에 이를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 기세가 높고 사기가 충천한 병력으로 초기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러한 공로로 유곡 찰방에 이어 형조정랑에 제수 되었다. 동년 10월에는 절충장군으로 승진하여 조방장을 겸하였다.

이듬해 12월 상주 목사에 임명되어 삼가의 약전 산성 수축에 열중하다가 1595년 진주목사로 전근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현풍으로 돌아갔다.

1597년 명나라와 일본간에 진행되던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일본의 재침이 뚜렷해지자 조정의 부름을 받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 경상좌도 방어사로 현풍의 석문 산성을 신축했다. 그러나 역사를 마치기도 전에 왜군이 침입해 8월에 창녕 화왕산으로 옮겨 성을 수비했다. 그 뒤 계모 허씨가 사망하자 성을 나와 벼슬을 버리고 울진으로 가서 상을 입었다.

1599년 다시 경상우도 방어사에 임명되었으나 상중임을 구실로 나가지 않았다. 그 해 9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제수 되었으나 10월에 이르러서야 부임하였고, 영의정 이원익의 파직에 항의하면서 선조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문제로 결국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갔다가 2년만에 풀려났다.

전란이 끝난 뒤 공훈에 합당한 포상이나 예우를 받지 못했고, 선무공신에 책봉되지도 못했다. 이런 저런 벼슬을 수없이 주어 불렀지만 부임했다가 사직해 버리고 1602년에 창녕 도천면 우강 강변에 조그만 정자를 지어 망우정이라 하고 호도 망우당이라 하여 낚시로 소일하고 거문고를 타며 은둔생활을 하면서 익힌 곡식은 끊고 솔잎만 먹고(辟穀餐松) 세상을 벗어나 살다가 66세를 일기로 1617년 이 곳에서 돌아가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에 안장되었다. 경북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예언서원에 사액이 내려졌고, 1709년(숙종 3년)에 병조판서 겸 지의검부사로 추증되었다.

만년에 근심 걱정을 잊는다 하여 망우정을 지었지만 그의 시름은 계속되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의 와중에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 같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격 탓에 임금을 믿고 따를 수 없었으며 주위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망우당 보호수 느티나무



망우당 여현정

망우정은 도천면 우강리 중 우강2구에 있다. 망우정이 위치해 있는 이 곳에 ‘요광원(要光院)’이 있었다. 이는 창원-칠원-영산간의 교통의 요지라고 전해진다. 요광(要光)이 요강(要江)으로 후대에 달리 쓰였다 할 것이다.

우강리는 효우촌(孝友村)과 요강원리(要江院里)로 따로 따로 있었다가 합해지며 양쪽의 지명을 한 자씩 따 모아 우강리(友江里)가 되었다.

요강(要江)은 강이 남지쪽에서 동쪽으로 향해 흘러오다 여기 부엉덤에 그 물살이 부딪치며 큰 회수를 이루어 소를 만들며, 남으로 등근 흐름이 되어 나감에 따라 그 형태가 오목하므로 오목한 강-오강-요강으로 불리었거나 강의 허리란 의미에서 ‘요강(腰江)’의 의미다. 또한 오줌을 받는 그릇인 ‘요강’과 음도 같고 강의 생김도 일치하여 우습게 들려 별로 좋지 못하였으므로 1914년 북쪽에 있는 효우촌과 합하여 질 때 ‘우강’으로 된 것이다.

‘망우정(忘憂亭)’을 ‘여현정(與賢亭)’이라고도 한

다. 망우당 사후, 관리를 외손인 벽진 이씨에게 물려 주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우정이 있는 곳은 강변에 솟은 절벽으로 강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유허비(遺墟碑)가 덩(바위)위에 서 있다.

동네 청년회에서 이 일대 700여평을 잘 가꾸어 “창암공원”이라 하여 보호하고 있다.

망우정은 6.25 한국전쟁 시 소실되어 증건되었고, 1979년 행정에서 전면 보수하였다. 1991년 사적을 적은 비를 세우고 유허비를 보호하는 비각을 지었다.

망우당은 이 강정에서 금서(琴書)로 벗을 삼고 풍월을 읊으며 술잎으로 양식을 하고 살았는데 그가 이곳에서 남긴 여러편의 시(詩) 중 한 편을 소개한다.

江舍偶吟(강사우음)

下有長江上有山(하유장강상우산)
忘憂一舍在其間(망우일사재기간)
忘憂仙子忌憂臥(망우선자기우와)
明月清風相對閑(명월청풍상대한)

강가 집에서 우연히 읊다

아래는 긴 강이요 위에는 푸른 산
그 위에 떠 있노라 망우정 높은 다락
속세 떠난 신선이 근심없이 누웠으니
밝은 달 맑은 바람 한가로이 대하누나

망우당 유허비는 한일합방 뒤 어느 왜인이 임진란의 치욕을 말살하려 비석을 깨뜨렸는데 비석이 넘어지자 뇌성벽력이 쳐 왜인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버렸다한다. 그 이후 그의 혼백이 떠 죽었다 하는데 두 동강이가 난 비석을 마을 청년들이 그냥 위에 올려다 놓았는데 여러 해 뒤에 보니 저절로 붙어 있었다 한다. ‘축산군지’에 이 내용이 전해진다.

〈한삼운〉

25

효자 박성민이야기를 전하는 덕곡리 팽나무



도천면 덕곡 1구 마을은 덕곡리(德谷里)의 서부로 덕실마을의 행정리 명이다. 400여전부터 창녕 조씨와 벽진 이씨, 분성 배씨 등이 거주했다고 전한다. 현재는 김해 김씨, 밀양 박씨 등 60여호가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 마을엔 옛 부터 ‘효자 박성민과 호랑이 이야기’로 유명하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 왔던 팽나무 신목이 백행의 근본인 효(孝)를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무정설법으로 전하고 있다.



효자 박성민 이야기를 전하는 신목

효자 박성민(朴聖民)과 그를 도운 호랑이 이야기의 주 무대는 조선 숙종 때로 거슬러 간다. 이 곳 덕곡리에 살았던 박성민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장성하여 생각해보니 부모상을 당하고 3년을 시묘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불효임을 깨달아 늘 괴로웠다. 그의 나이 52세 때 기어이 부모의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며 보릿가루와 물을 먹으면서 상복을 입고 지내기로 하였다. 묘가 산꼭대기에 있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바위에서 맑은 물이 터져 솟았다. 이 샘은 큰 비, 큰 가뭄을 불문하고 같은 양의 물이 솟았다. 그러나 그 샘에서 솟아오르던 물은 그가 상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는 솟지 않았다 한다.

그가 시묘하는 동안 밤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와서 그를 보호하였다. 그도 그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애정을 쏟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호랑이가 올 시각이 되어도 오지 않자 그는 근심을 하다가 잠이 드니 꿈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나는 지금 양산군 지역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으니 곧 와서 살려 주오” 호랑이가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놀라 일어나 하룻밤 하루 낮을 달려 양산으로 가 보니 사람들이 마침 그 호랑이를 죽이려는 순간이었다.

“이 호랑이를 살려 주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를 껴안았다.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 호랑이가 밤마다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자 양산 사람들은 감복을 하고 호랑이를 놓아주었다. 이 일이 속중께 알려져, 그 효행을 칭찬하여 정려를 세워 표시하였다. 아직도 영산에서 부곡으로 가는 79번 도로 13km 지점 도로변에 ‘효자 박성민지려(孝子朴聖民之閭)’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다.



효자 박성민 정려비각

덕곡리(德谷里)는 도천면 동북쪽 끝으로 영산면과 부곡면 사이를 비집고 북으로 올라가 있다. 영산-부곡간 지방도가 2.5km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마을이다. 이 도로는 북쪽은 600m 높이의 함박산, 489m의 질매재 등 높은 산이 연달아 있는

산지에 뿔려 있다.

높은 산은 동과 남쪽에도 이어져 그 사이에 조금 크고 넓은 들을 이루는데 낙동강에서 이 곳을 바라보면 깊고 깊은 골짜기여서, “강까지 낮아지기만 했지 한치라고 높아지지 않았다”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앙고개, 지피실 안골에서 시작된 골짜기는 덕곡, 예리, 논리를 거쳐 우강리와 송진 앞까지 7.5km에 이르면서 낮아져서 넓은 들을 이루고 있다.

‘덕곡’이란 이름이 바로 이 골짜기가 크므로 ‘큰 골’의 뜻으로 불리어졌다고 한다.

〈대동지지 方言解〉에 보면, ‘덕(德)’은 “岸之徒絶 方言岸德”이라 하여 ‘덕’은 ‘언덕’이라 하였으니 높은 산 사이의 큰 언덕을 이룬 골짜기여서 “덕골”, “덕실”로 불린 것이다.

그러나 “한골”, “한실”을 쓰지 않고 “덕실”이라 하였음을 보아 “큰 골”이란 뜻 보다는 ‘언덕에 있는 마을(실)’이란 뜻이 옳다고 본다. 행정 리는 덕곡 1, 2구로 2개리 이다. 덕곡1구에는 김해김씨, 밀양 박씨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덕실의 북쪽 영산-부곡간 도로변 박씨 효자각이 있는 삼거리를 ‘무리실(退谷)’이라고 불렀다. 덕실의 초입으로 옛날에는 1~2호가 살았으나 지금은 없다. 이곳 일대는 신라 고려때 ‘퇴곡소(退谷所)’가 있던 자리라고 전한다.

‘무리실’이라 함은 ‘물실(水谷)’의 뜻으로 물러갈 ‘퇴(退)’이니 혼동하면 ‘무리실’이다. 덕곡의 옛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다.

〈한삼운〉

26

국도5호선이 보이는 낙동강 버들숲



갯버들은 포류(蒲柳)·수양(水楊)·세주류(細柱柳)라고도 한다. 강가에서 많이 자란다. 높이 1~2m이고 뿌리 근처에서 가지가 많이 나오며 어린 가지는 노란 빛이 도는 녹색으로 털이 있으나 곧 없어진다. 잎은 거꾸로 세운 바소꼴 또는 넓은 바소꼴로 양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의 길이는 3~10mm이다. 앞 표면은 털이 덮여 있다가 없어지고, 뒷면은 털이 뺨뺨이 나서 흰빛이 돌거나 털이 없는 것도 있다.

꽃은 단성화로 4월에 잎겨드랑이에서 어두운 자주색 꽃이 핀다. 수꽃이삭은 넓은 타원형으로 수술이 2개이고, 암꽃이삭은 긴 타원형으로 꿀샘이 1개이며 붉은색이다. 포는 긴 타원형으로 털이 있고 암술머리는 4개이다. 열매는 삭과로서 긴 타원형이며 길이가 3mm 정도이고 털이 있다. 4~5월에 털 익은 열매를 그대로 식용한다. 제방의 방수림으로 적당하며 1~2년생 가지는 꽃꽂이 소재로 사용된다. 내한성과 맹아력이 크며 오리나무·키버들 등과 함

께 섞여 자란다. 한국·일본·중국·우수리강 연안 등지에 분포한다. [출처 : 두산백과]

갯버들을 보면 ‘타잔’이 생각한다. 흑백 TV 시대 추억 속 토요일의 주인공이었던 ‘타잔’은 1914년 출판된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소설 이름이자 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버려진 아기 ‘타잔’이 유인원들에 의해 길러져 야생의 야수 인간으로 지내다가, 우연히 그 근처 해안으로 정박한 미국인 과학자 일행을 위기에서 구해주면서 일어나는 얘기들이다. 이 소설이 영화화되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불멸의 ‘타잔’이 디즈니 영화와 게임 속에 존재하고 계속 될 것이다.





갯버들 이야기가 ‘타잔’으로 흘러간 이유를 설명하면, 1976년 6월에 기공하여 1977년 12월에 준공된 ‘구마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무렵에 낙동강 강변쪽에는 자연적 상태로 무성하게 자란 갯버들 숲이 고속도로 V자대교(교체됨)가 만들어지는 근방부터 남송교를 지나 송진 망우정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당시 남지 본돈과 남포동에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은 자맥질과 수영을 낙동강에서 배우며 자랐다. 수영을 정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이 동네 형님들에게 골탕을 먹으며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영’을 익히며 자랐다. 그러다 보니 익사사고도 많이 일어나 여름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조직한 ‘애향단’과 여름방학 ‘당번’들이 깃대를 들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변 순찰을 돌았다. 선생님들의 걱정과 감시에도 아이들의 동심은 물놀이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학교 가까운 강변을 벗어나 더 먼 곳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한개다리’라고 불리는 남송교 근방까지 가서 놀았다. 그곳은 갯버들이 ‘타잔’ 영화에 나오는 정글처럼 우거져 쉽사리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곳은 아이들만의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해방구였다. 구마고속도로가 착공되고 V자대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내내 지켜보면서 낙동강 모래톱과 물 속을 헤엄치고 강건너 함안군 칠서면 이룡까지 횡단하면서 유년의 시절을 보냈다.

그 당시 만들어진 구마고속도로는 공업지역인 대구에서 마산·진주·하동 등지에 이르는 차량의 운행거리를 크게 단축시키고, 나아가 영남과 호남을 1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대구·구미·포항 등지의 공업지역과 마산·창원의 공업단지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수송의 편익을 크게 높이는 한편, 낙동강 유역의 농업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다 2008년 1월 3일 구마고속도로(邱馬高速道路)에서 현재의 ‘중부내륙고속국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추억의 구마고속도로 기공식과 준공식을 기록한 창녕의 사진가 ‘하동칠’씨 자료에서 그때를 회상해 볼 수 있다.



지금은 ‘낙동강연안개발사업’과 ‘4대강사업’ 이후로 갯버들 숲이 사라지고 단장된 수변공원이 되었지만, 2013년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이 ‘생명의 힘’이 강한 갯버들은 되살아나 옛날을 복원하려는 듯 무성하게 자라나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자원 관리정책으로 전환했다면 좋겠다. 특히 봄바람에 솜털이 바르르 떨어뜨려 남국에서 전해오는 느낌을 전해주는 갯버들이 좋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모래톱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바위나 돌자루로 언덕을 만드는데, 그 대안으로 갯버들 숲을 일정하게 군락단지로 만든다면 자연제방과 물 정화에 도움될 것이다. 갯버들 숲이 낙동강변에 꼭 있어야 할 이유를 보여 준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지 몰라도 자연과 환경을 무시한 댓가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1년 3월 14일 발생한 ‘폐놀’사건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두산전자의 폐놀원액 저장탱크에서 폐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발생했다. 30톤의 폐놀원액이 옥계천을 거쳐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들어서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폐놀원액은 14일 밤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새어 나왔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대구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취수장측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폐놀 소독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염소를 다량 투입, 사태를 악화시켰다. 다사취수장을 오염시킨 폐놀은 계속 낙동강을 타고 흘러 밀양과 함안, 칠서 수원지 등에서도 잇따라 검출되어 부산, 마산을 포함한 영남 전지역이 폐놀 파동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 사고로 유례없는 문책인사가 뒤따랐다. 또 국회에서는 진상 조사위원회가 열렸고, 각 시민 단체는 수돗물 폐놀 오염대책시민단체 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두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두산전자의 폐놀 사고가 단순한 과실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 만에 조업 재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4월 22일 폐놀탱크송출 파이프의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또다시 폐놀원액 2톤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2차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어 국민들의 항의 시위가 확대되었다. 마침내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 장관이 인책, 경질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당시 최고로 잘 팔리던 OB맥주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백년 기업이 업종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때 부산, 마산지역에서 만들어진 ‘(사)낙동강공동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갯버들 심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낙동강유역개발사업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물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공장 설립시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행정구역에 따른 시도별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 강을 수계별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역별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보다 더 큰 지역내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1996년 국도5호선 변경에 따른 남지사람들의 반대운동이다. 1997년 1월 28일 경남신문과 국제신문에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1971년 8월 31일 제정된 국도5호선이 지나가는 남지철교와 남지전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함안군 칠원-창녕군 영산면 죽사리를 잇는 14.5Km의 왕복 2차선인 국도 5호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내년 1월에 착공, 2001년 1월에 완공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이 구간의 선형설계에서 죽사리~남지대교~칠서면으로 이어지는 2차선의 기존국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죽사리~창녕 도천면~함안 칠북면과 칠원면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키로 했다는 것이다. 1월 7일 국토관리청이 창녕읍 남지읍 주민과 설명회를 가지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지읍민 1천여명은 1월 27일 오전 11시 남지공설운동장에서 ‘국도5호선 확포장 공사노선변경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남지지역발전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충식외 3명)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남지읍을 경유치 않고 남지읍에서 5Km가량 떨어져 우회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국도가 확, 포장될 경우 최소한 5회 이상을 우회하여 도로이용 불편은 물론 농산물 출하때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등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3월 14일 길곡면 마을주민의 원안지지 결의대회가 열리면서 국도 5호선의 확장에 따른 노선변경을 놓고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3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 2천7백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에서 함안군 칠원면간 14.7km의 국도5호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키로 하고 노선확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1933년 남지철교 개통이 사용된 국도 5호선은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와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를 연결하는 폭 10.4m, 길이 1,422m의 왕복 4차선 낙동대교가 건설되면서 남지읍을 거치지 않게 되었다. 2005년에 영남 지역의 남북 방향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기능 및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구광역시 이북의 중부 내륙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위해 국도5호선을 확장 준공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도5호선이 남지읍을 경유치 않게 됨에 따라서 남지읍의 입장에서 볼 때, 몇 가지 손실과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 궁극적으로 남지철교의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안전문제를 내세워 지자체의 철거주장이 야기되었다. 두 번째, 낙동강연안개발사업과 맞물려 남지읍 본동과 남포동 구도심은 퇴락하고 말았다. 세 번째, 남지읍과 도천면사이 계성천 주변지역이 교통량은 많지만, 망우정과 쇠나루, 수변공원에 대한 보전과 향후 개발과제를 안게 되었다. 4대강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 앞으로 미래는 불투명하다.



〈김부열〉

27

도천면 옛날 도천향현사 은행나무





은행나무를 보면서 떠 올리는 이미지는 노랑색이다. 가을 단풍이 들면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 숲이 그려내는 풍경은 신비롭다. 노랗게 익은 잎이 바람에 떨어져 황금용단을 펼쳐 놓은 듯 밟기를 주저할 만큼 경이롭다. 빨강 잎 하늘하늘 거리는 단풍과의 조화는 사람들의 눈을 흠치는 명시도 높은 배색으로 가을에 낭만을 수놓는 나무다. 최근에 자연친화적인 도로체계가 되질 못한 까닭인지 은행나무 열매 특유의 냄새로 낭만보다 청소하기 바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안타까운 가을풍경이다.

은행나무는 공손수(公孫樹)·행자목(杏子木)이라 하며 잎의 모양이 오리발을 닮았다 하여 암각수(鴨脚樹)라고도 한다. 나무껍질은 회색으로 두껍고 코르크질이며 균열이 생긴다. 가지는 긴 가지와 짧은 가지의 2종류가 있다. 잎은 대부분의 겉씨식물[裸子植物]이 침엽인 것과는 달리 은행나무의 잎은 부채꼴이며 중앙에서 2개로 갈라지지만 갈라지지 않는 것과 2개 이상 갈라지는 것 등이 있다. 잎맥은 2개씩 갈라진다. 긴 가지에 달리는 잎은 뭉쳐나고 짧은 가지에서는 총생한다.

은행나무는 암수의 구분이 있다. 암나무는 수나무에서 날아온 꽃가루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꽃은 4월에 잎과 함께 피고 2가화이며 수꽃은 미상꽃차례로 달리고 연한 황록색이며 꽃잎이 없고 2~6개의 수술이 있다. 암꽃은 녹색이고 끝에 2개의 밑씨가 있으며 그 중 1개가 종자로 발육한다. 화분실(花粉室)에 들어간 꽃가루는 발육하여 가을에 열매가 성숙하기 전 정자(精子)를 생산하여 장란기(藏卵器)에 들어가서 수정한다.

열매는 핵과(核果)로 공 모양같이 생기고 10월에 황색으로 익는다. 종과피는 달걀 모양의 원형이며 2~3개의 능(稜)이 있고 백색이다. 열매가 살구와 비슷하게 생겼다 하여 살구 행(杏)자와 종과피가 희다 하여 은빛의 은(銀)자를 합하여 은행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 종자를 백자(白子)라고 한다. 바깥껍질에서는 악취가 나고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는 열매의 껍질에 은행산(ginkgoic acid)과 점액질의 빌로볼(bilobol)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두산백과]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 그늘에서 단(壇)을 만들고 놓고 제자들을 가르쳤는 연유에서 공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을 행단(杏壇)이라 한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국가 교육기관인 성균관에는 늘 은행나무를 심었고 지방의 향교에도 은행나무가 빠지지 않

았다.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지점인 두물머리 남지 읍 용산리에서 은둔하시면서 학문과 덕행을 닦으셨던 간송당 조임도 선생이 심었다는 용화산 구구봉 아래 합강정(合江亭)과 청송사(靑松寺), 반구정(伴鳩亭) 그리고 남지철교 아래 은행나무는 수령이 400년 넘는다.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현풍의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은행나무도 공자의 가르침을 잇자는 뜻에서 심어진 것이라 하겠다. 위 사진은 1934년 촬영하여 유리건판으로 남아 있는 천연기념물 제30호, 경기도 용문사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서도 가장 큰 나무로서 선 세종 때 당상직첩(堂上職牒) 벼슬이 내려졌다 한다.

도천면은((都泉面)은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영산군 도천이라 칭하였고, 그후 창녕군 도천면으로 개편, 도천, 일리, 덕곡, 예리, 어만, 논리, 우강, 송진 8개리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는 곳이다. 도천(都泉)이라는 지명은 마을이나 들 어디를 파보아도 냇모래가 나와 예전에는 영산에서 흘러내리는 도천천이 이 일대에 넓게 퍼져 흘렀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어디를 파든 물이 많아 ‘샘(泉)’과 인연이 깊은 마을이라고 한다.

또 영산 신씨들이 집집마다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어 ‘복숭아가 많고, 샘이 있다’ 하여 도천이라 불리었다 한다.

현재 도천면사무소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령을 보아 짐작하면, 주변에 임진왜란 때 영산의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한 바 있는 문암(聞巖) 신초(辛礎)의 구택과 사당이 있으며, 또한 화왕산성 수성 때 곽망우당의 장서기(章書記)로 일한 모정(慕亭) 배대유(裴大維)의 별사(別詞)인 도천정사(都泉精舍)가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그분들의 후손 심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1701년(숙종 27)에 지방유

림의 공의로 신사천(辛斯臧)·이중(李中)·배학(裴鶴) 등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고, 신초(辛礎)를 추가배향한 도천서원(都泉書院)이 있었다는 것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특히 영조(英祖 1725-1776)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영남지도(嶺南地圖)』에 도천향현사(道泉鄉賢祠)가 나타남은 결정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위 지도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을 전후 본격적으로 권한과 기능을 발휘하였던 비변사가 주관하여 발행한 <비변사인안방지도> 영산현 해제에 내용이다. ‘영산현은 지금의 창녕군 영산면·계성면·장마면·도천면·길곡면·부곡면과 남지읍 남지리·마산리·학계리·용산리·신전리·성사리·아지리에 해당된다. 읍치는 영산면 성내리 일대에 있었으며, 고을의 진산(鎭山)은 읍치 뒤쪽의 영취산(靈鷲山)이었다. 아래쪽 왼쪽에서 낙동강 본류와 그 지류인 남강이 합류하여 오른쪽(동쪽)으로 빠져나간다. 낙동강 변에는 많은 ‘진(津)’이 보이고 있는데, 지역민들에게는 나루임과 동시에 해당 구간의 낙동강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낙동강 너머 광심정(廣心亭)이 있는 곳은 특이하게도 영산의 땅으로 되어 있었으며, 현재 칠곡면 봉촌리의 낙동강변에 해당된다. 면(面)의 이름에는 고려시대까지 독자적인 행정단위로 존재하던 지역의 명칭이 일부 남아 있다. 계성면은 계성현(桂城縣)이, 길곡면은 길곡부곡(吉谷

部曲)이 있었던 곳이다. 지도에는 덕봉향현사(德峯鄉賢祠)와 도천향현사(道泉鄉賢祠)가 보이고 있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모두 서원(書院)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사(祠)와 서원(書院)이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사(祠) 모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배향하지도, 사액서원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사(祠)와 서원(書院)이 어느 정도 구별되고 있었음도 알 수 있겠다. 기타 광재우의 별서(別墅)였

다는 망우정(忘憂亭)이 낙동강 변에 표시되어 있다.(이기봉)

망우정에서 우국충절하시며 만년을 보내신 광재 우장군을 비롯한 한강 정구선생, 간송당 조임도선생 같은 걸출한 학문을 가지신 분들의 영향으로 세운 [도천향현사]는 선현제사와 교육을 통한 지역 문화 육성에 노력한 산실이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도천향현사]라는 명칭과 그 설명에 유명한 인물을 배향하지도 않았고, 사액서원의 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학문에 뜻이 있는 분들의 열정공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도천면 주민센터 한켠에 마련된 [도천서당]에서 [도천향현사]를 재현하듯이 인생의 수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들의 열정과 애정 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가치있는 일이다. 묵향 그윽한 서당에서 학문의 도를 익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도천 저 은행나무는 흰 도포자락 휘날리며 도천향현사 드나들었던 옛사람을 기억할 것이다.

〈김부열〉



28

계성 사리 배롱나무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배롱나무군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49호로 지정돼 있다. 창녕 화왕산 옥천 계곡을 올라가는 길에 법성사가 있고, 법성사 맞은 편에 문암정이 있다. 문암정 밑으로 배롱나무 군락이 있다. 임진왜란 때 창녕과 영산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신초(辛礎, 1568~1637) 장군이 정자인 문암정을 짓고 노후를 보내면서 정자 주변에 심은 나무들이다. 소재지는 계성면 사리 산 11번지다. 관리는 영산신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 년전 까지 군락을 이루면서 무성하게 자라 장관을 이루었으나 주변의 대나무 숲과 잡목이 침범하는 바람에 상당부분 쇠퇴하여 현재 30여 그루 남아있다.

배롱나무는 7~9월에 붉은 색 또는 흰색으로 꽃이 피고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길어 백일홍 나무라고 부른다. 국화과의 백일홍과 구별하기 위해 목(나무)백일홍이라고 하는데 선조들은 이 나무가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영험 있는 나무라고 믿었다고 전한다.

배롱나무는 꽃이 100일 동안 간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줄기를 만지면 모든 가지가 흔들린다하여 ‘간지럼나무’라고 불린다. 남부지역에서는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어 묘소 주변에 흔히 심는다.

배롱나무 군락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문암정, 신초 장군의 영정을 모신 곳

계성면 사리(일매골길 28-5)에 위치한 문암정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5호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신초 장군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본관은 영산이다. 현풍현감과 보성군수를 지냈으며 병조판서로 증직 받았다.

신초 장군이 사후에 이곳 문암정과 영산의 도천서원(都泉書院)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신초의 호인 문암(聞巖)은 젊어서 전쟁터에서는 물러남이 없이 필사의 각오로 싸웠으며, 노후에는 바위위에 살면서 덕을 쌓고 학문을 연마하는 선비로 살겠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전한다.

문암정은 창녕 계성천의 우안 바위위에 세웠는데 후손에 의해 영정각, 부속정자, 대문채 등이 더해져 총 4동의 건물이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신초의 초상은 인조 15년(1637)에 그려진 것으로 전해지나 도천서원에서 도난을 당했다.

문암정과 신초의 영정각은 초 중학교 시절 학생들의 소풍 및 현장학습장으로 각광을 받던 곳이다. 맞은쪽 길 건너편에 영험이 있기로 소문난 법성사(法性寺)가 자리하여 신초 장군의 넋을 기리고 충효정신을 일깨우게 한다. 절경을 이루는 하천가에 배롱나무 군락이 더해져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삼운〉



문암정

29

불빛을 뿜었다는 계성리 당산목 느티나무



| 보 호 수 |

- 지정번호 : 12-12-9-8-1
-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1316
- 지정일자 : 1982년 11월 10일
- 수 종 : 느티나무
- 수 령 : 335년

계성면은 법정리동 명리, 사리, 신당리, 계성리, 광계리, 봉산리 6개리로 구성되고, 행정리동은 명리1구, 명리2구, 달촌, 사리, 전평, 신당, 화곡, 계성, 계교, 계전, 계남, 계산, 광계, 평성, 관동, 봉산 17개 마을로 분동되었다.

계성리 5개 마을이 분동되면서 계남 마을이 탄생하였다. 계남은 옛마을 명칭이 남방골이었다.

계남마을은 남방골인 자연부락과 안성동으로 형성되었다. 남방골은 북쪽으로는 동서로 흐르는 계성천이 있으며, 동쪽방향, 서쪽방향, 남쪽방향으로 가야시대 고분이 산재되어 있다. 계성고분은 사적 제547호로 승격되었다.

계남은 계성리의 남쪽마을이며 계성천의 남쪽밭골이라는 의미로 남방골이라 불리었던 마을이다. 계남은 계성의 계와 남방골의 남을 따 마을이름이 작명되었다고 한다. 계남마을은 전에는 가구호수가 70호였으나 지금은 38호이며 해주 오씨가 400년 전에 마을터를 잡았다 하며, 지금은 김해 김씨, 벽진 이씨 등 여러 성씨들이 살고 있다.

천년을 사는 장수목 느티나무는 계남 마을 입구에 있는 335년이 지난 당산목으로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당산목이 앉아있는 위치가 마을입구인 큰 골짜기와 작은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쉼터 역할을 하는 정자나무로 이용되어왔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표지석을 세우러 왔는데 내용연수가 맞지 않아 돌려 보내곤 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당산나무가 기가 살아 있어 퇴천에서 초곡 밑으로 봉오골에서 못골 계남마을 밑으로 도로가 있어 옛 관료들이 말을 타고 영산고을로 행차할 적에 당산나무가 불빛을 뿜어 말이 멈추워 말을 타고가던 관료가 말에서 내려 걸어서 당산나무를 지나서야 말을 타고 행차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금 현재도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신의 나무이다.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행복과 마을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나무로 가까이에서 바라보니 웅장함이 더해지며, 나무껍질에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전해온다. 마을주민 개개인의 소원성취를 빌며 천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배종만〉

30

영산면 연지못, 수양벚나무





영산의 랜드마크 ‘연지못’을 가보면 연못의 아름다움보다 옛날부터 겪어온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을 느낀다. 보는 것보다 먹고 즐기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 창녕과 영산이 오래된 고을임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물이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갈수기와 겨울이 되면 창녕과 영산은 물 부족으로 단수와 급수를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먹는 물은 밀양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발상전환과 유구히 흐르는 낙동강의 자원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연지(硯池)와 항미정(抗眉亭)의 유래를 안내판 그대로 인용하면 ‘옛부터 영산 고을의 진산인 영축산은 불덩어리의 형상을 띤 산이므로 고을에 화재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 하여 "불은 물로 다스린다"는 오행 사항에 의거 화재를 예방하고 또 농사에도 이로운 치수구(治水口)로 벼루모양의 못을 만들었

는데 이것을 연지(硯池)라 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가꾸지 않아 못의 구실을 못하다가 1889년 신관조 현감이 다시 파고 막아 개울물을 끌어들이고 하늘의 오성(五星)을 본떠 다섯개의 섬을 만들었다. 삼년 뒤 그중 큰섬에다 여섯기둥과 굽은 난간에 한칸의 초가 정자를 세우고 중국의 유명한 항주 호수의 미정(眉亭)에 비겨 항미정(抗眉亭)이라 하였다. 그 후 1920년대 두칸 사각의 기와 정자로 개축하였다가 1971년 다시 육각정자로 크게 증건하여 오늘날의 항미정이 되었다’.



봄에는 수양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연지못, 여름에는 녹색 향연 펼치는 시원한 연지못, 가을에는 오색단풍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연지못, 겨울에는 살얼음 차디차게 언 연지못을 한 바퀴를 돌면서 많은 세월의 변화와 감흥을 느끼게 되지만, 오래된 전설과 애잔한 사랑의 통속적인 이야기가 없어 약간 밋밋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연지못이 가진 아름다움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산에 있지 않고 먼 이국의 땅으로 끌려갔고, 육친들은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 후에도 그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사후에도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알려지고 지금은 연지못 한 편에 표식으로 남았기 때

문이다. 그 이야기는 1592년 임진왜란때의 있었던 일이고 연지못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연결시킬 수도 없다.

하지만, 영산사람이 먼 이국의 땅에서 육친을 잃고 망향의 슬픔 속에서 이겨낸 인간승리와 그가 이룬 인간승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널리 알릴만한 족적이라는 점에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는다. 대중가수로서 1980년대를 휩쓸었던 불후의 명가수 조용필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히트곡이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서서히 알려지고, 1980년 처음 독집에서 '창밖에 여자' '단발머리' 노래가 대히트 기록할 즈음, MBC에서 정유재란때 일본에 납치되어 갔다 돌아온 강항(姜沆) 선생이 남긴 『간양록』을 토대로 1980년 9월 1일부터 1980년 12월 26일까지 일일연속극에 주제가를 불렀다. 드라마 내용도 간양록에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주인공이 겪은 고난처럼 애절한 노래가 뇌리에 남아 있다.

『간양록』은 저자가 죄인이라는 뜻에서 이를 '건거록(巾車錄)'이라 하였는데, 1656년(효종 7) 가을 이 책이 간행될 때, 그의 제자들이 책명을 지금의 것으로 고쳤다. '간양'이란 흉노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한나라 소무(蘇武)의 충절을 뜻하는 것으로, 내용은 적지에서 임금께 올린 「적중봉소(賊中封疏)」와 당시 일본의 지도를 그린 「왜국팔도육십육주도(倭國八道六十六州圖)」, 포로들에게 준 고부인격(告俘人檄), 귀국 후에 올린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 적국에서의 환란생활의 시말을 기록한 「섭란사적(涉亂事迹)」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적국에서 당한 포로들의 참상과 그곳에서 보고 들은 실정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

라, 전란에 대비해야 할 국내 정책에까지 언급하고 있는 충절의 기록이다. 이 책은 민족항일기에 분서(焚書)의 화를 입어 현재는 희귀본으로 되어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간양록』의 주인공 강항과 정반대로 돌아오지 못한 영산사람이 있다. 그 애뜻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창녕군 계성면 명리의 영취산 서쪽 산기슭에서 태어난 일양재 이진영(一陽齋 李眞榮, 1571~1633)이다. 이진영의 아버지 이공제(李公濟)는 진사로 합천 이씨 집성촌에서 '소학',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한학을 두루 배우고 주역(周易)은 물론이고 과거 시험을 목표로 면학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당시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2차 진주성 공격 때에 포로가 되어 23세의 나이로 일본에 끌려갔다. 오사카에서 고단하고 힘든 농노생활을 하다 조선인 출신 스님 사이요(西譽)에게 의탁하여 와카야마(和歌山)의 가이젠지(海善寺)로 오게 되었지만, 승려생활과 불학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 다시 오사카로 간 이진영의 목적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605년 사명대사가 쇠퇴사절을 이끌고 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판을 벌이고, 납치된 조선인 3,000명을 데리고 귀국한 사실이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진영은 1614년 와카야마로 돌아와 사이요(西譽)의 주선으로 구보초에 사숙(私塾)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서와 사서에 조예가 깊어 좋은 평판이 나면서 1617년 아리타군(有田郡) 토호의 딸과 46세에 결혼을 하며 귀국을 포기하고 아들 매계가 태어났다.

161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0번째 아들인 요리노부(頼宣)가 기슈(紀州)번의 초대 번주로 오자 1336자에 달하는 번정(藩政) 건의문을 민본정치와 덕치를 강조하는 제왕학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

로 요리노부의 시강(侍講)으로 번의 유학 발전 및 정치에 기여하였다. 그의 아들인 매계 이전직(梅溪 李全直, 1617~1682)은 부친과 번의 유학자 나가타 젠사이(永田善齊)에게 유학을 배운 후 부친의 업을 이어 2대 번주 마쓰사다(光貞)의 스승이 되었다. 도쿠가와 요리노부가 다스리는 구마노(熊野) 지역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살부(殺父)사건이 발생한다. 요리노부가 처형하기 전 범행을 저지른 청년이 참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매계에게 그 청년을 깨우치도록 하니, 매계의 가르침에 감복하고 죄를 크게 뉘우침 하였음을 보고 매계에게 ‘인륜의 요도(要道)’를 담은 교훈이 될 글을 지어달라는 요청으로 ‘부모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매계(梅溪)는 이 부모장으로 번내의 지도적 유학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 선생이 번역한 이매계의 부모장을 옮겨보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법도를 지키며, 염치와 겸손으로 제 일에 충실하고, 정직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좀더 다짐하기 위하여 항상 가르치고 타일러 줄이 옳으니라” 이 짝막한 글은 에도 시대 일본인들의 자녀교육지침으로 “메이지 천황 시절인 1890년 교육칙어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인의 ‘교육 현장’이었다”고 전해온다. 특히 부모장은 습자 연습이나 서당인 데라코야(寺子屋)의 교재로 이용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이 매계는 1655년 매계는 조선통신사로 일본 에도(江戸·도쿄)에 도착한 남용익(南龍翼) 이명빈(李明彬) 일행을 찾아갔다. 남용익은 매계가 써온 글을 ‘문견별록(聞見別錄)’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전직은 두 번 절하고 조선 사절에게 아뢰옵니다. 나의 아버지 진영은 경상도 영산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쇠환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귀국의 희망이 좌절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고국을 그리

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저는 아버지가 물려준 책과 원고를 읽으며 공부해서 번의 유신(儒臣) 반열에 있고, 동생 입탁은 의술을 배워서 의관으로 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저의 선조의 내력이나 그 언행을 아시는 것이 있다면, 저의 이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한 자, 한 줄이나마 써주시되, 각인이 어느 고을에 살고 어떤 관위에 있었던가를, 자(字)는 무엇이고 호(號)는 무엇인지를 기록하여 제게 주시면, 선조의 흔적으로 알고 보존하겠습니다. 오직 이렇게 간절히 아뢰나이다.” [출처 : 신동아 553호, p514-527, 2005년]

위에서 매계는 못 이룬 아버지의 귀향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가계를 밝히고 조상의 흔적을 전해 듣고 싶다는 뜻을 절실히 알렸다는 점에서 조선 유학자의 삶을 반추해볼 수 있다. 현재 와카야마시의 가이젠지에는 이진영·전직 부자의 비와 이들을 포함한 일가의 묘가 있고 1977년에는 매계의 현창비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1992년 합천이씨 문중에서 연지못에 부자의 현창비가 세웠다. 현창비를 보니 간양록 노래가 귓전에 울리는 듯하다.

〈김부열〉



31

영산면 성내리 600년 팽나무와 만년교 수양벚꽃



창녕과 영산은 비슷하면서 다르다. 그 출발은 가야왕국의 유적이다. 연맹왕국 체제의 가야국이 부족국가체제로 창녕과 영산은 독립적으로 각각 발전하였다. 행정구역을 나눠둔 조선시대 역(驛)이 있었던 계성을 중심으로 화왕산과 영취산의 형세가 확연히 구분되고 전설과 영산읍성과 유적을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특히 영산에서 창녕성씨와 영산신씨의 씨족사회 혈연체제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이 다름을 실감할 수 있다.

창녕군 연혁을 보면,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조 3년(1394) 창녕과 영산에 현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인조 9년(1631)에 창녕현은 지도(至道)의 역변(逆變)으로 인하여 현이 혁파되고 강등되어 영산현에 합하여 소속되는 수난을 당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 어영군(御營軍)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인조

15년(1637)에 복현(復縣)되어 다시 창녕과 영산 양현으로 나누어 졌다. 고종 32년(1895) 5월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의 실시로 본 군은 밀양과 함께 대구부(大邱府)에 속하게 되었고, 이듬해(1896) 8월 4일 13도제(道制)가 실시되자 창녕·영산군은 대구부에서 경상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고종 34년(1897) 행정의 말단조직인 방(坊)이 면(面)으로 개칭되었으며, 순종 융희원년(隆熙元年)에 통폐합을 거쳐 1910년 9월 면제(面制)가 시행되었다.’라 하여 창녕군과 영산면은 독립적 행정단위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1914년 4월 1일부군폐치분합(府郡廢置分合)에 따라 함안군에 편입된 길곡면의 사촌(射村)·금곡리 일부(지금의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일대)를 제외한 영산군은 창녕군에 합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개군의 합병으로 창녕, 고암, 성산, 대합, 이방, 대지, 유어, 창락, 영산, 계성, 남곡,

길곡, 부곡, 도천, 장마 등 15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창녕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었다.

그 당시 나라 잃은 비통함과 울분에 가득찬 영산 사람들이 행정단위까지 흡수되면서 일제 침략에 폭발하게 되었다. 그것이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며, 24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고 거족적 항거한 것이 뿌리 깊은 영산사람들의 지역적 자존심이다. 이후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영산사람들의 열과 정신을 지키고 스스로 힘을 모아 대내외에 드러내었던 몸부림이 무형문화재인 ‘영산 줄다리기’와 ‘영산 쇠머리대기’ 민속놀이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창녕과는 차원이 다른 놀이를 통하여 영산이 지역의 대표임을 자부하며 창녕 전체를 융합시키는 힘을 과시하는 ‘영산 줄다리기’와 ‘영산 쇠



사진 : 안동대 조정현



사진 : 늘푸른사진연구회 한정숙

머리대기’는 역경을 이겨내는 영산사람들의 인내와 오래된 저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대규모 확산 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3.1민속문화향상회를 중심으로 ‘영산 줄다리기’와 ‘영산 쇠머리대기’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창녕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큰 들판에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져 한해의 풍년농사와 지역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흥겨운 농악소리에 맞춰 천지를 울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영산 줄다리기’와 ‘영산 쇠머리대기’의 출발지는 영산의 상징적인 팽나무라고 볼 수 있고 창녕군에서 가장 오래된 노거수이다. 팽나무가 서 있는 성내리는 영산음성의 중심부인데, 영취산 자락 중간위치에 태자봉이 있고 동, 서, 남문의 형태가 남아 있다. 그 반대편에 지형적으로 보름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을 가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저수지는 예부터 있어온 것 같다. 계곡을 따라 넓은 하천 주변에 다양한 유적과 창녕에도 있는 석빙고가 보이는 것은 가야왕국의 성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석빙고에서 태자봉을 바라보면 영취산의 위용은 웅장하다. 보름골짜기로 초입에 들면 임진왜란 때도 계곡에서 쌀 씻은 흰 뜨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 함부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산세가 조령관문처럼 외길로 가파르다. 이 길을 처음 와본 사람은 도시에서 갑자기 고산지대로 접어들면서 동막골에 들어서서는 묘한 느낌이 들것이다.

이 깊은 구계리 산촌민들이 벌목한 원목을 옮길 때, 가설한 나무길을 따라 힘을 합쳐 운반 작업을 하며, 힘겨운 노동의 애환을 민속예술로 승화시킨 무형문화유산이 ‘구계목도’이다. 얼마나 숲이 대단하였으면 벌목으로 생활했을까? 산은 깊고 숲은 울



창하다. 무거운 나무를 옮기며 앞소리와 뒷소리를 맞추며 조심조심 비탈진 산자락을 내려온 조상들의 숨결이 메아리친 보름골짜기를 상상한다. 숨소리 길고 몸의 울림과 같이 흘러나오는 애잔한 소리에 호량이라도 얼씬 못할 정도였을 것이다.

길을 계속 따라 끝까지 보림사가 있었다는 곳에서 왼쪽 산을 넘어가면 ‘사명대사’가 태어난 밀양 무안 절골로 연결된다. 아주 옛날부터 영산 영취산 자락이 사명대사의 유적이 있는 홍제사 표충비까지 뻗어 있어 수많은 길손들이 다녔으리라 여겨진다. 그 산길이 아니면 지금의 1008번 지방도로로 보름골 맞은편 덕암산 종암산 자락을 휘돌아 사창고개를 넘어오는 거리는 훨씬 더 멀다. 보림사 기도승들의 염불 소리 사라졌지만 ‘울산함양간고속도로’로 뚫려 부곡온천이 부활하는 혈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영산 팽나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같다. 옆에 자리한 책실은 조선시대 영산현 관아의 부속 건물로, 책을 모아두고 고을원

의 자재가 공부하는 곳이기도 했다. 영산읍성지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5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태자봉을 중심으로 성곽이 축조되어 있는데, 본래 흙으로 쌓은 성을 조선시대에 돌로 개축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읍성지의 둘레가 3,810척이고 높이가 12척 5촌이었다고 『창녕읍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내리에 약 100m 정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팽나무는 달주나무·매태나무·팽나무라고도 한다. 주로 평지에서 자란다. 줄기가 곧게 서서 높이가 20m, 지름 1m에 달하고 가지가 넓게 퍼진다. 수피는 회색이며 가지에 잔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에서 달걀 모양 타원형이며 윗부분에 톱니가 있다.

꽃은 잡성화로 5월에 피며 새로 자란 가지의 밑부분에 수꽃이 취산꽃차례로 달리고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 1~3개의 암꽃이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4개이며 수꽃에는 4개의 수술과 퇴화한 1개의 암술

이 있다. 암꽃에는 짧은 수술과 암술대가 2개로 갈라진 1개의 암술이 있다. 열매는 핵과로서 둥글고 지름 7mm의 등황색으로 10월에 익으며 맛이 달다. 표면에는 그물 같은 주름이 있다. 옛날부터 방풍림이나 녹음을 위해 심었다. 목재는 가구재·운동기구재로 이용되며, 도마재료로 가장 좋다. 한국·중국·일본에 분포한다.

어린 잎이 자주색에서 자줏빛을 띤 녹색으로 되는 것을 자주팽나무(for. purpurascens), 잎이 달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의 바소꼴이고 늙은 나무에 있어서 잎의 길이가 11cm인 것을 섬팽나무(for. magnifica), 잎이 둥글고 끝이 갑자기 뾰족해지는 것을 둥근잎팽나무(for. rotundata)라고 한다. [출처 : 두산백과]

성내리 팽나무 아래 보름골과 약수로 유명한 함박산 계곡물이 합쳐져 흐르는 하천에 치렁치렁 늘어진 수양벚꽃이 만년교 주위를 감싸고 있어 멋진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휴대폰으로 사진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SNS가 발달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콘이 되고 있다. 만년교보다 더 사랑받는 수양벚꽃에 대하여 살펴보니 백과사전에는 찾기가 힘들다. 국립수목원의 식물도감을 뒤지니 나온다.

처진개벚나무로 검색하면 일명 수양벚나무, 능수벚나무로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장미과 상록활엽교목으로 원산지는 한국이며, 높이가 15m에 이른다. 잎은 달걀모양, 넓은 또는 좁은 거꼴 달걀모양이고 점첨두, 원저로 길이 5-8cm, 폭 2-4.5cm이며 가장자리의 톱니는 예리하고 잎 뒷면에 미모가 있다. 처음에는 털이 밀생하지만 점차 없어지고 양면 맥 위에만 남는다. 엽병은 길이

11-18mm로서 털이 없거나 표면에 잔털이 있으며 2-4개의 꿀샘이 엽신기부에 있다. 9-10쌍의 측맥이 있다. 꽃은 4월에 피며 지름 3.5cm로서 담도홍색 또는 홍백색을 띠며 잎과 같이 2-3개씩 우상모양꽃차례를 이루고, 꽃잎은 둥글고 길이 2cm 정도로서 끝이 오목하다. 꽃대는 길이 2cm정도이고 꽃자루는 길이 4.3cm로서 털이 없고 포는 길이 5-6mm로서 톱니가 있으며 털이 거의 없다. 꽃받침통은 길이 5.3mm로서 털이 없고, 꽃받침조각은 길이 4.5mm로서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털이 없고 꽃잎은 연한 홍색이고 둥글며 길이 2cm로서 요두이다. 수술은 길이 7mm, 암술은 길이 15mm이고 암술대에 털이 없다. 열매는 핵과로 둥글고 지름 3.5mm이며 검게 익는다. 핵은 편평하고 연한 황색이다. 일년생가지는 자줏빛이며 일년생가지에 털이 없고 가지가 밑으로 처진다.

[출처 : 국립수목원-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수양 벚나무의 껍질은 화피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군수물자였다. 세종실록 '오례'의 내용 중에 “붉은 칠을 한 활은 동궁이라고 검은 칠을 한 것은 노궁이라 한다. 혹은 화피를 바른다”고 했다. “주칠왈동궁(朱漆曰彤弓), 흑칠왈로궁(黑漆曰廬弓), 역도이화피(或塗以樺皮).” 이순신의 『난중일기』 중 갑오년(1594) 2월 5일자에도 “화피 89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화피(벚나무껍질)는 활을 만드는데 쓰였으므로 평안도 강계도호부(平安道 江界都護府)와 함길도(咸吉道) 등에서는 공물로 국가에 바쳤음이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중종 21년 3월 22일에, “화피(벚나무 껍질)는 우리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인데 중국에 밀무역하여 우리나라에는 없게 되었다” “지여화피(至如樺皮), 역아국금물(亦我國禁物), 이잠무상국(而潛貿上國), 치아국공핍(致我國空乏)”는



집의 한승정(韓承貞)이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 있다. 화피를 국가에서 금한 것은 바로 활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균수물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옛날과 오늘의 만년교에 수양버들과 능수벚나무가 더 고즈넉한 풍경 연출했음을 보여준다. 이토록 숲과 나무는 자연과 사람에게 생명같은 존재로 산소와 생명수를 주었다.

만년교(萬年橋)를 잘 소개한 자료가 있어 옮기면서 성내리 600년 지켜본 팽나무의 오래된 이야기를 마친다. ‘이 다리는 개천 양쪽의 자연 암반을 바닷돌로 삼고 그 위에 잘 다듬어진 화강암 석재를 층층이 쌓아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이루고 있

는데 물에 비친 아름다운 다리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다리 위로는 둥글둥글한 자연석을 쌓아 올리고 맨 위에 얇게 흙을 깔아 다리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노면은 곡선을 그리며 양 끝을 길게 늘이고 있어 다리의 분위기를 한결 아늑하게 해줍니다. 이 다리는 정조 4년(1780)에 처음 쌓은 것을 고종 29년(1892)에 고쳐 쌓은 것으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건너다닐 만큼 튼튼할 뿐 아니라 홍수 따위에도 끄떡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리는 마을의 실개천이 남산에서 흘러내린다 하여 ‘남천교(南川橋)’라고도 불리며 1972년 3월 2일자로 보물 제564호로 지정된 다리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 다리를 만든 석수장이 백진기(白進己)이며 이후 다리 보수를 맡은 사람은 김내경(金乃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에도 아름다움을 한껏 표현한 석수장의 예술 감각이 돋보이는 다리입니다’.

[출처 : 김영조 충청신문]

<김부열>

32

600여년을 지켜온 영산읍성 수호목 팽나무

영산면 성내리 553-1번지에 영산읍성 책실이 있다. 책실은 책을 모아두는 곳이면서 옛 영산 고을원의 자제가 공부하는 공간이다. 영산읍성지 내에 위치한다. 조선시대에 건축한 것으로 전해지나 건물의 원형이 변형되고 기록이 없어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다. 행정에서 옛 형태를 짐작하여 2010

년 4월부터 11월까지 정면 3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 삼량가로 보수했다. 면적은 21.87㎡이다.

책실 옆에는 수령이 674여년이 되는 군내 가장 오래된 창녕군 보호수 팽나무가 서 있어 운치를 더한다. 바로 부근에 영산천도교당이 있다.



성내리 팽나무

옛 영산현의 역사를 간직하며 읍성을 수호하고 있는 신령스런 팽나무는 창녕과 영산의 보배다. 나무가 지키고 있는 책실은 한때 문호장 포교당으로 사용되었지만, 문호장 사당이 옮겨가면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다.

영산읍성은 조선시대 영산현의 치소(治所)로, 지금의 영산면 성내리 일대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읍성의 평면 형태는 북쪽 가장 높은 곳에 ‘태자각’이라는 산신당을 두고 있으며 읍성이 그 신당을 감싸는 형상으로 남북으로 긴 오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책실은 읍성 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T자형 도로의 좌측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책실 앞마당에는 우물 1기가 있고 책실 주변에는 블록조의 건물들이 에워 싸고 있다. 조선시대 관아 건물인 내아, 향청, 동헌 등의 건물 및 건물지가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읍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약 1.3km, 성벽 높이 4m정도로서 임진왜란 시 의병장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수축한 것으로 전한다. 구전되기로는 가야 또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성이라 하며, 남아있는 100m정도의 석축이 조형석과 자연석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석의 축조는 신라 이전의 것으로 추증된다.



영산읍성(사진 : 하동칠)

성내리는 조선시대부터 개시되어온 5일장(5일, 10일) 상거래의 군 남부지역 중심지로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 옛 명성의 명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성의 안팎에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성 안 50~60호, 성 밖 150호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성내리에는 영산초등학교, 영산여중과 영산여고 등이 있다.



영산 천도교당

성내리(城內里)와 접경을 이루는 마을이 교리(校里)다. 교리는 영산향교가 있는 마을이다. 성내리와 교리를 잇는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를 ‘유다리(儒橋)’라고 불렀다. 영산 성내리 영산시장 뒤편 100m지점에 위치한다. 옛 객사터의 동쪽으로, 향교에서 흘러내린 시내가 구계천과 합류하는데 이 시내를 연결하는 소 교량이다. 이 다리는 향교의 유림들이 많이 왕래하는 다리라 해서 ‘유다리’라 한다. 다리는 교류와 소통의 상징이다. 작은 만년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금은 복개가 되어 묻혀있고 지상에 표지석만 남아있는 상태이나 무지개처럼 작은 돌을 맞대어 원형으로 만든 상징적인 문화

유산인 만큼 복원이 절실하다.

영산은 매년 3.1민속문화제가 열리는 지역으로 임진왜란과 일제식민지 3.1독립운동, 6.25한국전쟁 등 국가적 위난이 있을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맞서 싸운 호국 충절의 얼이 서린 고장이다.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긍지를 오늘날까지 잘 이어가고 있다.

영산은 옛 가야의 소읍국가로 신라 때는 서화현, 상락현 등으로 존재했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유감스럽게도 가야 때의 나라이름은 남겨져 있지 않았으나 그 역사의 깊음을 말해주는 고분과 유적들이 지역 곳곳에 즐비하다.

영산면의 모양은 동쪽 구계리에서 서쪽 월령리까지 동서의 길이가 9km가량 되고, 남북의 폭이 좁은 형태인데 이것은 옛날 현(縣)의 정치를 고루 펴기 위해 가급적이면 현내 모든 면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靈山)’이란 지명은 ‘삼국사기지리지’에 처음 등장하며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영산을 수호하고 있는 진산은 영축산(靈鷲山, 681.3m)과 함박산(芍藥山, 501m)이다. 특히 영축산은 인도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던 산의 이름과 같으며, 양산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과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영축산(靈鷲山)’의 ‘축(鷲)’은 본래 독수리 ‘취’로 읽지만 불가에선 일반적으로 ‘축’으로 읽는다. 양산에 있는 영축산도 영취산, 취서산으로 읽히다가

2001년 ‘영축산’으로 명칭을 통일시켰다고 한다.

영축산 기슭에는 법화사 등 많은 유명 사찰이 있다. 당시 불교가 그 만큼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부처님이 불교의 진수를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법을 하셨다. 그 중 ‘영산회상 거염화(靈山會上舉拈華)’란 말이 전해진다. 말을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뜻하는 ‘염화미소(拈華微笑)’의 유래가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고대의 마가다국에 있는 영축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부처님이 그 중 연꽃송이 하나를 들어 보이자 모두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하가섭’이란 제자만이 그 뜻을 알아채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이에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문자나 교리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교외별전(敎外別傳)’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이 곳 성내리는 영산시장통의 중심터전이었다. 문화행사나 정기 5일장마다 전국의 각설이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자주 들렀는데 한 가지 잊혀 지지 않는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각설이들이 하는 노랫말 가운데 ‘명텅구리’라는 노래가 있었다. 옛 양산 통도사 경허 선사께서 자주 법문하고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걸 옮겨 본다.

명텅구리 명텅구리 모두 모두가 명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 누나
그것도 저것도 명텅구리 명텅구리

을 때는 빈 손에 왔으면서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 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백년도 못사는 그 인생이 천만년 죽지를
않을 것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 구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세상에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에 모든 걸
안다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구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멍텅구리 멍텅구리 모두모두가 멍텅구리

그 당시 민초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 생존에 급
급하다보니 인생무상을 잊어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
라 집착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예나 별 다름없이
자기 자신을 잊고 산다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곱
씹은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 행정의 중심지였던 성내리 팽나무는 영산의
오랜 생활사와 역사를 말해 준다. 영산의 신령스런
오랜 역사가 창녕의 역사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으로 이어져 내려 왔다.

오랜 노거수 아래엔 평소 약속이나 한 듯 밤낮없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일상에 지친 촌로들
이 밭을 갈다 쪼깐 수박을 들고 한낮의 더위를 피해
가고 나면 한 여름 더위에 주눅이 든 노인들이 다녀
가곤 했다. 또한 해가 질 무렵에는 한 무리의 아이
들이 숨바꼭질을 하며 소란을 떨었던 곳이다. 이런
저런 연유로 여름날 밤 동네 아낙네들이 밤 마실 나
갈 때 모이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창녕군내 최
고 수령을 자랑하는 이런 거목이 책실과 함께 우뚝
서 있음은 살아있는 영산의 자랑이다.

〈한삼윤〉



영산 유다리(사진 : 최완규)



영산 유다리 표지석



영산 만년교(보물 제564호)

노거수(老巨樹)와 이발관

내가 부급(負茂)의 시절 이후 타향살이를 전전하다 어느새 마령(馬齡) 쇠락한 나이에 접어든 최근의 여름날 오후, 나는 문득 어릴 적 살던 성내리(城內里) 옛 동네를 찾아보았다.

나의 청소년시절의 기억 속에는 본가의 담장너머에 도랑이 있었고, 그 도랑에서 이웃들의 빨래방망이 소리가 이따금씩 타악기 두드리듯 정겹게 리듬을 타곤 했다.

도랑을 거슬러 조금 올라가면 수밋골(수문골)에 당도하는데, 대왕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수밋골의 자연석 수문밧을 통해 성내(城內)의 도랑으로 흘러 유다리를 거쳐 큰내(큰도랑)로 합류한다.

수밋골의 자연석 수문(水門)은 성곽의 밧을 받칠 만큼 제법 큰 규모에다 한기(寒氣)를 느낄 정도의 시원함(공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빨려가는 '베르누이 효과' 탓인 듯)도 있어서 무더울 때 동네의 아낙들은 이 수문속에 자리를 잡고 빨래를 하곤 했으나, 수문밧의 청석암반을 흐르던 도랑이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예전의 흔적은 찾을 길 없고,

골목길의 집들도 모두 양옥으로 변신하여 도회지 골목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수밋골 옆의 언덕위에는 솔통(솔대)소도>솔통으



영산신씨 고가

로 음가 변천)이 마을을 에워싸듯 굽어보고, 여기서 발원한 영산읍성(邑城)의 드문드문 남긴 잔해를 동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향교 밑에 자리한 교동(校洞)의 신씨(辛氏) 종택의 골기와 집에 다다른다.

곱게 늙은 종부 할매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넓은 종가의 중문(中門)을 지나 텅빈 안채를 바라보는 순간, 금방이라도 종부 할매가 대청마루에 앉아 장죽(長竹)의 곱방대에 풍년초(豊年草)를 빼꼼빼꼼 태우면서 나를 반길 것 같은 환영(幻影)을 보는 듯 하다.

이제는 마치 새집처럼 단장하여 쇠락한 종가의 묵은 때를 느낄 수는 없으나, 종부 할매가 떠나버린 종택은 세월 속에 쌓여간 보이지 않는 사연을 품은 종택 특유의 가치가 사라져 버려서 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다.

솟을대문 오른쪽의 흙담은 웬만한 성곽처럼 견고하고 높아서 인력(人力)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담벼락을 따라 산성(山城)으로 가는 길목에 신씨의 재실(齋室)이 보이는데, 마약 사춘기를 느끼던 70년대 초 보리가 익어갈 무렵, 재실에 살았던 또래의 처녀가 담벼락 길에서 나와 마주칠 때면, 그 컨츄리걸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발그레한 얼굴을 옆으로 살짝 숙이는 통에 나도 그만 마음이 구름 타듯 설레이곤 했었다.

신씨 종택의 서쪽 셋문을 나와 솔통밧에 포진한 시냇대숲 사이의 골목길을 돌아나오면 동리(洞里)의 초입에 있는 천도교당(天道敎堂) 돌담곁에 수백년 묵은 팽나무가 옛날 모습 그대로 떠억 버티고 있다.

이 노거수(老巨樹)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우람한 그늘로 차양을 만들어주어 무덥던 여름날 동리

사람들의 피서를 겸한 이야기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어릴적 우리들의 구슬치기와 딱지놀이, 말타기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내 부모님과 안면 있는 이웃들은 모두 타계하고 낫설은 곳이 되어버린 어릴 적의 등지에, 그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겨주는 것은 이 노거수뿐 인가 싶어 나는 잠시 고개를 수그리고 옛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때, 노거수 바로 앞에 낮익은 모습의 낡은 이발관 싸인볼이 아직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부와 겉모습은 그리 화려하지도 않은 수수한 예전 모습의 이 이발관의 주인은 나의 초등학교 동창생 이*택으로, 그는 60년대 중반 모두가 궁핍했던 그 시절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읍내의 이발소에 취직하여 머리감기와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어렵사리 이발기술을 익혀, 지금의 이곳에서 독립한 지 장장 50년을 넘겨 오로지 동민들의 머리깎는 한길로 동네와 애환을 같이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택은 동민들의 부침(浮沈)있는 가정사를 비롯해 정지칸의 손가락까지 헤아릴 정도로 누구보다 동네사정에 밝아서, 그를 통해 여러 이웃들의 궁금했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이 한가지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처음모습 그대로 반세기를 이어 간다는 것은 웬만한 장인정신이나 나름의 확실한 인생관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 시간적 경과만큼이나 값지며 존경받아야 된다고 본다.

돌담 옆의 노거수가 우람한 그늘을 차일처럼 둘러치고, 오고가는 이웃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수백년 세월을 동리의 수호목(守護木)이 되어 온 것처럼, 이*택은 노거수에 비견(比肩)되는 동리의 과수꾼이 되어 한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것이다.

어찌 사람이 감성을 모르는 나무만 못하겠는가?

나는 이*택이 지켜 온 그 자리가 비록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할지라도, 대개의 사람이 가질 법도 한 확장성의 욕심도 절제하면서 수미일관(首尾一貫)한 그의 인생살이는 평범한 생활 속의 비범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인간 노거수랄까...

그날 내 마음속 추억의 깊은 우물속에 담겨 두었던 청소년 시절의 나의 추억여행은, 결국 동리의 초입에 버티고 있는 노거수와 이*택의 이발관에서 멈추었다.

〈남용우〉



영산 신신 이발관

33

정선공주와 연을 맺은 부곡면 구산리 당산목 느티나무

부곡면 구산리 261 의산궁(宜山宮) 뒤편에 있는 당산나무는 괴목(느티나무)나무이다. 당산나무란 신격화된 신목으로 마을 지킴이 신이 깃들여 있는 나무 즉 접신목(接神木)이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목으로 이 괴목나무는 구산마을의 역사와 연관 지을 수 있다. 구산리에서도 매년 정월 길일을 택해 부정을 타지 않은 제관을 뽑아서 당산제를 올리고 있다. 수령이 오래되어 당산목 자체는 이미 고사 한지 오래되었지만 당산 터를 중심으로 당산목을 구성하고 있는 느티나무 군락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루터기를 당산으로 하여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구산리 큰 마을 동리가 앉은 곳이 거북의 꼬리 부분이라는 설이 있어 구미(龜尾)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전부터 홍(洪)씨와 설(薛)씨들이 살았는데 정유재란 이후 의령 남씨 의산위 파의 9세손 함청당(含淸堂) 남응생(南應生)이 진도에서 피난을 와서 정착하게 되게되면서 남씨 집성촌을 이루었고 100여호로 번창하였으나 최근에는 60여호가 살고 있다. 옛 지명은 영산현 귀미리(龜尾里)인데 일제때 구산리(九山里)로 개칭하였고 구미, 유촌, 불당골, 강태골 등 4개 부락이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 경관으로는 힘차게 솟아오른



부곡 구산리 느티나무



아련산(我練山)이 주봉산(主峰山)과 세(勢)를 이루고 황새등(鶴山)이 북쪽을 가려주고 서쪽은 비룡산이 솟아 있고 남쪽으로 낙동강 가로놓여 본포교가 개통전에는 교통이 불편했던 곳이다.

정선공주와 인연을 맺은 당산목

구산리 당산목 바로 아래에는 정선공주의 신주를 모시는 의산궁(宜山宮)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선공주 사당이 여기로 오게 된 배경에는 남이장군 피화(被禍)로 동생 남초는 진도로 귀양가게 되었고 정유재란에 남초의 증손의 남인수가 왜적과 맞서다 전사하자 외아들 남응생(應生)공은 진도에서 피난을 나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1818년(순조18년) 남이장군 신원이 복구되자 남익권 등 5명의 젊은 유생들이 한양까지 걸어 1820년(순조20년) 화성능행길 노상에서 순조임금의 수레앞에 엎드려 '정선공주의 장손인 남이의 피화(被禍)로 남휘 공과 정선공주 사당에 제사를 드리는 못하니 가 3백년이 지났는데 이제 신설(伸雪)되었으므로 차 종손이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탄원하였고, 이에 순조임금은 그 자리에서 예조에 명하여 연유를 살피게 하고 경상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내려 직계후손인지 확인한 이후 1821년 2월에 마침내 불천위(不遷位) 추조사관(追造祠版 : 사당현판을 다시 달고 제사)을 윤허하였다. 1823년 9월 구산리 261번지 당산나무 바로 아래 구봉서원과 정선공주를 모시는 별묘 의산궁을 짓게 되었다.



의산궁과 농화당

창녕누정록에 구봉서원은 의령남씨 재실로 '철종(哲宗) 건(建) 고종(高宗) 기사(己巳) 휘철(毀撤), 배향(配享) 시(諡) 충경(忠景) 정승(政丞) 남재(南在), 시(諡) 소간(昭簡) 부마(駙馬) 남휘(南暉), 장군(將軍) 병조판서(兵曹判書) 남이(南怡)를 모셨다. 별묘로서 의산궁(宜山宮)에 정선공주(貞善公主)를 모셨다. 는 봉안문(奉安文)이 실려있다.



의산궁과 농화당(舊 구봉서원)

구봉서원은 1869년(고종6년)에 훼손(毀撤)되었으나 정선공주를 모신 의산궁은 별사당(別祠堂)으로 존치되었고 서원강당은 농화당(農華堂)으로 명명되어 의령남씨 재실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얼음위에서 잉어를 구한(臥氷求鯉) 고사가 얽힌 효자

진(晉)나라 때 왕상이라는 효자가 계모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엄동설한에 잉어 구하려고 얼어붙은 강에 옷옷을 벗고 알몸으로 녹이는 효심에 하늘이 감동하여 얼음이 갈라지면서 잉어 두 마리를 보냈다는 와빙구리(臥氷求鯉)고사와 같은 일화가 있는 곳은 구산리 30번 국도 앞 좌측 도로변에 보면 효자 비각이다.

효자 남두방(南斗房)은 호는 추사정(追思亭)이고 남휘(暉) 정선공주의 9세손으로 이 마을에 정착한 함청당 남응생의 증손이다. 남두방은 부친이 위독하였을 때 불과 7세의 나이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마시게 하는 등 지극한 간호를 하는 등 효행이 남달랐다.

그 후 모친 밀양 박씨가 병이 들어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어 하는지라, 겨울에 잉어를 구하러 신천진(新川津)에 가기 위해 낙동강을 건너는 중에 잉어 한 마리가 뱃전에 뛰어올랐다. 이를 보고 남두방이 이르기를“우리 모친께서 병중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구하러 가는 길인데, 이는 필시 하늘이 노모를 봉양토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뱃사공이 자기 배에 들어온 물고기라 자기 것이라



남두방 효자각

고 주장하는지라, 남두방은 “정 그렇다면 이 잉어를 강물에 다시 놓아서 다시 배로 뛰어오르지 않으면 잉어값을 갑절로 쳐서 주겠노라”고 제의를 하였다.

이에 잉어를 강물에 놓아주니, 다시 뱃전에 뛰어오르는지라, 뱃사공은 무안해하며 사죄를 하였고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던 사람들이 “이는 하늘이 내린 효자(孝子)라” 하였다.

그 후 모친이 돌아가시자,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죽만 먹으면서 3년을 지냈으며, 어릴 적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모친을 봉양하느라 부친의 3년 상(喪)을 지내지 못했다 하여, 다시 3년 더 초막에서 지내니,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고,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어, 뭇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효성에 감동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1714년(숙종40년)에 비각을 세워 그 효성을 본받도록 하였고 1905년(고종42년)에는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추증되었다.

〈남중희〉

34

장마면 고인돌을 지키는 소나무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뚜렷한 점으로 남아 있는 고인돌,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다. 보통 고인돌을 바둑판처럼 땅바닥보다 조금 띄워 네 귀퉁이에 받침돌을 놓고 덩치가 큰 돌을 올린 것은 남방식과 탁자처럼 두 개의 기둥으로 세우고 크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린 것을 북방식으로 부른다. 그래서 창녕 장마면 유리에 있는 창녕 지석묘는 남방식, 강화 화점면 부근리에 있는 강화 지석묘는 북방식을 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창녕 지석묘의 특징은 국내 대부분의 지석묘보다 덮개석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석묘들이 대체로 평지에 있는데 창녕 지석묘는 높은 구릉에 올려져 있어 360도로 돌면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고인돌 조성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문화재청의 창녕지석묘(昌寧支石墓) 안내보다 더 탐구적이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호, 장마면 유리 산 9번지에 유리마을 북서쪽의 낮은 구릉 위에는 원래 7기의 덮개돌을 갖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일제시대의 영산~박진간의 도로공사 때 덮개돌들이 파괴되어 석재(石材)로 사용되고 지금은 1개의 거대한 덮개돌(215cm×168cm×100cm)만이 원 모습대로 남아있다. 1962년 국립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덮개돌이 없어진 고인돌 중 5기가 발굴되었다. 그 중 2기의 고인돌은 매우 특이한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일대는 지표가 관상혈암(板狀頁岩)의 암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곳에 이루어진 돌널은 원래의 돌구덩이를 만든 자리에서 얻어진 판돌을 이용해 벽돌쌓기식으로 쌓아올린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A지점의 돌널은 동서 길이 90cm, 남북 폭 35cm, 깊이 30cm 가량으로 벽체의 두께는 30cm가 조금 넘는 정도였다. 돌널의 벽체와 돌구덩이[石壙]와의 공간에는 같은 암편을 차곡차곡 쌓아 돌널을 보강시켰다. 돌널의 위에는 원래 뚜껑돌[蓋石]을 덮고 그 위에 다시 덮개돌을 얹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B지점의 돌널은 A지점의 것보다 작아 동서 길이 67cm, 남북 너비 27cm, 깊이 27cm였다.

여기에 쓰인 석재는 마치 인공적으로 다듬은 것 같은 정연한 판돌을 사용해 구조가 놀랄 만큼 정교하였다. 돌널의 위에는 판돌을 이중으로 덮고 그 위에 다시 작은 판돌과 괴석을 넓게 깔아, 마치 돌무지한 것 같은 모습이였다. 이와 같은 특이한 구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고인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구조적 성격으로 보아 남한 각지에서 발견되는 소위 깎돌식[割石式] 돌널을 갖춘 남방식 고인돌에 나타난 하부구조의 한 유형으로 보인다. 양 고인돌로부터는 아무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에서 창녕 지석묘(昌寧 支石墓)를 '경상남도 창녕시 장마면에 있는 이 고인돌은 바둑판식으로 원래 7기의 고인돌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무리지어 있었는데, 지금은 파괴되어 2기만 남아 있다. 1기는 덮개돌이 있고 그 밑에 평평한 판석을 이용하여 길이 1m, 너비 0.3m의 돌상자 형태로 무덤방을 만들었다. 2기는 덮개돌을 없어졌고 하부구조만 남아있다. 길이 0.67m, 너비 0.27m의 돌상자 형태로 무덤방을 만들고 벽면과

바닥도 정연하게 쌓아 그 위에 2중으로 덮개돌을 올려 놓았다'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다. 역사와 유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답사를 떠나기 전 조사를 한다면 어느 자료를 선택하겠는가? 문화재청은 관람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더 많은 배려를 바란다.

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고인돌의 위치와 경과 및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해놓아 쉽게 이해되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고인돌만한 돌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하는 것이다. 장마면 유리 지역은 지형상 저습지가 많아 큰 산과 암반지대가 돌출되어 있는 곳도 아니다. 큰돌을 구하려면 화왕산과 영취산 자락에서 옮겨 와야 되는데 무려 5~1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 상상을 초월한다. 박물관과 수업시간에 교육용으로 보여 주는 고인돌 옮기는 방식을 적용해보면 이해불가며 매우 궁급하다. 아마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형성된 아주 특별한 이동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큰 돌이 옮겨지고 북두칠성 형태로 고인돌이 조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고인돌을 지켜보는 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부터 있었다면 수령이 적어도 2천년이 넘어야 할 것이다. 초입부터 천천히 올라가며 살펴보니 입구에서 고인돌이 있는 언덕까지 줄지어 선 소나무들이 장승처럼 서있다. 저 소나무들은 전하는 말대로 일제강점기 영산~박진간의 도로공사 때 덮개돌들을 파괴하여 석재(石材)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통로에 저절로 자라난 소나무들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당시 임의적으로 운반도로를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면 소나무가 아닌 일본향나무가 지금쯤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다.

그 상상에 이어 문득 떠오르는 또 다른 상상이 눈

앞을 스친다. 상상이 아닌 기록으로 남은 1925년 12월 5일, 남곡면(남지면), 영산면, 계성면, 장마면, 소작인들이 장마면 유리 고암(羔岩)에서 200명이 모여 불납동맹을 결의하고 시작한 항일운동이다. 이른바 전국적으로 일어난 ‘소작쟁의’를 말하는데, 1920년대 소작농과 지주간의 소작료 문제로 수많은 쟁의가 일어났다. 조선 노농 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과 같은 단체와 각지의 농민조합의 영향으로 일어났는데, 1923년~1924년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의 이후 1925년에 204건, 1926년부터 1929년까지 2,486건의 소작 쟁의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항일농민운동은 동아일보 1927년 12월 8일과 12월 10일 기사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요약하면 1927년 12월 7일 남지에서 발생하였다. 이른바 불납동맹(不納同盟)으로 영남수리조합 구역 토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의 천기농장(川崎農場) 남지 개성사(開成社)에 300여명의 군중이 몰려가 소작인들의 요구조건과 불평등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수확고의 80%~90%를 바치라고 하니, 이에 응할 수 없다며 남곡면 등 5개면 수백명이 장마면 유리에 모여 ‘소작인동맹’을 결의하고 서명 날인 한 후, 7일 오후 3시 천기농장 개성사에 300명이 집결하여 항의하였다. 그러나 지주들은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오후 7시경 일제히 소작료 불납의 사실을 발표하고 해산하였다고 전한다. 그들은 3가지 결의를 하였는데, ① 부정소작료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까지 반항할 일 ② 전수확 6할이상의 소작료는 절대지불치 못할 일 ③ 6할 소

작료에 지주가 불응하는 시에 우리는 일제히 소작료 납부통지서를 반환할 일을 결의하였다.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을 동원한 무단통치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일본인 대지주 천기농장을 상대로 불납동맹을 결의한 사람들의 투쟁정신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것은 1923년 4월 8일, ‘영산소작회’ 조직되고 영산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층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민운동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1923~1925년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나타난 소작인회와 對지주 투쟁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이정은 연구원은 ① 소작료·지세 및 공과금 문제 해결 ② 2모작 세금 거부 ③ 부정 사음(不正舍音)에 대한 성토 ④ 소작권의 무단 이동에 대한 대처 ⑤ 소작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영산소작회 활동은 영산 3.1운동 23인의 결사대의 주동적 역할을 한 구중회(具中會)와 핵심대원 김추은(金秋銀) 장진수(張振秀)가 관여한 점을 들어 3.1운동이 민중의 계급적 자각으로 이어져 농민운동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영산소작회’ 관련 동아일보 신문기사 16건 모두 살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영산소작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은 남지사람 이주목(李周穆)이었다.

이주목은 영산소작회 관련 신문기사에 6회 등장을 하는데, 1923년 4월 29일, 제1회 총회에서 남곡면위원으로 사회(司會)를 맡은 이후 상무위원 선임, 부정사음성토회(不正舍音聲討會) 연설, 1924년 10월 28일 제3회 총회에서 의장(議長) 등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이주목은 1920년 5월 28일 동아일보 마산지국 창녕분국이 남곡면 남지시에 있을 때, 주임으로 활동하며 영산소작회 관련 총 9건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923년 11월 30일 구남회(3.1운동 독립결사대)는 영산지국에 기자로 임용된 후 7건의 기사를 남겼다. 즉 이주목은 소작회 회원이며 현직기자였기에 소작인들의 권리보호와 착취되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이주목(1887년생)은 영산향교 재임(齋任) 장의(掌議)로 활동하였으며 3.1운동 23인의 결사대를 주동한 구중회(1898년생)와 김추은(1895년생) 장진수(1894년생)보다 연상으로 영산소작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출처 : 김부열, 향친회 30년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27년 12월 8일자 불납동맹의 신문기사와 같이 어떻게 장마면 유리 고암(羔岩)에서 200명이 모여 결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이다. 지금 장마 지명 유래에 의하면 고암(羔岩)이라는 지명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염시덤’이라는 명칭은 있다. 유리마을 남쪽에 있는 남유마을에 염소처럼 생긴 낮은 야산을 염시덤(羊首澗)이라 불렀는데 현재는 한자어로 ‘양수동’이라고 한다. 또 유리 북쪽 거대한 고인돌이 있는 지역을 칠성바우라고 하는데, 당시 200명의 사람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고암(羔岩)은 칠성바위로 불리는 고인돌로 보이며, 그곳에서 분기한 이유로 덧붙이자면 일제가 강제로 칠성바위를 파괴한 것에 민족적 울분을 야기시키고, 지역민들의 정신적 결기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동맹 장소였을 것이다. 재조명이 필요하다.

동맹은 의식없이 쉽게 뺏어지지 않는다. 장마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식을 싹트게 한 것은 동광학원(僮光學院)이다. 1924년 2월 25일자 조선일보에는 장마면 장가리 유지 박두표와 박두병 두사람이 동광학원을 설립하고 보통학교에 취학하기로 한 아동을 열심히수함을 칭송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옛말에 “왕대밭에 왕대나고 졸대밭에 졸대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장마면 고인돌 앞에서 있는 소나무는 앞으로 수백년 이 땅에서 일어날 새로운 미래를 지켜볼 것이다. 칠성바위가 깨어지고 밝혀지는 수난과 오욕의 역사 속에도 동광학원의 아동들이 자라나 독립과 해방된 조국을 이뤄낸 것처럼 또 다른 동맹을 위하여 새로운 ‘울산함양간고속도로’가 고인돌 곁을 지나간다.

〈김부열〉



35

동정리의 수호신 느티나무



장마 동정리 느티나무

우리 마을의 지명은 ‘장마면의 서쪽으로 이곳에 4, 5백년은 된 오래된 고목이 있다’는 설이 유래되고 동쪽에 정자나무가 있다하여 붙여진 동정(東亭) 마을이다. 정자나무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서낭나무로 전래 되고 있다.

현재 오래된 서낭나무인 느티나무는 장마면 동정리 141-2번지인 큰 마을에 군락으로 5그루 인근에 1그루가 잘 자라고 있으며 군락인 5그루 중 한그루는 6.25때 고사되어 수십 년 전에 고사된 위치에 다시 심었다. 제일 오래된 고목의 흉고둘레는 4.1m로 수령은 4, 5백년보다 오래된 6, 7백년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따름이다.

지금 마을의 주민은 65여 호에 125명 정도이지만 60~70년대에는 100호가 넘었으며 주민들도 300여 명이 넘었을 것이다.

90평생을 앞두고 이 서낭나무와 함께한 나는 지금 생각하면 고목인 서낭나무가 수백 년 동안 우리 마을의 번영과 마을 주민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최고의 쉼터였으며, 또 주민들이 안녕을 기원해온 마을의 일등 수호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릴 적 서낭나무는 봄에는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 온 동네는 물론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 봄 기운을 온 누리에 퍼지게 하는 환상을 안겨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낭나무 잎이 고르게 일제히 피면 그해 모내기는 비도 제때 내려 동시에 하고 서낭나무 잎이 피다가 멈추다가 하면 적기에 모내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풍년을 점치기도 하였다.

서낭나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래도 여름이 최고였다. 요즘처럼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 에어컨에다 선풍기 등 많은 전자기기로 온도를 내리고 냉동냉장된 음식으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면, 그때의 여름은 마을의 서낭나무 숲의 그늘이 일품이고 바람도 잘 통하는 탁 트인 공간이라 짙은 그늘과 적당한 바람이 조화를 이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휴식공간이며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방송국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하였다.

어릴 적 아침 일찍 소 풀 먹이고 오면 바로 서낭나무 밑에 소들도 메여 놓고 쉬게 하였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낭나무 그늘 한쪽에 보릿 짚을 깔고 앉아 살아가는 세상을 걱정하였고, 오수(午睡)를 즐겼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 돈이 귀하고 일감이 없던 터라 그때 일본에서 가져온 비단에 홀치기가 전국 유행이라 우리 마을 아낙네들도 홀치기도 부업을 하면서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는데 아침밥을 먹고 나면 홀치기 틀을 들고 나와 나란히 앉아 홀치기 하는 모습이 어느 중소기업의 공장을 연상케 하였으며, 또한 동네 아이들은 변변한 놀이기구가 없었던 시절이라 서낭나무인 이 느티나무는 가지 줄기까지 질겨 나무타기 놀이에 안성 맞춤이었다.

서로 높이 올라가는 잡기놀이, 타잔처럼 줄을 매달아 멀리뛰기를 하는 등 정자나무가 만능 놀이기구였기도 하였다.

가을인 음력 10월 초하룻날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빌고 주민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제(洞祭)를 올리는데 액운을 막아주는 한지와 금줄을 치고 연초 전년에 가장 깨끗한 주민 한분을 제를 올리는 유사로 정하고 유사를 보조하는 한분과 한해 내

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여 마을 주민의 대표로 정성을 다하여 제를 올렸는데 이 때가 기다려지기도 하였다.

동제를 올리는 유사는 한밤에 냉수로 목욕 재개를 하고 미리 차린 음식으로 제를 올리고 날이 새면 온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제찬을 나눠 먹기도 하였으며 한 봉지씩 나눠 주었는데 그때 먹어보는 삶은 돼지고기 맛이 일품이었고 또 이러한 때가 아니면 구경하기도 어려운 시기였다.

큰 고목이 겨울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마을 사람들은 현 가마니에 낙엽을 긁어모아 가져와 소죽을 끓이는 땀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서낭나무에 의지하는 큰 행사는 군대가는 장정들에게 군 생활이 무탈하도록 서낭나무에 빌고 가고 마을 주민들은 농악을 치며 환송하

며 안녕을 기원해 주었다.

큰 병이 난 사람들은 병원을 오갈 때 마다 서낭나무를 향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는 나약하여 마을의 거목인 서낭나무가 치병(治病)하고 제액(除厄)을 쫓아 주었다 믿는다.

또한 지금도 국도 79호선 변에 위치하여 인근 마을은 물론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듣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낭나무는 수 백 년 동안 우리 마을과 선조들의 삶을 함께 하였고 앞으로 후대 자식들의 삶도 수천 년 지켜볼 것이라 생각하여 마을의 수호신으로 영원하도록 잘 가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오도〉

장마 동정리 느티나무





36

장마 초곡 당산목 회화나무 군락

장마면 초곡마을은 장마면의 북부로 창녕읍과 계성면 사이에 폭 0.5km, 길이 5km로 비좁은 골짜기가 길게 서쪽으로 뻗어 내려 남향으로 늘어선 마을이다. 앞은 좁은 농토가 늘어서 있다. 마을 앞산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던 여통산이다. 쌍교산, 지경골에서 구마고속도로와 마구선 국도 등이 횡단하고 있다.

마을 서편에 당산나무 4그루가 있는데, 앞의 제일 큰 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 된 회나무이고, 두 번째

는 느티나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무는 회나무이다. 네 그루 모두 왼 새끼의 검 줄이 쳐져 있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면 동민들이 정성을 다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신제(洞神祭)를 올리고 있다.

약 420년전 김녕김씨(金寧金氏)가 입향하여 취락을 형성하였으므로 동신제의 유래도 약 420년 된 것으로 추정한다.

〈한삼윤〉



37

도천면 송진 쇠나루 느티나무(1)



쇠나리는 창녕군(옛 영산현) 도천면 송진리와 함안군(옛 칠원현) 칠서면 이룡리를 이어주는 나무였다. 쇠나리는 솔나리 또는 송진(松津)나루로도 불렸다. 『경상도읍지』(영산)에서도 ‘松津이 영산현 남쪽 15리 칠원현 경계에 있으며 조창(漕倉)을 영산현의 세곡을 이곳에서 봉납하였다’고 하였다. 조창(漕倉)은 세금으로 징수한 곡물을 모아 보관하고, 이를 다시 서울 경창(京倉)으로 운송하기 위해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했던 나라에서 세운 창고를 말한다. 조운(漕運)은 화폐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시기 왕조 국가의 가장 주요한 재정 기반이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거둬들이는 세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도의 창고로 운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해운(海運)이나 강운(江運)을 통하여 세곡(稅穀)을 경창으로 운송하는 제도였다. 위 『용화산하동범지도』도판에는 정확하게 금진(金津)과 송강(松江)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왜? 금진으로 불렀는지는 현재로서는 추적하기 어렵다. 추측하건데 금진(金津)은 쇠나루를 한자로 옮기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강(松江) 적힌 이유는 『용화산하동범지도』도판

에 보이듯이 소나무가 늘어선 강변이었고, 당시 낙동강 물길의 변화에 따라 모래톱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그 사이로 흐르는 냇강이 커짐에 따라 칭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지역은 남지방수제 건립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천수리와 영남수리가 만들어지기 전, 또 남지방수제(피수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남지읍 용산리부터 도천면 송진리까지는 상습침수지역이었다. 지금은 4대강사업으로 수위가 높아져 모래 백사장을 볼 수 없으나, 약 40년 전만 하더라도 남지읍 용산리에서 웃개나루가 있었던 남포동까지 길고 넓은 명사십리 모래벌판이 있었다.

그리고 구마고속도로 공사때만 하더라도 위의 도판 그림처럼 계성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쇠나리 앞으로 냇강이 흘러서 하천구역에 농사짓던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멘트 다리를 만들었다. 지금도 흔적과 다리는 남아 있다. 아래 지도를 보면 낙동강 폭도 가장 넓은 지역이라 현재 국도 5호선이 지나가는 낙동대교(길이 1,422m)는 남지철교의 3배 정도 긴 교량이다. 약간 연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전의 모래백사장이 펼쳐진 하천구역이었으나, 지금 남지쪽은 수변공원과 유채꽃 조성단지로서 이룡쪽은 강나루 캠핑장을 비롯한 종합 스포츠 레저단지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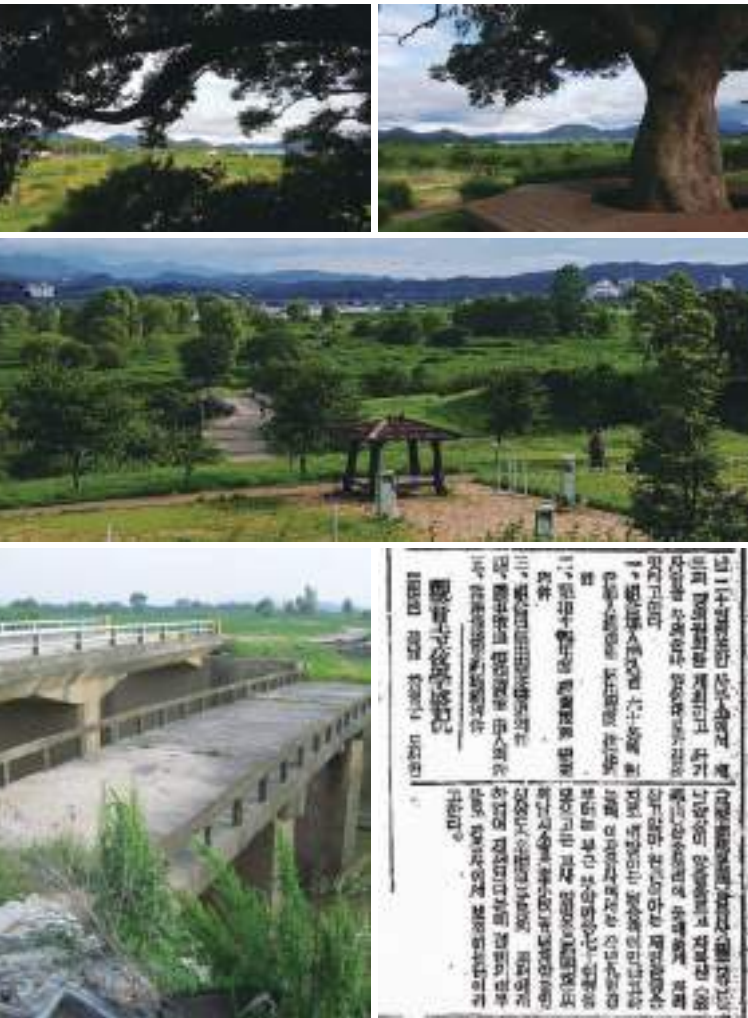
이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채택한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사업’은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와 도천면 송진·우강리 일원에 국비·지방비 등 270억 원을 들여 생활스포츠·수상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2017년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지사의 교체로 추진되지 못하여 아쉬움도 많다. 176만 8000㎡ 터에 야구장·축구장·게이트볼장·강수영장·몽돌일광욕장·수변문화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용두사미에 그쳐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다시 낙동강의 꿈이 부활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이런저런 개발계획의 부추김 속에서 송진 나루터가 있던 마을은 4대강사업(2009년~2011년)으로 철거되고 쇠나루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람들의 흔적은 없고 느티나무 몇 그루가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몇 백년이 흐르고 또 자연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기억할까? 2009년 철거되는 마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가봤을 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이 변화였다. 그러나 느티나무와 덩바위 그리고 냇강을 건너는 구조물들이 남아 있어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특별한 풍경과 아름다움 보다는 망향의 그리움과 강물의 흐름과 야생 들판을 거닐고 싶은 분들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느끼게 해줄 곳이다. 최근, 쇠나리공원을 찾



으니 동병상련일까?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중소기업이나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을 맞아 조용히 낙조를 즐기는 풍경을 보았다. 저멀리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들을 그리워하면서 향수를 달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 하는 모습과 먼 산자락 천천히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는 뒷모습에서 인지상정을 느낀다.



쇠나리 마을 좌복산에는 일제강점기에 창건했다는 ‘관음사’라는 절이 있다. 도로와 이어진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그리 높지 않은 언덕 위에 대웅전이 자리 잡고 좌우에 선방과 요사채가 정갈하게 배치

되어 있다. 절 마당을 돌아보니, 다른 절에서 원력을 쌓은 유물들이 몇 점 있어 소중하게 보관중인 것을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자료 제18호인 도천 삼층석탑과 제21호인 관음사 미륵존 불상과 제22호로 지정된 관음사 석등 등 3개의 문화재 자료가 있는 사찰이다. 규모는 작지만 낙동강을 향한 산세는 마치 강물을 마시려는 거북이 형상이다. 일제강점기 창녕군내에서 정착한 재조일본인들이 수리조합 결성 후 대농장을 가진 대지주의 힘으로 이 절을 지원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 1932년 10월 4일 기사에 보면 송진야학원이 파란곡절 속에 지역유지 조성규, 차인수, 김영우, 황영일씨의 노력으로 9월 20일부터 개학하게 됨을 알리고 있다. 특히, 1939년 8월 23일자 기사에 의하면 관음사 경내에서 부근 무학아동 70명을 모으고 교사 엄명존(嚴明尊)과 남지소 학교 5년 재학중인 신상도의 지도아래 경비 대부분은 관음사에서 보조하여 학업을 진전되게 함을 전하고 있다. 창녕군 관내 야학 중에서 특이하게 절에서 무학아동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또 1937년 12월 2일, 신문기사에도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주최로 농촌진흥강습회를 3일간 개최하였음은 당시 주지 엄명존(嚴明尊)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추하건대, 당시 송진마을은 국도 5호선이 지나가고 영남수리와 도천수리가 경계지역이며, 예부터 송진나루가 있었기에 촌락구성이 빨라 아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남지와 도천의 중간지대라 자구책으로 야학교를 운영하였을 것이다. 쇠나리마을은 사라졌으나 2012년 꿈꿔온 ‘낙동강위트플렉스’라는 용트림을 기대해보며 광활한 미개척지에 눈이 자꾸 간다.

〈김부열〉

38

도천면 송진 쇠나루 느티나무(2)



도천 송진 쇠나루 느티나무

낙동강 북쪽 강변에 있는 “송진리(松津里)”라는 마을은 옛부터 “쇠나루” 또는 “쇠나리”로 불린 나루터였다.

“쇠나루”는 “솔나루”를 말한다. 솔나루는 “송진(松津)”을 의미한다.

낙동강 건너 함안군 이룡으로 통하는 나루이다. 조선시대 나라에 바치는 세곡을 이 곳에 모아 두었다가 배에 싣고 한양으로 향해 가던 ‘조창(漕倉)’이 있었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왜의 장수 흑전장정(黑田長政)이 부산 다대진을 거쳐 김해를 공략하고 군선을 이용하여 이 곳 송진으로 도강, 선조 25년(1592년) 4월 27일 영산, 창녕, 현풍으로 진격한 영산성의 입구이다. 영산을 지키는 관문으로 관군이나 의병들이 진(陣)을 쳤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진(津)은 ‘나루(津)’이기보다 차라리 ‘군사기지(陣)’ 였다.

‘영산의 사적과 향토문화재’에 의하면, 송진(松津)은 영산 사진(四陣)의 맨 앞으로, 사군자를 따라 송진(松津), 죽진(竹津), 국진(菊津), 매진(梅津)등이 있었다고 전한다.

낙동강 범람 수해를 막는 제방이 없을 때는 홍수 시 영남수리지역과 송진들이 온통 물바다가 되곤 했다. 정자나무가 있는 이 곳은 홍수 시에도 홀로 섬 모양으로 물에 잠기지 않고 남는다. 당시 주변엔 인가도 몇 집 있었다. 정자나무가 있는 이 곳 고지대에 오르면 서쪽으로는 광활한 영남들이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는 영축산과 영산 시내까지 한 눈에 들어오며,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휘감아 흘러간다.

“호구총수”에 보면 ‘송진리’라는 지명은 없고, ‘일동리’, ‘이동리’, ‘삼동리’로 나와 있는데 그 중 도천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졌으므로 ‘삼동리’ 일 것으로 보인다. 송진리는 3개 행정 리로 송진1구, 송진2구, 송진3구 등이 있다.

예전에는 물이 잘 들고 저습지가 많아 농사짓기에 어려웠으나 영남수리조합, 송진수리조합 등 수리시설이 잘 구비됨에 따라 옥토가 되었고, 최근에

는 쇠나리 앞 하천부지 들에 각종 하우스 특작 재배로 큰 수익을 올리는 부농이 늘어났다.

강의 퇴적토가 쌓여 수변공원을 이루어 갈대가 우거지고 고라니와 왕조롱이, 너구리 등이 뛰어 놀며, 동쪽으로는 약 1km 거리에 곽 망우당이 노년에 거문고와 책을 벗 삼으며 풍월을 읊으면서 솔잎으로 양식 삼아 만년을 보내다가 66세로 숨을 거두기까지 살았다는 망우정이 있는 우강이 보인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이 쇠나루 정자나무에 오르면 앞의 낙동강 바람이 시원하게 답답한 가슴을 씻어주고, 인근 관음사에서 울려 퍼지는 스님의 목탁 염불 소리가 근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라앉게 해 준다.

이 정자나무는 수령이 약 400년이 되었고, 땅 위에는 두 그루가 있으나 뿌리는 한 나무로 연결되어 한 조상에 난 두 형제처럼 보인다.

남지에서 우강까지는 지난날에는 제방이 없는 자연 상태였다. 이후 영남수리구역 개간 시에 제방을 쌓았다. 큰 홍수 시 마다 수해 피해로 제방 보강을 해 오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04년 지금과 같이 완전한 제방을 쌓기 시작하여 무려 7년만인 2011년에 제방 1,240m가 준공 되었다.

정자나무 옆에 자그마한 돌비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삼윤〉

※ 참고자료 : 창녕의 발자취를 찾아서(2020 / 창녕향교 전교 김호일)

39

임진란과 6.25 낙동강 전투를 지켜본 남지읍 개비리 소나무



낙동강을 따라 노랑물결이 되어 흐르는 4월 유채축제가 시작되면 꼭 찾아 볼 4곳이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145호 남지철교에서 출발하는 트레킹이라면 유채꽃단지와 남지수변공원을 거쳐 용산리 ‘개비리’를 지나 박진전쟁기념관까지 20Km 한바퀴 돌아볼 것을 권한다. 특히, 남지수변공원과 박진전쟁기념관을 이어주는 관광벨트 역할을 하는 개비리는 문화재청에서 국가명승으로 지정할 만큼 아름다운 길로 많은 사람



들이 찾는 곳이다. 이곳 개비리에는 임진란과 6.25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400년전 왜군의 침략에 맞서 고장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의병과 70년전 한국전쟁의 최후 보루 낙동강 방어선에서 산화한 무명용사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금수강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흐르는 강물 따라 벼랑길 위를 호젓이 걸을 수 있는 곳이 드물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영남대로에 유명한 잔도(벼랑길)가 충주 달천, 문경 관감천, 양산 황상잔도, 작천잔도 등이 있다. 의령 낙서면이 바라보이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남지 개비리는 월상에서 이어지지 못하여 묻히고 말았다. 영아지에서 용산리에 이르는 구간은 예로부터 거유와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으로 낙동강 칠백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벼랑길이다. 개비리의 ‘개’는 강가를, ‘비리’는 벼루에서 나온 사투리로 벼랑을 뜻해, 강가 벼랑 위에 난 길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이곳은 지리산에서 발원한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로 옛부터 이곳을 ‘가야진’ 또는 ‘기음강(岐音江), 기강(岐江)’이라 불렀다.

개비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낙동강 물결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호젓한 벼랑과 소릿길이 1Km정도 늘어져 있다. 개비리 구비구비 마다 가슴 아픈 추억과 숨은 사연과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홀로 명상을 할 수 있는 무성한 대숲과 깊은 산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봄날에는 짙레향 그윽하고 5월에는 마삭줄과 백화등 꽃에서 번져오는 향기가 강물처럼 바람을 타고 두물머리로 흐르는데 몽환적인 풍경에 취하게 된다. 봄날 보름달빛이 고고한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초롱등을 들고 달빛사냥에 나서 유채꽃단지를 거쳐 개비리를 걷노라면, 강물에 비친 달빛과 그림자에 밝는 재미와 키 높은 유채꽃 사이사이 흐르는 유채향과 사랑의 밀어에 취하는 한편의 동화처럼 펼쳐진다.

약간은 무서울지 모르나 개비리 초입에서 벼랑길에 접어들면 기암괴석의 절경과 귀가 번쩍 설 정도

로 아스라한 낭떠러지의 스틸을 맛보게 된다. 부처손과 미역취같은 꽃들이 반감을 뒤로 하고 10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양진씨의 ‘회락재’ 재실이 대숲에 귀곡산장처럼 서늘한 기운 풍기고 있었다. 회락재는 낙동강이 돌아가서 나가는 물길이 있는 곳에 지어진 재실이라는 의미다.

대숲에서 잠시 쉬었다 조금만 더 걷노라면 마삭줄이 길바닥에서 늘어선 나무까지 넝쿨손처럼 타올라 태초의 원시숲의 장관이 펼쳐진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출 수 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남획과 많은 사람들과 자전거의 통행으로 마삭줄이 황폐화되어 개비리의 절경을 잃고 말았다. 그 벼랑길은 영아지 마을 초입으로 향하는데, 길의 중간쯤에는 큰 너럭바위가 나타난다. 그 바위를 자세히 보면 공룡발자국이 4~5개 보이고 고개를 들어 절벽 위를 보면 마치 부처님 얼굴형상의 기암괴석을 볼 수 있다. 다시 10분 정도 벼랑길을 걸어가면 개비리가 끝난다. 마지막 부분에는 옛부터 있었던 나무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두물머리쪽으로 바라보면 마치 바닷가에 서있는 느낌이 들 정도 낙동강 좌우의 산이 짝 찬듯하다. 지금 그곳에는 세대와 놀이문화가 달라져 그런지 여름 바닷가 해변에 많이 보이는 제트스키 보트와 카약 같은 낚시 배들이 가끔씩 보인다.



이 두물머리를 거름강(걸어온 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유래는 이전에는 낙동강의 하상이 높지 않아 그런 연유도 있겠지만, 조선시대 임진왜란시 기음강전투와 관련이 있다. 당시 곽재우는 과거를 포기하고 기강(岐江)의 돈지(遯池)에 강사(江舍)를 짓고 은거하고 있었다. 1592년 4월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4월 22일 의병을 일으켰다. 낙동강의 지리와 환경에 밝았던 곽재우는 진주성 공격과 호남진출을 의도하던 왜군의 길목을 막았다. 첫 전투가 선조 25년(1592년) 5월 4일에 있었는데, 일본군의 수송선 세 척을 부관 네 명을 이끌고 쫓아버렸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터진지 21일 후의 싸움이었고 조선군의 첫 승리였다. 5월 6일에도 수송선 11척이 등장하자 의병 13명을 이끌고 왜군을 쫓아내면서 국난극복의 전설이 시작된 첫 전승지이다.

‘기음강전투’로 불리는 ‘임진왜란사’에 보면 강물 속에 박아둔 말뚝은 이곳만이 아니라 ‘박진나루’ ‘적포나루’ 등 주요 나루마다 배가 다니지 못하게 나무 말뚝을 박고 강변에 군사를 매복해 지키게 했다고 기록돼 있다. 곽재우의 이러한 작전은 주로 낙동강을 이용해 군수물자를 전방으로 수송하던 왜군에게 보급로차단이라는 큰 타격을 줬고 관군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였던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포한 적선이 40여척이었다고 『징비록』에 기록돼 있다. 이 전투에서 곽재우 장군이 강물 속에다 말뚝을 박고 물 위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에 나무를 걸어 그 위로 사람들을 다니게 했다. 적이 볼 때 강수심이 얕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위장을 한 것에서 ‘걸어온 강’이라 불린다.

임진왜란때 이름없는 민초들과 우국충절의 정신으로 왜군을 물리치고 고장을 지켜온 분들이 임진

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후, 1607년에 합강정에서 곽재우 장군의 거처인 창암정사까지 선유하며 남긴 35인의 『용화산하동범지도』에 보면 기강(岐江)의 명칭이 보인다. 당시에도 산허리에 길을 파낸 벼랑길이 있었음을 그려 놓은 것을 볼 때, 기강전투에서 곽재우 장군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지략과 전술로 낙동강 좌우와 개비리 벼랑길을 잘 활용하여 왜군을 물리친 것으로 보인다.



개비리 위 마분산은 큰 무덤이란 뜻으로 [말무덤]이라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 무덤은 전사한 의병들의 시체를 격전장소의 산봉우리에 합장(合葬)하고 커다랗게 봉분을 지어 자손 만대에 그들의 용맹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정신을 전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곽재우장군의 말무덤이라 전하는 곳이 있는데, 도천면 우강리 망우당이 만년을 보낸 망우정 북쪽 지금 송진공동묘지 위에 1개 더 있다.

이곳 개비리는 1950년 6.25전쟁때 국난극복의 수결이 또 한번 발휘하게 된다.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 돌출부 전투’라고 불리며 8월~9월초 유엔군과 북괴군이 일대 격전을 벌인 곳으로, 여기서 공산군을 물리치고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 확보와 유엔군이 진격의 공세를 가다듬는 계기를 가져오게 한 곳이다.



그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은 ‘박진전투전적비’와 ‘박진전쟁기념관’에서 보여 주고 있지만,

최근 세계일보에서는 2020년 9월 1일 기사에서 ‘미 국방부, 혼자 북한군 250명 사살한 전쟁영웅 조명’이라는 기사를 실어 전쟁의 참상을 실감하게 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6·25전쟁 초반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1950년 8~9월) 70주년을 맞아 당시 혼자서 북한군 250명을 사살한 공로로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전쟁영웅을 재조명한다는 것이다. 1950년 8월 31일, 쿠마는 미 육군 역사에 길이 남을 전공을 세우게 된다. 당시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며 북한이 방어선을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날 쿠마가 속한 전차중대가 방어하는 지역을 약 500명의 북한군이 급습했다. 낙동강을 건넌 북한 보병부대는 소련제 T34 탱크 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미군과 북한군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쿠마의 전차중대 소속 탱크 2대가 파괴돼 쿠마 자신이 지휘하는 탱크 1대만 남게 되었다. 그때부터 쿠마의 탱크와 이를 에워싼 북한 보병 부대 사이에 거의 4시간에 걸친 접전이 펼쳐졌다. 쿠마는 탱크에 장착된 기관총을 닥치는 대로 발사했고 총탄이 다 떨어지자 권총까지 꺼내서 쏘다. 화력 측면에서 열세였던 북한군은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헤아려보니 쿠마의 기관총 사격에 목숨을 잃은 북한군 전사자만 25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신도 상처를 입은 쿠마는 전투 종료 후 후방으로 이송됐다. 그가 세운 엄청난 전공에 고무된 미군은 그를 중사에서 상사로 1계급 특진시킴과 동시에 더 이상 전투 임무에 종사시키지 않고 미 본토로 보냈다. 이듬해인 1951년 5월 10일 쿠마는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중에서 첫 명예훈장을 수여 받았다. [출처 : 세계일보]

1950년 9월, 미2사단 낙동강 돌출부 전투에 참가한 제72전차대대 소속 M26 퍼싱전차



1951년 5월, 해리 트루먼 미국대통령(왼쪽 두번째)와 어니스트쿠마상사(오른쪽 두 번째)



참전용사는 점점 사라지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더 많은 오늘이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지켜가고 있다. 이 아름다운 나라와 조국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 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산화하신 유엔군들을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비리와 남지철교는 6.25전쟁의 흔적이 살아있는 유산이다.

우주의 원리, 음과 양처럼 양면성을 가진 것이 세상사인 모양이다. 되돌아보면 개비리는 알려지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개비리의 보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보다 2008년 4대강사업에 반대하던 환경운동단체들의 구호가 더 커짐에 따라 개비리는 몸살을 앓았다. 파괴될 뻔 했던 3Km가량의 개비리 벼랑길 옛길은 보전되었지만, 개비리가 알려지기전 태초의 새벽 원시 숲같은 몽환적 소릿길의 원형을 잃었다. 환경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의해 개비리가 원형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문화재청이 국가명승으로 지정할 만큼 아름다운 길, ‘개비리’의 옛 모습을 지켜야 한다.

2006년과 2007년 문화재청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사업으로 ‘낙동강, 국난국복의 숨결을 찾아서’ - 임진란 전승지와 6.25 한국전쟁의 역사적 현장 순례와 생태학습을 추진할 때, 벼랑길과 마삭줄 숲에서 조심조심 걸으며 도란도란 웃던 아이들 얼굴이 선하다.





창녕 남지를 용산리-아지리-아지리 마을 지방도 1022호선 위치도.

경남신문 2012년 7월 10일자



경남신문 2012년 7월 10일자

2013년 3월 4일, 창녕군은 지방도1022호선 용산리~아지리 간의 단절된 구간 2.9km를 연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구간으로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남지읍에서 의령군 방향으로 가야하는 차량과 농산물류 등이 10km이상 우회함으로써 시간과 운송비 부담이 많아,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을 건의해 왔으나, 낙동강변 경관 보전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오다 경상남도의 2011~2020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투자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2016년 1월, 경남도에서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용산리에서 아지리를 관통하는 터널 개설을 비롯하여 전체 연장 3.74km, 사업비 41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준공 목표로 착공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로개설로 창녕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비리는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개비리의 전설과 원형은 잃어 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처음 개비리를 찾은 사람들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푸른 낙동강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야 할 정도로 마삭줄이 지천으로 깔려 있던 아스라한 벼랑길, 원시림을 걷는 듯 신비로운 하늘과 땅이 울창한 숲의 향연과 ‘회락재’ 감싼 푸른 대나무의 짙은 스산함이 안개처럼 돌고 도는 모래톱, 사랑하는 이와 어깨동무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외길 낭떠러지의 스릴로 어우러져 감추고 싶은 소릿길, 저만큼 서있는 이를 불러 은밀하게 속삭여도 될 것 같은 독락의 길, 감추고 내보이고 싶지 않은 애뜻함을 술술 혼자 이야기해도 반짝반짝 은빛 물결로 받아 줄 것 같은 개비리로 지켜가야 한다. 국난극복의 숨결이 흐르는 칠백리 낙동강은 의병과 무명용사의 얼과 혼이 깃든 곳이다. 은혜로운 이 땅을 지켜낸 의로운 분들을 기리며 개비리의 전설과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

〈김부열〉

40

남지 개비리길 팽나무 연리목



개비리 연리목

남지읍 신전리 946번지 남지개비리길에 수령 100년, 수고 20여m를 자랑하는 팽나무 연리목이 자리한다.

팽나무는 땅 속에서부터 두 그루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 부둥켜안고 삼밭의 쭉대처럼 하늘을 덮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대숲 사이에서 그 옛날 여양 진씨 회락재의 왕성한 기운을 머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在天願作比翼鳥(재천원작비익조) 在地願爲連理枝(재지원위연리지)”라는 시가 있다.

당나라 현종과 절세 미인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한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나오는 구절이다. 하늘에선 날개 붙은 두 마리 새가 되고, 땅에서는 가지 붙은 두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의미다.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붙어 있는 형상의 거목(巨木)이다.

척박한 암반위에 왜소하지만 끈질기게 붙어 있는 나무가 안쓰럽다.

낙동강을 따라 걷는 개비리길이 유일한 통로였던 그 오랜 옛날부터 구전설화에 의하면 이 연리목에 간절히 기도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 이뤄진다고 전해진다. 금슬 좋은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자손을 기원하면 자손을 얻고, 재물을 기원하면 재물을 얻는다고 한다.

남지 개비리길을 걷다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영험있는 연리목이 젊은 청춘 남녀에게 사랑의 불을 집혀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하기를 소망해 본다.

〈유영숙〉



41

장마 봉화마을 마구고개 팽나무

- 수 종 : 팽나무(일명 매태나무, 평나무)
- 소재지 : 창녕군 장마면 유리 1016 지상
- 높이 : 20m
- 지름 : 1m
- 수령 : 200년

이 팽나무는 약 200년전, 봉화마을(좌곤리)에 살던 박윤서 라는분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박윤서 씨는 점(点)을 잘보는 사람으로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다. 일례로 소(牛)를 도둑맞은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면 사람 표정만 보고서 “소 찾으러 왔제? 라며 어디로 찾아가면 소가 풀을 뜯고 있을거다” 라고 일러줘 그곳으로 찾아가면 틀림없이 소가 있었다고 할만큼 신비한 사람으로 전래되고 있다.

이 팽나무가 서있는 고갯마루는 마구고(마구고개 : 옛날 유리마을을 마구라고 불렀음) 또는 아리랑고개라고도 불렸으며 집에 반가운 손님이 왔다가 돌아가게 되면 이 고갯마루 까지 배웅해서 저 먼 산모퉁이로 갈 때 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하던 인정은 요즘 대문 앞 정도에서 배웅하는 모습과는 대비가 된다. 6.25 전쟁 무렵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을 때는 온 동네 주민 전부가 나와서 무사귀환을 빌고 만세삼창으로 환송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 팽나무를 거쳐서 상여가 지나가면 젊은 사람이 죽는다는 속설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고갯마루를 통과하는 상여는 없다. <박영국>



42

장마 봉화마을 당산목 느티나무

- 수 종 : 당산나무
- 소재지 : 창녕군 장마면 유리 1142 지상
- 높 이 : 20m
- 지 림 : 2m
- 수 령 : 약 200년

이 당산나무는 약 200년의 수령으로 추측되지만 어느 때 누가 심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봉화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매년 음력 정월보름과 구월보름의 2회에 걸쳐 새벽녘에 산신제와 함께 동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농사풍년을 기원해 왔다.

동신제 제관은 집안에 흉한 일을 당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선정했고 제관은 동신제 일주일전 부터는 동네 주민들과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수렴청정으로 심신을 정화하며 공을 들여야 했다.

100근(약60kg)의 돼지를 잡아 동민들이 동신제 후럼 잔치를 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시류에 편승해서 동신제를 1회로 줄였고, 정월 동신제는 추위와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9월보름으로 택일하였으며

제수용 음식도 줄이고, 제관도 매년 마을이장이 당연직으로 임하고 있다.

〈박영국〉



43

장마 하강마을 당산목 느티나무

- 수 종 : 당산나무
- 소재지 : 창녕군 장마면 강리 860 (임야) 지상
- 높 이 : 25m
- 지 름 : 3,5m
- 수 령 : 약 400년

이 당산나무는 장마면 소재지, 강리에 위치해있으며 식재년도나 이력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다.

수령이 오래되어 울창하고 수려하던 원 나무형체는 많이 괴사하여 세월의 흔적을 남겨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옛날에는 음력1월15일, 9월15일 2회에 걸쳐 마을의 안위와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동신제를 지냈으나 약 5년 전 부터는 1월 15일에 한하여 동신제를

지내고 있다. 제관도 서로 맡지 않으려 해서 대를 잡아(미신의 일종) 제관을 지명하고 했으나 그마저도 반대가 심해 근래에 와서는 마을이장이 의무적으로 제관을 맡아 제수음식까지 장만하고 있다.

제수음식이나 동신제횃수 등 모든 것을 축소하여 제사에 임하는 것은 시류에 편승한 추세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박영국〉



44

장마 하동마을 당산나무

- 수 종 : 당산나무
- 소재지 : 창녕군 장마면 1247(임야) 지상
- 높 이 : 20m
- 지 름 : 3m
- 수 령 : 약 300년

이 당산나무는 정확한 식재 이력이나 역사에 대하여 밝혀진건 없다. 하동마을의 수호신이며 매년 정월보름날 하동마을의 동신제가 진행되었었다. 동신제의 의미가 그러하듯 동네주민의 안녕과 자손번식, 풍년농사를 기원해오며 전 동민이 하나같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원주민이 외지로 떠나거나 노령으로 사망하여 실제 원주민은 1 가구

뿐이고 외지인들의 인구유입으로 채워져 동신제는 폐지가 된 상태다. 숲이 울창하고 수려하여 인근 마을의 주민들도 농사철이면 그늘로 찾아와 참이나 식사를 하기도하고 쉼터로 이용할 만큼 각광을 받고있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박영국〉

집 · 필 · 후 · 기

산고 끝에 한 권의 책이 완성됐습니다.
숨겨진 구슬을 찾아 이리 꺾고 저리 꺾다 보니 아름다운 보배가 됐습니다.
책의 바탕은 나무이지만 주제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나무와의 소중한 인연으로 사람들이 살아온
다양한 얘기들을 집할 수 있게 되었음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책의 과거는 나무입니다.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
이 한 권의 책이 미래세대에게 창녕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다른 마중물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글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로 써야 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서 있는 쪽으로 사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라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나무는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귀를 열지 않으면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향토사 연구위원님과 집필위원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신 덕분에
그나마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불무허실(不無虛實)’이라 했듯이 완성하고 보니 누락된 부분과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번 기회를 통해 숨은 향토사의 일부분이나마 별을 쪼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습니다.
더 다듬고 더 채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습유보궐(拾遺補闕)’의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수시로 채록해 두었다가 기회가 될 시 보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무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란 ‘나(我)’가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我)’를 버릴 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我)’를 버리는 존재가 ‘나무(無我)’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동안 집필과 책 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이수영 원장님과 균형정 및 의회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락을 함께해 주신 향토사연구위원님과 회원가족,
특히 사진작가님, 집필진과 문화원 실무자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 12.

창녕문화원향토사연구소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위원〉

(소장) 한삼윤 / (부소장) 남중희 / (고문) 김동주, 하정구
(위원) 김부열 / 김화영 / 노용호 / 박동주 / 박태명 / 배종만
서종형 / 성낙은 / 성두철 / 성위경 / 오두환 / 우오도
유영숙 / 이규엽 / 이석중 / 이선조 / 이선중 / 이용호
임흥영 / 장후돈 / 전용보 / 정윤욱 / 최완규 / 편상동

스토리텔링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

2021년 12월 인쇄

2021년 12월 발행

| 발행처 | 창녕문화원

| 발행인 | 원장 이수영

| 편집인 | 창녕문화편집위원회

| 제 작 | 도서출판 일성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9

Tel 055) 243-6788

E-mail ilsungpr@hanmail.net

昌寧文化院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길 10

Tel 055.533.3777 **Fax** 055.533.3775

E-mail cc635cn@hanmail.net

- 이 책은 창녕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비매품>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